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최효미·이정원·조미라·우석진·김태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Ⅱ)

저 자 최효미, 이정원, 조미라, 우석진, 김태우

구 진 연구책임자 최효미(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미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우석 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기타 기여자 연구협력진 **이 지 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25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승립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75-6 [93330]



•• • 머리말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와 정부 지원금 수 혜 여부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는 기초 통계 자료로, 2023년 현재 기준 영유 아기 양육비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지난 5년 동안(2018~2022년) I 기 조사 연구가 잘 마무리 되었으며,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여 향후 5년 동안(2023~2027년) II기 조사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2023년 올해 연구에서는 II기 1차년도(전체 기준 6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의 수행과 2022년까지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조사 설계 및 조사의 수행,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통계 원자료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었으며, 심층 분석 주제로 아동수당의 효과성과 코로나19 시기 보육서비스 가용성이 모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는 본조사 표본(영유아 가구)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부스터 표본(무자녀 가구 및 임산부 가구)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므로, 향후 정책적 요구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표본 설계에 있어 연동패널 방식을 준용하고 하고 있어, 패널 조사 자료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매해 신생아(당해년도 상반기 및 전년도 하반기 출생아) 표본 가구를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영유아기 전 연령을 해마다 조사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기존(패널) 표본 가구 조사 실패로 인한 표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매해 대체 표본을 구축하여 표본 마모를 보완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표본 구축 방식에 따라, 2018년 조사 원표본 가구 수(1,648가구) 대비 125가구가 많은 1,773가구(아동 기준 2,422명)가 2023년에 조사되었다.

보고서의 질 제고를 위해 따끔한 충고와 자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 까다롭고 민감한 설문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신 패널(영유아 가구) 응답자 및 특히나 어 려운 시간을 쪼개어 응답해주신 신생아 표본 가구, 올해 한시적으로 조사되었음에 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무자녀 가구와 임산부 가구의 응답자분들 모두에게 깊 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방대한 분량의 연구일 뿐 아니라 조사 전반에 걸쳐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까다로운 연구임에도 열성을 다하여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진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 •• 일러두기

- □ 『KICCE 소비실태조사(II)』는 'KICCE 소비실태조사' II 기에 속하는 연구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진행될 예정인 연속과제임.
 - 'KICCE 소비실태조사' I 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된 바 있음.
 - 'KICCE 소비실태조사' Ⅱ기 연구는 Ⅰ기 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시의성 있는 자료를 매년 조사하기 위하여 기획됨.
 - 연구과제명이 매년 변동함에 따르는 혼선을 줄이고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차수의 구분은 'KICCE 소비실태조사' Ⅰ기와 Ⅱ기를 망라하여 조사 뒤에는 조사년도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1)
 - 예: Ⅱ기 1차시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전체 조사 기준 6차년도에 해당하는 조사이며,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으로 표기함.

연구 기수	조사 차수	조사 년도	연구과제명	조사명
	1차	2018년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
	2차	2019년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
17	3차	2020년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Ⅲ)	KICCE 소비실태조사_2020
	4차	2021년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N)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5차	2022년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V)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비기	1차	2023년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주: 1기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총괄한 연구과제명을 기준으로 정리.

¹⁾ 기존 표기 방식은 '1차년도' 등으로 조사차수를 표기하는 형태였으나, Ⅱ기 연구가 시작되면서 Ⅰ기 2차년도 연구와 Ⅱ기 연구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임.

요약	1
Part I 총괄 개요	19
I. 서론	2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33
PartⅡ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 설계 및 개요	41
Ⅱ. 연구 배경	43
1. 저출생 현황 및 무자녀 가구 현황	45
2. 영유아 가구 육아 지원 정책 동향	57
Ⅲ.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 개요	79
1. 조사 설계	81
2. 설문의 구성과 변화	95
3. 조사 결과 및 응답자 특성	114
PartⅢ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2) 자료를 활용한 분석	넉 141
Ⅳ.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2) 주요 통계 및	
데이터 특성 비교	143
1. 주요 통계 현황 :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	145
2. 영유아 가구의 정부지원금 수급 패턴 분석	160
3. 'KICCE 소비실태조사'데이터 특성	
4. 소결	196

V. 아동수당과 양육비용 부담 경감	199
1. 아동수당 정책 변화와 연구 필요성	201
2.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3. 아동수당의 양육비용 경감 효과	209
4. 소결	
VI. 코로나 확산기에 자녀 돌봄 서비스의 가용성이	
영유아 양육모의 노 동공급 에 미친 효과	223
1. 연구 필요성	225
2. 코로나 확산 시기에 보육정책	226
3. 모형과 자료	236
4. 추정 결과	239
5. 소결	242
PartIV 결론 및 제언	245
Ⅷ. 결론 및 제언	247
1. 'KICCE 소비실태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	249
2. 심층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언	260
참고문헌	267
Abstract —	270
Abstract	2/3

•• •• 표 목차

$\langle \Xi$	I -3- 1>	부모 심층 면담 실시 현황32
⟨丑	I -3- 2>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33
⟨丑	I -4- 1>	선행연구에 나타난 무자녀 가구에 대한 조작적 정의34
$\langle \Xi$	I -4- 2>	양육비용 용어 변경
$\langle \Xi$	I -4- 3>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범주(2023년 기준)38
⟨丑	-1-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2013~2022년)45
$\langle \Xi$	-1- 2 >	장래 합계출산율을 포함한 합계출산율 추이(1970~2050년)46
$\langle \Xi$	II−1− 3>	전체 인구 및 영유아(0~6세) 수/비중(1993~2022년)48
$\langle \Xi$	-1-4>	총인구, 인구구조, 인구성장율 추계(2020~2060년)49
⟨丑	II−1− 5>	OECD 주요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1970년과 2021년의 비교51
⟨丑	II-1- 6>	OECD 주요국가들의 합계출산율 추이(1980년~2020년)53
⟨丑	-1- 7 >	40~44세 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 비중
		(1990년대, 2010년 전후)54
⟨丑	II-1- 8>	20~49세 기혼여성의 무자녀 가구 비중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55
⟨丑	II-1- 9>	15세이상 기혼 여성의 출생 자녀수별 비중(2020년)56
⟨丑	II -1-10 >	15세이상 기혼 여성의 연령별 무자녀 가구 비중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56
⟨丑	II-2- 1⟩	남성 육아휴직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연혁61
⟨丑	II −2− 2>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61
⟨丑	II-2- 3>	가족돌봄 관련 휴가/휴직/근로시간단축 제도64
⟨丑	II -2- 4>	유연근로시간제 유형별 상세 내용65
⟨丑	II-2- 5>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 사업 지원 대상_168
⟨丑	II-2- 6>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 사업 지원 대상_269
⟨丑	II-2- 7>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 사업 지원 대상_370
⟨丑	II-2- 8>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 사업 지원 내용71
⟨丑	II-2- 9>	저출산 대응 주거관련 금융 지원 제도73
⟨丑	II -2-10>	임신·출산기 임금근로자 시간 지원 정책 ······76

纽	-2-11>	임신·출산기 주요 정책 지원 ···································
田〉	-1- 1>	면접원 교육 일정 및 실시 현황83
田〉	III-1- 2⟩	심층면담 대상자 특성84
田〉	Ⅲ-1- 3 〉	연차별 조사 대상 출생연도(막내 자녀 연령 기준)88
田〉	-1-4>	B형 설문 모집단(2021년 기준) 및 표본 배분(안) :
		신생아 모 연령 현황 기준90
田〉	III-1- 5⟩	B형 설문 모집단(2021년 기준) 및 표본 배분(안) :
		신생아 출생 순위 현황 기준 (소프트쿼터 적용 기준)91
田〉	III-1- 6⟩	C형 설문 모집단(2020년 기준) 및 표본 배분(안) :
		무자녀 기혼여성 인구 현황 기준92
田〉	Ⅲ-1- 7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 설계안 요약94
田〉	III-2- 1⟩	본조사 설문의 개요 (1~6차년도)96
田	III-2- 2⟩	KICCE 소비실태조사 주요 설문 변경 내용 및 사유
		(2019~2023년)98
田	III-2- 3⟩	가구용 설문 비교 (1~6차년도) :
		가구 특성 및 가계경제·양육비 ·····102
田〉	III−2− 4>	가구용 설문 비교 (1~6차년도) :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106
田	III-2- 5⟩	아동용 설문 비교 (1~6차년도) : 영유아109
田〉	III-2- 6>	본조사와 부스터 조사 설문 비교113
田	Ⅲ-3- 1 〉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3년)
		표본 가구수 및 추적률115
田	III-3- 2⟩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3년)
		영유아 가구(본조사) 표본의 특성117
田〉	III-3- 3>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의 자녀수별 표본(2018~2023년) \cdots 118
田〉	III-3- 4⟩	지역규모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18~2023년) \cdots 119
田	III-3- 5⟩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 가구 표본 :
		막내자녀 연령별120
田	III-3- 6⟩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의 가구 표본 특성 :
		가구특성 및 표본 특성별121
田〉	III−3− 7>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전체 표본 가구 특성 ·····122
田	III-3- 8⟩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전체 표본 가구의
		부(남성) 특성123

纽	III-3- 9>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전체 표본 가구의
		모(여성) 특성124
〈丑	III−3−10⟩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전체 표본 가구의
		부(남성) 근로 특성124
〈丑	III-3-1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전체 표본 가구의
		모(여성) 근로 특성125
(田	III-3-1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전체 표본 가구의
		부부 결혼 기간126
〈丑	III-3-13⟩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 영유아 가구 표본 기준127
纽	III-3-14>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 영유아 가구 표본 기준(명목소득 기준) $\cdots \cdots 128$
〈丑	III−3−15⟩	세목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월평균 소득 변화 : 영유아 가구 표본 기준(명목소득 기준) \cdots 129
纽	III−3−16⟩	가구특성별 양육 관련 공적이전소득 수급 비중(2023년)130
田〉	III−3−17⟩	영아수당 수급 여부 및 총 수급 횟수(2022년, 월평균)131
田〉	III-3-18⟩	부모급여 수급 여부 및 총 수급액(2023년, 월평균)132
田〉	III-3-19⟩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전체 표본의
		월평균 가구소득133
(田	III -3-20 >	세목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전체 표본의
		월평균 가구소득134
(田	III-3-21⟩	소비실태조사(2018~2023년) 아동 자료 특성 변화 : 성별 \cdots 134
(田	III-3-22>	소비실태조사(2018~2023년) 아동 자료 특성 변화 :
		연령(전체 아동용 설문 조사 표본 기준)135
〈丑	III -3-23>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현황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136
(田	III-3-24>	조사방식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 가구 표본 특성138
(田	III -3-25 >	조사방식 및 표본 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 가구 표본139
田〉	III -3-26 >	조사방식 및 표본 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 기준139
仕	IV-2- 1⟩	정부지원금 수급 패턴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특성 :

		아동연령, 정부지원금 수급조사 기준시기, 조사참여 아동수 … 163
⟨± IV-2	2- 2>	시점별 정부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 2015~2017년생 (1) … 167
⟨ H IV-2	2- 3>	시점별 정부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 2015~2017년생 (2) ·· 168
⟨± N-2	2- 4>	시점별 정부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 2015~2017년생 (3) ·· 169
⟨± N-2	2- 5>	시점별 정부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 2018~2021년생 (1) … 173
⟨± N-2	2- 6>	시점별 정부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 2018~2021년생 (2) ·· 174
⟨± N-2	2- 7>	시점별 정부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 2018~2021년생 (3) ·· 175
<## N-3	3- 1>	연령별 영유아 수 및 비중 : 주민등록인구177
⟨± N-3	3- 2>	연령별 영유아 수 및 비중 : KICCE 소비실태조사
		(가중치 미적용)178
<## N-3	3>	연령별 영유아 비중 비교 : 2022년 기준178
⟨± N-3	3- 4>	다자녀 가구 비중180
<## N-3	3- 5>	추적조사 표본여부별 다자녀 가구 비중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181
⟨± IV-3	8- 6>	맞벌이여부별 다자녀 가구 비중(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 181
⟨± IV-3	3- 7>	맞벌이 가구 비중182
<## N-3	8- 8	가구주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2021년 기준)183
⟨± N-3	3- 9>	가구주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2021년 기준)184
<## N-3	3-10>	연도별 가구소득 비교(명목비용)186
<## N-3	3-11>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구간별 비중 (명목비용, 2021년 기준) ~187
⟨± IV-3	3-12>	영유아 가구의 맞벌이 여부 및 총 자녀수별 월평균 가구소득
		(명목비용, 2021년 기준)188
<## N-3	3-13>	연도별 가구 생활비 지출액 비교(명목비용)189
⟨± IV-3	3-14>	영유아 가구의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명목비용, 2021년 기준)190
<## N-3	3-15>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비목별 지출 비중
		(명목비용, 2021년 기준)191
⟨± N-3	3-16>	영유아 월평균 양육비용(명목비용, 2021년 기준)193
⟨± N-3	3-17>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195
⟨± V-1	- 1>	2018~2023년 아동수당 제도 변화202
⟨± V-2	2- 1>	2018~2023년 아동수당 제도 변화207
⟨± ∨-3	3- 1>	영유아 가구의 아동(자녀)당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패널 임의효과 모형)211

〈丑 Vー3- 2〉	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아동 연령 집단별213
⟨∄ ∨-3- 3⟩	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맞벌이 여부별 … 213
⟨⊞ ∨-3- 4⟩	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가구소득별214
〈丑 Vー3- 5〉	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총 자녀수별 215
〈丑 Vー3- 6〉	아동수당이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전체 자녀
⟨丑 ∨-3- 7⟩	아동수당이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유아기 자녀216
⟨∄ ∨-3- 8⟩	아동수당이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초등1~2학년 자녀217
〈丑 Vー3- 9〉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패널 임의효과 모형)219
⟨丑 ∨-3-10⟩	아동수당이 비목별 가구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220
⟨± VI-2- 1⟩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보육정책230
⟨Ħ VI-2- 2⟩	코로나19 대응 재정 돌봄부담가구 지원 현황231
⟨± VI-3- 1⟩	요약통계량237
⟨± VI-3- 2⟩	비국공립 어린이집 사용 현황238
⟨± VI-4- 1⟩	OLS 기준모형 추정결과239
⟨± VI-4- 2⟩	기준 패널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240
⟨± VI-4- 3⟩	패널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241
⟨± ∨ -4- 4⟩	패널 모형 강건성 검정242
⟨± ∨ -1- 1⟩	'KICCE 소비실태조사'자료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및 추진 일정(안)249
⟨± VII-1- 2⟩	연령별 영유아 비중 : 신구 가중치 적용 시 변화251
〈丑 VII−1− 3〉	'KICCE 소비실태조사'데이터 구성252

•• •• 그림 목차

[그림	I -2- 1] 2023년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보고서 구성)2	29
[그림	I -2- 2] KICCE 소비실태조사(II) 연차별 연구 주제(추진 계획안) ······3	30
[그림	-1-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2013~2022년) 4	16
[그림	11-1- 2] 장래 합계출산율을 포함한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50년)4	17
[그림	-1- 3] 전체인구 및 영유아(0~6세) 수/비중(1993~2022년)4	8
[그림	-1- 4] 연령구간별 비중 추계(2020~2070년) 5	0
[그림	II -1 - E] OECD 주요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1970년과 2021년의 비교 5	52
[그림	11-1-6]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무자녀 가구 비중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5	5
[그림	-2- 1] 부모급여 제도 도입 전후	59
[그림	-1- 1] 본조사(A형 설문) 조사 절차 ······8	32
[그림	-1- 2] 부스터표본(B형 설문 및 C형 설문) 조사 절차 ·······8	34
[그림	Ⅲ -1-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표본 구성 ······8	35
[그림	-1- 4]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 및 추가 방식	
		(막내자녀 연령 기준)8	36
[그림	Ⅲ-1- 5] KICCE 소비실태조사 대체표본 구축 원칙 ······8	37
[그림	Ⅲ -3- 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2년)	
		표본 가구 수 및 추적률11	6
[그림	III −3− 2] 조사방식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 표본 비중13	8
[그림	IV−1− 1] 2018-2022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실질비용, 영유아 가구)14	6
[그림	IV-1- 2]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맞벌이 여부별(실질비용, 영유아 가구)14	7
[그림	IV-1- 3]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가구소득 수준별(실질비용, 영유아 가구)14	8
[그림	W-1- ∠] 영유아 가구의 식비 지출 특성: 엥겔지수 14	9

[그림	IV-1- 6]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특성: 엔젤지수 150
[그림	IV-1- 7]	2018~2022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151
[그림	IV-1- 8]	2022년 비목별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및
		주요 비목 지출액의 변화152
[그림	IV-1- 9]	2018-2022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153
[그림	IV-1-10]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153
[그림	IV-1-11]	2018-2022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154
[그림	IV-1-12]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맞벌이 가구 여부별155
[그림	IV-1-13]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
		가구소득 수준별156
[그림	IV-1-14]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
		총 자녀수별156
[그림	IV-1-15]	2018-2022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률 변화157
[그림	IV-1-16]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시간158
[그림	IV-1-17]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 평균 이용비용159
[그림	IV-2- 1]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배열의 누적 및 분포 plot :
		2015~2017년생 ······166
[그림	IV-2- 2]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배열의 누적 및 분포 plot:
		2018~2019년생172
[그림	VI-2- 1]	시·도별 코로나19 확진자수227
[그림	VI-2- 2]	코로나19 시·도별 누적 천 명당 확진자수
		(2020년 5월 기준)228
[그림	VI-2- 3]	긴급보육 이용률(2020년 5월 기준)229
[그림	VI-2- 4]	코로나19 확산과 엄마의 고용성과(2020년)232
		코로나19 확산과 엄마의 노동시간(2020년)233
[그림	VI-2- 6]	비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비율과 모의 고용성과(2020년) 234
[그림	VI-2- 7]	연도별 양육모의 노동시간(2019-2020년)235

[그림 N-1- 5] 영유아 가구의 주거비 지출 특성: 슈바베지수 ·······149

[그림	VI-2-	8]	지역별	연도발	별 양육모	의 노동,	시간(20	19-20)20년))	···· 235
[그림	VII-1-	1]	'KICCE	소비	실태조사	' 공개용	데이터	작업	추진	계획(안)	255
[그림	VII-2-	1]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지원 인	현령 확다	H(안)·			262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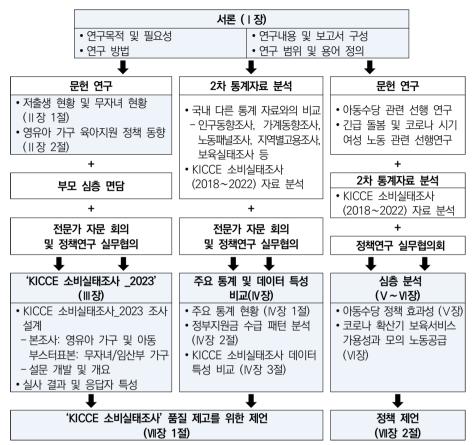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소비실태,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통계자료임.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에 걸쳐 I기 연구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II기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임.
 - 2023년도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1차년도²⁾ 조사(KICCE 소비실태 조사 2023) 수행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함.
- □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 연구는 지속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추적 관찰함으로써 I 기 연구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I기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집단과 변화하는 육아 환경을 고려한 조사 설계를 통해 보다 풍부하고 다각적인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은 크게 본조사와 부스터표본에 대한 부가조사로 구분되며, 부스터 표본은 무자녀 가구와 임산부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됨.
- □ 이에 더하여, 조사 자료의 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I기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2)'를 활용한 심층 분석과 데이터 특성 분석을 실시함.

나.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 2023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조사 수행과 I 기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한 데이터 품질 점검 및 심층 분석으로 구 분됨.
 - 2023년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²⁾ 전체 기준 6차년도.



주: 음영 처리된 면은 주요 연구 내용(괄호는 보고서의 장/절)을 의미하며, 백색 면은 연구 방법 중심의 기술임.

다.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 무자녀 가구

- 이 연구의 무자녀 가구는 조사시점 기준 현상적인 상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즉, 이 연구에서 무자녀 가구는 혼인지속기간이나 출산 계획 등과 무관하 게 조사 시점 당시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아, 생애 주기 상에서 일시적인 무자녀 상태인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함.
 - 기혼 유배우자이면서 여성의 연령이 20~44세인 경우로 제한을 두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기준 아이가 없는 가구로 무자녀 가구를 정의함.

- □ 양육비용 산출 기준 및 조작적 정의
 - I기 연구에서 용어 사용에 혼선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양육비용에 대한 용어 정의를 일부 수정 변경하였음.

2022년 이전 연구		2023년 연구	조작적 정의		
총 양육비용	\Rightarrow	가구당 양육비용	가구 내 모든 자녀(초등 이상 자녀 포함)에 게 소요된 전체 양육비용 *자녀별 양육비용의 합산액		
영유아 양육비용	\Rightarrow	(삭제)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 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Rightarrow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영유아 자녀별로 해당 영유아 자녀 한명을 양육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		
(신설)	\Rightarrow	자녀별 양육비용 (별도로 산출 안함)	가구 내 각 자녀별로 해당 자녀(자녀 연령 무관)를 양육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		

주: 자녀별 양육비용은 가구당 양육비용 산출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별도로 산출 결과를 보고하지는 않음.

- 양육비용에 포함되는 비목은 식비(외식비 포함),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어린이)보험 총 10개 비목(세목포함 16개)임.
- □ 육아서비스 범주 및 분류
 -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육아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구분	육아서비스 종류	설문종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상 기관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④ 반일제이상 기타 기관(유아스포츠단, YMCA 등)	
(시간제) 교육 서비스	① 문화센터, ② 학원, ③ 방문형 학습지, ④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⑤ 비방문 학습지, 교구활동교육 ⑥ 개인 및 그룹지도, ⑦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⑧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아동용
기타 육아서비스	① 일시보육, ② 키즈카페, ③ 비정기 체험활동	아동용
개별돌봄서비스	①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및 기타 공공기관 지원), ② 민간육아도우미(학습시터, 놀이시터 포함), ③ 조부모, ④ 조부모 이외 친인척 돌봄	가구용
육아시간 지원서비스	(4) 가솔목모으신/가솔목모으가/가솔목모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수	
부모직접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① 부모 직접 돌봄, ② 미디어 활용시간, ③ 육아물품 대여서비스(장난감, 도서 대여 등), ④ 육아물품 제공서비스(교재/교구 꾸러미 등), ⑤ 양육지원_부모지원 서비스(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등)	가구용

주: 육아서비스 종류 및 범주는 조사 차수에 따라 약간씩 변동되었으며, 특히 2019년~2021년 조사에는 초등 돌봄 관련 육아서비스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음.

2. 연구 배경

가. 저출생 현황 및 무자녀 가구 현황

- □ 출산율 및 인구 변동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13년 1.19명에서 2015년에는 1.24명으로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6 년부터는 하향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하락함.

□ 무자녀 가구 현황

- 2005년 기준 한국의 무자녀 가구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저출생 현상이 심화된 최근 자료를 사용한다면 무자녀 가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
- 박시내·박라나·박혜균(2020: 28~29)에 따르면, 20~49세 기혼여성의 무자 녀 가구 비중은 2015년 기준 평균 11.2%였음.
-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표본20%를 통해 최근의 무자녀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무자녀 가구의 비중은 8.4%였음. 이때 무자녀 가구는 15세 이상 기혼여성 중에서 출생자녀수가 0명인 여성의 비중을 의미함.

나. 영유아 가구 육아 지원 정책 동향

- □ 2023년 육아 지원 정책의 변화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설문에 새롭게 반영된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봄.
 - 연구 완료 시점(12월말)에 변경된 제도가 있을 수 있으나, 보고서에 첨부된 정책 현황은 추후 조사 결과와의 연계 분석을 고려하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조사 설계 당시 기준의 정책 현황을 기준으로 제시함.

□ 부모급여

- 2023년 육아 지원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만0세와 만1세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의 도입을 꼽을 수 있음.
-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 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 수당 제도임.

□ 육아시간 지원 정책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휴가·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제도,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도(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 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재택근 무제 등의 제도 현황을 고찰함.

□ 저출산 대응 주거지워 정책

- 연구 목적에 맞추어 가구의 생애주기 상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이 높은 시기, 즉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영유아 가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을 선별하여 정리함.
- 크게 주택의 매입 혹은 임대 지원 정책과 저출산 대응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봄.

□ 임신·출산기 지원 정책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임산부 가구 대상 설문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으로, 임신·출산기 임금근로자 시간 지원 정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국민행복카드)과 같은 임신·출산기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주로 보건/의료 지원 정책 현황을 제시함.

3.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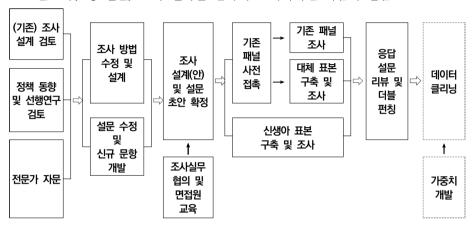
가. 조사 설계

□ 조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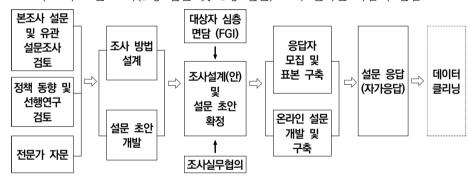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이 I 기 조사와 갖는 가장 큰 차이는 부스터 표본의 구축임.
 -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인 본조사는 I기 조사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본조사(영유아 가구)의 대조군에 대한 부가조사 혹은 본조사의 부족한 표본을 보강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가 표본(부스터 표본)을 구축.
 - 2023년에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대조군으로 무자녀 가구와 임산부 가구에

대한 부스터 표본 구축 및 조사를 실시.

- 본조사(A형 설문) 조사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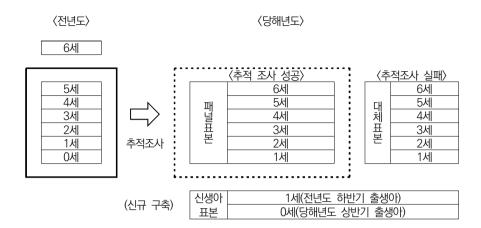


- 부스터 표본 조사(B형 설문 및 C형 설문)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음.



□ 표본 구축

- 본조사 표본은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에 성공한 표본(패널 표본)과 전년도 조사 표본에 대한 추적 조사에 실패하여 새롭게 대체한 대체표본, 당해연도 상반기 출생아(0세)와 전년도 하반기 출생아(1세)로 구성된 신생아 표본으로 구분됨.
 - 본조사 표본의 표본 추적 및 추가 방식은 다음과 같음.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부스터 표본의 목표 표본 수는 임산부 가구 500가구와 무자녀 가구 800가구임.
 - 임산부 가구의 표집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신생아 통계를 활용하여, 신생아의 모 연령과 지역을 고려하여 비례 할당. 단, 첫째아를 임신한 경 우와 둘째아 이상을 임신한 경우의 가구 소비지출 행태 및 육아 지원 정책 에 대한 인지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이 표집 과정에 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임신한 자녀의 출생순위를 고려하여 최소 할당 수를 설정.
 - 무자녀 가구 표본은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자녀가 없는 기 혼 여성의 수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시도) 및 기혼 여성의 연령 등을 고려 하여 제곱근 비례 할당 방식으로 배분함.

□ 조사 방법 및 조사 시기

- 본조사(영유아 가구 조사)는 종이설문(PAPI)을 기반으로 한 대면 면접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설문의 유치 및 전화 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혼합조사 방법을 적용함.
 - 조사 시기는 5월 20일부터 8월 20일임.
- 부스터표본에 대한 조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한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임.
 - 조사 시기는 6월 15일부터 8월 20일임.

나. 설문 구성 및 변화

- □ 본조사(영유아 가구)의 경우 육아 가구의 일반 특성 및 가구소득, 소비 지출(가 계 지출), 양육비용,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등은 매해 지속적으로 반복 조사되는 설문 항목임.
 - 본조사 설문은 가구용 설문과 아동용 설문으로 구분되며, 아동용 설문은 가 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 대해서 각각 실시됨.
 - 2023년 조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한 문항들을 제외하였으며,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 문항을 추가.
 - 유연근로 관련 설문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주거 관련 설문 문항을 추가함.
- □ 부스터 표본 설문의 경우는 아동용 설문은 하지 않고 가구용 설문만 조사함.
 - 본조사(영유아 가구)와의 비교를 위해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임산부 가구에게 별도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형태로 설문을 구성.
 - 임산부 가구 조사 설문 중 가구특성, 부모특성, 가구의 소득,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 주거관련,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의견, 삶의 만족 도는 본조사 문항을 그대로 가져오되 일부 세부문항을 임산부 가구에 맞게 조정하거나 추가.
 - 무자녀 가구 조사에서 가구 관련 질문(가구특성, 부모특성, 가구소득, 가구 지출)과 주거관련, 유연근무 활용 실태 및 의견은 기본적으로 본조사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와 연관된 질문은 모두 제외함. 반면, 출산 의향 및 계획, 자녀 출산 전후 소득 및 소비지출 전망 등 출산 관련 문항을 추가 질문함.

다. 조사 결과 및 응답자 특성

- □ 2023년 본조사(영유아 가구)의 전체 표본 수는 1,773가구로, 추적 대상 표본 1,518가구 중 1,258가구(82.8%)가 추적조사에 성공함.
 - 전년도 추적조사 표본 중 260가구를 대체하여 조사하였으며, 신생아 표본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54가구를 신규로 구축함.
 - 2023년 본조사(영유아 가구) 가구 표본은 맞벌이 가구 비중이 47.1%, 299 만원이하 저소득 가구 비중이 3.4%인 것으로 조사됨.

- □ 2023년 부스터 표본 조사 결과, 임산부 가구 504가구, 무자녀 가구 817가구 가 조사 완료되었음.³⁾
 - 임산부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75.8%, 무자녀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73.6%로 본조사 표본(영유아 가구)과는 크게 특성 차이를 보임.
 -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득 분포가 본조사(영유아 가구)에 비해 크게 벌어지는 특징을 보임. 즉,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는 영유아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비중도 높고, 고소득 가구 비중도 높은 특징을 보임.
- □ 본조사 아동용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표본의 수는 2023년에는 2,422명으로, 0세 156명, 1세 317명, 2세 343명, 3세 381명, 4세 411명, 5세 400명, 6세 414명임.
 - 아동용 설문 조사 기준 어린이집 이용자는 1,300명(53.7%)이었으며, 유치원 이용자 659명(27.2%),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자 31명(1.3%), 반일이상 기관 미이용자(가정양육)가 432명(17.8%)으로 조사됨.

4.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2) 주요 통계 및 데이터 특성 비교

가. 주요 통계 현황 :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 □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실질비용)는 1차년도 315만8천원에서 5차년도 336만5천원까지 증가하였고,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3차년도(2020년) 외에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엥겔지수 : 2018년 26.5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0.0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차츰 안정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28.0까지 하락.
 - 슈바베지수 :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2022년 기준 8.3임.
 - 엔젤지수 : 1차년도 29.1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27 전후의 수준을 보임.
- □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실질비용)은 2022년 127만3천원으로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는 상황임.
 - 전년 대비 감소한 해는 2020년(118만원)과 2022년(127만3천원)으로,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교육/보육비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2022년

³⁾ 목표 표본 수는 임산부 가구 500가구, 무자녀 가구 800가구였음.

- 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2022년 기준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중 가장 지출액이 큰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월 평균 33만4천원을 지출함. 이외 '식비(29만9천원)', '여가문화생활비(18만7천원)'가 지출액이 큰 비목에 해당함.
- □ 2018~2022년 기간 중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실질비용)은 2020년을 제외하면 65~66만원 수준을 유지.
- □ 2022년 기준 어린이집 이용자 비중은 49.2%, 유치원 이용자가 27.1%, 반일 제 이상 기관 이용자 1.1%,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자는 22.6%였음.
 -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자 비중은 2020년에 27.6%로 매우 높아 코로나19 의 영향을 엿볼 수 있었음.
 -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주당 평균 35시간 전후, 유치원 이용시간은 주당 평균 34시간 중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이용 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2019년을 제외하고는 7만원 전후 수준을 보였으며, 유 치원 이용비용은 2018~2019년에는 14만원 전후 수준을 보였으나 2022년 에 낮아져 12만원에 그침.

나. 영유아 가구의 정부지원금 수급 패턴 분석

- □ 정부 지원금 월별 수급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에 걸친 종단면 분석을 실시함. 이를 통해 월별 수급 자료가 가진 장점과 한계를 점검하고,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숙고해 봄.
 - 영유아의 정부 지원금 수급 패턴은 상당부분 육아서비스 이용 패턴과 맞물려 있는데, 현재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2'를 활용하여 종단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보육료 및 누리과정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이기 때문임.
- □ 분석에 활용한 방법은 장기간에 일어난 상태, 사건, 활동 등의 순서를 분석하는 배열 분석(sequence analysis) 방법임.
 - 배열의 요인으로 투입되는 양육관련 정부지원금은 '영아대상의 보육료지원', '유아대상의 누리과정지원', '가정양육수당 또는 영아수당'의 3가지 종류로 설정함.

- □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2세가 되면 90% 이상의 아동들이 기관에 입소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정양육수당에서 보육료지원금으로의 전환, 또는 보육료지원금에서 누리과 정지원금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아동의 월령과 무관하게 기관의 입학 시기에 맞춰 각 년도 2~5월인 것으로 확인됨.
 - 또, 가정양육수당 수급에서 보육료지원금이나 누리과정지원금으로 전환된 배열이 다시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단 기관이용이 시작되면 다시 가정양육으로 전환되는 일이 드무 일임을 알 수 있음.
 - 2019년생의 1세 시기, 2020년생의 0세 시기였던 2020년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때로 이 시기에는 가정양육수당의 수급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양상도 확인됨.

다.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 특성

- □ 일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만,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영유아 수(표본)는 2018년 2,277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2,401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 약간 감소하여 2.395명이었음.
 -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구축 방식에 기인한 결과로, 앞서 주민등록인구 수 등에서 나타난 인구 동향이 'KICCE 소비실태조사'에는 잘 반영되지 않음을 암시함.
 - 단, 기존의 아동용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0세 응답자의 비중은 10.6%로 '주민 등록인구통계'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만, 다른 연령의 경우 '주민등록인구통계' 현황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표본이 보정됨.
-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인구동향조사'에 비하면,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 게 관측되는 특징을 보임.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지역별고용조사'에 비하면, 2021년 기준 약 4.2%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통상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모의 경제활동참여가 제약되는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여짐.

- 다만, '지역별고용조사'의 경우 해가 거듭되더라도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데 반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경우 맞벌이 가구 비중이 매해 조금씩 감소하는 특징이 발견됨.
-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21년 기준 494만2천원으로, '노동패널조사'에 비해서는 67만5천원이 낮고, '가계동향조사'에 비해서는 72만9천원이 낮은 수준임.
 -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조사'의 영유아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조사 차수를 더해갈수록 큰 증가폭을 보이는데 반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증가하긴 하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아, 조사 간 가구소득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게된 것으로 보임.
- □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의 경우 'KICCE 소비실태조사'가 '노동패널조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KICCE 소비실태조사'에 비해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데 반해,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약 30만원가량 낮은 수준의 소비지출액을 보임.
-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있는 최근의 자료는 많지 않으며, 특히 비목별로 구분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가 거의 유일함.
 - 총액 측면에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있는 자료로 '가족과 출 산조사⁴)'와 '보육실태조사'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2021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영유아 1인당 양육 비용은 '가족과 출산조사'에 비교하여 거의 유사하나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은 '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하여 31만원이나 높은 수준을 보임.
-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018년과 2019년은 어린이집 이용률과 유치원 이용률 모두 행정통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021년과 2022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률은 행정통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유치원 이용률은 행정통계에 비해 여전히 약간 높은 수준을 보임.

^{4) 2021}년 이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조사임.

5. 아동수당과 양육비용 부담 경감

가. 아동수당 정책 변화와 연구 필요성

- □ 아동수당 지원은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95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대표적인 비용 지원 정책임.
 - 아동수당은 법령 제정의 목적 자체에 경제적 부담 경감이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동수당의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결정이 전적으로 육아가구의 선택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전형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로, 육아 가구의 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함)을 상승시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를 가진 지원 정책임.
 - 영유아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실정임.
 - 좀 더 장기에 걸친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이 아동을 양육하는 과 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실질적으로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 분석을 실시함.

나.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부터 5차년도 (2022년)까지 총 4개 차수의 자료임.
 - 단,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특성상 4개연도를 모두 패널로 연결할 경우 교체 표본의 수가 너무 많아 미관측 이질성의 통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분석은 인접한 2개 차수씩 모아서 분석을 실시함.
- □ 주요 종속 변수는 양육비용으로, 크게 아동당 양육비용과 가구당 양육비용으로 구분됨.
 - 아동수당의 정책 효과성을 나타내는 독립 변수로는 가구 내 아동수당 수급자 수를 활용.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모든 표본이 아동수당 수급 가구에 해당하여 수 급 여부는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임.
 - 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시작 시점(5월)과 아

동의 월령을 고려하여, 조사 당해연도 5월을 기준으로 아동별로 아동수당 수급 여부 변수를 생성하여, 수급자 수를 합산한 값임.

□ 분석 방법으로는 패널 분석 모형 중에서 임의효과 모형을 적용함.

다. 아동수당의 양육비용 경감 효과

- □ 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아동수당 수급자가 1명 많아질수록 아동당 양육비용은 4~5차(2021~2022 년) 기준 7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이를 통해 아동수당의 지원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분석 대상을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 유아, 초등 1~2학년, 초등3학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아동수당은 유아기 아동의 아동당 양육 비용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아동수당은 맞벌이 가구 뿐 아니라 외벌이 가구의 아동당 양육비용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맞벌이 가구에 비해 외벌이 가구에서 그 효과 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 구간별로 분석 대상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경우 아동수당의 효과가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경우 2~3차년도(2019~2020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4~5차년도(2021~2022년)에는 아동당 양육비용 증가 효과가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서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
 - 종속변수가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인 모형의 추정 결과, 대부분의 비목에서 양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만 보건/의료비와 교통비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 아동수당이 가구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아동수당이 가구당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도 아동당 양육비용과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다만, 아동당 양육비용과 달리 총 자녀수는 많을수록 가구당 양육비용이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한 명 늘어날수록 가구당 양육비용은 유의미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거꾸로 아동수당 수급 대상이 아닌 고연령의 자녀가 가구 내 존재하는 경우(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적을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함.

6. 코로나 확산기에 자녀 돌봄 서비스의 가용성이 영유아 양육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가. 연구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는 동안 기존 경제 위기 때와는 달리 고용 충격이 남성보다 여성에 집중된 것으로 보고됨.
 -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기의 자녀 돌봄 서비스가 양육모의 노동공급에 직접 영향을 준 경로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음.
-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기인 2020년에 지역별 어린이집에 대한 자녀 돌봄 서비스의 가용 정도의 차이로 인해 영유아 부모의 노동공급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함.
- □ 분석 자료로는 코로나19 확산 전후인 2019년~2020년 소비실태조사를 활용.
- □ 분석 방법은 이중차분추정(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모형을 적용함.

나. 코로나 확산 시기에 보육정책

- □ 코로나19 발생은 2020년 1월 19일이며, 이어 2월 23일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
 - 이에 따른 조치로 2월 27일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 시행되었으며, 보조 적인 조치로 정부는 보육 수요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함.

- □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영유아 양육모의 노동시장 성과는 유의하 게 위축됨.
 - 대체적으로 영유아 양육모의 노동시장 성과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는 음 의 상관관계를 보여줌.
 - 한편, 총 어린이집 현원 대비 비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비율과 영유아 양육 모의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비 율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양육모의 경우 경제활동참가, 취업률, 노동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 주요 분석 결과

- □ OLS 추정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는 경제활동, 취업률, 노동시 간을 모두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취업률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가 도출됨.
 - 2개년 패널 모형의 경우, 횡단면 모형보다 변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19 확산 효과의 방향은 유사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할 수 없음.
- □ 비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한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질적으로는 OLS 모형 추정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
 - 단, 그 규모에 있어서는 OLS 모형 추정결과에 비해 보다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코로나19의 확산은 경제활동참가와 노동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취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음.
 - 또, 비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히 완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7. 결론 및 정책 제언

□ 결론 및 정책 제언은 논의의 편의상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품질 제고 및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과 심층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언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가. 'KICCE 소비실태조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

□ 향후 'KICCE 소비실태조사' 실사 및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을 추진 일정에 따라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음.

구분	2023년 (6차년도)	2024년 (7차년도)	2025년 (8차년도)	
데이터 관리	 영유아 기중치추가 산출 가중치 산출 방식 개선			
실사 관련		- 조사 방식 다양화 (web 조사 도입) 검토	- 조사방식 변경 실험 설계 및 시범 조사 실시	
표본 관리		- 맞벌이 기구 할당 비율 조정 검토- 표본 관련 심층 분석 실시	- 부스터 표본 변경 (비정규직부모→ 저소득가구) 검토	

- □ 영유아 가중치 추가 산출 및 가중치 산출 방식 개선
 - 영유아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유아 가중치를 추가적으로 산출하여 데이터에 포함함.
 -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1년(1차년도~4차년도) 아동 데이터의 가 중치를 연령별(0세 포함) 영유아 수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재산출하여 보정 하였으며, 2019~2021년(2차년도~4차년도) 데이터의 가중치는 전체 아동 기준 가중치에 더하여 영유아 가중치를 추가 산출하여 생성함.
- □ 자료 공개를 위한 데이터 재정비 필요성
 - 데이터 공개를 위한 작업을 향후 3년에 걸쳐 나누어 진행할 예정.
 - 단, 데이터 공개 작업은 연구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최종적으로 데이터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 □ 다양한 모드(조사 방식)를 활용한 조사 방법 개선
 - 2024년(7차년도) 조사 시작 전에 2023년(6차년도) 자료에 대한 모드 효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한 조사(웹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 □ 표본 할당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소 할당 표본 수(소프트쿼터)를 조정 방안 모색.
 - 2024년 표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한 이후,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25 년 연구의 부스터 표본을 저소득 가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

나. 심층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언

- □ 아동수당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지원 연령 상향 조정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훨씬 가중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한정된 재원으로 양육비용 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과 같은 형태의 현금성 지원을 좀 더 강화.
 - 저소득 영유아 가구 현금 지원 제도 강화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아동수당이 아닌 별도의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에서 포괄하여 지원.

□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육아 지원 정책

-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추가 사용 허용
 - 유연근무와 같은 육아시간 지원 정책의 강화와 실효성 제고가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제도 이용자 확대를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
 -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보다 훨씬 확장된 형태의 지원을 해당 기간에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사전에 정비되어 있을 필요가 있음.
- 일례로, 사회적 위기 상황의 발생(풍수해, 지진, 산불 등)으로 긴급 돌봄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정비를 고려해 봄직함.



총괄 개요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목적 및 필요성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소비실태,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통계자료로써,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에 걸쳐 I기 연구가 마무리된 상태이다(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지난 5년간의 연구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정부지원금 수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의 변화, 정책 지원 요구 등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축적되었으며, 매년 육아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추가 구성된 설문 문항들을 통해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가 구축된 상태이다.

이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 I 기 조사에 이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진행될 예정인 II 기 'KICCE 소비실태조사'의 1차년도5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수행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KICCE 소비실태조사' I 기 연구는 종료되었으나, 영유아의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최소 7년 이상의 연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영유아기 전 연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한 육아지원 정책의 확대 강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기초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과 육아서비스 이용행태, 정책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성이 높아. 향후 5개년 간 조사를 연장하게 되었다.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KICCE 소비실태조사' Ⅱ기 연구는 지속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추적 관찰함으로써 Ⅰ기 연구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Ⅰ기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집단과 변화 하는 육아 환경을 고려한 조사 설계를 통해 보다 풍부하고 다각적인 기초 통계자료

⁵⁾ 전체 기준 6차년도.

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의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 및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저출생 시대 아이 키 우기 좋은 육아 환경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원이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인구정책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2.12.28.: 15). 이에 저출생 대응정책의효과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보완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재정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 기반의 마련과 기존 양육·보육 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 분석의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2.12.28.: 15). 특히 양육·보육 관련 현금성 보편 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의 모색이 강조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2.12.28.: 15).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이와 같은 정책적 요구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통계자료이다.

다만, 지난 5년간의 I기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통계자료의 축적이라는 목적 보다는 정책 연구에 좀 더 방점을 두어 진행됨에 따라, 범용적인 기초 통계자료로 서 활용되기에는 일부 한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당해연도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당해연도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 일정으로 인해, 데이터 정 제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점검이 미비하였으 며, 차년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전년도 통계수치가 변경되는 등 다소 일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Ⅱ기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기초 통계자료 구축과 보다 전문적인 데이터 활용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기획되었다. 물론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의 상당부분이 육아 지원 및 저출생 대응정책과 연관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Ⅰ기 'KICCE 소비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Ⅱ기 'KICCE 소비실태조사' 또한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단, 이러한 논의는 조사 당해연도 자료가 아닌

⁶⁾ 단, 저출산 대응과 관련 없는 사업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는 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힘(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2.12.28.: 15).

전년도까지 구축이 완료된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의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자료활용의 시의성보다는 보다 심도 깊은 추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즉, 이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안정적인 조사 수행과 기 구축이 완료된 I기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2)'를 활용한 데이터의 품질 점검, 심층 분석을 통한 정책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은 크게 본조사와 부스터표본에 대한 부가조사로 구분된다. 본조사는 I기 'KICCE 소비실태조사'와의 연속성 상에서 2022년 (I기 5차년도)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대체 표본 구축 포함)와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 출생아에 대한 신생아 표본 구축으로 구성된다. 이에 더하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은 본조사 이외에 임산부 500가구와 무자녀 800가구에 대한 부스터표본을 구축하였다.

나. 무자녀 가구 및 임산부 가구 부스터 표본 구축의 필요성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로, 2015년 이후로는 초저출생 현상이 급격하게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7)). 초저출생의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 혹은 무자녀 가구의 증가가 이와 같은 초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철희(2012)는 1991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 감소는 주로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 즉 혼인율의 저하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오히려 유배우 출산율은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서 그효과를 일부 상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는 유배우 출산율마저 빠르게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이철희, 2019; 계봉오·유삼현·최슬기, 2022).

이와 같은 무자녀 가구의 증가는 비단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며, 전세계적인 추세라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 등 몇몇 국가의 무자녀 비중이 20%에 달하는 상황에 비하면, 한국의 무자녀 비중은 2005년 기준 6.8%로 그다지 높지 않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8)). 하지만, 1990

⁷⁾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 o?orgId=101&tblId=DT 1B81A21&checkFlag=N (인출일: 2023. 3. 2.).

⁸⁾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indicators, SF.2.5 Childlessness, https://www.oecd.org/els/family/SF_2-5-Childlessness.pdf (인출일: 2023. 3. 2).

년 3.6%에 불과하던 무자녀 가구 비중이 2005년 3.2%포인트나 증가한 상황으로 (OECD Family Database⁹⁾), 2023년인 현재 기준 무자녀 가구 비중은 더욱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 자료와는 산출방식 등이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무자녀 가구(20~49세 기혼여성 기준)의 비중을 산출한 박시내·박라나·박혜균(2020: 28)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무자녀 가구 비중은 11.2%였다. 또, 계봉오·유삼현·최슬기(2022: 86)는 2005~2016년 기간 동안에 비해 2017~2020년 시기의 혼인지속 기간별 유배우출산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여, 최근 무자녀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급격하게 무자녀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하다. 조성호·이지나·김근태(2021)는 한국의 무자녀 가구 비중이 1970년대 이전까지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자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그는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지속적으로 무자녀 가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무자녀 선택은 서구권에서 나타나는 기회비용 이론¹⁰⁾과 달리 자녀 양육에 따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결론지었다(조성호·이지나·김근태, 2021: 189~192).

이에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은 부스터표본1(무자녀 가구)에 대한 부가조 사를 통해, 기혼 가구들이 실제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무자녀 가구를 선택하게 되 는 것인지, 그렇다면 무자녀 가구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탐색적으로 고찰해보고, 무자녀 가구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무자녀 가구 대비 영 유아 가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실질적인 비용은 무엇이며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부스터표본2(임산부 가구)를 통해서는 자녀를 임신·출산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양육부담은 무엇이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필 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임산부 가구의 경우에는 첫

⁹⁾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indicators, SF.2.5 Childlessness, https://www.oecd.org/els/family/SF 2-5-Childlessness.pdf (인출일: 2023. 3. 2).

¹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본인의 커리어와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감소(기회비용) 가 클수록 무자녀 가구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함.

째아를 임신한 가구와 둘째아 이상을 임신한 가구의 정책적 요구와 선호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둘째아 이상 임신한 가구의 경우에는 손위자녀를 위한 육아 지원 요구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¹¹⁾

다. 심층 분석의 필요성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 연구부터는 당해연도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차년도에 실시한다. 즉, 올해 조사가 실시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에 대한 분석은 주요 실사 결과와 응답자 특성을 제외하고는 차년도(2024년) 연구에서 분석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방대한 조사 분량과 추적 조사구조(가중치 산출 포함) 등을 고려할 때, 자료 정제 및 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 기간의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존 I기 연구의 경우 당해연도 조사 결과를 당해연도에 분석하여 보고하기 위해 정제되지 않은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차년도에도 전년도 결과 값이 전체적으로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과 혼선을 일으킨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자료를 정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일관되게 결과를 보고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 단순한 수치의보고에 그쳐서 반복적인 정책 제언에 그친 전년도 연구와 달리, 분석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심층 분석을 포함하여 연구 결과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해마다 좀 더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연구에서는 I기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2)'를 활용한 심층 분석으로, 아동수당의 정책적 효과와 코로나19 전후 보육서비스가용성이 모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심층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각 심층 분석 주제별 연구 필요성은 논의의 편의상 해당 장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¹¹⁾ 단,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부스터표본(무자녀 가구와 임산부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은 올해 연구가 아닌 차년도 연구에서 진행될 예정임.

2. 연구 내용

가. 2023년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2023년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 1차시에 해당하는 조사(즉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와 I기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한 데이터 품질 점검 및 심층 분석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방대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사 연구와 분석 연구의 조사 차수가 달라 혼선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크게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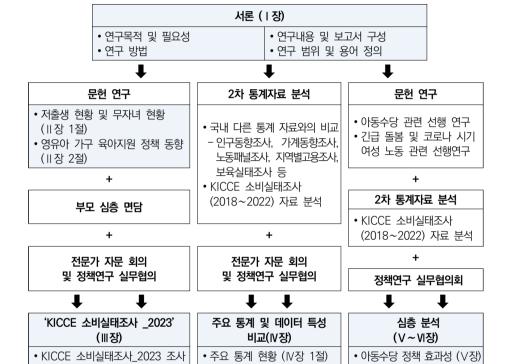
Part I 은 총괄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I 장 서론)으로 연구 전반에 걸친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Part II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과 관련된 내용으로, II 장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 설계와 관련된 주요 인구 현황과 정책 동향을 담고 있다. 특히 II 장 2절의 정책 동향은 2023년 하반기에 정책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설문 개발 시점에 맞추어 정책 현황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한편, III장의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 개요는 2023년도 조사 설계 및 설문 특성, 그리고 실사 결과 및 응답자 특성을 담고 있다. 이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이 조사 설계 측면에서 'KICCE 소비실태조사' I 기 조사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본조사(영유아 가구 대상 조사) 이 외에 부스터표본 조사(일종의 부가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2023년에는 부스터 표본으로 무자녀 가구와 임산부 가구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Part III은 'KICCE 소비실태조사' I기(2018~2022년)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방점을 둔 장들로, 조사 연구와 관련성이 깊은 IV장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V~VI장으로 다시 구분된다. IV장은 'KICCE 소비실태조사' I기(2018~2022년) 데이터의 특징에 관한 분석 결과로,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통해 산출 가능한 주요 통계에 대한 보고와 데이터 특성 검토 결과(정부 지원금 변수 및 표본 특성)를 담고 있다. V장은 아동수당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담고 있으며, VI장은 코로나19 전후 보육서비스 가용성이모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Part IV(VII장 결론)는 연구보고서의 전체에 대한 결론과 정책 제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VII장은 본문의 III장과 IV장의 논의에 근거하여 도출된 조사연구와 관련된 제언(VII장 1절)과 심층 분석 결과(V장과 VI장)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VII장 1절)으로 구분된다.

[그림 I-2-1] 2023년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¹²⁾ (보고서 구성)



주: 음영 처리된 면은 주요 연구 내용(괄호는 보고서의 장/절)을 의미하며, 백색 면은 연구 방법 중심의 기술임.

• 정부지원금 수급 패턴 분석

•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

특성 비교 (Ⅳ장 3절)

(Ⅳ장 2절)

'KICCE 소비실태조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

(세장 1절)

설계

- 본조사: 영유아 가구 및 아동

- 설문 개발 및 개요

• 실사 결과 및 응답자 특성

부스터표본: 무자녀/임산부 가구

• 코로나 확산기 보육서비스

가용성과 모의 노동공급

정책 제언

(기장)

¹²⁾ 단, 연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뒤에 제시된 [장 3절의 내용을 참조.

나. 11기(2023년~2027년) 연구 추진 계획

2023년 Ⅱ기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 동안 수행될 예정인 연차별 연구 주제는 [그림 I-2-2]를 참조하기 바란다. 매해 추적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본조사와 달리 부스터표본은 해당 차수에만 조사하고, 더 이상의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림 I-2-2] KICCE 소비실태조사(II) 연차별 연구 주제(추진 계획안)

연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본조사 (추적 조사)	정부 지원금 수급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기관보육/교육, 사교육 포함),							
부스터 표본	- 무자녀 가구 - 임산부 가구	- 농어촌 가구	- 비정규직 부모 가구	- 환아/장애아 가구	- 한부모 가구			
데이터 관리	- 주요지표 비교	- 표본 특성 분석	(미정)	(미정)	(미정)			
심층 분석	- 아동수당 효과성 분석 - 보육서비스 가용성과 모의 노동시장참여	- 저출생 대응 육아지원 정책 (무자녀 및 임산부 가구)	- 지역 맞춤형 육아 지원	- 부모의 근로형태 변화와 육아	- 영유아 의료 지원 정책			

주: 연차별 상황에 따라 2024년 이후 연구의 주제와 조사 표본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내부자료(2023b).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연구계획서.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설문 문항 작성과 심층 분석 등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올해 연구에서는 특히 부스터표본 구축과 관련하여 무자녀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와 유관 통계현황을 고찰하였다. 또, 심층 분석 주제와 연관하여 아동수당 관련 연구 및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 코로나19 확산기긴급 돌봄 및 여성 노동시장 변화 등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나.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는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은 본조사와 부스터표본에 대한 부가조사로 구분된다. 본조사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의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영유아가구 한정)와 신생아표본(2023년 상반기 출생아 및 2022년 하반기 출생아) 구축으로 이뤄지며, 추적조사에 실패한 경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체표본 가구에 대한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스터표본은 무자녀 가구 800가구와 임산부 가구 500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설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Ⅲ장 1절에 제시하였다.

다. 2차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

1) 국내 통계자료와 비교를 통한 데이터 특성 분석

'KICCE 소비실태조사(II)'는 양질의 데이터 생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만큼, 국내 다른 통계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검토를 통해 기 구축이 완료된 데이터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의 자료 특성을 점검해 보았다. 영유아 가구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 비중, 맞벌이 가구 비중, 가구 소득과 지출 현황 등을 국내 다른 자료와의 비교해 봄으로써, 'KICCE 소비실태조 사'의 응답 가구 및 아동의 특성과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의 해석상 유의점 등을 살펴보았다.

'KICCE 소비실태조사'데이터 특성 분석을 위해 활용된 국내 통계자료는 인구 동향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노동패널조사, 보육실태조사, 보육통계 등 해당 주제에 맞추어 매우 다양한 유관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를 활용한 심층 분석

기 구축이 완료된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를 활용하여¹³), 아동수당 정책의 효과성과 코로나19 확산 시기의 보육서비스 가용

성이 여성(모)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심층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가능성과 품질 개 선을 위해 정부 지원금 수급 현황을 배열 분석을 통해 꼼꼼하게 검토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총 5개년에 걸친 시계열 자료 구축이 완료된 상태로, 전년도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 형태로 조사가 수행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패널 자료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1차년도 원표본 아동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패널 조사(일종의 코호트) 자료와는 달리, 'KICCE 소비실태조 사'는 매해 신생아 표본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차수에 영유아기 전 연령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라. 부모 대상 심층 면담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설문 개발과 설문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 대상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2023년에는 부가조사 설문 문항 작성을 위해 무자녀 가구 및 임산부 등에 관한 심층 면담을 연구 초반에 실시하였다.

⟨₩	I -3-	1১	부모	시츠	며단	식시	혀화

회차	일시	참석자 수	대상자 특성	주요 면담 내용
1회	5. 11	5명	임산부 가구	설문 인지 면담
2회	5. 11	5명	무자녀 가구	설문 인지 면담

마.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연구의 방향 설정, 조사 설계, 설문 문항 수정 및 보완,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 토, 정책 방안 도출 등 연구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연구 초반에는 점점 다양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육아서비스의 변화 양태,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변화 등이 조사를 통해 잘파악될 수 있도록, 설문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여러차례 실시하였으며, II기 조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 방법과 관련된 전문가 회의를 여러 번 실시하였다.

¹³⁾ 실제 분석에 활용된 차수는 분석 주제별로 약간씩 상이하지만, 대체로 2018년(1차년도) 자료를 제외하고 2019년(2차년도)~2022년(5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음.

〈표 I-3-2〉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회차	일시	참석자	주요 자문 내용
1회	2. 21	조사 분야 2인	웹조사 방식 도입과 데이터 품질 관리
2회	3. 14	교육재정, 사회복지 각 1인	연구 방향 설정 (착수보고)
3회	3. 21	육아 정책 3인	육아서비스 종류 및 범주, 분류 기준
4호	3. 28	유아교육 1인	설문 수정 방향 및 본조사 설문 검토
5회	4. 12	유아교육, 경제, 보육 등 4인	조사업체 선정 및 조사설계 관련 자문
6회	4. 24	조사 분야 7인	조사 설계 및 설문 세부사항 검토
7회	6. 20	육아정책 분야 4인	연구 중간 점검 및 중간 보고서 검토
8회	10. 19	조사 분야 1인	가중치 재산출 관련 논의
9회	10. 25	육아정책 분야 4인	최종 보고서 검토 및 자문(정책 검토 포함)

바. 기타 : IRB 심의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은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의 생명윤리준수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2023년 5월 19일에 최종 심의를 완료하였다. 연구승인번호는 'KICCEIRB-2023-제01호'이며, 연구 승인기간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연구 종료 시점인 2023년 12. 31까지이다.

4.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가. 무자녀 가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은 무자녀 가구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무자녀 가구는 혼인 지속기간 등과 무관하게 조사 시점 당시 기혼 유배우 가구로 자녀가 없고 임신 상태도 아닌 가구이면서, 여성(배우자 혹은 본인)의 연령이 20~44세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무자녀 가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선행 연구에 따라 각기 다르다. 조성호·이지 나·김근태(2021: 21~29)는 무자녀 가구의 정의가 여성의 연령(가임연령), 결혼지속연수, 향후 출산 의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주로 합계출산율 혹은 무자녀율과 같이 인구통계 측면에서 무자녀 가구를 바라보는 경우에는 여성의 출산이 종료되는 시점이나 혼인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자녀 가구를 정의하는 경향을 보였다.(계봉오·유삼현·최슬기, 2022; 박시내·박라나·박혜균, 2020; OECD Family Database 등). 또, 부부의 출산 계획 혹은 무자녀 결정 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출산의향과 혼인지속기간 등을 포함하여 무자녀 가구를 정의하였다. 예를 들면, 강유진(2020: 8)은 분석 대상을 자녀수를 0명이나 1명인 집단으로 한정하여 출산 계획과 실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혼여성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되, 추가 출산계획을 중심으로 현재 자녀수가 0명이면서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집단을 무자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무자녀 가구의 기준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I-4-1〉과 같다.

〈표 Ⅰ-4-1〉 선행연구에 나타난 무자녀 가구에 대한 조작적 정의

		ㅂ서다그			
선행연구	혼인상태	여성연령	혼인지속 기간	향후 출산의향	분석자료 대상기간
강유진 (2020)	기혼 여성	25~39세	-	의향없음	2018
계봉오·김두섭 (2015)	기혼	35~64세	_	ı	1975~2010 매5년 단위
계봉오·유삼현·최슬기 (2022)	기혼 유배우	20~49세	최대15년	_	2005~2020년
박시내·박라나·박혜균 (2020)	기혼 여성	20~49세	5년이상	-	2015년
이수현 (2012)	기혼	20후반~ 40대중반	3년이상	의향없음 (불임포함)	(심층면담)
최인희·김은지·이상림 외 (2015)	기혼	30~50대	3년이상	계획없음	2000, 2005, 2010 (인구센서스)
OECD Family Database	-	40~44세	_	-	1990년대 중반, 2010년

자료: 1) 강유진(2020). 무자녀와 한자녀 여성의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가치관과 부부평등성 요인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4(3). pp.3~26.

- 2) 계봉오·김두섭(2015). 무자녀 가정의 추이와 특성. 한국의 사회동향 2015. 통계청 통계개발원.
- 3) 계봉오·유삼현·최슬기(2022). 유배우 출산율 변화, 2005~2020: 혼인지속 기간 접근. 한국인구학, 45(1). p p.71~92.
- 4) 박시내·박라나·박혜균(2020). 결혼기간별 무자녀 가구 특성. 통계청 통계개발원.
- 5) 이수현(2012).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2(3). pp.43~88.
- 6) 최인희·김은지·이상림 외(2015). 무자녀 부부가족의 증가와 가족정책적 함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7)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indicators, SF.2.5 Childlessness, https://www.oecd.org/els/ family/SF 2-5-Childlessness.pdf (인출일: 2023. 3. 2).

무자녀 가구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무자녀의 영속성 혹은 완결성에 초점을 두고 무자녀 가구를 정의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무자녀 가구로 정의된 가구들이 앞으로도 여전히 무자녀 가구일 것이라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연령에 주목하여 향후 출산이 어렵다고 보이는 연령을 기준점으로 삼거나, 혼인한지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녀가 없어 추후에도 출산 확률이 낮다고 보이는

경우, 향후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여 앞으로도 무자녀 가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을 무자녀 가구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의 무자녀 가구는 조사시점 기준 현상적인 상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 연구에서 무자녀 가구는 혼인지속기간이 나 출산 계획 등과 무관하게 조사 시점 당시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을 기 준으로 삼아, 생애주기 상에서 일시적인 무자녀 상태인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한 다. 이때, 기혼 유배우자이면서 여성의 연령이 20~44세인 경우로 제한을 두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기준 아이가 없는 가구로 무자 녀 가구를 정의하였다.

이는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인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지출 패턴 등에 관한 비교 연구를 위해 무자녀 가구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즉, 본조사 대상인 영유아 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무자녀 가구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무자녀 가구에 대한 조사에서 출산을 희망하면서도 무자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임신, 출산으로의 이행을 돕기 위한 선결 과제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출산이 완전히 종결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향후 출산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나. 양육비용 산출 기준 및 조작적 정의

'KICCE 소비실태조사' I 기 연구에서는 총 3가지 종류의 양육비용을 산출하여 보고하였다(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21). 가구내 모든 자녀의 양육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초등이상 자녀의 양육비용을 포함하는 총 양육비용과 가구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인 영유아 양육비용, 해당하는 영유아 1인에게 소요된 비용인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이다(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21). 총 양육비용과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단위로 산출되는 비용이며,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자녀별 양육비용 중 영유아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소요된 비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다소 혼란스럽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히 영 유아 양육비용의 유용성과 의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고, 총 양육비용의 경우 생 애주기를 고려하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요되는 양육비용과 혼란을 일으킨 다는 지적이 있었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은 조사 당해연도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을 의미한다. 이에 'KICCE 소비실태조사' II 기 연구에서는 좀 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양육비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영유아양육비용은 더 이상 산출하지 않고, 총 양육비용은 가구당 양육비용으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이때, 가구당 양육비용은 조사 당해연도 기준으로 가구 내 모든 자녀별양육비용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값이다. 즉, 가구당 양육비용은 초등 이상 자녀의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단, 자녀별양육비용은 영유아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산출결과를 보고하지는 않는데,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집 대상이 막내자녀 연령 기준으로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한정되어 있어. 초등이상 자녀의 경우 표본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ㅍ	T -4-2\	양육비용	요애	벼겨
(並	1-4-2)	있귝미판	ᅲႷ	면성

2022년 이전 연구		2023년 연구	조작적 정의
총 양육비용	\Rightarrow	가구당 양육비용	가구 내 모든 자녀(초등 이상 자녀 포함)에 게 소요된 전체 양육비용 *자녀별 양육비용의 합산액
영유아 양육비용	\Rightarrow	(삭제)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 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Rightarrow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영유아 자녀별로 해당 영유아 자녀 한명을 양육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
(신설)	\Rightarrow	자녀별 양육비용 (별도로 산출 안함)	가구 내 각 자녀별로 해당 자녀(자녀 연령 무관)를 양육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

주: 자녀별 양육비용은 가구당 양육비용 산출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별도로 산출 결과를 보고하지는 않음.

한편, 양육비용에 포함되는 비목은 식비(외식비 포함),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어린이)보험 총 10개 비목(세목포함 16개)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자녀별 양육비용 뿐 아니라 전반적인 가계 지출 현황도 조사하고 있는데, 가계 소비지출 중에서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기타상품 및 서비스, 비소비지출 중에서 이전지출, 저축, 원리금 상환 등은 가계지출 산출 시에는 포함되나, 양육비용에서는 제외된다(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92~93).

한편, 보고서 내 가계지출 및 양육비용, 정부 지원금, 가구소득 등 금액으로 표

기되는 비용의 경우 연구 목적에 따라 명목 값을 사용하는 경우와 실질 값으로 환산된 경우가 혼재되어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이때, 실질 비용을 보고하는 경우는 매년 5월~7월 소비자물가(2020년=100기준) 평균값을 반영하여, 실질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실질비용 환산 기준이 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98.78, 2019년 99.44, 2020년 99.59, 2021년 102.12, 2022년 108.17이 적용되었다(통계청14)). 이는 각 조사차수별 물가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영유아 가구의 비용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함이다.

반면, 2023년 연구에서는 정부 지원금 수급 현황, 아동수당 효과 분석 등 다수 영역에서 명목 값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부 지원금이 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단가가 조정되긴 하나 실제 영유아 가구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명목 값이기때문에, 자료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양육비용 등도 명목 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실질 비용의 경우 물가가 반영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직관적으로 비용의 시계열적 변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요구를 반영하여 명목 비용 형태의 보고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질 비용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비용 산출 방식을 개선하였다.

다. 육아서비스 범주 및 분류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과 함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조사하는 육아서비스는 반일제 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용 현황과 시간제 교육 서비스(학원, 학습지 등), 기타 육아서비스(일시보육 등) 이용 현황 등이다¹⁵⁾. 2023년 조사에서는 시간제 비대면 서비스 활용 실태를 좀 더 세분하여 조사하고자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을 하위 카테고리에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개별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친인척돌봄 등) 활용 실태는 가구

¹⁴⁾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0001&conn_path=I3(인출일: 2023. 3. 7.).

^{15) &#}x27;KICCE 소비실태조사'의 아동용 설문의 대부분은 영유아별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하는 육아서비스의 이용여부, 이용시간, 이용비용 등을 질문하고 있으며,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초등 이상 자녀는 제외)별로 각 하나의 아동용 설문을 작성함. 즉, 영유아 자녀가 3명인 가구는 3개의 아동용 설문을, 영유아 자녀 2명과 초등이상자녀 1명이 있는 가구는 2개의 아동용 설문을 작성함.

용 설문에서 가구 단위로 조사하였다. 이는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양태가 아동별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가구 단위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즉, 영유아 자녀와 초등이상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조사의 경우 개별돌봄서비스 관련 설문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해 시간제로 활용하는 학습시터 혹은 놀이시터 등이 포함되어 조사될 수 있도록 설문을 보강 수정하였다.

〈표 ፲-4-3〉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범주 (2023년 기준)

구분	육아서비스 종류	설문종류
반일제 이상 기관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④ 반일제이상 기타 기관(유아스포츠단, YMCA 등)	아동용
(시간제) 교육 서비스	① 문화센터, ② 학원, ③ 방문형 학습지, ④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⑤ 비방문 학습지, 교구활동교육 ⑥ 개인 및 그룹지도, ⑦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⑧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아동용
기타 육아서비스	① 일시보육, ② 키즈카페, ③ 비정기 체험활동	아동용
개별돌봄서비스	①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및 기타 공공기관 지원), ② 민간육아도우미(학습시터, 놀이시터 포함), ③ 조부모, ④ 조부모 이외 친인척 돌봄	가구용
육아시간 지원서비스	① 출산휴가, ② 육아휴직,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⑤ 유연근무제도 활용	가구용
부모직접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① 부모 직접 돌봄, ② 미디어 활용시간, ③ 육아물품 대여서비스(장난감, 도서 대여 등), ④ 육아물품 제공서비스(교재/교구 꾸러미 등), ⑤ 양육지원_부모지원 서비스(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등)	가구용

주: 육아서비스 종류 및 범주는 조사 차수에 따라 약간씩 변동되었으며, 특히 2019년~2021년 조사에는 초등 돌봄관 련 육아서비스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음.

이 외에도 육아를 위한 시간 지원 정책(육아휴직, 유연근무 등)과 가정 내 돌봄 지원(가정 양육지원, 부모지원서비스)도 육아서비스 범주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최효미·이정원·김자연 외, 2021: 38~39). 가정 내 돌봄 지원의 경우는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육아서비스 이용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사료되는 시점인 2021년부터 설문에 포함되었으며, 이때부터 비대면 육아서비스 (장난감 대여, 미디어 콘텐츠 활용 등) 관련 설문도 추가되었다.

2023년 조사에서는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관련된 설문을 크게 보강하여

조사하였다. 반면, 2023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비대면 육아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종류는 남겼으나, 기관 내 온라인수업과 같은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 활용 경험 및 비대면 서비스 대체 사유 등과같은 설문 문항은 전부 삭제하였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 관련 설문 문항도 대폭 축소 수정하였다. 설문의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III장 2절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다.

Part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 설계 및 개요



Ⅱ. 연구 배경

1. 저출생 현황 및 무자녀 가구 현황

가. 출산율 및 인구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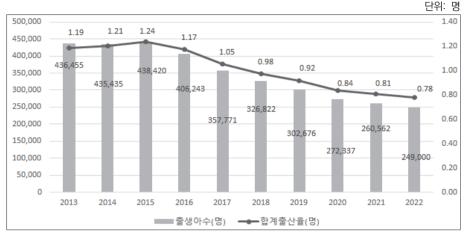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저출생 현황에 대해 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13년 1.19명에서 2015년에는 1.24명으로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는 하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0.78명까지 하락하였다. 출생아수도 마찬가지로 2013년 436,455명에서 2015년에는 438,420명으로 다소 증가 양상을 보였으나 2016년 406,243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2016년 이후로 감소세는 지속되어 2022년의 출생아수는 249,000명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Ⅱ-1-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2013~2022년)

단위: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출산율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출생아수	436,455	435,435	438,420	406,243	357,771	326,822	302,676	272,337	260,562	249,000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 101&tblld=INH_1B8000F_01&conn_path=I3 (인출일: 2023. 6. 2.).



[그림 Ⅱ-1-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2013~2022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 101&tblld=INH_1B8000F_01&conn_path=13 (인출일: 2023. 6. 2.).

최근 10년간의 출산율 추이에 이어 1970년부터 2050년까지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21년에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로 분석하였으며 2020년까지는 실측치이고 2021년부터의 자료는 2020년 인구총조사를 활용한 중위 가정의 추계치이다. 1970년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으로 1980년 2.82명까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3명가량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985년 1.66명까지 감소한 출산율은 이후에도 1명대의 낮은 출산율을 보이다가 2005년에는 1.09명까지 낮아졌다. 이후로도 줄곧 1명대 초반의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가운데 2015년에는 1.24명까지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8년 이후에는 1명대 출산율이 무너져 1명 미만의 초저출산의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2020년 0.84명(실측치) 에서 2024년 0.70명까지 하락된 후 2050년 1.21명까지 높아질 것으로 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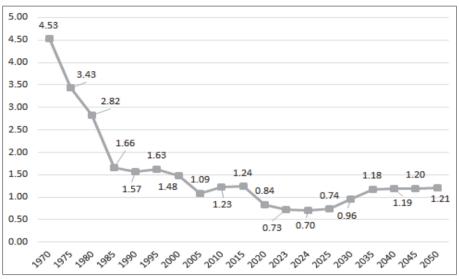
〈표 Ⅱ-1-2〉 장래 합계출산율을 포함한 합계출산율 추이(1970~2050년)

단위: 명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합계출산율	4.53	3.43	2.82	1.66	1.57	1.63	1.48	1.09	1.23	1.24
연도	2020	2023	2024	202	5 20	30 :	2035	2040	2045	2050
합계출산율	0.84	0.73	0.70	0.7	4 0.	96	1.18	1.19	1.20	1.21

주: 2020년까지는 인구동태통계 합계출산율 실측치이며, 2021년부터는 인구변동요인(출산,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 의 추계치임.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장래 합계출산율/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101&tblld= DT 1BPA101&conn path=13 (인출일: 2023. 6. 2.).



[그림 Ⅱ-1-2] 장래 합계출산율을 포함한 합계출산율 추이(1970~2050년)

주: 2020년까지는 인구동태통계 합계출산율 실측치이며, 2021년부터는 인구변동요인(출산,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의 추계치임.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장래 합계출산율/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101&tblld=DT_1BPA101&conn_path=13 (인출일: 2023. 6. 2.).

출산율의 감소로 영유아 수와 전체 인구에서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연령별 주민등록연앙인구¹⁶) 자료로 전체 인구와 0세부터 만6세의 영유아 수 및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3년의 전체인 구는 4,475만2,156.5명이고, 이 중 영유아 수는 460만5,923명으로 영유아는 전체의 10.3%로 나타났으나 2003년에는 전체 인구 4,830만8,385.5명, 영유아 수 419만872.5명으로 영유아의 비중이 전체의 8.7%로 낮아졌다. 2013년 자료를 보면 0~6세 영유아 수는 326만3,754.5명으로 낮아지고 비중도 전체 인구의 6.5%로 감소하지만, 전체 인구 수는 5,055만8,951.5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인 구수는 2020년 5,134만9,259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5,125만9,149.5명을 기록하였다. 2022년도의 영유아 수는 전체 인구의 4.5%에 불과하였다.

¹⁶⁾ 주민등록의 연앙(年央)인구는 해당연도의 평균인구 개념으로, 예를 들어 2014년 주민등록의 연양인구는 2014.1.1.~2014.12.31.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값임(통계청,「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 path=13 인출일: 2023.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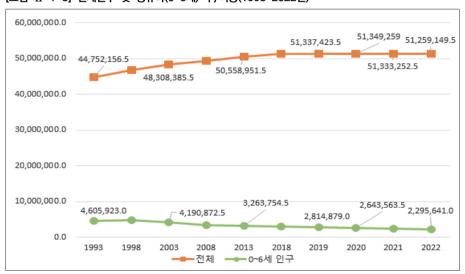
〈표 Ⅱ-1-3〉전체 인구 및 영유아(0~6세) 수/비중(1993~2022년)

단위: 명

			<u> </u>
연도	전체	영유아 수	영유아 비중
1993	44,752,156.5	4,605,923.0	10.3
1998	46,837,620.0	4,879,213.5	10.4
2003	48,308,385.5	4,190,872.5	8.7
2008	49,404,647.5	3,323,797.5	6.7
2013	50,558,951.5	3,263,754.5	6.5
2018	51,300,879.5	2,973,632.5	5.8
2019	51,337,423.5	2,814,879.0	5.5
2020	51,349,259.0	2,643,563.5	5.1
2021	51,333,252.5	2,474,129.5	4.8
2022	51,259,149.5	2,295,641.0	4.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 gld=101&tblld=DT 1B040M1&conn path=13 (인출일: 2023. 6. 2.).

[그림 Ⅱ-1-3] 전체인구 및 영유아(0~6세) 수/비중(1993~2022년)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 gld=101&tblld=DT_1B040M1&conn_path=13 (인출일: 2023. 6. 2.).

이와 같은 저출생과 영유아 인구 비중 감소의 심각성은 한국 사회 인구구조 변동의 전망과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자료로 2060년까지의 전체 인구 수와 0~14세 인구, 15~64세의 생산 가능인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수와 비중의 추계치와 인구성장율을 살펴보았다(표 II-1-4 참조). 이 자료는 2021년 12월에 통계청이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로서

2020년의 출산율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된 것인데, 2022년의 출산율만 보아도 2020년 출산율보다 낮게 실측되었으므로 이하의 추계치도 낙관적인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2025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 인구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총인구수는 2020년 5,183만6,239명에서 2040년 4,947만 7,441명, 2050년 4,584만4,714명, 2060년에는 4,048만7,221명으로 40년간 천만이상의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Ⅱ-1-4〉 총인구, 인구구조, 인구성장율 추계(2020~2060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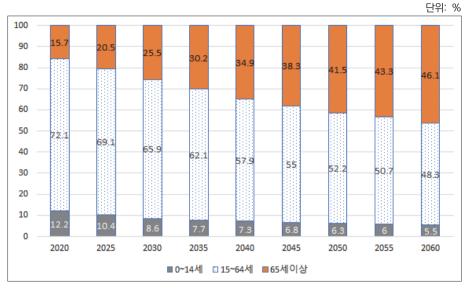
711	H=1 0.7 A		인구수			인구		
구분 전체 인구수	전체 인구수	0~14세	15~64세	65세 이상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성장률
2020	51,836,239	6,305,870	37,378,502	8,151,867	12.2	72.1	15.7	0.14
2025	51,564,514	5,369,268	35,609,992	10,585,254	10.4	69.1	20.5	-0.03
2030	51,297,931	4,428,265	33,813,340	13,056,326	8.6	65.9	25.5	-0.16
2035	50,613,503	3,886,628	31,437,760	15,289,115	7.7	62.1	30.2	-0.34
2040	49,477,441	3,596,916	28,635,655	17,244,870	7.3	57.9	34.9	-0.53
2045	47,907,202	3,235,382	26,336,401	18,335,419	6.8	55	38.3	-0.73
2050	45,844,714	2,901,714	23,939,111	19,003,889	6.3	52.2	41.5	-0.99
2055	43,298,008	2,579,407	21,953,273	18,765,328	6	50.7	43.3	-1.24
2060	40,487,221	2,243,815	19,560,748	18,682,658	5.5	48.3	46.1	-1.4

주: 1) 2020년 출산율 유지, 기대수준 중위, 국제순이동 중위수준으로 가정한 추계치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추계인구(총인구, 인구구조, 성비 등)/전국, https://kosis.kr/statHtml/st atHtml.do?orgId=101&tblId=DT_1BPA401&conn_path=I3 (인출일: 2023. 6. 2.).

연령구간별로 살펴보면 0~14세 인구는 2020년에 630만5,870명이었는데 2030년 442만8,265명, 2040년 359만6,916명, 2050년에는 290만1,714명으로 감소하고 2060년에는 224만3,815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0~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0년에는 12.2%인데 비해 2030년에는 8.6%, 2050년에는 6.3%로 낮아지고 2060년에는 5.5%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20년에는 3,737만8,502명으로 전체의 72.1% 였으나, 2040년에는 2,863만5,655명으로 57.9%가 되고 2060년에는 1,956만748 명 48.3%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중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²⁾ 인구성장율은 $\ln(\frac{P_t}{P_0})/t \times 100$ 으로 산출함. P_0 는 기준연도 인구, P_t 는 비교연도 인구, t는 비교기간(비교연도-기준연도)임.



[그림 Ⅱ-1-4] 연령구간별 비중 추계(2020~2070년)

주: 2020년 출산율 유지, 기대수준 중위, 국제순이동 중위수준으로 가정한 추계치임.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추계인구(총인구, 인구구조, 성비 등)/전국, https://kosis.kr/statHtml/st atHtml.do?orgId=101&tbIld=DT_1BPA401&conn_path=13 (인출일: 2023. 6. 2.).

이하에서는 한국과 OECD 22개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아래의 〈표 II-1-5〉로 2021년의 합계출산율을 1970년 합계출산율과 비교하여 증감 정도를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1970년 만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으로 표에 제시된 23개국 중 멕시코 6.83명, 터키 5명 다음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였다. 1970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1.94명이었으며 독일 2.03명, 일본 2.13명, 프랑스와 미국 2.48명, 스페인 2.90명, 이스라엘 3.97명이었다. 1970년 OECD 39개국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84명이었다.

그러나 50년 후인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1970년에서 2021년까지의 50년간 표에 제시된 모든 국가에서 출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가운데, 한국은 3.72명 감소하여 멕시코의 5.01명을 제외하고 가장 감소폭이 큰 국가로 확인되었다. 1970년에서 2021년의 50년간 OECD 39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 감소치는 1.26명이다. 터키와 스페인은 각각 3.3명, 1.71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큰 국가에 속하나, 영국의 감소폭은 0.9명, 일본 0.83명, 미국 0.82명이며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0.68명, 0.27명으로 이들 국

가는 1970년에서 2021년의 50년 간 감소율이 1명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한국의 현재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고 매우 짧은 기간 내 감소한 이례적인 경우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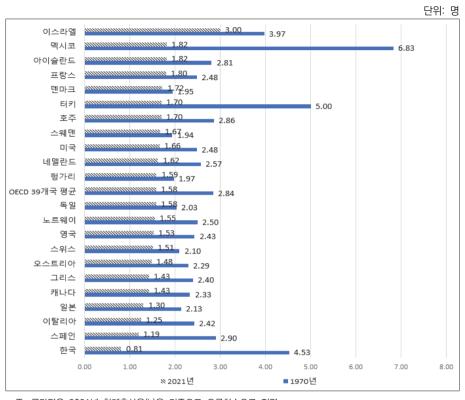
〈표 II-1-5〉OECD 주요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1970년과 2021년의 비교

단위: 명

국가	1970년 합계출산율 (a)	2021년 합계출산율 (b)	증감 (b-a)		
한국	4.53	0.81	-3.72		
스페인	2.90	1.19	-1.71		
이탈리아	2.42	1.25	-1.17		
일본	2.13	1.30	-0.83		
캐나다	2.33	1.43	-0.90		
그리스	2.40	1.43	-0.97		
오스트리아	2.29	1.48	-0.81		
스위스	2.10	1.51	-0.59		
영국	2.43	1.53	-0.90		
노르웨이	2.50	1.55	-0.95		
독일	2.03	1.58	-0.45		
OECD 39개국 평균	2.84	1.58	-1.26		
헝가리	1.97	1.59	-0.38		
네덜란드	2.57	1.62	-0.95		
미국	2.48	1.66	-0.82		
스웨덴	1.94	1.67	-0.27		
호주	2.86	1.70	-1.16		
터키	5.00	1.70	-3.30		
덴마크	1.95	1.72	-0.23		
프랑스	2.48	1.80	-0.68		
아이슬란드	2.81	1.82	-0.99		
멕시코	6.83	1.82	-5.01		
이스라엘	3.97	3.00	-0.97		

주: 국가명은 2021년 합계출산율(b)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

자료: OECD (2023),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인출일: 2023. 6. 3.).



[그림 II-1-5] OECD 주요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1970년과 2021년의 비교

주: 국가명은 2021년 합계출산율(b)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

자료: OECD (2023),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인출일: 2023. 6. 3.)

이어서 한국과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의 7개국의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에 2.72명으로 비교 국가 중 가장 높았으나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여 2020년에는 0.89명으로 현저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1980년 가장 낮은 출산율을보인 독일은 1990년대 통일 등으로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는 과정을 겪어 1994년 1.25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높아져 2016년 이후에는 1.5명 이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2020년까지 1명대 후반을 줄곧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프랑스보다 대체로 다소 낮은 출산율을 보이긴 하나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1명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1988년부터 2008년까지는 2명대 초반으로 프랑스와 영국보다 조금 높은 출산율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에는 프랑스, 영국과 비슷하게 낮아져 2020년에는 1.64명으로 나타 났다. 스웨덴의 경우 1998년 1.51명에서 반등해 2010년 1.98명까지 높아졌다가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020년 스웨덴의 출산율은 1.67명으로 영국, 독일보다 높다. 일본의 출산율은 1980년 1.75명 이후 2004년 1.29명까지 떨어졌으나 2016년 1.43명까지 상승하였다. 일본의 출산율은 2018년 1.33명, 2020년 1.29 명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해도 2020년 한국 출산율 0.89명보다 0.4명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1-6〉OECD 주요국가들의 합계출산율 추이(1980년~2020년)

단위: 명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한국	2.72	2.44	1.93	1.66	1.57	1.60	1.70	1.65	1.58	1.49	1.42
일본	1.75	1.72	1.76	1.68	1.66	1.53	1.50	1.49	1.43	1.38	1.37
미국	1.83	1.82	1.80	1.83	1.93	2.07	2.04	2.00	1.97	1.99	2.05
프랑스	1.96	1.92	1.81	1.84	1.81	1.78	1.73	1.66	1.73	1.78	1.88
독일	1.54	1.49	1.39	1.42	1.46	1.44	1.31	1.25	1.32	1.36	1.38
스웨덴	1.67	1.62	1.66	1.80	1.96	2.12	2.08	1.88	1.61	1.51	1.54
영국	1.89	1.78	1.77	1.78	1.82	1.83	1.79	1.74	1.72	1.71	1.64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한국	1.20	1.14	1.13	1.18	1.22	1.26	1.20	1.15	0.97	0.89	
일본	1.32	1.29	1.32	1.37	1.39	1.41	1.42	1.43	1.33	1.29	
미국	2.02	2.05	2.10	2.07	1.93	1.88	1.86	1.81	1.72	1.64	-
프랑스	1.87	1.90	1.97	1.99	2.02	1.99	1.98	1.89	1.84	1.79	
독일	1.34	1.36	1.34	1.38	1.39	1.41	1.47	1.59	1.56	1.52	
스웨덴	1.65	1.75	1.85	1.90	1.98	1.90	1.88	1.85	1.76	1.67	
영국	1.63	1.75	1.81	1.90	1.92	1.91	1.81	1.80	1.68	1.56	

자료: 통계청, 합계출산율(OECD회원국) UN「https://population.un.org/wpp,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 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7_OECD&conn_path=I3 (인출일: 2023. 6. 2.).

나. 무자녀 가구 현황

앞서 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자녀 가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느냐에 따라 무자녀 가구 비중은 매우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OECD Family Database¹⁷⁾에 따르면, 한국의 무자녀 가구 비중은 1990년 중반

¹⁷⁾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indicators, SF.2.5 Childlessness, https://www.oecd.org/els/family/SF_2-5-Childlessness.pdf (인출일: 2023. 3. 2.).

3.60%였으나 2005년에는 6.78%까지 증가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의 무자녀 가구 비중은 40~44세 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중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다. 2005년 기준 한국의 무자녀 가구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된 최근 자료를 사용한다면 무자녀 가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 Ⅱ-1-7〉40~44세 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 비중 (1990년대, 2010년 전후)

771	1990)년대	2010년 전후			
국가	%	기준연도	%	기준연도		
튀르키예	5.40	1990	4.50	2008		
한국	3.60	1990	6.78	2005		
슬로베니아	9.40	1991	7.00	2002		
칠레	7.90	1992	7.72	2002		
리투아니아	12.20	1995	8.40	2011		
멕시코	7.00	1990	8.55	2010		
라트비아	6.90	1995	8.70	2000		
크로아티아	9.40	1991	9.40	2001		
루마니아	9.70	1992	10.50	2002		
불가리아	8.20	1998	11.70	2011		
헝가리	8.50	1990	12.00	2011		
몰타	14.10	1995	12.90	2010		
뉴질랜드	11.90	1996	15.00	2006		
룩셈부르크	19.00	1991	15.42	2001		
오스트레일리아	12.80	1996	16.00	2011		
미국	17.50	1995	18.80	2010		
캐나다	15.90	1991	18.94	2007		
핀란드	14.60	1990	19.89	2010		
UK (England and Wales)	14.00	1995	20.00	2010		
오스트리아	7.60	1996	21.54	2010		

주: 1) 가독성을 위해 연구진이 주요 국가 위주로 자료를 발췌하였으며, 원자료에서 한 쪽이라도 값이 없는 국가는 삭제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indicators, SF.2.5 Childlessness, https://www.oecd.org/els/family /SF_2-5-Childlessness.pdf (인출일: 2023. 3. 2.).

박시내·박라나·박혜균(2020: 28~29)에 따르면, 20~49세 기혼여성의 연령집 단별 무자녀 가구 비중은 2015년 기준 평균 11.2%였다. 무자녀 가구의 비중은 연 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5~29세 기혼 여성의 경우 40.3%가 무자녀 가구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출생코호트별로 1960년생 이전까

²⁾ 국가명은 2010년 %(무자녀 비중)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

지는 기혼여성의 무자녀 가구 비중이 2.0~3.0%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1970년생의 무자녀 가구 비중은 4.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75년생은 6.8%, 1980년생은 12.9%, 1985년생은 34.8%로 크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자료의 조사 기준 시점이 2015년으로 1985년생은 30세인 시점에서의 무자녀 가구 비중이므로 이후 후속 출산 등을 통해 이 비중은 크게 감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1960년생과 1975년생의 무자녀 가구 비중만을 비교하더라도 최근 무자녀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은 분명해 보인다.

〈표 Ⅱ-1-8〉 20~49세 기혼여성의 무자녀 가구 비중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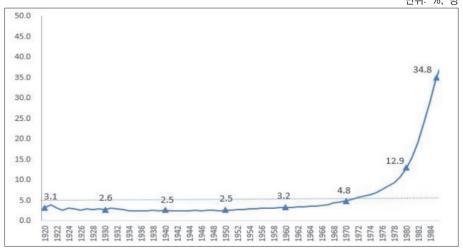
단위: %. 명

				E11. 70, 8	
MH.		TJ=11	자녀여부		
연령	무자녀 비중(%)	신세	유자녀	무자녀	
20~24세	35.0	59,008	38,352	20,656	
25~29세	40.3	340,485	203,340	137,145	
30~34세	22.8	1,069,583	826,023	243,560	
35~39세	9.5	1,407,328	1,273,042	134,286	
40~44세	5.6	1,628,537	1,537,101	91,436	
45~49세	4.0	1,667,722	1,601,468	66,254	
20~49세	11.2	6,172,663	5,479,326	693,337	

자료: 박시내·박라나·박혜균(2020). 결혼기간별 무자녀 가구 특성 분석. 통계청 통계개발원. p.28 〈표 1〉인용.

[그림 II-1-6]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무자녀 가구 비중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단위: %, 명



자료: 박시내·박라나·박혜균(2020). 결혼기간별 무자녀 가구 특성 분석. 통계청 통계개발원. p.29 [그림 19] 인용.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표본20%를 통해 최근의 무자녀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무자녀 가구의 비중은 8.4%였다. 이때 무자녀 가구는 15세 이상 기혼여성 중에서 출생자녀수가 0명인 여성의 비중을 의미한다.

〈표 Ⅱ-1-9〉 15세이상 기혼 여성의 출생 자녀수별 비중 (2020년)

단위: 명, %

구분	출생 자녀 수						
下正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
<u></u> 수	1,393,451	3,122,017	7,889,838	2,476,983	886,649	438,235	341,753
비중	8.4	18.9	47.7	15.0	5.4	2.6	2.1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연령별/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15세이상)-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F2001&conn_path=13 (인출일: 2023. 5. 3.).

기혼 여성의 수는 15세 이상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다가 50~54세가 201만7,569명으로, 75세이상 216만4,005명 다음으로 가장 많고, 55세 이상이 되면서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혼 여성 중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의 연구 대상 집단인 20~44세로, 20~24세 기혼 여성 중 출산자녀가 0명인 비중은 43.0%이며, 25~29세 기혼 여성 중 47.5%가 무자녀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30~34세의 경우 30.6%가 무자녀 가구였으나, 35~39세에서는 14.1%로 무자녀 가구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40~44세의 경우에는 8.7%만이 무자녀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무자녀 가구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은 첫째, 2020년 기준 30대 후반인 기혼 여성이 1985년생 이전 출생아로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이 1985년이후 출생한 여성과는 다를 가능성과 둘째, 초혼 및 초산 연령이 예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고 있는 현상에 기인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10〉 15세이상 기혼 여성의 연령별 무자녀 가구 비중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기혼 여성	무자녀 가구 수	무자녀 가구 비중
전체	16,548,926	1,393,451	8.4
15 -19세	1,650	1,147	69.5
20 - 24세	44,927	19,332	43.0

구분	15세 이상 기혼 여성	무자녀 가구 수	무자녀 가구 비중
25 - 29세	319,957	152,103	47.5
30 - 34세	823,820	251,903	30.6
35 - 39세	1,380,402	194,683	14.1
40 - 44세	1,602,717	139,612	8.7
45 - 49세	1,889,449	122,715	6.5
50 - 54세	2,017,569	99,201	4.9
55 - 59세	1,988,639	95,500	4.8
60 - 64세	1,887,501	99,555	5.3
65 - 69세	1,370,826	73,916	5.4
70 - 74세	1,057,464	52,543	5.0
75세 이상	2,164,005	91,241	4.2

주: 무자녀 가구는 출생자녀 수가 0명인 가구를 의미함.

2. 영유아 가구 육아 지원 정책 동향18)

이 절에서는 2023년 육아 지원 정책의 변화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설문에 새롭게 반영된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3년 육아 지원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만0세와 만1세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은 신혼부부 혹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 부스터표본 조사(임산부 가구 조사)에 포함된 임신·출산기 육아 지원 정책 현황, 육아 시간 지원과 관련된 유연근무제도 설문이 크게 보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정부 지원금과 관련하여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지원 제도와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등의 육아시간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는 이전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에서 당해연도 정책변화에 맞추어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을 뿐 아니라 큰 틀에서 이전의 지원 정책과달라진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¹⁹, 본 보고서에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단, 정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연령별/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15세이상)-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101&tblld=DT 1PF2001&conn path=13 (인출일: 2023. 5. 3.).

^{18) 2}절에 제시된 정책 현황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설문 개발 시점의 정책 현황으로, 연구 완료 시점(12월말)에 이미 변경/수정된 정책이 있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주의를 요함.

¹⁹⁾ 영아수당 제도는 2023년에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지원 정책이지만,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전년도 5월1일 이후 지원금 수혜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설문지에 반영되어 있음.

부 지원금 증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의 정책 변화는 조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가략하게 정리되어 수록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가.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 수당으로(보건복지부, 2023c: 4),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명시되며 도입이 추진되었다(박은정·이정원·윤지연 외, 2022: 17).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으로(보건복지부, 2023c: 5) 이 중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부모급여 지급대상으로 전환된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 5. 4.)²⁰⁾.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보장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만큼(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 5. 4.)21) 0~1세 아동을 위해 가정에서 양육할경우 받을 수 있었던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2023년 기준 부모급여는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을 지급하며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1. 3.)22).

부모급여의 종류는 부모급여(현금)와 부모급여(바우처)의 두 가지로 '현금지급' 과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바우처)'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c: 4, 6~7). 2023년 만 0세 기준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51만4천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과 차액(18만6천)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보건복지부, 2023c:

²⁰⁾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3. 5. 4.). 부모급여, 4월 25일 약 27만명에게 지급, https://www.mohw.g 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6123 (인출 일: 2023. 5. 11.).

²¹⁾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3. 5. 4.). 부모급여, 4월 25일 약 27만명에게 지급, https://www.mohw.g 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6123 (인출 일: 2023. 5. 11.).

²²⁾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1. 3)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https://www.moh 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4436 (인출일: 2023. 5. 11.).

4),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받는다(보건복지부, 2023c: 5). 부모급여는 기존에 가정양육을 선택할 경우 지급받는 현금성 지원(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에 비해 금액 수준이 파격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이용을 선택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전액 보장하되 부모급여 지급총액보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금액이 낮을 경우에는 차액까지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 방식의 선택권 보장을 극대화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Ⅱ-2-1] 부모급여 제도 도입 전후

(단위 : 만원)

	202	21년	
(견령	만0세	만1세
	시설 미이용	월20	월15
보육	시설 이용	월.	48

2022년					
(견령	만0세	만1세		
	시설 미이용	월3((현	. ,		
보육	시설 이용	월4 (바약			

		(_	11 . [[
2023년					
Ģ	<u> </u> 령	만0세	만1세		
	시설 미이용	월70 (현금)	월35 (현금)		
보육	시설 이용	월51.4 (바우처)+ 월18.6 (현금)	월51.4 (바우처)		

주: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출처: 보건복지부(2023c).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p.4.

나. 육아시간 지원 정책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은 육아시간 지원 정책 설문을 크게 보강하였다. 이 항에서는 육아기 시간 지원에 해당하는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육아기 시간지원으로 분류되는 육아지원제도는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한 근로자인 부모를 대상으로하는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취업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지원 제도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포함)', '유연근무제'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다.

1)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3년 기준 임신 중인 여성²³),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²⁴⁾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3: 145). 한 자녀당 부모(남· 녀 근로자)인 근로자가 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2020년부터는 동시에 사용도 허용하여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용노동부, 2023: 145, 148, 150).

한편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은 2001년 11월부터로, 2001년 8월 「고용보험법」²⁵⁾ 제55조2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면서 월 20만원의 정액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게 되었다(고용노동부, 2023: 146). 이후 육아휴직급여 금액 수준은 2007년 50만원까지 꾸준히 인상되었고,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즉 정률급여로 전환되었다(고용노동부, 2023: 147). 2017년 9월부터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은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19년 육아휴직 4개월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도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확대되었다(고용노동부, 2023: 147). 육아휴직 4개월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는 '22년 1월1일부터 통상임금의 80%까지 확대되었다. 2014년 이후에는 육아휴직제도에서 아버지(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확대되었다(표 II-2-1 참조).

이러한 정책 방향은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육아휴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므로, 남성의 육아참여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용노동부, 2023: 186).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간²⁶⁾ 활용할 수 있다(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육아휴직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용노동부, 2023: 208).

^{23) 2021}년 11월부터 임신증 육아휴직이 허용됨(고용노동부, 2023: 148).

²⁴⁾ 이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며,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에도 예정된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2023: 151).

²⁵⁾ 고용보험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일부개정]

²⁶⁾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가능하다(고용노동부, 2023: 212).

〈표 Ⅱ-2-1〉 남성 육아휴직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연혁

구분	내용
1988. 4. 1.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
1995. 8. 4.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하도록 확대(남성은 여성을 대신해서만 신청 가능)
2001. 11. 1.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근로자 대상으로 변경(남녀 불문)
2014. 10. 1.	-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 상향(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원(아빠의 달))
2016. 1. 1.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 상향(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원)
2017. 7. 1.	-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 인상 적용(150만원→200만원)
2018. 7. 1.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150만원→200만원)
2019. 1. 1.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200만원→250만원)
2020. 2. 28.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에도 육아휴지 급여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육아휴직급여 특례는 적용 제외)
2022. 1. 1.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료: 고용노동부(2023).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업무편람. p.146-148.

한편,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9년 3개월 단위로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단축시간도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조정되었다(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5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는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단축근로시간의 통상임금은 최초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나머지 시간 분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표 Ⅱ-2-2 참조).

〈표 Ⅱ-2-2〉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휴직	이하 또는 초등 학교 2학년 이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 사업주 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 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 상일 것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3+3부모육이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치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 육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이뻐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 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 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 는 초등학교 2학 년 이하의 자녀 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이휴 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35시 간)을 허용해야 함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개정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19.1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한 경우에는 개 정법 적용을 받지 않음	간 6개월 이상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 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 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으로 지원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 만원, 하한 50만원) ×(5/단축 전 소정근 로시간),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 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 상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 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자료: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 여성, 모성보호 육아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인출일: 2023. 6. 8.).

한편, 2023년 3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일·육아병행'을 꼽고 있으며, 일하면서도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

처 합동, 2023. 3. 28: 427).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기 위한 대상 아동의 연령 상한을 현행 초등 2학년(만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만12세)까지 상향하며,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이용 기간을 확대하고, '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일 1시간에서 일 2시간을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3. 3. 28: 828).

2) 가족돌봄휴직·휴가·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고용노동부, 2023: 232, 240)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족돌봄휴직 (무급),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있으며, 가족돌봄 뿐 아니라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다(고용노동부, 2023: 246).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제도로 2012년에 도입되었으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연간 최대 90일을 분할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3: 232).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대상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가 포함되는데, '조부모'와 '손자녀'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2제1항 개정으로 추가되었다(고용노동부, 2019a: 11). 2020년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속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되었다(고용노동부, 2023: 232).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는 가족돌봄의 사유에 질병, 사고, 노령 외에 '자녀 양육'이 추가되며, 이러한 사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무급 휴가이다(고용노동부, 2023: 240).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²⁹⁾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

²⁷⁾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3. 3. 28.).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 =191&listLen=20&searchKeyword=&position=M (인출일: 2023. 6. 8.).

²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3. 3. 28.).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 =191&listLen=20&searchKeyword=&position=M (인출일: 2023. 6. 8.).

었으며, 1일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매년 반복해서 이용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용노동부, 2019a: 10-11; 고용노동부, 2023: 242).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는 모두 무급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20년 한시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시행된 바 있다(고용노동부, 2023: 240).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의한 초·중고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의 개학연기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이 권장되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5만원을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을 지원한 바 있다30). 감염병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의 고시로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고용노동부, 2023: 245).

〈표 Ⅱ-2-3〉가족돌봄 관련 휴가/휴직/근로시간단축 제도

유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도입 시기	2012	2019	2019
대상	-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그외 자녀 양육으로 인한 단축 불가)	-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 녀양육'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모든 근로자(가족 돌봄, 본 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이 필요한 경우)
내용	- 연간 최대 90일(분할 사용 가능) -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 상 사용 -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 - 근속기간 포함	- 연간 최대 10일 사용(가족 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1일 단위 사용 - 근속기간 포함	- 1년. 단 학업 사유를 제외 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2년 연장 가능 - 단축기간 중 주당 15~30 시간 근로.
비고	- 장기적 돌봄 필요시 사용 - 무급	- 단기적, 긴급한 사유 - 무급(단, '20년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원)	- '가족 돌봄'에는 질병, 사고, 노령에 대한 돌봄에만 한정(그외 자녀 양육으로 인한 단축 불가)

주: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구성함.

자료: 고용노동부(2023).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p.232, 240, 246-248.

²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일부개정]

³⁰⁾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 가족돌봄휴가 지원 안내, https://www.moel.go.kr/ne ws/cardinfo/view.do?bbs_seq=20200300494 (인출일: 2020. 3. 25.);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 0: 48에서 재인용.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가족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나, '가족'의 범위에 '자녀'는 포함되나 자녀의 '질병, 사고'로 인한 그 외의 일반적인 육아의 사유로 자녀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고용노동부, 2023: 247~24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주당 15시간~30시간 이하로 근로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2023: 246).

3) 「근로기준법」³¹⁾ 상 유연근로제도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19b: 3). 유연근무제를 활용함으로써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인재들에게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고용노동부, 2019b: 3).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사업장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제1·2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이고 넓게는 보상휴가제(제57조)까지 포함한다(고용노동부 2019b: 3). 각 유연근로시간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2-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Ⅱ-2-4〉 유연근로시간제 유형별 상세 내용

유형	내 용	적합 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 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 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사업장 밖 간주근로 시간제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 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 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

³¹⁾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유형	내 용	적합 직무
재량근로 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 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 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아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 로 부여하는 제도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 기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하 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 육 등의 직무

자료: 고용노동부(2019b).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p.4.

4) 재택근무제

한편, 재택근무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로시간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통상 '유연근무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OECD 선진국들은 디지털경제를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1990년대 이후 재택근무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근로기준법」에 유연근무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장시간·경직적 고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한노력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포함해 유연근무제의 활용도는 미흡한 상황이었다(고용노동부, 2020: 6~7).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활용을 시작하였고(고용노동부, 2020: 7),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자 정부도 관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재택근무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비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2: 1).

재택근무는 단순히 일하는 장소의 변화가 아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효율 향상, 직무만족도 증가, 건강보호, 출퇴근 부담 경감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상황에서의 경력단절 예방, 출퇴근 부담 경감, 효율적 업무처리로 자기 계발 및 재충전의 시간 확보, 가족돌봄이나 육아 등과의 병행이 가능한 일·생활 균형이 실현되며, 장애인·고령자요양중인 자임신·출산자도 재택근무를 하며 일을 할 수 있어 고용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용노동부, 2020: 10~11).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는 '일·육아 병행'이며, 일 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육아기 단축 근로 및 유연근무 활성화'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3. 28: 4). 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는 이를 위해 육아기의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등 근무형태 다변 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및 법적근거를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3. 3. 28: 8).

다.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 정책

이 항에서는 저출산 관련 주거 지원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하나의 정책 사업 내에서 지원 대상이 대학생, 청년, 고령자 등으로 다양한 경우가 다수이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 지원 사업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한다(국토교통부 마이홈32).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추어 가구의 생애주기 상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이 높은 시기, 즉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영유아 가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다시 말해, 이하에 제시되는 주거 지원 정책들은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영유아 가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정책 사업들로, 해당 정책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보다 훨씬 포괄적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한편,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 정책은 크게는 주택의 매입 혹은 임대 등을 지원하는 협의의 주거 지원과 매입 혹은 임대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주택의 매입 혹은 임대 지원

주택의 매입 혹은 임대 등의 지원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영유

³²⁾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행복주택, https://www.myhome.g 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8 (인출일: 2023. 3. 31.).

아 자녀가 있는 기혼자 가구, 한부모 가구 및 다자녀 가구와 같이 자녀 돌봄 취약한 가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기혼자와 한부모 가구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지원 대상을한정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혹은 2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의 매입 혹은 임대를 지원하는 경우 모든 지원 정책이 가구 특성 뿐 아니라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혹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이면서 경제적 취약 계층인 경우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갖는다.

〈丑	II-2-5>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	사업	지원	대상 1
----	---------	-----	----	------	----	----	------

저해면	가구 특성 기준			사도기조 미 지사기조	
정책명	1	2	3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행복주택	0	0	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영구임대주택	0	0	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전세임대주택		0		- (신혼부부 I)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II)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주: ① 예비신혼부부, ②신혼부부(7년이내), ③기혼자(6세 이하 자녀를 둠)을 의미함.

〈표 II-2-5〉부터 〈표 II-2-7〉는 주택의 매입 혹은 임대를 지원하는 정책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간략히 요약한 표로, 가독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의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크게 3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행복주택 지원과 영구임대주택지원은 예비신혼부부와 혼인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자 가구를 정책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국한하고 있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혼인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에

자료: 1)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행복주택, https://www.myhome.go. 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8 (인출일: 2023. 3. 31.).

²⁾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한내,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https://www.myhome. 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 e=RH103 (인출일: 2023. 3. 31.).

³⁾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https://www.myhome. 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7 (인출일: 2023. 3. 31.).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한편, 예비신혼부부 및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자가구 뿐 아니라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 지원 사업으로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들도 모두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책별로 소득 기준 및 자산가액 기준이 약간씩 상이하나,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Ⅱ-2-6〉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 사업 지원 대상 2

저채대	가	구특	성 기	둔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정책명	1	2	3	4	포국기는 및 시간기는	
신혼희망 타운	0	0	0	0	- (분양형)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총자산 37,900만원 이하 - (임대형)행복주택 기준	
통합 공공 임대주택	0	0	0	0	-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2023년 기준)	
국민임대 주택	0	0	0	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023년 기준 총자산가액 3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청년신혼 부부 매입임대 리츠 (아파트)	0	0	0	0	- 소득 및 기준: 지역별 공고에 따라 상이 - (서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시 140%),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4,268만원 이하 (2023년 기준) - (경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시 120%),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023년 기준)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I , II	0	0	0	0	- (매입임대 I)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 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매입임대 II)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자산기준: 행복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주: ① 예비신혼부부, ②신혼부부(7년이내), ③기혼자(6세 이하 자녀를 둠), ④한부모기혼자(6세 이하 자녀를 둠)을 의미함.

자료: 1)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신혼희망타운, https://www.myhome.go.kr/hw s/portal/cont/selectContHoneyMoonView.do#guide=HM401 (인출일: 2023. 3. 31.).

²⁾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12 (인출일: 2023. 3. 31.).

- 3)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https://www.myhome. 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quide=RH104 (인출일: 2023. 3. 31.).
- 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 파트), https://www.lh.or.kr:443/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ld=238&menuYear = (인출일: 2023. 3. 31.).
- 5)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서울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 blancId=12842 (인출일: 2023, 3, 31.).
- 6)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경남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주택 재임대 모집 공고,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 blancId=12835 (인출일: 2023. 3. 31.).
- 7)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 http s://www.lh.or.kr:443/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ld=235&menuYear= (인출일: 2023 3 31)
- 8)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https://www.lh.or.kr:443/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ld=602&menuYear= (인출일: 2023. 3. 31.).
- 9)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경기남부] 23년 1차 신혼부부 매입임 대주택 I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 ilView.do?pblancId=13121 (인출일: 2023. 3. 31.).
- 10)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경기남부] 23년 1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oblancId=13102 (인출일: 2023, 3, 31.).

이상의 가구 특성 기준 이 외에 다자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주 거 지원 사업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 주택 사업이 있다. 공공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가 3명이상인 경우이며, 장기전세주택 지원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가 2명이상인 경우에 우선공급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공공임 대주택, 장기전세 지원의 경우에도 앞서 주거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 자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표 Ⅱ-2-7〉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 사업 지원 대상 3

저채명	개구 특성 기준		<u> </u>	メニカス ロ エルカス		
정책명	1	2	3	4	(5)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공공분양 주택	0	0	0	0	3명 이상	- (일반)130%(맞벌이 140%),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 이하(맞벌이 120%)에게 우선 공급, 자산기준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023년 기준) - (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120%, 자산기준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 기준)

거래머	가구 특성 기준					사무기조 미 지사기조
정책명	1	2	3	4	(5)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공공임대 주택	0	0	0	0	3명 이상	- (일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 (다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장기전세 주택	0	0	0	0	2명 이상	- (전용 60m ²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전용 60m ² 초과 ~ 85m ²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자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023년 기준)

주: ① 예비신혼부부, ②신혼부부(7년이내), ③기혼자(6세 이하 자녀를 둠), ④한부모기혼자(6세 이하 자녀를 둠), ⑤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수 기준, 태아포함)을 의미함.

- 2)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공공분양, 일반 및 특별공급,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LttotView.do#guide=LT304 (인출일: 2023. 3. 31.).
- 3)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https://www.myhome. 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6 (인출일: 2023. 3. 31.).
- 4)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장기전세, https://www.myhome.go. 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quide=RH105 (인출일: 2023. 3. 31.).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장기간에 걸쳐 계약 갱신이 보장되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형태의 지원이라고 볼 수있다.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과 수준은 정책 사업별로 약간씩상이하나, 대체로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매입 혹은 임대를 지원하고 있다. 단,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전용면적 기준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임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에 대한 임대 지원 사업이다. 또, 대부분의 사업이 매입보다는 임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임대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표 II-2-8〉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Ⅱ-2-8〉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 사업 지원 내용

정책명	지원내용	
행복주택	- 전용면적 기준 60m²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무자녀 6년, 1자녀 이상 1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영구임대주택	- 전용면적 기준 40㎡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5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자료: 1)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소개 https://www.myhome.ao.kr/hws/portal/cont/selectContLttotView.do#auide=LT301 (연출일: 2023. 3. 31.).

정책명	지원내용
전세임대주택	- 단독·다기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도움말 규모 [전용면적 85㎡(1인기구의 경우 60㎡)]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신혼희망타운	-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통합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기준 85m²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국민임대주택	- 전용면적 기준 60m²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10년) -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ㅣ,॥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2년, 재계약 2회 가능(최대 6년)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10년) - (매입임대 I)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매입임대 II)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70%, 80% 초과시 80%)
공공분양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5년/1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장기전세주택	- 전용면적 기준 85m²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5년/1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 자료: 1)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행복주택, https://www.myhome.go. 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8 (인출일: 2023. 3. 31.).
 - 2)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quid e=RH103 (연출일: 2023. 3. 31.).
 - 3)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https://www.myhome. 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7 (인출일: 2023. 3. 31.).
 - 4)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신혼희망타운, https://www.myhome.go.kr/hw s/portal/cont/selectContHoneyMoonView.do#quide=HM401 (인출일: 2023. 3. 31.).
 - 5)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12 (인출일: 2023. 3. 31.).
 - 6)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https://www.myhome. 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4 (인출일: 2023. 3. 31.).
 - 7)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 파트), https://www.lh.or.kr:443/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ld=238&menuYear = (인출일: 2023. 3. 31.).
 - 8)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서울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 blancId=12842 (인출일: 2023. 3. 31.).
 - 9)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경남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주택 재임대 모집 공고,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

blancId=12835 (인출일: 2023, 3, 31.).

- 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htt ps://www.lh.or.kr:443/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ld=235&menuYear= (인출 일: 2023. 3. 31.).
- 1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htt ps://www.lh.or.kr:443/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602&menuYear= (인출 일: 2023. 3. 31.).
- 12)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경기남부] 23년 1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13121 (인출일: 2023. 3. 31.).
- 13)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경기남부] 23년 1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13102 (인출일: 2023. 3. 31.).
- 14)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소개 https://www.my 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LttotView.do#guide=LT301 (인출일: 2023. 3. 31.).
- 15)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공공분양, 일반 및 특별공급,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LttotView.do#guide=LT304 (인출일: 2023. 3. 31.).
- 16)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6 (인출일: 2023. 3. 31.).
- 17)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장기전세, https://www.myhome.g 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5 (인출일: 2023. 3. 31.).

2) 저출산 대응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제도

한편,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정책 중 금융 지원 정책으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혼부부,다자녀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지원이 있다. 이들 금융 지원은 주택의 구입 혹은 전세 자금을 대출하려고 할 때,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가구의 대출금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거나, 대출금 상한을 높여주는 형태의지원이다. 저출산 대응 주거관련 금융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표Ⅱ-2-9〉에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Ⅱ-2-9〉 저출산 대응 주거관련 금융 지원 제도

정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 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 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10년, 15년, 20년, 30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세부내용 참고)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60% 이내 - LTV: 80% 이내 - 가구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 -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정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	- 소득과 자산 기준. -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 완화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 호당 대출 한도: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신혼부부 전용 전세지금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 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소 득 및 자산 기준 있음.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 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 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서울,인천,경 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자료: 1)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 03/FP05030101.jsp (인출일: 2023. 3. 31.).

- 2)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 P0503/FP05030601.jsp (인출일: 2023. 3. 31.).
- 3)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주택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 P0502/FP05020401.jsp (인출일: 2023. 3. 31.).

라. 임신·출산기 지원 정책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은 임산부 가구 500가구를 부스터표본으로 구축하여 조사한다. 이에 임산부 가구 대상 조사인 B형 설문에서는 본조사(A형 설문) 및 무자녀 가구 설문(C형 설문)에 포함되어 있는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정책이나유연근무 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시간 지원 정책, 보편 지원인 육아 지원 정책 등의 공통 질문뿐 아니라 임신·출산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제도 활용 경험 등을 추가적으로 질의하였다. 임신·출산기 지원은 크게 임신 상태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 지원 정책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임신·출산기 시간 지원 정책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제도로는 출산전후휴가를 꼽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전후로 총 90일의 휴가(쌍태아 이상인 경우 120일)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74조 ①항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이전년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육아시간 정책의 한 부분으로, 출산전후휴가 활용 여부를 조사해오고 있으며,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도 본조사 및 임산부 가구 설문, 무자녀가구 설문에 공통 질문으로 포함하여 조사하였다.33)

한편, 직접적인 지원 대상자인 임산부의 제도 인지 여부 및 활용 경험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중 임산부 가구 설문(B형 설문)에서만추가적으로 질문한 임신·출산기 시간 지원 정책으로 임신근로자근로시간단축 제도와 태아검진시간보장 제도, 임산부야간·휴일근로제한 제도, 난임(치료)휴가 제도등이 있다. 임신근로자근로시간단축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 ⑦항에 근거한지원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태아검진시간보장 제도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 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제도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근거하여지원된다. 임산부야간·휴일근로제한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0조 ②항에 근거하며, 임신 중이거나출산 후 1년이지나지 않은 여성의 야간(오후10시부터 오전6시) 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법령이다. 한편, 흔히 난임 휴가 제도로 불리우는 난임치료휴가는 「근로기준법」이아닌「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34 제18조의3에근거한지원으로,성별을 막론하고 난임 치료 중인근로자가난임 치료를 위해연간 3일의휴가(최초1일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되어있다.

³³⁾ 반면, 「근로기준법」에는 유산 및 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유산·사산휴가(제74조③항),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금지(제74조⑤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에는 포함되지 않음.

³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표 II-2-10〉 임신·출산기 임금근로자 시간 지원 정책

제도명	내용	근거 법령
출산전후 휴가 제도	-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쌍태아 이상인 경우 120일) 의 휴가를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 야 한다.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 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 축을 신청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 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 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태아검진 시간 보장 제도	- 임신한 여성 근로자 -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 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주어야 한다.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제한 제도	-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야간(오후10시부터 오전6시), 휴일근로를 금지한 제도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난임(치료)휴가	난임 치료 중인 근로자연간 3일 이내 휴가(최초1일 은 유급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 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 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자료: 1)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 2)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근로자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time.asp (인출일: 2023. 7. 3.).
-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 부개정]

2) 임신·출산기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임신·출산기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가장 최근 연구인 권미경·이정원·이재희 외(2022: 114

~134)와 이소영·진화영·오신휘(2022: 65~126)를 참조하여 2023년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임신·출산기 지원 제도를 1차적으로 선별한 후, 임산부 대상의 심층 면담(FGI) 등을 거쳐 주요 지원 정책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주요 임신·출산기 지원 정책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임산부 가구 설문(B형 설문)에 포함되었으며, 설문의 문항 배치 순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실사 전 설문 문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실시된 임산부 대상의 심층 면담(FGI)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정책 사업 순으로 재배치하였다. 〈표 II-2-11〉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임신·출산기 주요 지원 정책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II-2-11〉 임신·출산기 주요 정책 지원

정책 사업명	내 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국민행복카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제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기진통 등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게 입원치료비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출산부 및 영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산 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5-25일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사업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산모수첩 및 아기수첩을 제공하는 제도.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를 통해 신청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사업	엽산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 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 임신 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임신 16주부터 분 만 전까지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 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자료: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임산, 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본문), 건강보험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35&ccfNo=2&cciNo=2&cnpClsNo=1 (인출일: 2023. 7. 3.).

- 2) 보건복지부(2023a). 2023 모자보건사업안내. pp.88~96 & pp.196~205.
- 3)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0.7),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안내. pp.1~8.
- 4) 보건복지부(2023b).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p. 3~5.
-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임신, 임산부 건강 챙기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본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35&ccfNo=2&cciNo=1 &cnpClsNo=2&menuType=cnpcls (인출일: 2023. 7. 3.).

임신·출산기 임산부 혹은 태아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보건·의료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산부 대상의 심층면담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 였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임신 1회 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로(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35)). 임산 부라면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 지원의 성격을 갖는 제도이다36). 반면, 고위 험임산부의료비지원 제도(보건복지부, 2023a: 196~205)와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사업(보건복지부, 2023a: 88~96)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 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국한하여 지워되는 제도이다. 한편, 생애초기건강관리 서비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7: 1~8)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 워서비스 제도(보건복지부. 2023b: 3~5)는 간호사 혹은 건강관리사 등을 파견하 여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보건서비스 지원 제도이다. 이 외에 보건소를 통해 지원되는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사업(보건복지부, 2023a: 10 ~12)과 엽산제및철분제지원사업(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37)) 등이 임신·출산기 주 요 정책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 단,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제도와 난임부부시술 비지워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등은 2022년 이후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됨에 따라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다.

³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임신, 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본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 v&csmSeq=735&ccfNo=2&cciNo=2&cnpClsNo=1 (인출일: 2023. 7. 3.).

³⁶⁾ 단, 심층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 사업명으로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국민행복카드 지원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 설문에는 정책 사업명을 병기하여 기재하였음.

³⁷⁾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임신, 임산부 건강 챙기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본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35&ccfNo=2&cc iNo=1&cnpClsNo=2&menuType=cnpcls (인출일: 2023. 7.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 개요

- 01 조사 설계
- 02 설문의 구성과 변화
- 03 조사 결과 및 응답자 특성

Ⅲ.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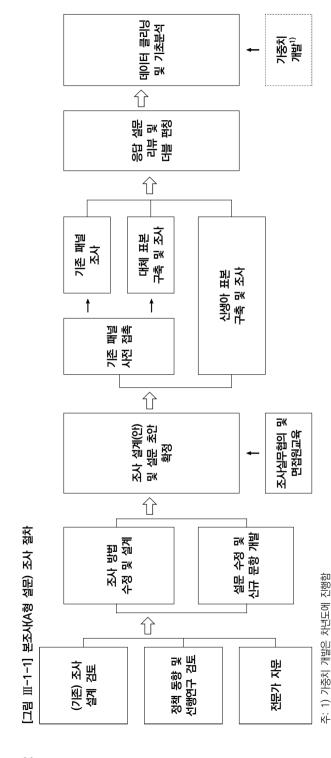
1. 조사 설계

가. 조사 절차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이 I기 조사와 갖는 가장 큰 차이는 부스터 표본 의 구축이다. 즉,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는 본조사로 I기 조사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본조사(영유아 가구)의 대조군에 대한 부가조사 혹은 본조사의 부족한 표본을 보강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가 표본을 구축하였다. 2023년에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대조군으로 무자녀 가구와 임산부 가구에 대한 부스터 표본 구축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가 자신이속한 집단 구분에 대한 거부감이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문의 유형을 본조사는 A형 설문으로, 임산부 가구는 B형 설문으로, 무자녀 가구의경우에는 C형 설문으로 표기하였다. 다만,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편의상 본조사혹은 부스터 표본(혹은 부가조사)과 함께 경우에 따라 A형 설문, B형 설문 등의표기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1) 본조사(A형 설문)의 조사 절차

본조사의 조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I기 조사의 방식을 준용하여 수행하였다. 이전 조사에서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사 설계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설문의 경우에는 최근의 정책 동향과 사회적 시의성 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본조사의 조사 절차는 [그림 III-1-1]과 같다.



주: 1) 가중치 개발은 차년도에 진행함 2) 조사 설계(인)은 조사 방식 및 조사 도구, 표본 추적 및 구축 원칙 등을 포괄함. 3) 보고서 작성은 조사 완료 이후 차년도에 수행하는 업무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분석 결과는 2024년 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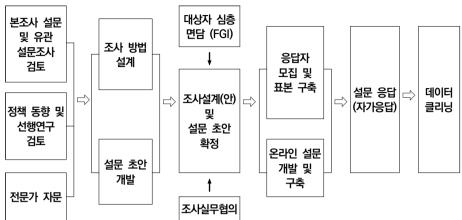
한편, 본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응답 가구를 방문하여 대면 면접 조사로 진행되므로, 조사 설계 및 설문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서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면접원 교육은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1회씩 총 5회 실시하였다. 면접원 교육은 일차적으로는 당해연도 조사 설계와 표본 추적 원칙 및 대체 표본 구축 방법, 설문 내용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조사상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면접원들에게 주지시키는 목적으로 수행되지만, 면접원 교육 과정에서 수정·보완된 당해연도 설문의 오류를 확인하고 기본 개념이 어려운 질문(정책이나 용어) 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설문을 재차 수정하는 중요한 계기가되어 왔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집단 교육이 어려웠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되었으며, 2023년에는 다시 권역별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Ⅲ-1-1〉 면접원 교육 일정 및 실시 현황

차수	교육일자	교육지역	참석자(면접원)
1차	5. 15	대전	7명
2차	5. 15	광주	7명
3차	5. 16	부산	9명
4차	5. 16	대구	10명
 5차	5. 18	서울	35명

2) 부스터 표본(B형 설문 및 C형 설문)의 조사 절차

부스터 표본 조사(B형 설문 및 C형 설문) 조사 절차는 [그림 III-1-2]와 같다. 부스터 표본 조사의 경우 본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설문 문항(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주거 지원 정책 및 육아 지원 정책 인지 등)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2023년도 본조사 설문과의 문항과의 일치 혹은 유사한 형태로의 설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출산 의향 및 출산 지연 사유, 미래 전망 등과 관련된설문의 개발을 위해 국내 유사 설문 조사의 문항을 폭넓게 참고하였다. 또, 임산부설문의 경우 임산부 및 임신 가구 지원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 동향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초기설문 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림 Ⅲ-1-2] 부스터표본(B형 설문 및 C형 설문) 조사 절차

- 주: 1) 조사 설계(안)은 조사 방식 및 조사 도구, 표본 추적 및 구축 원칙 등을 포괄함.
 - 2) 보고서 작성은 조사 완료 이후 차년도에 수행하는 업무로, 그림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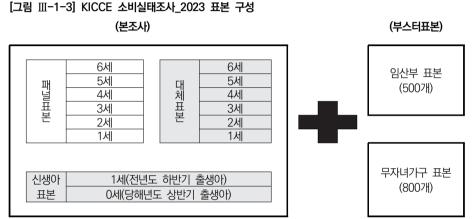
특히 부스터 표본 조사의 경우 설문 초안이 완성된 이후 임산부 5인 및 무자녀가구 5인에 대한 심층 면담(FGI)을 실시하여, 설문 문항에 대한 집중 검토를 실시하였다. 부스터 표본 조사의 경우 본조사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자가 응답이 주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대상자 심층 면담(FGI)을 통해 응답자가 설문을 읽고 쉽게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이 개발되었는지, 응답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항은 무엇인지, 설문에 제시된 정책 혹은 개념이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丑 Ⅲ-1-2	〉심층면담	대상자 특성
----------	-------	--------

구분	일시	성별	나이	거주지역	결혼기간
임산부 가구	5. 11	여	30대	서울	2년 9개월
		여	30대	인천	4년
		여	30대	경기	7년
		여	30대	경기	5년
		여	40대	서울	10년
무자녀 가구	5. 11	여	30대	서울	1년 3개월
		여	30대	경기	1년 2개월
		여	30대	서울	2년 2개월
		여	30대	서울	5년
		여	40대	경기	5년

나. 표본 구축

본조사 표본은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표본 대상으로 한다. 한편, 부스터 표본은 특정 시점에만 별도 표본을 구성하여 횡단적으로 조사하는 자료로, 2023년에는 임산부 가구(B형 설문) 500가구와 무자녀 가구(C형 설문) 800가구에 대한 부가조사를 목표로 하였다.



- 주: 1) 패널 표본은 전년도 조사에 이어 추적조사 한 표본으로, 차년도에도 추적조사를 실시(단, 6세 제외).
 - 2) 대체표본과 신생아표본(회색음영)은 당해연도 신규 구축하여 차년도부터 추적조사 실시.
 -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부스터 표본은 임산부 가구 표본과 무자녀 가구 표본으로 구성되며, 2023년에 한해 조사함.

1) 본조사 : A형 설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본조사 표본은 전년도 조사 표본을 추적 조사한 표본 (패널 표본), 전년도 조사 표본에 대한 추적 조사에 실패하여 새롭게 대체한 대체표 본, 당해연도 상반기 출생아(0세)와 전년도 하반기 출생아(1세)로 구성된 신생아 표본으로 구분된다.

2023년 조사에서는 2022년에 조사에 성공한 1,730가구 중 막내 자녀 연령이 6세였던 212가구를 제외하고, 1,518가구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2년 하반기 출생아와 2023년 상반기 출생아가 있는 영유아 가구 각 127가구를 신생아 표본으로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총 1,773가구가 조사되었다.

먼저, 패널 표본의 경우에는 전년도 조사 표본을 추적 조사한 표본으로 이전조사

차수 자료와 패널 자료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다. 단, 전년도 기준 막내자녀 연령이 6세아였던 가구는 당해연도 막내 자녀가 7세(초등 1학년)가 되어, 영유아 가구에서 제외되므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38). 또한, 전년도 조사에서 표본이 대체된 경우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전전년도 표본 가구가 아닌 전년도 대체 표본 가구를 추적한다. 즉, 한번 조사에서 탈락한 가구는 더 이상 추적 조사하지 않고 대체하며, 차년도부터는 대체 표본 가구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 추적률은 1차년도 원표본에 대한 추적률이 아닌 전년도 조사 표본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값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반면, 전년도 하반기 출생아와 당해연도 상반기 출생아가 있는 영유아 가구는 신생아 표본으로 매해 새롭게 각 125가구 내외를 추가적으로 구축한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기간이 당해연도 5월부터 8월까지이기 때문에, 전년도 상반기 출생아는 전년도 자료에서 125가구 이상이 이미 구축된 상태이고, 전년도 하반기 출생아는 당해연도에 125가구를 추가 구축하여 각 연령별로 250가구 내외가되도록 표본을 구성하고 있다.

〈전년도〉 〈당해년도〉 6세 〈추적 조사 성공〉 〈추적조사 실패〉 5세 6세 6세 4세 5세 패널표 5세 대체 3세 4세 4세 茁 2세 3세 3세 본 본 2세 1세 2세 추적조사 0세 1세 1세 1세(전년도 하반기 출생아) 신생아 (신규 구축) 표본 0세(당해년도 상반기 출생아)

[그림 Ⅲ-1-4]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 및 추가 방식(막내자녀 연령 기준)

- 주: 1) 굵은 실선은 추적 대상 표본 가구를 의미하며(전년도 6세는 추적 대상 표본에서 제외), 굵은 점선은 추적 조사에 성공한 표본의 당해연도 연령을 의미.
 - 2) 표본의 연령은 가구의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함.

³⁸⁾ 단, 해당 가구 내 출산, 입양 등 이유로 막내 자녀가 새롭게 추가된 경우는 조사 대상에 포함.

한편, 전년도 조사 표본 가구 중 추적 대상 가구(막내 자녀 연령이 0~5세였던 가구)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유효 관측치 확보를 위해 당해연도에 바로 유사 특성을 가진 가구로 대체한다.

이때 가구 대체 원칙은 기존 표본 가구와 자녀 수, 막내 자녀의 연령이 동일하고 해당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로, 최대한 대체 표본으로 인한 표본 특성이 변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최효미·이정원·김자연 외, 2021: 85). 단,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가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해당 조사구 내 동일 특성의 표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인접 조사구로 확대하여 대체 표본을 구축한 경우가 많았다(최효미·이정원·김자연 외, 2021: 85). 이에 2023년 조사부터는 대체 표본 가구 구축 지역 범위를 기존 표본과 동일한 조사구가 아닌 시군구로 크게 확대하여 조사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원칙 2 원칙 3 원칙 1 동일특성 동일 연령 동일 지역(읍면동) 모취업 〉 가구소득 〉 자녀수〉 기관유형 대체표본 가구 1.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 5세 2. 4세 3. 취업모 3. 취업모 4. 가구소득 5백만원 4. 가구소득 5백만원 5. 1자녀 5. 1자녀 6. 어린이집 6.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그림 Ⅲ-1-5] KICCE 소비실태조사 대체표본 구축 원칙

주: 대체표본 구축 시 막내자녀의 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년도 조사에서 1세 증가한 연령을 조사.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내부자료(2023a).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면접원 교육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각 차수별 본조사 표본의 막내 자녀 연령과 출생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은 2012년생(6세)~2018년 상반기 출생아(0세)까지를 표본 가구로 하고 있다. 매해 아동의 연령이 1세씩 증가 함에 따라 표본의 출생년도도 1년씩 증가함으로 알 수 있다.

비기 1기 출생 출생 2024 | 2025 | 2026 | 2027 년도 시기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 (추진계획) 2027 상반기 0세 하반기 1세 2026 상반기 ()세 1세 하반기 1세 2025 2세 상반기 0세 1세 하반기 1세 2세 2024 3세 상반기 ()세 1세 하반기 1세 2023 2세 3세 4세 상반기 0세 1세 하반기 1세 2022 2세 3세 4세 5세 상반기 0세 1세 하반기 1세 2021 2세 3세 4세 5세 6세 상반기 ()세 1세 하반기 1세 2020 2세 3세 4세 5세 6세 상반기 0세 1세 하반기 1세 2019 2세 3세 4세 5세 6세 상반기 0세 1세 하반기 1세 2018 2세 3세 4세 5세 6세 상반기 0세 1세 2017 2세 3세 4세 5세 6세 1세 2016 2세 6세 3세 4세 5세 3세 5세 2015 4세 6세 2014 4세 5세 6세 7세(초1) 2013 5세 6세 7세(초1) 2012 7세(초1) 8세(초2) 6세

〈표 Ⅲ-1-3〉 연차별 조사 대상 출생연도(막내 자녀 연령 기준)

단, 2019년도에는 초등돌봄 수요 파악을 위해 2012년생이 초등학령기에 진입했음에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막내 자녀가 2012년생인 조사 표본들은 2020년까지 추적조사가 실시되어, 2020년 조사 표본은 막내 자녀 연령 기준 만 8세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2021년에는 조사 예산상 문제로 초등학령기 추적 대상을 초등1학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2014년생까지만 추적조사가 이뤄졌으며, 2022년에는 조사 대상을 영유아기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즉, 2012년생과 2013년생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0'까지 총 3개연도에 조사되었으며, 2014년생은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KICCE 소비

주: 1) 셀 안의 연령은 생활연령으로, 각 출생년도별 아동의 조사 당해연도 연령을 의미함. 연령이 기재되지 않고 사선 처리된 경우는 당해연도 조사 대상 기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함.

²⁾ 하늘색 음영(굵은글씨)는 조사 당해연도 표본의 출생년도와 연령을 의미하며, 검은색 음영 표기 부분은 당해연 도 신생아 표본 가구를, 회색 음영 표기 부분은 초등학령기가 조사된 차수와 조사된 연령 구간을 표시한 것임.

실태조사_2020'(만 4세~7세, 초1)까지 4개 연도에 응답 값이 존재한다. 2023년 기준 시계열이 가장 길게 축적되어 있는 코호트는 2017년생(만 1세~6세)과 2018년 상반기 출생아(만 0세~5세)로, 총 6개의 시계열을 활용할 수 있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본조사 표본 가구의 영유아의 출생년도(막내 자녀 기준)는 2017년생(6세)부터 2023년 상반기 출생아(0세)까지이다.

이상과 같은 본조사의 표본 구성 원칙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약간의 변경은 있지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 이후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원칙이며,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연구 또한 이 원칙대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결과적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에서 막내자녀 연령이 1세였던 가구가 한 번도조사에서 탈락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다면,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에 6세로추적 대상 표본 가구에 해당하며, 해당 가구는 6개년도 모두 패널 자료로 연결하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해 한 개 연령씩이 추적 대상 표본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대체 표본도 10~20%가량 되기 때문에, 6개년 모두를 패널로 연결하여 사용하기에는 관측치가 매우 적은 한계가 있다. 다만, 인접한 2~3개 연도의 자료를 패널 자료로 연결한 경우에는 1,000가구 이상의 충분한 관측치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간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 표본 및 신생아 표본을 포함하는 시계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관측 이질성의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의 경우에는 3개연도 이하의 자료를 패널 형태로 구성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2) 부스터표본 : B형 설문 (임산부 가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은 본조사와 함께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부스터표본으로 구축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임산부 가구의 표집은 통계청 '인구 동향조사'의 신생아 통계를 활용하여, 신생아의 모 연령과 지역을 고려하여 비례 할당하였다. 이때, 임산부 가구의 경우 첫째아를 임신한 경우와 둘째아 이상을 임신한 경우의 가구 소비지출 행태 및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가 큰 차이를 보일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이 표집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임신한 자녀의 출생 순위를 고려하여 소프트 쿼터(Soft Quota)³⁹⁾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³⁹⁾ 최소 조사 표본 수(혹은 비율)를 지정하는 방식을 의미함.

임산부 가구 목표 표본 수는 총 500가구로, KICCE 소비실태조사 신생아 표본 가구의 2배로 설정하였다. 임산부 가구(B형 설문) 표본의 모집단과 표본 배분안은 〈표 III-1-4〉와 같으며, 다자녀 가구 비중을 고려하기 위한 소프트 쿼터를 적용한 표본 모집단과 표본 배분안은 〈표 III-1-5〉와 같다. 즉, 임산부 가구 표본은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연령과 지역을 고려하여 표집 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둘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일정 수 이상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2023년도에 조사된 임산부 가구는 2023년에 한해 조사되는 조사 표본이 긴 하나, 향후 2024년 조사에서 신생아 표본 가구 구축 시 해당 표본이 다시 조사에 응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임산부 가구에 대한 추적 조사를 조사의 원칙으로 하지는 않으며, 2023년에 한해 대조군으로서의 표본임을 밝혀둔다.

〈표 Ⅲ-1-4〉B형 설문 모집단(2021년 기준) 및 표본 배분(안): 신생아 모 연령 현황 기준

78	모집단(2021년 기준 신생아 모 인구)				표본 배분안 (*비례 할당)			
구분	계	29세 미만	30-34세	35세 이상	계	29세 미만	30-34세	35세 이상
전국	260,449	53,880	115,290	91,279	500	103	220	177
서울	45,481	5,718	20,932	18,831	87	11	40	36
부산	14,443	2,636	6,482	5,325	28	5	12	11
대구	10,657	2,204	4,792	3,661	21	5	9	7
인천	14,943	3,305	6,408	5,230	28	6	12	10
광주	7,954	1,838	3,456	2,660	15	3	7	5
대전	7,414	1,729	3,265	2,420	14	3	6	5
울산	6,127	1,393	2,908	1,826	12	2	6	4
세종	3,569	620	1,739	1,210	6	1	3	2
경기	76,116	15,026	34,075	27,015	144	29	64	51
강원	7,356	2,100	3,040	2,216	15	4	6	5
충북	8,186	2,256	3,566	2,364	17	5	7	5
충남	10,976	3,046	4,655	3,275	21	6	9	6
전북	7,474	2,025	2,998	2,451	15	4	6	5
전남	8,426	2,341	3,490	2,595	17	5	7	5
경북	12,040	3,059	5,147	3,834	23	6	10	7
경남	15,560	3,662	6,909	4,989	30	7	13	10
제주	3,727	922	1,428	1,377	7	1	3	3

주: 응답 대상은 가임기를 고려하여 $20\sim444$ 세 여성으로 하나 실제 모집단에 40세 이상 표본이 없어, 35세이상으로 통합하여 조사.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시도/성/모의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 o?orgld=101&tblld=DT_1B81A12&vw_cd=MT_ZTITLE&list_id=A21&scrl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인출일: 2023. 10. 16).

〈표 Ⅲ-1-5〉B형 설문 모집단(2021년 기준) 및 표본 배분(안) : 신생아 출생 순위 현황 기준 (소프트쿼터 적용 기준)

	-		-				
구분	모집단(2	2021년 기준	신생아 모 연	인구)	표본	배분안 (*비례 :	할당)
TE	계	1아	2아 이상	미상	계	1아	2아 이상
전국	260,449	147,917	112,520	12	500	283	216
서울	45,481	28,951	16,528	2	88	56	32
부산	14,443	8,436	6,006	1	28	16	12
대구	10,657	5,869	4,788	0	20	11	9
인천	14,943	8,637	6,306	0	29	17	12
광주	7,954	4,237	3,717	0	15	8	7
대전	7,414	4,159	3,255	0	14	8	6
울산	6,127	3,480	2,647	0	12	7	5
세종	3,569	2,042	1,527	0	8	4	4
경기	76,116	43,232	32,880	4	146	83	63
강원	7,356	3,819	3,537	0	14	7	7
충북	8,186	4,405	3,780	1	15	8	7
충남	10,976	5,930	5,046	0	21	11	10
전북	7,474	3,781	3,693	0	14	7	7
전남	8,426	4,132	4,292	2	16	8	8
경북	12,040	6,408	5,632	0	23	12	11
경남	15,560	8,566	6,992	2	29	16	13
제주	3,727	1,833	1,894	0	8	4	4

주: 첫째아, 둘째아 이상 비중 soft quota 적용하여 관리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시도/성/모의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 o?orgld=101&tblld=DT_1B81A12&vw_cd=MT_ZTITLE&list_id=A21&scrl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인출일: 2023. 10. 16).

3) 부스터표본 : C형 설문 (무자녀 가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두 번째 부스터 표본인 무자녀 가구(C형 설문)의 경우 총 800가구를 목표로 하였다. 앞서 I 장 4절 용어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무자녀 가구 기준은 기혼 유배우(여성 기준 20~44세) 가구이면서 조사시점 당시 자녀가 없는 가구(임산부 제외)이다. 무자녀 가구 표본은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의 수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시도)및 기혼 여성의 연령 등을 고려 제곱근 비례 할당 방식으로 배분하였다.

임산부 가구와 달리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제곱근 비례 할당을 적용한 이유는 무자녀 기혼 여성이 30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20대인 무자녀 기혼 여성은 모집단의 수 자체가 적은데 반해 후속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추후 출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표본에 대한 가중 표집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무자녀 가구(C형 설문) 부스터 표본의 모집단과 표본 배분안은 〈표 Ⅲ-1-6〉과 같다.

〈표 III-1-6〉 C형 설문 모집단(2020년 기준) 및 표본 배분(안): 무자녀 기혼여성 인구 현황 기준

구분	모집단	(2020년 기원	문 무자녀 기	혼여성)	3	로본 배분안(*	'제곱근 비례	할당)
十世	계	20-29세	30-39세	40-44세	계	20-29세	30-39세	40-44세
전국	757,633	171,435	446,586	139,612	800	231	361	206
서울	168,295	31,382	108,168	28,745	103	27	50	26
부산	42,195	9,216	24,899	8,080	52	14	24	14
대구	28,771	6,908	16,589	5,274	43	13	19	11
인천	44,894	10,163	25,607	9,124	53	15	24	14
광주	18,057	4,429	10,532	3,096	33	10	15	8
대전	20,455	5,483	11,771	3,201	36	11	16	9
울산	15,285	4,213	8,386	2,686	32	10	14	8
세종	6,930	1,590	4,171	1,169	23	7	10	6
경기	225,188	49,033	134,295	41,860	119	33	55	31
강원	19,835	5,758	10,295	3,782	35	11	15	9
충북	20,860	5,682	11,158	4,020	37	11	16	10
충남	29,535	7,975	16,238	5,322	43	13	19	11
전북	19,617	5,548	10,211	3,858	35	11	15	9
전남	18,371	4,812	9,854	3,705	34	10	15	9
경북	28,609	7,220	15,956	5,433	43	13	19	11
경남	39,902	9,324	22,444	8,134	52	15	23	14
제주	10,834	2,699	6,012	2,123	27	8	12	7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연령별/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15세이상)-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101&tblld=DT_1PF2001&conn_path=13 (인출일: 2023. 5. 3.).

다. 조사 방법 및 조사 시기

1) 본조사(A형 설문) 조사 방법 및 조사 시기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의 조사 도구는 2019년 조사까지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TAPI)를 실시하였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대면 조사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조사 도구를 종이설문(PAPI)으로 전환하고, 조사 방식 또한 설문의 유치 혹은 전화 조사 등 비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 68).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해지되어 대면 면접조사가 가능해지긴 했으나, 이미 기존 조사방식에 익숙해진 응답자들을 추적조사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혼합 조사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선행연구 결과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이미 종이설문과 비대면 조사 방식에 적응한 응답자들에게 또 다시 다른 조사방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기존 조사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표본추적률 제고 및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상황을 감안하여, 조사를 위한 접촉 초기에는 가능한 대면 면접 조사를 권장하고, 응답자가 비대면 조사 방식에 대한 강한 선호(혹은 대면 조사에 대한 강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만 비대면 조사(설문 유치, 전화조사 등)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이는 조사방식에 따른 모드효과가 발생하여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시기는 조사 설계 등으로 조사가 다소 지연된 1차년도(2018년)를 제외하고는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가 크게 영향을 미친 2020년 이후에도 동일한 시점에 조사가 실시되었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 68). 가계소비지출 및 양육비용, 육아서비스이용 행태는 방학 기간 등으로 인해 조사시점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연차의 조사 시점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동일 시점에 조사될 수 있도록설계하였다. II기 조사가 시작되는 2023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가구에 대한 실사는 완료되었다.

2) 부스터표본(B형 설문 및 C형 설문)의 조사 방법 및 조사 시기

한편, 2023년 실시되는 부스터표본에 대한 조사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를 모집하고, 조사 또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도록 설계하였다. 임산부 가구(B형 설문)과 무자녀 가구(C형 설문)의 경우 본조사에 비해 설문의 분량이 적은데다, 응답자 특성상⁴⁰⁾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설문을 자가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설문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전자 설문을 통해응답 오류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경우 조사구를 방문하여 면접원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한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사업체의 온라인 패널 풀(POOL)을 활

⁴⁰⁾ 임산부 가구의 경우 건강상 이유 및 거동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대면 면접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자녀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일 가능성이 높아 면담 조사 시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용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조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이 좀 더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부스터 표본의 조사 시작 일은 6월 15일로, 본조사에 비해서는 약 한달 가량 늦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면 면접 조사로 실시되는 본조사와 달리 부스터표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자가 응답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 진행 속도 및 데이터 처리 속도가 본조사에 비해 빨라, 조사 완료 시점은 두 조사 모두 8월 20일로 본조사와 동일하였다.

라. 조사 설계안 요약

이상에서 언급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조사 설계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7〉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 설계안 요약

구분	본조사	부스터 표본 조사
목표 표본 수	1,772 가구	- 임산부 500가구 - 무자녀 800가구
모집단 틀 및 표본 배분 방식	- 기존 표본 • 2022년 조사 표본 가구 • 2023년 막내자녀 연령 기준 만1∼6세 - 대체 표본 • 2022년 동일 조사구 내 기존 표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 • 기존 표본 중 조사 실패한 가구 수만큼 조사 - 신생아 표본 • 기존 표본과 동일 조사구 내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 출생아가 있는 가구 • 각 125가구 총 250가구를, 조사구별 신생 아 수를 고려하여 할당	- 임산부 가구 • 모집단 틀: 인구동향조사(2021) • 지역 및 모 연령 기준별 신생아 수를 적용하여 비례 할당 • 신생아 출생 순위를 고려하여 소프트 쿼터 적용 - 무자녀 가구 • 모집단 틀 : 인구총조사(2020) • 지역 및 연령별 무자녀 기혼 여성의 수를 고려하여, 제곱근 비례 할당
조사 대상 발굴 방식	조사구 내 가구 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	조사업체 패널 풀(Pool)을 활용한 온라인 모집
조사 방법	면접원을 통한 대면 면접 조사(원칙) + 설문 유치, 전화 조사 등 병행	온라인을 통한 자기 응답식 조사
조사 도구	종이 설문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
조사 기간	5.20-8.20	6.15-8.20

주: 본조사의 조사구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나, 동일 읍면동 내 해당자가 없는 경우 인접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대상자를 발굴하되, 동일 시군구를 벗어나지는 않도록 함.

2. 설문의 구성과 변화

가. 본조사 설문 개요

본 절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I 기(2018년~2022년)가 종료되고, 2023년 Ⅱ기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I 기조사의 각 연도별 차수 설문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Ⅱ기 6차년도 조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2018년 I 기 1차조사(2018년)가 실시된 이래로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연도별 비교를 위해 기본적인 설문문항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차수별로 시의성 주제 및 표본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하였다. II 기 조사(2023년~2027년)도 I 기 조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설문문항을 연속성을 위해 유지하며, 차수별로 시의성 주제에 따라 부스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배경에 해당하는 가구 및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설문은 유지하였으며, 소비실태의 기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 역시 공적지원금의 변화(코로나 등)를 반영하는 것 외에 큰 변화 없이 유지하였다. 다만, 육아서비스 수요와 육아물가지수 산출에 필요한 설문들이 연구과제 축소에 따라 삭제되었고, 초등아동에 대한 추적여부에 따른 설문대상 변화가 I기 조사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23년(6차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소비실태조사에서 파악해왔던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의 부담과 소비 지출의 변화, 육아서비스 이용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긴급 돌봄 대응, 돌봄 공백등 코로나19 관련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가구의 지출 항목에서 금융상품에 주식및 암호화폐를 추가하였으며,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상품및 서비스 지출을 추가하였다. 또한, 새롭게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부모급여수혜 여부 및 사용처 문항 등을 추가하였다.

(⊞ Ш−2	〈표 Ⅲ-2-1〉 본조사 설문의 개요 (1~6차년도)	~6차년도)					
설문종류	설문 주요 내용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	0	0	0	0	0	단시간근로이유, 비정규직 여부 추가
	7구의 경제활동 → '7구의 소득과 정책 수 혜"로 변경(2022)	0	8.6 원년 전건 전건	하아 글은 나그르正	유연근무, 시간지원 활용 현황 추가.	영이수당 관련 문항 추가, 첫만남 이용권 관련 문항 추가, 육아휴직급여특례	부모급여 관련 문항 추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서호도 추가.
	7구의 지출 및 양육 비용	0	이전소독, 이동수당, 세제 지원 문항 추가	변동 문항 추가, 이동수당 및 세제지원 문항 축소	고로나19 변동 문항 축소, 7다 지출 세목 조정, 주택관련 문항 추가	수예 성염 수가, 육아소비성향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감소증가 비목 추가, 주거비에 대한 주관적 부담감 추가	소비문항에 주식 및 암호화폐와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지출 추가
가구용	육0서비스 선호 및 이용 의사	0	설문축소 및 통합 (초등포함으로 수정)	2차년도 기준 설문 축소	×	×	×
-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0	0	×	×	×	×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0	0	설문축소	×	×	×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자원 서비스	×	×	×	문항 추가	0	0
	개별돌봄서비스	×	0	0	0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변화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변화 삭제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0	0	0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별 부족한 육아지원에 대한 의견 추가	0

설문종류	설문 주요 내용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긴급 돌봄 대응, 돌봄 공백	×	×	0	0	코로나19 관련 돌봄공백 경험 추가	×
	육아 소비 성향	0	0	0	0	×	×
	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 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	0	일부 문항만 조사	0	0	×	일부 문항만 조사
	육아 용품 구매 경험 및 소비 행태	온라인 조사	×	×	×	×	×
	육0품목 물가 체감	온라인 조사	본 설문에서 조사	0	0	×	×
	경제 인식 및 물가 전망	온라인 조사	본 설문에서 조사	0	0	×	×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시간표형태로		바일제 이상 기과	
	- 어린이집 이용			조사, 이용시간	선비스별 이용 시간 선비스 코로나19로	서비스 코로나19로	반일제 이상 기관
8월0	- 유치원 이용	(((기본보육시간)	. 조사로 복원, :	인한 미이용 경험	서비스 코로나19로
兹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관련 문항 및 긴급	비대면 서비스 활용	추가, 비정기	인한 미이용 경험
: 영유아	- 시간제 사교육 이용			돌몸 권면 문항	추 가	체험활동 이용 행태	<u>사제</u>
	- 기타 돌봄			추가		추가	
	- 개별돌봄서비스	0	가구용으로 이관	×	×	×	×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8년0	-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간표 형태로	서비스별 이용 시간		
☆	- 방과후학교 이용	×	0	조사, 긴급 돌봄	소사도 녹면,	×	×
네0 내	- 시간제 사교육 이용			관련 문항 추가	미네긴 시매스 발하		
	- 기타 돌봄				<u>-</u> }		
1							

주: 1)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²⁾ 육아물가체감, 육아물가 전망은 이 연구가 아닌 'KICCE 육아물가자수' 연구에서 활용했던 문항임.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pp.80~81, 〈표 III-2-2〉을 참고하여 수정 및 추가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설문지.

나. 본조사 설문 변화

1) 주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I기 1차년도(2018년)에는 조사를 수립한 첫해로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뼈대가 되는 기본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시의성 주제로 공유 경제에 관련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I기 2차년도(2019년) 조사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관련 문항과 세제지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초등학생이 된표본 추적 조사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관련 설문을 추가로 개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I기 3차년도(2020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구소득과 지출 및 육아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설문을 설계하였으며, 추가로 새롭게 도입된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인지 및 의견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I기 4차년도(2021년) 조사는 코로나19로인해 대면서비스 이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초점을 맞춰 설문을 개발하였다. I기 5차년도(2022년) 조사에서는 I기 연속과제의 마지막임을 고려하여 연도별 결과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의 활용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41).

새롭게 시작하는 Ⅱ기 1차년도(6차년도, 2023년) 조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한 문항들을 제외하였으며,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 문항을 추가하고, 부스터 조사로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조사하여 영유아 가구와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표 III-2-2〉 KICCE 소비실태조사 주요 설문 변경 내용 및 사유 (2019~2023년)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 사유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 문항 추가	아동수당 제도 도입
2차년도 (2010)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의사, 사회경제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 문항 축소 통합	응답부담 경감
(2019)	개별돌봄서비스 가구용으로 이관	서비스 활용 양태를 고려하여, 응답자 편의 제고
	초등아동용 설문 개발 및 추가	표본 확대

⁴¹⁾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 연구소. pp.21~22,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 사유
	긴급돌봄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파악
3차년도	코로나19로 인한 기구소득 및 양육비용 변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파악
(2020)	보육지원 체계에 대한 인지 및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보육지원체계 제도 도입
	시간표 형태로 설문 전환	육아서비스 이용 시간대 및 조합방식 확인
	유연근무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4차년도 (2021)	가정내 돌봄서비스 및 부모지원서비스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육아서비스 이용시간으로 설문 복원	3차년도 한시 설문으로, 응답자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설문으로 복원
	영아수당 관련 설문 추가(수혜여부, 가정양육 수당·영아수당의 활용 비목 및 자녀양육비용 경감에 도움 정도)	가정양육수당의 '영아수당'으로의 확대개편
	첫만남이용권 관련 설문 추가(인지, 사용 비목 계획, 양육비 경감에 도움 정도)	'영아기 집중투자'관련 지원으로서 '첫만남이 용권'도입
	육아휴직급여특례 수혜 경험 추가	육아휴직 이용 장려를 위한 특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실질적 활용 정도 파악
	여유소득 증가시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 비목 설문 추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양육비 경감을 위 한 현금성 지원 증가시의 효과 예측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의 가계 경제 부담 과 대응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지출감소 및 증가 항 목 파악
	영유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감 항목 추가	거주 형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정도 파악
5차년도 (2022)	코로나19로 인한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관련 문항 추가	육아서비스(개별, 반일제 이상 기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파악
	가정 내 부모직접 돌봄 관련 문항 추가	자녀양육부담 경감 용도로 미디어 허용 여부 파악
	생애주기 중 정부 지원의 부족 시기 및 해당 시기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추가	생애주기별 정책 요구 파악
	돌봄공백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의 구체적 상황/ 일 상적인 돌봄공백과 돌발적인 돌봄공백 상황에 대한 수요 구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관련 문항 추가	영유아기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新)육아 서비스 이용 행태 파악
	육아소비 성향 및 육아 품목 물가 체감/경제 인식 및 물가전망 관련 문항 삭제	연관 세부과제주)의 종료. 육아소비 성향 관련 2개 문항은 유지.
	초등학생용 설문 삭제	초등학생 표본 제외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 사유
	코로나19 관련 문항 삭제 : 가구소득 및 양육비 용 변화, 공적지원금 사용처 및 양육비용 부담 경감,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돌봄공백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관련 지원금이 사라지고 서비스 이용도 정상화 되어 조사 필요성이 없어짐
	부모급여 수혜여부 및 사용처	'부모급여'도입
	지출항목 중 금융상품 세부항목에 '주식 및 암 호화폐' 추가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지출 파악
	지출항목에 '반려동물 상품 및 서비스' 추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비용 파악
6차년도 (2023)	주거관련 세부항목 추가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관 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내용 파악
	시기별 양육비용 예상(초등기, 중·고등기)	영유아 가구가 생각하는 시기별 예상되는 양 육비용 파악
	삶의 만족도(사회경제적 위치 포함)	영유아 가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만 족도와 사회경제적 위치 파악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의견	육아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파악
	부스터 조사1: 임산부 가구 조사	임산부 가구에 대한 특성 및 요구 파악
	부스터 조사2: 무자녀 가구 조사	무자녀 가구에 대한 특성 및 요구 파악

주: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의 세부과제 중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를 위한 조사를 본 연구 'KICCE 소비실태 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에서 통합하여 수행하였으나, 세부과제 중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는 4차년도를 끝으로 종료됨.

2) 가구 특성 및 가계경제·양육비 변화

전체 설문 중 가구용 설문에 대해 Ⅰ기 마지막인 5차년도(2022년)와 Ⅱ기의 처음인 6차년도(2023년)를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2-3〉과 같다.

부모특성에서는 부모의 일자리특성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단시간근로 이유42) 와 부모의 비정규직 여부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가구의 지출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 및 암호화폐'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상품 및 서비스'항목을 추가하였다. 부가조사인 임산부가구와 무자녀가구와의 비교를 위해 '시기별 양육비용 예상' 항목을 추가하였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에 대한 수혜여부와 사용처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금(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지와 가장 도움이

자료: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78~79, 〈표 Ⅲ-2-1〉에 추가함.

⁴²⁾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단시간근로 이유 문항을 참고함.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I기 1차년도에 자세하게 물었던 주거 관련 문항들을 II기 첫 시작인 2023년에도 세부적으로 물어보았으며, 다양해 진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의 이용 경험과 도움정도 및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또, 삶의 만족도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6차년도(2023년)에 삭제한 대표적인 문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문항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아 소득 세부문항에서 제외하였으며,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육아서비스 등이 정상화되어 관련 문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아동수당도 시의성이 떨어져 사용처 및 도움정도에 관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표 Ⅲ-2-3〉가구용 설문 비교 (1~6차년도): 가구 특성 및 가계경제·양육비

나 기 시기 이 일반 비표 (I ~O시다고) · 시기 되어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면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응답자 성별, 자녀수, 자녀 출생연월 및 성 별, 가구원 구성	0	0	0	0	0	0
부모 특성 : 생년, 학력, 취업여부, 직업, 근로형태, 노동시간, 출퇴근 시간	0	노동시간 관련 설문은 세분	0	유연근무, 시간지원 활용	근로시간단축 시간 추가	단시간근로이유, 비정규직 여부 추가
결혼 시기,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여부	0	결혼 시기는 신규 가구만 응답	0	0	0	0
[미취업모] 취업 의향	×	×	문항 신설	×	×	×
가구소득(지난 3개월 월평균 세후):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 전소득, 사전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 소득, 코로나19 긴급상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0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으로 수정	0	0	0	0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1: 누리과정, 보 육료, 양육수당(영이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장려급, 기타 양유과례 고적이저 소트 2: 아동소단	지난 1개월 1회 수령 ×	지난 1년 동안이 수급 현황 모두 조사	문항 통합 (응답표 형태 수정)	0	0	부모급여 추가
	×) ×	문항 신설	×	×	×
아동수당 사용 출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	×	0	0	0	0	×
코로나19 공적지원금 활용처	×	×	×	0	0	×
세제 지원 인지 및 수급현황	×	0	0	문항간소화	0	0
0동수당 지원제도 정책 변화 인지 및 경로	×	0	×	×	×	×
아동수당정책에 대한 선호 및 우선순위	×	0	×	×	×	×
0동수당 지원 정책의 확대 방향에 대한 의견	×	0	×	×	×	×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가정양육수당(영0수당) 사용 비목, 양육비 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	×	×	×	×	0	×
첫만남이용권 사용계획 지출비목, 양육비용 경감 도움 정도에 대한 기대	×	×	×	×	0	지출비목만 조사
부모급여 사용 비목	×	×	×	×	×	0
현금성 지원금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0동수당, 기정양육수당, 부모급여,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	×	×	×	△(7)정양육수당,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개별 질의)	([2])
영유아 가구 대상 정부 지원금 중 가장 도 움이 되는 정책	×	×	×	×	×	0
세법 개정(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중복수혜 금지)에 대한 인지 여부, 인지 경로, 정책에 대한 의견	×	0	×	×	×	×
자녀 장려금 제도 변화에 대한 인지 및 의견	×	0	×	×	×	×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	0	보육지원 체계개편	×	×	×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 : 비목 13개, 세부 향목 11개	0	0	0	보건의료 예시보강, 기기/집기 세목 추가	0	금융상품 세부항목에 주식 및 암호화폐 추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항목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출 변동, 양육비용 변동	×	×	문항 신설	×	코로나19로 생활비 지출이 감소증가한 비목	×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변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주거 관련 문항 : 현재 주거 현황, 주택 구 입의 필요성, 주거관련 양육환경, 주거비 부담	0	문항 2소화	문항 간소화	주택평수 추가	추거비에 대한 부담감 정도 추가	가주 주택 가격 추가, 육아가구 자가소유 필요성 추가, 1차년도 주거 문항 추가, 주거관련 지원 정책 인지, 이용 경험 추가, 주거 정책 출산 영향 추가 증가 등
양육 비용 충분성 및 지출 우선 순위, 비용 부담	0	0	0	0	생활비 감축 우선순위 추가	여유소득 우선 지출 삭제, 추7소득 발생시 우선 지출 삭제
시기별 양육비용 예상(초등기, 중·고등기)	×	×	×	×	×	0
자녀 출산 전후 가계 소비 변화	0	×	×	×	×	×
사회경제적 위치	0	0	0	0	×	0
삶의 만족도	×	×	×	×	×	0
주: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으	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	간이 있는 경우는 이로	. 표기, 해당년도에 조.	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	화 내용이며,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시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pp.82~83, 〈표 Ⅲ-2-3〉에 추가, 수정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설문지.

3)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변화

6차년도(2023년)에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의견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용경험, 도움정도 및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이용경험, 도움정도 및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직장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 휴직,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제도유무,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를 물었으며, 유연근무제도(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적 근무시간제, 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기타)이용경험, 도움정도 및 이용하지 못한 이유와 현행 육아 시간 지원 정책 중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부가조사와 비교를 위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6차년도(2023년)에 다시 물었으며, 또한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어느 시기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⁴³⁾를 새롭게 질문하였다. 또한 5차년도(2022년)에 추가한 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별 부족한 육아지원에 대한 의견도 6차년도(2023년)에 유지하였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한 문항인 돌봄공백에 대한 모든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를 삭제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이후에 도 영향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기기 허용 여부 문항은 남겼다.

⁴³⁾ 박종서·임지영·김은정 외(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지를 참고함.

〈표 Ⅲ-2-4〉 기구용 설문 비교 (1∼6차년도) :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고인시간도 및 4/시1TG 글로 막은 기계 표시		나는 (''''') 한 학생에 무슨 이 첫 학생에 되었다.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정책 인지, 선호	×	×	문항 신설	×	×	×
가정 내 부모직접 돌봄 및 부모지원 서비스, 자녀양육부담, 자녀의 전자기기 이용 시간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기기 해용 여부	×	×	×	문항 신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기기 하용 여부	0
자녀 연령별 이용희망 서비스, 자녀연령별 이 상적인 육아서비스	0	0	×	×	×	×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0	0	0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별 부족한 육아지원에 대한 의견 추가	0
초등학교 입학 후 자녀 돌봄 방법	0	0	0	×	×	×
긴급 돌봄 대응, 돌봄 공백	×	×	0	0	기급한 돌봄공백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경험 추가	×
육아 정책 변화에 따른 육아서비스 이용 의 사 변화	0	0	×	×	×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0동용 설문	0	0	0	<u>코로</u> 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삭제
보건 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이용, 만족도 / 교육·보육관련 지원 정책 이용여부, 만족도, 미이용 사유 / 저소득층 및 다자녀기구구 지원 정책 인지, 이용 / 기정 내 양육지원 정책 인지, 이용, 만족도	0	×	×	×	×	×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원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부모/국가), 부모교육 필요성,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육이지원 분야	0	0	×	×	×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부모/국가) 추가
초등 돌봄 국가 책임(부모/국가)	×	0	×	×	×	×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	×	×	×	×	×	0
양육 지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육이저 원 분야	×	0	0	0	0	0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의견 ²⁾ - 이용 경험, 만족도, 도움정도, 이용하지 못 한 이유, 개선 필요 정책 및 개선 방향 등	×	×	×	×	△ (이용경험만 질문)	0

주: 1)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2) 육아 시간 지원 정책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포함),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직장에서 별도 제공하는 제도 및 유연근무제도를 포함함.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이정책연구소. p.84, 〈표 Ⅲ-2-4〉에 추가, 수정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설문지.

4) 아동용 설문 변화

2023년 아동용 설문도 기존 I기 아동용 설문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6차년도 아동용 설문에서 추가 및 변경한 사항은 기존 분류명인 '기타 사교육'을 '기타 교육서비스'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세부항목에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항목을 추가하여 분류명을 수정하였다.

아동용 설문에서 2023년에 삭제한 문항은 가구용 설문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육아서비스 이용이 정상화 되어 코로나와 관련한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세부적으로 반일제 이상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및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해당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등을 삭제하였으며, 문화센터 및 학원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이용 수요, 시간제 사교육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삭제하였다.

Ш

〈표 Ⅲ-2-5〉 아동용 설문 비교 (1∼6차년도) : 영유아

000 /0 7 11 11	H H	1太時亡	갓년도	33,147	45時亡	5大時午	6太陽丘
	세부 문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로 돌보는 사람	는 사람	0	0	×	×	×	×
자녀를 직접	접 돌보지 못하는 이유	×	0	×	×	×	×
자녀의 기관 이동	관 이동 경험	×	0	×	×	×	×
기관 이동	경로	×	0	×	×	×	×
평균적인 현	평균적인 한 주 일과(시간대별 육아서비스 이용 종류)	×	×	0	×	×	×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	×	0	×	×	×
	어린이집 유형, 이용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						
	출비용, 특별활동 이용관	0	0	문항 간소화	0	0	0
어린이집	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이용자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0	0	×
	<u> 1년간</u>	>	>	>	>		>
	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	<	<	<	<		<
	유치원 유형, 이용 서비스, 이용 시간, 만족						
	면 지출비용, 방과후	(ロミ 75人売	(
	화프로그램 이용 관련 지출비용, 이용 사유,)		년 건 전 전)))
	원하는 양육 형태						
이용사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0	0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유치원을	;	;	;	;	(;
	등원하지 못한 경험	×	×	×	×)	×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 이용시간, 서비스 이						
	활동 이용관	0	0	문항 간소화	0	0	0
민들세	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이징 역년 이용자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0	0	×
0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반일제 이상 기관을 등원하지 모한 경험	×	×	×	×	0	×
) - -						

	세부 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면도 (2021년)	5차변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문 왕센더	이용 기관, 이용 종류, 이용 비용	0	0	0	횟수, 시간 문항 추가	0	0
	코로나19 영향 이용 수요	×	×	×	0	0	×
시간제 일시 보육	이용여부, 시간제 보육 장소, 이용 빈도, 1회당 평균 이용 시간,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0	0	이용 사유 삭제	0	0	0
개별돌봄	이용여부, 돌봄 장소, 개별돌봄 인력 근무형태, 육아도우미 국적,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 비용, 만족도, 이용 시유, 원하는 양육 형태	0	7구용 설문으로 0관	×	×	×	×
<u>한</u> <u>하</u> 기	이용여부, 종류, 개수, 월 이용비용, 비대면 수 업 여부, 만족도,	0	0	0	비대면 수업 관련 문항 추가	0	0
	코로나19 영향 이용 수요	×	×	×	0	0	×
시간제	이용여부, 이용 사교육 개수, 이용 빈도, 이용시 간, 지출비용, 만족도(비용, 서비스), 이용 사유	0	0	서비스 종류별로 세분	0	0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추가
- 	비대면 서비스 이용	×	×	×	0	0	×
기타 육아 서비스	71타 육아 이용여부,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용, 만 서비스 족도(비용, 서비스), 이용 사유	0	0	키즈카페만 질문	0	비정기체험활동 관련 설문 추가	0

주: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pp.85~86, 〈표 Ⅲ-2-5〉에 추가, 수정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설문지.

다. 부스터 조사 설문

부스터 조사는 본조사인 영유아 가구와 비교를 위해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부스터 조사는 크게 임산부 가구조사와 무자녀 가구 조사로 나뉘며, 무자녀 가구 조사는 세부적으로 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와 출산 의향이 없는 가구로 구분⁴⁴⁾된다.

가구, 부모 및 자녀 특성은 기본적인 문항으로 본조사와 동일하게 임산부 조사와 무자녀 가구 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다만, 조사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문항은 각 해당하는 설문에 포함하였다. 추가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문항(아이를 갖게 된 이유, 자녀계획, 임신 진찰 기관, 분만기관, 출산방법, 진찰 및 분만 비용 예상, 산후조리 방법·기간 및 비용, 자녀 연령별 이용 희망 서비스 등)은 임산부 가구에만 질문하였다.

가구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기준과 항목으로 3가지 설문대상 모두에게 질문하였다. 정책 수혜에 대해서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본조사인 영유가 가구에게만 수혜여부, 기간 및 수급액을 질문하였으며 임산부 및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설문의 뒷부분에서 양육지원정책 인지, 필요성 및 충분성을 질문하였다.

가구의 지출 및 양육비용 내용에 대해서 가구의 생활비 지출은 가구소득과 마찬 가지로 동일한 기준과 항목으로 모두 동일하게 질문하였으나, 각 비목에 대한 자녀 별 양육비용 지출액은 무자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본조사와 임산부 가구에게만 질문하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질문하였다. 양육과정 부담 항목과 양육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지출 감소 비목은 본조사는 경험을 물었고 임산부 및 무자녀 가구에게는 예상을 질문하였으며, 시기별 양육비용 예상은 모두 동일하게 물었으나 영유아 가구는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영아기와 유아기를 제외하고 질문하였다.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우선 지원 정책, 양육비용 마련 계획, 현재 소비·지출에 출산 계획이 미치는 영향, 출산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지출은 임산부 및 무자녀 가구에게만 질문하였다.

주거 현황, 자가에 대한 의견, 주거 지원정책 인지 및 신청 경험 등에 대해서

⁴⁴⁾ 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는 출산 의향과 관련한 설문만 차이가 있으며 다른 내용은 모두 동일함.

모두 동일하게 질문하였다. 본조사와 임산부 가구에게는 거주지 선택 및 결정 이유와 양육 목적 이사 의향과 이유에 대해서 동일하게 질문하였으나, 무자녀 가구에게는 출산 목적 이사 의향과 이유를 질문하였다.

개별돌봄서비스 이용과 가정 내 양육 지원 정책 관련한 질문들은 영유아 가구에 게만 질문하고 임산부 및 무자녀 가구에게는 질문하지 않았다.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의견은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임신기와 관련한 정책이므로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질문하였으며, 자녀가 없어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에게 이용경험 및 만족도 등에대해 질문하였다.

임산부 지원 정책은 임산부 가구에게만 각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경험 및 만족도 등을 질문하였다. 출산 의향과 관련한 문항들은 무자녀 가구에게만 질문하였으며, 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에게는 출산하고자 하는 이유와 계획 내용(시기, 수 등) 등을 물었으며, 출산 의향이 없는 가구에게는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출산 이유가 없는 이유 해결 시 의향 변동 여부, 자녀가 있다면 지출 감소 예상 비목 등을 물었으며 공통으로 결혼 전/후 출산 의향이 변동하였는지를 물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에서는 정부지원이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와 비용 지원정책 수급 여부 및 만족도는 본조사만 질문하였고, 정부지원이 부족한 시기와 개선이 필요한 지원 범주는 임산부 가구에게도 질문하였다.

양육지원 정책에 관한 문항들은 임산부 및 무자녀 가구에게 각 정책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과 육아지원정책 충분성을 질문하였으나, 본조사에서는 앞서 정책 수혜여부 등에서 질문하여 제외하였다. 무자녀 가구에게는 추가로 가구 소득 전망과아이 양육에 필요한 소득 수준을 질문하였고, 출산 의향이 있는 무자녀 가구에게는 첫 자녀 출산 후 소득 변동 예상과 이유 등을 별도로 질문하였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해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질문하였으며, 출산 시 생활 변화 예상과 자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문구 의견은 무자녀 가구에게 양육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로 질문하였다.

아동설문의 경우 교육보육비용 산출을 위한 서비스 이용 내용을 질문하기 때문에 임산부와 무자녀 가구에게는 아동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표 Ⅲ-2-6〉 본조사와 부스터 조사 설문 비교

구분	문항 내용	본조사	임산부	무자녀
	응답자 성별	0	0	0
	응답자 연령, 혼인상태	×	0	0
	임신중 여부, 임신 주차	×	0	×
	자녀 유무	×	×	0
	자녀수, 자녀특성(출생연월, 성별)	0	0	×
71701 HD	가족 구성원	0	0	0
가구와 부모,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	0	0	0
자녀 특성	결혼 연도	0	Ō	0
	부모 특성(출생연도, 학력, 취업, 직업군, 근로형태, 노동시간,	0	0	0
	단시간근로이유, 비정규직여부)			
	임신 및 출산 문항(아이를 갖게 된 이유, 자녀계획, 임신 진			
	찰 기관, 분만기관, 출산방법, 진찰 및 분만 비용 예상, 산후	×		×
	조리 방법·기간 및 비용, 자녀 연령별 이용 희망 서비스			
	가구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0
71701 4 571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시전이전소득, 기타소득)			
가구의 소득과	수혜여부, 기간 및 수급액(아동수당,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정책 수혜	첫만남 이용권, 양육관련 공적 이전소득 등), 첫만남 이용권		$\triangle^{2)}$	$\triangle^{2)}$
	및 부모급여 사용처, 현금성 지원금 양육비용 부담 경감 정			
	도, 도움이 되는 지원금, 연말정산 세제 혜택			
	가구 생활비 지출(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			
	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0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이전지출,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			
	스,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자녀별 양육비용 지출(세부항목은 가구 생활비 지출과 동일함)	0	0	×
가구의 지출	양육비용 충분성	0	X X	X
및 양육비용	양육과정 부담 항목, 양육비용 부담 증가로 지출 감소 비목	0	$\triangle^{3)}$	$\triangle^{3)}$
2 0 1 10	시기별 양육비용 예상(영아/유아/초등/중고등)	△ ⁴⁾	0	0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부모/국가)	0	0	0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	0	0	0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우선 지원 정책, 양육비용 마련 계획,		_	_
	현재 소비·지출에 출산 계획이 미치는 영향, 출산 후 감소할	×		0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지출)			
	현재 주거 현황(주택종류, 거주 형태 및 가격, 거주 시작 연도,			
	방 개수, 면적 등), 자가에 대한 의견, 주거 지원 정책 인지 및			0
주거	신청 경험, 주거 지원 정책 효과 및 실효성 없는 이유 등			
	현 거주지 선택 이유 및 거구지 결정 요인, 양육 목적 이사			$\triangle^{5)}$
	의향과 이유			_
개별돌봄서비스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제공자,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이용	0	×	×
이용	비용, 주당 근무 시간, 구인 경로			
가정 내 양육	가정 내 양육시간, 부모 직접 돌봄 시간, 미디어 이용시간, 부담			
지원 정책	정도, 양육 부담 사유, 육아 관련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물품		×	×
712 07	제공 서비스 경험, 부모 지원 서비스 경험 및 개선방안 등			
육아 시간 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정책 활용과	및 만족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 직장 제도 육아시간 지원	0	0	×
의견	제도 유무, 경험 및 만족도; 개선 필요 정책과 개선 사항			

구분	문항 내용	본조사	임산부	무자녀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무, 이용 경험 및 만족도	0	×	×
	임신 근로자를 위한 제도 이용 경험 및 기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난임 관련 제도 미이용 사유	×	0	×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	0	0	0
	임산부 지원 정책 인지여부, 경험 및 만족도 등	×	0	×
임산부 지원 정책 및 출산	출산 의향 있는 경우: 출산 희망 이유, 출산 계획, 출산 희망 시기, 결혼 전/후 출산 의향 변동 등	×	×	0
성색 및 <u>물</u> 선 의향	출산 의향 없는 경우: 출산 의향 없는 이유, 출산 의향 없는 이유 해결 시 출산 의향 유무, 자녀가 있다면 지출 감소 예상 비목, 결혼 전/후 출산 의향 변동 등	×	×	0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정부지원이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 비용지원정책 수급 여부 및 만족도	0	×	×
요구	정부지원이 부족한 시기와 개선이 필요한 지원 범주	0	0	×
	육아지원 정책 인지 및 필요성, 육아지원정책 충분성	$\triangle^{6)}$	0	0
양육지원 정책	가구 소득 전망(10년 내 월평균 소득 증감), 아이 양육에 필요한 예상 소득 수준	×	×	0
	첫 자녀 출산 후 소득 변동 예상, 이유 및 정도	×	×	$\triangle^{7)}$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사회경제적 위치	0	0	0
	출산 시 생활 변화 예상, 자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문구 의견	×	×	0
아동설문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등	0	×	×

주: 1) 설문 비교를 위해 본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로 각 설문의 문항 순서와는 다를 수 있음.

- 2) 임산부 및 무자녀 가구에게는 '양육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 필요성 및 충분성을 질문함.
- 3) 임신부 및 무자녀 가구에게는 예상되는 항목으로 질문하였음.
- 4) 본조사에서는 '영아/유아'기는 질문하지 않았음.
- 5) 무자녀 가구는 출산 목적 이사 의향과 이유를 질문하였음.
- 6) 본조사는 정책 수혜에서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내용과 기간 등을 앞에서 질문함.
- 7) 해당 문항은 무자녀 가구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에게만 질문함.

3. 조사 결과 및 응답자 특성

가.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3 표본추적률 및 가구 특성

1)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3 표본추적률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의 가구 표본은 1,648가구였으며, 추적 대상 표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2019년 1,902가구, 2020년 2,156가구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21년에는 막내 자녀 연령 기준 7세(초1)까지만 조사 대상이 됨에 따라 1,993가구를 조사하였으며, 2022년에는 영유아 자녀까지만 조사 대상이 되어 1,730가구를 조사하였다.

전년도 조사 표본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표본추적률은 2019년 75.4%로 상대적으로 낮은 표본추적률을 보였으나, 2020년에 85.9%까지 표본추적률이 높아졌으며, 이후 표본추적률이 점차 증가하며 2022년에는 89.8%의 표본추적률을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로 당초 표본 추적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비대면 조사 방식의 도입이 표본추적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45)

2023년(6차년도) 본조사(영유아 가구)의 전체 표본 수는 1,773가구로, 추적 대상 표본 1,518가구 중 1,258가구(82.8%)가 추적조사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260가구를 대체하여 조사하였으며, 신생아 표본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54가구가 신규로 구축되었다. 2023년 조사에서 표본추적률이 전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2022년(5차년도) 조사 당시 I기 조사의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차년도(2023년)에 추적 조사가 더 이상 실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Ⅲ-3-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3년) 표본 가구수 및 추적률

단위: 가구, %

							11 - 11, 70
	78	전체	추적대상	당해연도 조	사성공 가구	표본 특성	표본
	구분	표본 수	표본 수	패널표본	대체 표본	신생아 표본	추적률
	2018년	1,648					
	2019년	1,902	1,648	1,243	405	254	75.4
7	2020년	2,156	1,902	1,634	268	254	85.9
	2021년	1,933	1,679	1,463	216	254	87.1
	2022년	1,730	1,476	1,325	151	254	89.8
7	2023년	1,773	1,518	1,258	260	254	82.8

주: 1) 추적 대상 표본이 2019년은 7세(초1)까지였으며, 2020년 8세(초2), 2021년 7세(초1), 2022년 영유아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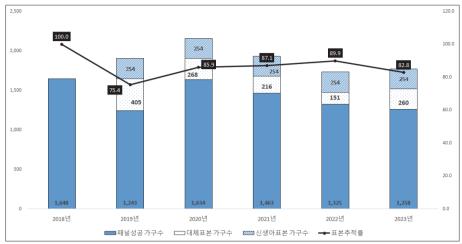
²⁾ 표본추적률은 (당해년도 패널(추적성공) 표본/당해년도 추적 대상 표본) *100으로 산출됨.

^{3) 2023}년은 추진 계획.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p.75. 〈표 Ⅲ -1-3〉와 p.87 〈표 Ⅲ-3-1〉.

^{2) &#}x27;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45) &#}x27;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방식의 변경에 관한 논의는 Ⅲ장 다절을 참조하기 바람.



[그림 Ⅲ-3-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2년) 표본 가구 수 및 추적률

주: 표주 및 자료 출처는 상동.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3 본조사(영유아 가구) 표본의 특성

'KICCE 소비실태조사' 영유아 가구 표본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여, 2023년(6 차년도)에는 1,773가구가 조사되었다.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전년도 조사 표본을 추적 조사함과 동시에 매해 신규(신생아) 표본을 동일 규모만큼 지속적으로 추가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년도 조사 표본 중 막내 자녀가 초등학령기에 접어들면 더 이상 조사 대상 표본은 아니지만, 기존 추적 대상 표본 가구 중에서 후속 출산 등으로 인해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아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난 6년간 본조사 표본 가구 중에서 후속 출산으로, 지난 조사 당시 막내 자녀는 이미 초등학령기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6차년도 조사에서도 여전히 조사 대상 가구로 남아 있는 가구가 약 125가구 정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영유아 가구의 후속 출산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본조사 표본은 매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원 수별 영유아 가구 표본은 가구원이 3명인 경우가 1차년도에 37.0%로 높았으나, 3차년도에는 31.4%까지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부터 약간씩 증가하여 6차년도에는 35.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6차년도에 47.1%로 이전 조사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맞벌이가구 비중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21년(4차년도) 조사로 42.1%에 그쳤다.

〈표 Ⅲ-3-2〉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3년) 영유아 가구(본조사) 표본의 특성

단위: 가구(%)

				영유아 7	'1구 표본		11 . 7 1 (70)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1,648 (100.0)	1,665 (100.0)	1,679 (100.0)	1,709 (100.0)	1,730 (100.0)	1,773 (100.0)
	3명이하	609 (37.0)	542 (32.6)	527 (31.4)	541 (31.7)	572 (33.1)	627 (35.4)
가구원 수	4명	781 (47.4)	843 (50.6)	858 (51.1)	880 (51.5)	871 (50.3)	863 (48.7)
	5명이상	258 (15.7)	280 (16.8)	294 (17.5)	288 (16.9)	287 (16.6)	283 (16.0)
1	명균 가구원수	3.8	3.9	3.9	3.9	3.9	3.8
맞벌이	맞벌이	762 (46.2)	738 (44.3)	735 (43.8)	720 (42.1)	767 (44.3)	835 (47.1)
가구 여부	외벌이	886 (53.8)	927 (55.7)	944 (56.2)	989 (57.9)	963 (55.7)	938 (52.9)
	299만원 이하	224 (13.6)	133 (8.0)	192 (11.4)	135 (7.9)	87 (5.0)	61 (3.4)
	300~399만원 이하	441 (26.8)	469 (28.2)	482 (28.7)	410 (24.0)	246 (24.6)	337 (19.0)
가구 소득	400~499만원 이하	384 (23.3)	412 (24.7)	428 (25.5)	441 (25.8)	447 (25.8)	464 (26.2)
	500~599만원 이하	271 (16.4)	312 (18.7)	260 (15.5)	322 (18.8)	334 (19.3)	329 (18.6)
	600만원 이상	328 (19.9)	339 (20.4)	317 (18.9)	401 (23.5)	436 (25.2)	582 (32.8)

주: 1) 2019(2차년도)~2021(4차년도) 조사는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초등 저학년 자녀를 조사 대상 가구 포함 하고 있었으나(전체 표본 가구 수는 이보다 많음),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영 유아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추출하여 산출함.

가구소득 구간별로는 299만원이하인 가구 비중이 1차년도에는 13.6%였으나, 이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2022년(5차년도)에 5.0%(87가구)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23년(6차년도)에는 3.4%(61가구)로 더더욱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018년(1차년도)에는 19.9%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며 2023년(6차년도)에는 32.8%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이 조사 표본의 특성이 변함에 따른 변화인지 사회전반의 가구소득 변

²⁾ 가구소득은 명목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2) &#}x27;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동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신 규(신생아) 표본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자료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실패 가구에 대한 대체 표본 또한 전년도 표본과 특성을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구소득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소득 상승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가구소득의 상승은 사회 전반의 임금 수준과 물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며,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정의 등을 고려하여 가구소득 범주 구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가구당 평균 자녀 수는 1차년도 조사에 1.7명이었으며, 2차년도 이후 1.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녀가 한명인 가구는 2018년(1차년도)에 38.7%였으나, 이후 32~34%를 보이다 2023년(6차년도)에 약간 증가하여 35.4%였다. 한편, 총자녀수가 3명이상인 표본은 2018년(1차년도)에 11.7%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14% 수준을 보였다.

〈표 Ⅲ-3-3〉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의 자녀수별 표본(2018~2023년)

단위: 가구(%)

							211 • 711 (70)
				영유0	l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전체	1,648 (100.0)	1,665 (100.0)	1,679 (100.0)	1,709 (100.0)	1,730 (100.0)	1,773 (100.0)
	1명	638 (38.7)	559 (33.6)	543 (32.3)	551 (32.2)	583 (33.7)	628 (35.4)
총 자녀수	2명	818 (49.6)	878 (52.7)	889 (53.0)	910 (53.2)	900 (52.0)	894 (50.4)
	3명 이상	192 (11.7)	228 (13.7)	247 (14.7)	248 (14.5)	247 (14.3)	251 (14.2)
평균	군 자녀수	1.7	1.8	1.8	1.8	1.8	1.8

주: 2019(2차년도)~2021(4차년도) 조사는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초등 저학년 자녀를 조사 대상 가구 포함하고 있었으나(전체 표본 가구 수는 이보다 많음),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영유아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추출하여 산출함.

지역규모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 가구 표본은 대도시 거주자가 708가구(39.9%), 중소도시 834가구(47.0%), 읍면지역 231가구(13.0%)였다. 대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

^{2) &#}x27;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도시 거주자의 비중은 2018년(1차년도) 조사 이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으나, 읍면 지역 거주자는 2018년(1차년도) 16.3%에서 이후 그 비중이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15%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23년(6차년도) 조사에서는 13.0%로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소도시 거주자의 표본이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추적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읍면지역에 거주하던 표본 가구가 중소도시로 이사를 함에 따른 표본 특성 변화와 읍면지역의 영유아 수 자체가 감소하여 신규 표본 구축 시 할당 표본의 수가 적은 현상이 중복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료된다.

〈표 Ⅲ-3-4〉 지역규모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18~2023년)

단위: 가구(%)

				영유0	l 가구		
-	7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	<u>덕</u> 체	1,648 (100.0)	1,665 (100.0)	1,679 (100.0)	1,709 (100.0)	1,730 (100.0)	1,773 (100.0)
	대도시	662 (40.2)	664 (39.9)	670 (39.9)	670 (39.2)	683 (39.5)	708 (39.9)
지역 규모	중소도시	717 (43.5)	728 (43.7)	746 (44.4)	781 (45.7)	788 (45.5)	834 (47.0)
	읍면지역	269 (16.3)	273 (16.4)	263 (15.7)	258 (15.1)	259 (15.0)	231 (13.0)

주: 2019(2차년도)~2021(4차년도) 조사는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초등 저학년 자녀를 조사 대상 가구 포함하고 있었으나(전체 표본 가구 수는 이보다 많음),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영유아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추출하여 산출함.

나.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표본 가구 특성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 표본 가구 특성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본조사(영유아 가구) 표본을 막내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1세 표본의 수가 310가구로 약간 많았으며, 6세 표본이 다소 적게조사되었다.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

^{2) &#}x27;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표 Ⅲ-3-5〉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조사 가구 표본 : 막내자녀 연령별

단위: 가구(%)

구분	전체 표본 수	패널표본	대체 표본	신생아 표본
전체	1,773(100.0)	1,258(100.0)	260(100.0)	254(100.0)
2017년생 (6세)	206(11.7)	185(14.8)	21(8.1)	_
2018년생 (5세)	250(14.2)	223(17.8)	27(10.4)	-
2019년생 (4세)	274(15.5)	235(18.7)	39(15.0)	-
2020년생 (3세)	280(15.8)	219(17.5)	61(23.4)	-
2021년생 (2세)	299(16.9)	225(17.9)	74(28.4)	_
2022년생 (1세)	310(17.5)	144(11.5)	39(15.0)	127(50.0)
2023년생 (0세)	154(8.7)	27(2.2)	_	127(50.0)

주: 1) 연령은 막내자녀 연령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영유아 가구) 가구용 설문의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추적조사에 성공한 패널표본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가 49.0%, 외벌이 가구가 51.0%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대체표본과 신생아 표본은 외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대체표본과 신생아 표본은 2023년에 새롭게 표본을 구축한 가구들로, 면접조사의 특성상 표본 구축 당시 접촉이 쉬운 가구들이 응답자 에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추측된다.

가구소득 구간별로는 299만원 이하 가구의 비중이 전체 표본의 3.4%(61가구)에 그친 상황에서 표본 특성에 따라서는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으나, 워낙 관측치의 숫자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대체표본과 신생아 표본은 400~499만원이하 소득 구간에 가장 많은 표본이 있는데 반해, 패널표본은 600만원 이상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는 맞벌이 가구 여부와 상관된 문제로 보여진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패널 표본의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9.3%에 불과하나, 대체표본과 신생아 표본은 50% 내외로 표본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패널표본의 경우 후속 출산 등으로 인해 총 자녀 수가 더 많아졌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2023년 새롭게 표본이 구축된 가구의 경우 다자녀 가구 비중이다소 적은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게 한다. 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46)에 따르면,

²⁾ 패널표본은 전년도(5차)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추적조사에 성공한 경우이며, 대체표본은 추적조사에 실패한 가구를 대신하여 대체된 표본, 신규표본은 조사차수 기준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연도 상반기에 출생한 신생한 표본을 의미함.

⁴⁶⁾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 o?orgId=101&tblId=DT_1B80A01&vw_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 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인출일: 2023, 10, 16.).

2022년 기준 첫째아 출산 비중은 6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 표본 및 신생아 표본의 첫째아 비중이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의 거주자 비중이 전체 표본 기준 39.9%로, 표본 특성별로 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체 표본의 경우 중소도시 거주자 비중이 약간 낮고, 읍면지역 응답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본조사 표본 기준 읍면지역 거주자는 231가구(13.0%)였다.

〈표 Ⅲ-3-6〉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의 가구 표본 특성 : 가구특성 및 표본 특성별

단위: 명(%)

					L11 · O(70)
	구분	전체	패널표본	대체 표본	신생아 표본
	전체	1,773(100.0)	1,258(71.0)	261(14.7)	254(14.3)
맞벌이	맞벌이	835(47.1)	617(49.0)	106(40.6)	112(44.1)
가구여부	외벌이	938(52.9)	641(51.0)	155(59.4)	142(55.9)
	299만원 이하	61(3.4)	48(3.8)	7(2.7)	6(2.4)
	300~399만원 이하	337(19.0)	236(18.8)	55(21.1)	46(18.1)
가구소득	400~499만원 이하	464(26.2)	320(25.4)	63(24.1)	81(31.9)
	500~599만원 이하	329(18.6)	225(17.9)	53(20.3)	51(20.1)
	600만원 이상	582(32.8)	429(34.1)	83(31.8)	70(27.6)
	1명	628(35.4)	369(29.3)	134(51.3)	125(49.2)
총 자녀수	2명	894(50.4)	686(54.5)	108(41.4)	100(39.4)
시니ㅜ	3명이상	251(14.2)	203(16.1)	19(7.3)	29(11.4)
	대도시	708(39.9)	501(39.8)	106(40.6)	101(39.8)
지역규모	중소도시	834(47.0)	603(47.9)	114(43.7)	117(46.1)
	읍면지역	231(13.0)	154(12.2)	41(15.7)	36(14.2)

주: 1)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으로, 명목 소득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전체 표본 가구 특성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는 I 기 조사(2018~2022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조사되는 본조사 이 외에도, 부스터 표본 조사로 무자녀 가구 817가구와 임산부가구 504가구47)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의 전체 조사(본조사 및 부스터 표본 조사) 표본의 응답자 특성에 대

²⁾ 추적성공은 전년도(5차)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추적조사에 성공한 경우이며, 대체표본은 추적조사에 실패한 가구를 대신하여 대체된 표본, 신규표본은 조사차수 기준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연도 상반기에 출생한 신생한 표본을 의미함.

⁴⁷⁾ 조사 목표 표본 수는 무자녀 가구 800가구와 임산부 자녀 500가구였는데, 온라인 조사로 진행됨에 따라 추가 응답자가 발생하여 목표 표본보다 약간 더 많은 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음.

해 살펴보았다.

평균 가구원 수는 본조사(영유아 가구) 표본이 3.8명이었으며, 임산부 가구 2.8명, 무자녀 가구 2.1명이었다. 영유아 가구(본조사) 중 47.1%만이 맞벌이 가구인데 반해, 임산부 가구 표본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75.8%, 무자녀 가구 중 맞벌이가구 비중은 73.6%에 달했다.

가구소득 구간별로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의 비중은 영유아가구 표본 (본조사)의 경우 3.4%에 불과했으나, 임산부가 가구 중에서는 6.7%, 무자녀 가구 중에서는 9.8%가 이에 속하였다.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영유아가구 표본(본조사)의 경우 32.8%였으며, 임산부가 가구 중에서는 50.8%, 무자녀 가구 중에서는 39.5%였다. 즉, 영유아 가구 표본의 가구소득이 임산부 가구나 무자녀 가구의 가구소득에 비해 편차가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 가구 표본에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가구소득 구간은 400~499만원이하로 26.2%가 이에 해당하였다. 반면,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된 결과로 판단된다. 지역규모별 응답자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무자녀 가구의 경우 읍면

지역 거주자 비중이 16.4%로, 영유아 가구(본조사)나 임산부 가구에 비해서는 약 간 더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Ⅲ-3-7〉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전체 표본 가구 특성

단위: 가구(%)

	구분	본조사(영	유아 가구)	임	산부	무	자녀
	전체	1,773	(100.0)	504	(100.0)	817	(100.0)
71701	3명이하	627	(35.4)	409	(81.2)	797	(97.6)
가구원 수	4명	863	(48.7)	66	(13.1)	9	(1.1)
	5명이상	283	(16.0)	29	(5.8)	11	(1.3)
:	평균 가구원수	3	.8	2	2.8	2	2.1
맞벌이 가구	맞벌이	835	(47.1)	382	(75.8)	601	(73.6)
기구 여부	외벌이	938	(52.9)	122	(24.2)	216	(26.4)
	299만원 이하	61	(3.4)	34	(6.7)	80	(9.8)
717	300~399만원 이하	337	(19.0)	44	(8.7)	100	(12.2)
가구 소득	400~499만원 이하	464	(26.2)	72	(14.3)	147	(18.0)
끅	500~599만원 이하	329	(18.6)	98	(19.4)	167	(20.4)
	600만원 이상	582	(32.8)	256	(50.8)	323	(39.5)

갼		본조사(영유아 가구)		임	산부	무자녀	
지역 규모	대도시	708	(39.9)	197	(39.1)	336	(41.1)
	중소도시	834	(47.0)	241	(47.8)	347	(42.5)
卅工	읍면지역	231	(13.0)	66	(13.1)	134	(16.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설문조사 종류별 표본 가구의 부(남성) 특성을 살펴보면, 영유아 가구의 경우 부가 20대인 경우가 2.0%인데 반해, 임산부 가구는 14.1%, 무자녀 가구는 15.2%였다. 반면, 부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는 영유아가구 표본 중 44.1%, 임산부 가구 중 22.4%, 무자녀 가구 중 33.9%였다.

부의 학력 수준별로는 설문종류(조사대상)와 무관하게 4년제대학졸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가 22.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고, 반대로 대학원이상인 경우도 10.2%로 영유아 가구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Ⅲ-3-8〉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전체 표본 가구의 부(남성) 특성

단위: 가구(%)

구분		본조사(영유아 가구)		임산부		무자녀	
전체		1,764	(100.0)	500	(100.0)	817	(100.0)
	20대	35	(2.0)	71	(14.1)	124	(15.2)
연령	30대	947	(53.4)	316	(62.7)	416	(50.9)
	40대 이상	782	(44.1)	113	(22.4)	277	(33.9)
	고졸이하	286	(16.2)	67	(13.4)	182	(22.3)
하면	전문대졸	306	(17.3)	92	(18.4)	155	(19.0)
학력	4년제대학졸	1,043	(59.1)	292	(58.4)	397	(48.6)
	대학원이상	129	(7.3)	49	(9.8)	83	(10.2)

주: 영유아 가구 중 부가 없는 경우 9가구는 제외. 임산부 가구 중 부가 없는 가구 4가구 제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설문조사 종류별 표본 가구의 모(여성) 특성을 살펴보면, 영유아 가구의 경우 모가 20대인 경우가 4.8%인데 반해, 임산부 가구는 19.0%, 무자녀 가구는 26.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모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는 영유아 가구의 27.6%, 무자녀 가구의 25.7%였으나, 임산부 가구의 경우 7.1%만이 모 연령이 40대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여성의 가임 기간 등의 영향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모의 학력수준도 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사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부에 비해 설문종류(조사대상)에 따라 학력 편차가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Ⅲ-3-9〉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전체 표본 가구의 모(여성) 특성

단위: 가구(%)

구분		본조사(영유아 가구)		임산부		무자녀	
전체		1,771	(100.0)	504	(100.0)	817	(100.0)
	20대	85	(4.8)	96	(19.0)	219	(26.8)
연령	30대	1,196	(67.5)	372	(73.8)	388	(47.5)
	40대 이상	490	(27.6)	36	(7.1)	210	(25.7)
	고졸이하	310	(17.5)	64	(12.7)	123	(15.1)
하면	전문대졸	400	(22.6)	92	(18.3)	178	(21.8)
학력	4년제대학졸	952	(53.8)	293	(58.1)	441	(54.0)
	대학원이상	109	(6.2)	55	(10.9)	75	(9.2)

주: 영유아 가구 중 모가 없는 경우 2가구는 제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설문종류(조사대상)별 부(남성)의 근로 특성을 살펴보면, 영유아 가구 표본의 경우 부가 취업중인 경우가 98.5%에 달하며, 임산부가구의 경우 94.8%, 무자녀 가구의 경우 91.1%였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취업률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영유아 가구의 경우 자녀 혹은 가족 부양의 책임이 부에게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부가 취업자인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시간 전후로, 설문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3-10〉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전체 표본 가구의 부(남성) 근로 특성

단위: 가구(%), 시

구분			본조사(영유아 가구)		임산부		무자녀	
전체		1,764	(100.0)	500	(100.0)	817	(100.0)	
		임금근로자	1,422	(80.6)	443	(88.6)	642	(78.6)
=101	*IOI	비임금근로자	312	(17.7)	31	(6.2)	101	(12.4)
취업	취업	무급가 족종 사자	3	(0.2)	_	-	1	(0.1)
여부		계	1,737	(98.5)	474	(94.8)	744	(91.1)
및 고용 형태	휴직 중		16	(0.9)	6	(1.2)	14	(1.7)
	학업 중		-	-	4	(0.8)	9	(1.1)
	구직 중		8	(0.5)	14	(2.8)	38	(4.7)
	미취업		3	(0.2)	2	(0.4)	12	(1.5)
주당 평균 노동시간		43	3.6	4:	3.6	44	4.0	

주: 노동시간은 취업인 경우(휴직자 제외)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설문종류(조사대상)별 모(여성)의 근로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자 비중이 영유아 가구(본조사)는 38.6%에 그친데 반해, 임산부 가구는 49.8%, 무자녀 가구는 65.1%에 달했다. 임산부 가구의 경우 현재 휴직 중인비중 또한 27.8%에 달하여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 비중이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에서 높은 것은 결국 모(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영유아 가구에서 모의 취업자 비중이 낮은 이유는 자녀 돌봄의 필요에 따른 경력단절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모(여성)가 취업자인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영유아 가구 36.5시간, 임산부가구 35.0시간, 무자녀가구 36.0시간으로, 전반적으로 부(남성)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노동시장참여율 자체가 적을뿐 아니라, 취업자인 경우에도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사료된다.

〈표 Ⅲ-3-1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전체 표본 가구의 모(여성) 근로 특성

단위: 가구(%), 시

							근귀 . /	[十(70), 八
구분			본조사		임산부		무자녀	
전체		1,771	(100.0)	504	(100.0)	817	(100.0)	
		임금근로자	500	(28.3)	233	(46.2)	468	(57.3)
최어	치어	비임금근로자	169	(9.6)	18	(3.6)	64	(7.8)
취업 여부 및 고용 - 형태 -	취업	무급가족종사자	14	(0.8)	_	-	-	-
		계	683	(38.6)	251	(49.8)	532	(65.1)
	휴직 중		164	(9.3)	140	(27.8)	95	(11.6)
	학업 중		7	(0.4)	5	(1.0)	19	(2.3)
	구직 중		31	(1.8)	31	(6.2)	99	(12.1)
	미취업		886	(50.0)	77	(15.3)	72	(8.8)
주당 평균 노동시간			36	6.5	35	5.0	36	3.0

주: 노동시간은 취업인 경우(휴직자 제외)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설문종류(조사대상)별 부부의 결혼 기간은 영유아 가구(본조사)의 경우 평균 7.3 년으로, 임산부 가구 4.6년이나 무자녀 가구 4.8년에 비해 3년가량 긴 것으로 나타 났다. 영유아 가구 표본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는 평균 결혼 기간이 4.9년이었으며, 가구원이 4명인 경우 8.1년, 가구원 수가 5명이상인 경우 10.1년으로,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

다. 이는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가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이미 후속 출산이 완료된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Ⅲ-3-1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전체 표본 가구의 부부 결혼 기간

단위 : 년. (명)

구분		본조사(영유아 가구)	임산부	무자녀	
	전체	7.3(1,773)	4.6(504) 4.8(817)		
71701	3명이하	4.9(627)	3.9(409)	4.8(797)	
가구원 수	4명	8.1(863)	8.3(66)	4.9(9)	
	5명이상	10.1(283)	7.3(29)	2.5(1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다. 가구소득 특성

1) 연도별 가구소득 : 영유아 가구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소득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 득, 공적 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세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2020년(3차년도)~2022년(5차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도 별도로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총 가구소득을 산출할 때는 이들 세부 소득 중에서 기타소득과 코로나19 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2022년도(5차년도) 연구보고서는 가구소득 뿐 아니라 소비지출 등을 모두 실질 값으로 환산하여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조사 차수가 거듭됨에 따라 자료 재산출의 어려움⁴⁸⁾과 정부지원금 등이 명목값으로 지원됨에 따라 기준치 통일의 필요성, 명목값이 일반 국민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6차년도) 연구부터는 가구소득 및 가계소비지출등 비용을 기본적으로 명목 값으로 보고하기로 하였다. 단,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시계열 표 중에서 물가 상승분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의 경우에는 실질 값을 제시하고, 해당 값이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 값임을 명기하여 구분하였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명목소득 기준 2018년(1차년도)에 461만5천원이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3차년도)에 다시 461만5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⁴⁸⁾ 소비자물가지수가 5년마다 새롭게 갱신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시 누적적으로 실질값 산출을 위한 반복적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임.

낮았으나,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2023년(6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551만3천원으로, 2018년(1차년도) 조사에비해 90만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각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실질 값으로 환산한 실질소득의 경우 2018년(1차년도) 467만2천원에서 2023년(6차년도)에 496만원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당연히 명목소득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2년 (5차년도) 명목소득은 512만2천원으로 2021년(4차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실질소득은 573만5천원으로 2021년(4차년도)의 494만1천원에 비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3년(6차년도)의 명목소득은 2021년(4차년도)에 비해 약 37만원가량이 높으나, 실질소득은 2만원가량이 높은 수준에 그쳤다. 이는 2022년(5차년도)이후 물가상승분이 매우 큼을 시사하는 결과로, 명목소득은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물가수준이 매우 높아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는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표 Ⅲ-3-13⟩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영유아 가구 표본 기준

단위 : 만원

_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명목소득	461.5	491.8	461.5	504.6	512.2	551.3
_	실질소득	467.2	494.6	463.4	494.1	473.5	496.0

주: 1) 영유아 가구 표본만을 추출하여 분석함.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외벌이 가구의 소득에 비해 150만원이상 높은 상황이 매해 발견되었으며,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도 높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2명인 경우와 3명이상인 경우는 3명이상인 경우 가구소득이 약간 더 높긴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들 가구 사이의 편차는 2023년(6차년도)에는 좀 더 크게 벌어져, 총 자녀수가 3명인 가구의 2023년도 월평균 명목 가구소득은 594만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²⁾ 실질소득은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2) &#}x27;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한편,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들의 가구소득이 적은 것이 매해 유지되는 경향이었다. 2023년(6차년도) 조사 기준 대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명목)은 평균 565만3천원이었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547만8천원이었던데 반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20만9천원에 그쳤다.

⟨표 Ⅲ-3-14⟩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영유아 가구 표본 기준 (명목소득 기준)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	던체	461.5	486.9	458.7	501.2	512.2	551.3
맞벌이	맞벌이	539.2	567.4	537.5	580.4	602.1	637.8
가구여부	외벌이	394.8	422.8	397.4	443.6	440.6	474.3
	1명	455.2	474.9	436.2	466.6	476.1	519.5
총자녀수	2명	460.6	491.4	471.5	522.4	530.1	561.4
	3명이상	486.5	499.3	462.4	500.5	532.1	594.6
	1명	455.2	479.5	441.7	473.8	476.1	519.5
자녀수	2명	460.6	493.1	473.7	521.5	530.1	561.4
	3명이상	486.5	518.7	463.5	511.1	532.1	594.6
	대도시	475.4	501.2	462.3	524.2	526.2	565.3
지역규모	중소도시	458.4	493.6	462.6	497.9	511.4	547.8
	읍면지역	435.9	464.0	456.1	466.5	477.8	520.9

주: 영유아 가구 표본만을 추출하여 분석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

세목별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이 가구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 소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6차년도) 기준 영유아 가구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월평균 502만8 천원으로, 앞서 총 가구소득의 91.2%에 해당하였다. 한편,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액은 34만9천원으로 가구소득 중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액 또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아동수당이 도입되었던 2019년(2차년도)49에 크게 상승하였으며, 영아수당이 도입된 2022년(5차년도)에 전년도 대비 큰 상승이 포착되었고, 다시 부모급여가 도입된 2023년(6차년도)에도 전년대비 평균 3만7천원가량의 소득 상승이 관찰되었다.

^{2) &#}x27;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⁴⁹⁾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시점(매해 5월~8월)상 2018년도에는 아동수당 수급액이 가구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표 Ⅲ-3-15⟩ 세목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월평균 소득 변화 :영유아 가구 표본 기준 (명목소득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446.0	449.9	422.6	458.4	472.7	502.8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4.0	6.5	3.8	11.9	3.2	5.1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9.6	27.4	26.8	25.1	31.2	34.9
사적이전소득	1.9	3.1	5.5	6.0	5.1	8.5
기타소득	1.4	7.3	6.7	6.6	5.2	5.2

주: 영유아 가구 표본만을 추출하여 분석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2) 2023년 양육 관련 공적이전소득 : 영유아 가구

2023년도에 영유아 가구들의 공적이전소득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가구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으며, 누리과정을 지원받은 가구가 68.5%, 보육료 지원을 받은 경우가 27.9%,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비중이 20.4%, 출산장려금 10.3%, 가정양육수당 5.4%이었다. 전년도 보고서에는 지난 1년 이내 모든 공적 지원금 수급을 중복계산하다보니 수급 비중이 과도하게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23년 올해 보고서부터는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지원금의 경우 조사 마지막월인 조사당해 4월 기준의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수급 비중을 산출하였다. 단,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설문 상에서 지난 1년간의 수급 여부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수급 비중이 산출되었다.

가구특성별로는 외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비해 가정양육수당과 육아휴 직급여 수급 비중이 높았으며, 반대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과 출산 장려금 수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서는 가 구소득이 300~399만원인 가구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수급 비중이 높은데 반해, 출산장려금 수급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 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누리과정지원금 수급 뿐 아니라 보육료 지원 수급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구내 자녀가 2명 이상으로 가구 단위로 2개 지원금을 모두 수급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이다.

〈표 Ⅲ-3-16〉가구특성별 양육 관련 공적이전소득 수급 비중(2023년)

단위: 가구(%)

	구분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누리 과정	아동 수당	출산 장려금	육아 휴직 급여	(수)
	전체	5.4	27.9	68.5	100.0	10.3	20.4	(1,773)
맞벌이	맞벌이	3.4	27.4	70.8	100.0	20.4	19.3	(835)
가구여부	외벌이	7.1	28.3	66.5	100.0	1.4	21.4	(938)
	299만원 이하	3.3	42.6	67.2	100.0	13.1	16.4	(61)
	300~399만원 이하	9.8	29.1	60.8	100.0	3.3	18.1	(337)
가구소득	400~499만원 이하	3.4	26.7	68.1	100.0	8.0	24.4	(464)
	500~599만원 이하	4.3	26.1	70.8	100.0	13.7	21.6	(329)
	600만원 이상	5.2	27.5	72.2	100.0	14.1	18.4	(582)
	1명	4.6	24.5	43.5	100.0	11.0	20.9	(628)
자녀수	2명	5.3	29.1	82.0	100.0	9.3	19.1	(894)
	3명이상	7.6	31.9	83.3	100.0	12.4	23.9	(251)

주: 1) %는 전체 응답자 중 수급자 비중을 의미하며, 가구 단위로 한 명이라도 수급하면 수급함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2022년에 도입되었다가 2023년 부모급여로 편입된 영아수당의 경우 2022년생에게 적용된 지원제도이므로, 분석 대상을 2022년생에 국한하여 수급율을 산출하였다50). 즉, 2022년생이 0세였을 때 영아수당(현금) 수급율로, 이는 가정양육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아수당(현금) 수급자는 2022년생 310명 중 275명(88.4%)이었으며, 영아수당을 수급한 횟수는 평균 5.74회였다. 영아수당(현금) 지원금은 30만원으로 고정된 금액이므로, 모든 가구의 월평균 수급액은 30만원이다.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 가구의 수급율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오히려 높아 92.2%에 달했으며, 평균 수급 횟수는 외벌이 가구들이 맞벌이 가구에 비해 많아서 5.97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소득 구간별로는 299만원이하 가구가 수급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분석 대상이 9명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는 가구소득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영아수당(현금) 수급율이 80.4%로, 자녀가 2명이하인 가구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다른

²⁾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은 2023년 4월(마지막 조사월)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육아휴직급여는 지난 1년간의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함.

⁵⁰⁾ 조사 자료는 2023년(6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전년도 5월부터 조사 당해연도 4월까지의 정부지원금 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임.

자녀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여 보다 빠른 시기에 기관 보육을 실시함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Ⅲ-3-17〉 영아수당 수급 여부 및 총 수급 횟수(2022년, 월평균)

단위 : %, 회, (명)

	구분	영아수당(현	금) 수급율	현금 수급	횟수(평균)
	T世	수급율	(수)	평균 횟수	(수)
	전체	88.4	(310)	5.74	(275)
맞벌이	맞벌이	92.2	(129)	5.43	(119)
가구 여부	외벌이	85.6	(181)	5.97	(156)
	299만원 이하	77.8	(9)	5.57	(7)
가구	300~399만원	91.2	(68)	5.92	(63)
	400~499만원	86.1	(101)	5.44	(87)
소득	500~599만원	92.2	(51)	5.91	(47)
	600만원 이상	87.7	(81)	5.85	(71)
	1명	89.3	(122)	5.75	(110)
총 자녀수	2명	90.1	(142)	5.63	(128)
	3명이상	80.4	(46)	6.08	(37)

주: 수급율은 2022년생 표본을 기준으로 수급자 비중을 의미하며, 가구 단위로 한 명이라도 수급하면 수급함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2023년 도입되어 운영 중인 부모 급여의 경우 2022년생과 2023년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급율과 수급 금액 등을 산출하였다. 단, 2023년생의 경우 부모급여조사대상 기간이 2023년1월~2023년 4월까지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2023년 5~6월생의 경우는 응답 값에 결측이 발생하여 부모급여 수급률 합이 100%가 되지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부모급여 수급율은 전액 현금으로 수급한 경우가 79.7%, 바우처+현금으로 수급한 경우가 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생의 경우 수급율이 74.0%로, 앞서 2022년생이 0세일 때 수급한 영아수당 수급율 88.4%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급율을 보였다. 2022년생의 2023년 4월 기준 부모급여(현금) 수급율은 82.6%이며, 바우처+현금 방식을 선택한 경우가 17.4%였다. 부모급여(현금)을 수급한 횟수는총 4개월 중 평균 3.61회였으며, 월평균 수급액은 47만9천원이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에 비해 지원금 수준이 높아서, 아동의 월령이 12개월이하 인 경우 보육료 지원 이외에 현금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영아수당의 경우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에 비해서는 지원 수준이 높아지긴 했으나, 보육료 지원금에 비해서는 낮은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기관 보육을 하는 경우 현금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 반면, 부모급여의 경우 보육료 지원금에 비해 부모급여 지원액이 높기 때문에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2023년은 부모급여 지원 제도가 막 도입된 시기로 부모급여 수급을 조사한 조사 대상 기간이 매우 짧고, 조사 대상이 상반기 출생아로 국한되어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관측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존재한다.

〈표 Ⅲ-3-18〉 부모급여 수급 여부 및 총 수급액(2023년, 월평균)

단위: %, 회, 만원,(명)

		부모	고급여 수급	률		현금 수급 금역	
	구분	전액 현금	바우처 +현금	(수)	현금 수급 횟수(평균)	월평균 수급 금액	(수)
	전체	79.7	14.2	(464)	3.61	47.9	(436)
아동	2023년생	74.0	7.8	(154)	2.73	66.8	(126)
출생연도	2022년생	82.6	17.4	(310)	3.96	39.9	(310)
맞벌이	맞벌이	77.3	17.0	(194)	3.55	48.3	(184)
여부	외벌이	81.5	12.2	(270)	3.64	47.6	(253)
	299만원 이하	69.2	30.8	(13)	3.62	47.9	(13)
-1-	300~399만원	71.3	19.1	(94)	3.65	41.7	(85)
가 구 소득	400~499만원	88.8	8.4	(143)	3.67	49.9	(139)
- -¬	500~599만원	81.9	12.0	(83)	3.51	49.6	(79)
	600만원 이상	75.6	16.8	(131)	3.56	48.8	(121)
	1명	78.9	14.2	(190)	3.53	47.0	(177)
총 자녀수	2명	82.1	12.6	(207)	3.63	48.9	(197)
ハーエ	3명이상	74.6	19.4	(67)	3.71	46.9	(63)

주: 1) 수급율은 2022년생과 2023년생 표본을 기준으로 수급자 비중을 의미하며, 가구 단위로 한 명이라도 수급하면 수급함으로 분류함. 수급률 산출의 기준시점은 2023년 4월 기준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전체 표본의 가구소득 특성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전체 표본(본조사 및 부스터 표본)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영유아 가구(본조사)는 551만3천원으로, 임산부 가구 659만4천원, 무자녀 가구 605만1천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앞서 살펴

^{2) 2023}년생의 경우 부모급여 조사대상 기간이 2023년 4월까지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5~6월생의 경우는 응답 값이 없어, 부모급여 수급률 합이 100%가 되지 않음에 주의.

본 바와 같이 임산부 가구 표본과 무자녀 가구 표본에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여부별로 외벌이 가구만을 대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출한 결과, 영유아 가구(본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74만3천원으로, 임산부 가구 중 외벌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인 466만5천원, 무자녀 가구 중 외벌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인 438만6천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영유아 가구의 경우 637만8천원에 그친 반면, 임산부 가구는 721만1천원, 무자녀 가구는 664만9천원으로 영유아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임산부 가구 표본과 무자녀 가구 표본이 월평균 (총) 가구소득이 높은 이유는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맞벌이 가구들의 소득 수준 자체가 영유아 가구에 비해서 높은 것에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표 Ⅲ-3-19〉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전체 표본의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가구)

	구분	_	^E 사 ㅏ 가구)	임산부	· 가구	무자녀 가구		
	전체	551.3	(1,773)	659.4	(504)	605.1	(817)	
맞벌이	맞벌이	637.8	(835)	721.1	(382)	664.9	(601)	
가구 여부	외벌이	474.3	(938)	466.5	(122)	438.6	(216)	
TI04	대도시	565.3	(708)	711.3	(197)	610.2	(336)	
지역 규모	중소도시	547.8	(834)	633.7	(241)	628.5	(347)	
II-T	읍면지역	520.9	(231)	598.6	(66)	531.6	(134)	

주: 1) 가구소득은 근로소득(본인의 근로소득+배우자 근로소득+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 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지역규모별로는 임산부 가구 표본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711만3천원으로 매우 높았으며, 지역규모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영유아 가구 표본의 경우 지역규모가 클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긴 하지만, 부스터 표본(임산부 및 무자녀) 가구에 비해서는 편차가 크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세목별로는 모든 표본 집단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영유아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월평균 34만9천원으로 높은데 반해,

²⁾ 소득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한 후 계산함.

무자녀 가구는 7천원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공적이전소득에 아동수당 등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부지원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임산부가구 표본의 경우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이 월평균 38만5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평균 28만1천원,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이 18만3천원으로 영유아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Ⅲ-3-20〉 세목별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전체 표본의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가구)

구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기타소득	계(수)
영유아가구	502.8	5.1	34.9	8.5	5.2	556.4(1,773)
임산부	601.0	38.5	15.9	4.0	3.5	663.0(504)
무자녀	584.3	18.3	0.7	1.8	28.1	633.1(817)

- 주: 1) 근로소득은 본인의 근로소득+배우자 근로소득+기타 가구원 근로소득으로 계산함.
 - 2)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을 포함함
 - 3) 소득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한 후 계산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라. 아동 특성

아동용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 표본의 수는 2018년(1차년도) 2,277명이었으며, 표본 수가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2023년(6차년도)에는 2,422명이 조사되었다. 아동의 성별은 조사 차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모든 차수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21〉 소비실태조사(2018~2023년) 아동 자료 특성 변화 : 성별

단위 : %(명)

				영유	우아		
Ŧ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
π-	·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u> '시	(2,277)	(2,324)	(2,368)	(2,401)	(2,393)	(2,422)
	남아	51.0	53.6	52.7	51.9	51.3	50.7
서버	급이	(1,161)	(1,245)	(1,248)	(1,247)	(1,229)	(1,228)
성별	여아	49.0	46.4	47.3	48.1	48.7	49.3
-	जण	(1,116)	(1,079)	(1,120)	(1,154)	(1,166)	(1,194)

주: 아동용 설문조사 표본 기준으로, 영유아 표본만을 추출하여 분석함. 즉, 2019년(2차년도)~2021년(4차년도)는 초등 저학년 아동용 설문의 조사 표본도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제외.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2) &#}x27;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아동용 설문의 표본을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의 아동용 설문 조사 대상자는 2019년(2차년도)에는 초등1학년 아동까지였으며, 2020년(3차년도)에는 초등2학년까지, 2021년(4차년도)에는 초등1학년까지가 아동용 설문의 조사대상자였다. 현재까지 가장긴 연령 구간이 조사된 출생코호트는 2017년생(1~6세)과 2018년생(0~5세)이다. 차년도(2024년) 조사가 완료되면, 2018년생의 영유아기 전체 기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6차년도) 조사 기준 아동 연령별로 아동 표본의 수는 0세 156명, 1세 317명, 2세 343명, 3세 381명, 4세 411명, 5세 400명, 6세 414명으로, 모든 연령에서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약간 증가한 표본 수를 보였다.

⟨표 Ⅲ-3-22⟩ 소비실태조사(2018~2023년) 아동 자료 특성 변화 :연령 (전체 아동용 설문 조사 표본 기준)

단위	0/_	(명

		ä	해당차	시 연령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출생년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생	-	-	-	-	1	0세	-	ı	ı	ı	-	6.4 (156)
2022년생	-	-	-	-	0세	1세	_	-	-	-	6.5 (156)	13.1 (317)
2021년생	_	_	_	0세	1세	2세	_	ı	-	5.6 (160)	13.4 (321)	14.2 (343)
2020년생	_	_	0세	1세	2세	3세	_	ı	4.8 (158)	11.2 (316)	14.0 (335)	15.7 (381)
2019년생	_	0세	1세	2세	3세	4세	_	5.7 (158)	9.8 (321)	12.5 (353)	16.5 (396)	17.0 (411)
2018년생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5.6 (127)	10.7 (297)	10.1 (331)	13.0 (367)	15.8 (379)	16.5 (400)
2017년생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11.7 (267)	10.7 (296)	10.2 (333)	12.8 (363)	16.4 (392)	17.1 (414)
2016년생	2세	3세	4세	5세	6세		13.0 (295)	12.1 (336)	11.6 (379)	14.3 (404)	17.4 (416)	_
2015년생	3세	4세	5세	6세	ı		15.6 (356)	14.8 (410)	12.9 (424)	15.5 (438)	-	_
2014년생	4세	5세	6세	7세 (초1)	-		16.2 (370)	14.6 (406)	12.9 (422)	15.2 (431)	_	_
2013년생	5세	6세	7세 (초1)	_	_		17.7 (403)	15.2 (421)	13.5 (441)	-	_	_

ᅔᄱᄖ	해당차시 연령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돌장인포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2년생	6세	7세 (초1)	8세 (초2)	1	-		20.2 (459)	16.3 (452)	14.3 (469)	_	-	-
전체						100.0 (2,277)	100.0 (2,776)	100.0 (3,278)	100.0 (2,832)	100.0 (2,395)	100.0 (2,422)	

주: 1)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의 아동용 설문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2023년(6차년도) 아동용 설문 조사 기준 어린이집 이용자는 1,300명(53.7%)이었으며, 유치원 이용자 659명(27.2%),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자 31명(1.3%), 반일이상 기관 미이용자(가정양육)이 432명(17.8%) 조사되었다. 이용하는 기관 종류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5세와 6세의 경우 반일이상 기관 미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4세의 경우에도 1명만이 반일이상 기관을 미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2022년(5차년도) 아동 표본의 경우에도 5세와 6세의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자는 1~2명에 불과한 상황으로(이정원·이재희·김자연외, 2022: 165), 2023년(6차년도)에 해당 연령의 영유아 중 기관 미이용자가 없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Ⅲ-3-23〉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현황: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반일이상기관) 미이용	전체	
	전체	1,300(53.7)	659(27.2)	31(1.3)	432(17.8)	2,422(100.0)	
성별	남아	661(53.8)	340(27.7)	13(1.1)	214(17.4)	1,228(50.7)	
	여아	639(53.5)	319(26.7)	18(1.5)	218(18.3)	1,194(49.3)	
	0세(2023년생)	3(1.9)	0(0.0)	0(0.0)	153(98.1)	156(6.4)	
	1세(2022년생)	100(31.5)	0(0.0)	0(0.0)	217(68.5)	317(13.1)	
만나이	2세(2021년생)	296(86.3)	2(0.6)	1(0.3)	44(12.8)	343(14.2)	
(출생	3세(2020년생)	358(94.0)	4(1.0)	2(0.5)	17(4.5)	381(15.7)	
년도)	4세(2019년생)	246(59.9)	156(38.0)	8(1.9)	1(0.2)	411(17.0)	
	5세(2018년생)	172(43.0)	217(54.3)	11(2.8)	0(0.0)	400(16.5)	
	6세(2017년생)	125(30.2)	280(67.6)	9(2.2)	0(0.0)	414(17.1)	

주: 가중치 미적용 수치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2) 2019(2}차년도)는 초등1학년, 2020년(3차년도)는 초등2학년, 2021년(4차년도)는 초등1학년까지 아동용 설 문조사를 실시함.

^{2) &#}x27;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마. 조사방식별 가구 표본 특성 : 2023년 본조사 기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영유아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조사방식인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51) 하지만, 이미 설문의 유치 및 전화 조사 등으로 응답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경우 대면면접조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응답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이에 2023년(6차년도) 조사의 경우대면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방식을 채택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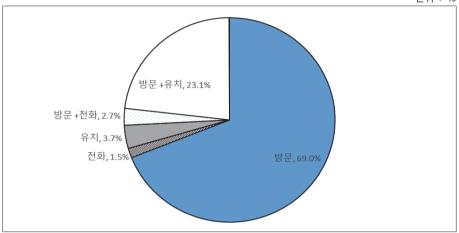
가구 방문을 통한 대면면접조사가 전체 1,773가구 중 69%에 해당하는 1,223가 구에서 실시되었으며, 방문과 일부 설문의 유치를 통해 조사를 완료한 경우가 410가구(23.1%), 설문 전체를 유치 조사한 경우 65가구(3.7%), 방문과 전화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가 47가구(2.7%), 설문 전체를 전화 조사로 진행한 경우가 27가구(1.5%)였다.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외벌이 가구들은 방문조사 확률이 높고, 맞벌이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방문+유치 조사와 같은 혼합 조사 방식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외의 조사방식으로 조사가 완료된 경우는 해당하는 관측치가 작아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는 방문 조사 확률이 높은데 반해,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혼합 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완료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응답해야하는 설문 문항 및 아동용 설문 개수 등이 많아져, 대면 면접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응답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거주자가 방문+유치 조사 확률이 높았으며,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방문+전화조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 방문 +전화 조사의 경우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⁵¹⁾ 무자녀 가구와 임산부 가구의 경우 표본 전체를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함.

[그림 Ⅲ-3-2] 조사방식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 표본 비중

단위 : %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표 Ⅲ-3-24〉 조사방식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 가구 표본 특성

단위 : 명(%)

								<u> </u>
구분		전체	방문	전화	유치	방문 +전화	방문 +유치	방문 +전화 +유치
전체		1,773(100.0)	1,223(69.0)	27(1.5)	65(3.7)	47(2.7)	410(23.1)	1(0.1)
 맞벌이	맞벌이	835(47.1)	545(65.3)	14(1.7)	36(4.3)	25(3.0)	214(25.6)	1(0.1)
가구여부	외벌이	938(52.9)	678(72.3)	13(1.4)	29(3.1)	22(2.3)	196(20.9)	-
	299만원 이하	61(3.4)	34(55.7)	2(3.3)	4(6.6)	4(6.6)	17(27.9)	_
	300~399만원 이하	337(19.0)	244(72.4)	5(1.5)	20(5.9)	10(3.0)	58(17.2)	_
가구소득	400~499만원 이하	464(26.2)	335(72.2)	8(1.7)	14(3.0)	11(2.4)	96(20.7)	-
	500~599만원 이하	329(18.6)	222(67.5)	6(1.8)	13(4.0)	6(1.8)	82(24.9)	-
	600만원 이상	582(32.8)	388(66.7)	6(1.0)	14(2.4)	16(2.7)	157(27.0)	1(0.2)
	1명	628(35.4)	476(75.8)	8(1.3)	18(2.9)	14(2.2)	112(17.8)	-
자녀수	2명	894(50.4)	592(66.2)	18(2.0)	34(3.8)	29(3.2)	220(24.6)	1(0.1)
	3명이상	251(14.2)	155(61.8)	1(0.4)	13(5.2)	4(1.6)	78(31.1)	-
지역규모	대도시	708(39.9)	452(63.8)	5(0.7)	23(3.2)	20(2.8)	207(29.2)	1(0.1)
	중소도시	834(47.0)	598(71.7)	20(2.4)	39(4.7)	14(1.7)	163(19.5)	_
	읍면지역	231(13.0)	173(74.9)	2(0.9)	3(1.3)	13(5.6)	40(17.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본 연구.

본조사의 추적 조사 여부에 따른 표본 특성별로 조사방식을 살펴보면, 패널 표본 (추적 조사 성공 가구)와 대체 표본의 경우 방문조사 비중이 각 68.1%와 67.0%로 조사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신생아 표본의 경우에는 방문 조사 비중이 75.2%로, 다른 표본에 비해 방문 조사 비중이 높고, 설문 전체를 전화조사나 유치 조사로 실시한 표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 오류와 조사 대

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생아 표본의 경우 방문하여 조사 참여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표본으로 구축하도록 한 조사 지침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표 Ⅲ-3-25〉 조사방식 및 표본 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 가구 표본

구분		전체	방문	전화	유치	방문 +전화	방문 +유치	방문 +전화 +유치
7	전체	1,773(100.0)	1,223(100.0)	27(100.0)	65(100.0)	47(100.0)	410(100.0)	1(100.0)
	패널표본	1,258(71.0)	857(68.1)	25(2.0)	58(4.6)	31(2.5)	286(22.7)	1(100.0)
표본특성	대체표본	261(14.7)	175(67.0)	2(0.8)	7(2.7)	9(3.4)	68(26.1)	_
	신생아표본	254(14.3)	191(75.2)	-	-	7(2.8)	56(22.0)	-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조사방식별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방문조사를 한 표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38만3천원으로, 방문+유치조사를 한 경우 603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방문조사의 경우 외벌이 가구의 비중이 많고, 방문+유치조사는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많았던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진다.

한편, 추적 조사 여부에 따른 표본 특성에 따라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신규 구축된 표본 가구(대체표본 및 신생아표본)들이 기존의 패널 표본들과 가구소득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신생아표본 가구이면서 방문+유치 조사로 조사를 완료한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623 만9천원으로,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생아가 있으면서 가구소득은 높은 집단의 경우 일반적인 영유아 가구에 비해 대면 면접 조사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게 될 위험이 보다 높은 집단으로 혼합조사 방식의 조사를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Ⅲ-3-26〉 조사방식 및 표본 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 기준

단위 : 만원(가구)

										` ` ` ` `
구분		전치	l l	방된	Ē	전화	유치	방문 +전화	방문 +유치	방문 +전화 +유치
	전체	551.3(1	,773)	538.3(1	,223)	486.3(27)	492.0(65)	548.8(47)	603.0(410)	1,000(1)
	패널표본	551.4(1	,258)	537.6(857)	488.0(25)	486.4(58)	557.2(31)	609.2(286)	1,000(1)
표본특성	대체표본	551.8(261)	553.5(175)	465.0(2)	538.6(7)	547.8(9)	552.1(68)	-
	신생아표본	550.3(254)	527.5(191)	_	-	513.3(7)	632.9(56)	-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 연구.

PartIII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2) 자료를 활용한 분석

W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2) 주요 통계 및 데이터 특성 비교

- 01 주요 통계 현황 :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 02 영유아 가구의 정부지원금 수급 패턴 분석
- 03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 특성
- 04 소결

Ⅳ.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2)주요 통계 및 데이터 특성 비교

IV장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 주요 통계 현황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변화와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의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제고하였다. 2절에서는 정부 지원금 조사 자료의 활용 예시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정부 지원금 수급 현황을 지원금 종류별 및 월단위로 매우 세세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그 사이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해주요 통계 산출 시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에 보다 방점을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수급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올해 연구에서는 정부 지원금 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여, 어렵게 수집된 자료 (변수)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설문 개발 및 조사 과정에서의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점검하였다. 3절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가 가진 독특한 특성을 국내 다른 조사 자료와 비교 검토해봄으로써,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산출된 결과치가 갖는 의미를 점검해보았다. 또한, 국내 다른 조사 자료와의 비교검토에서 발견된 특이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은 차년도 조사 설계시 반영하여, 데이터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주요 통계 현황: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 가. 2018~2022년 간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특성
 - 1)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총액(실질비용 기준) 수준은 1차년도에 315만8천원에서 5차년도 336만5천원까지 증가하였고,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3차년도(2020

년) 외에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112) 보여진다. 3차년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초기 확산으로 인해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보육비 지출 감소 등 영유아가구의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최효미·이정원·김자연 외, 2020: 95) 생활비 지출의 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Ⅳ-1-1] 2018-2022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단위 : 만원



- 주: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13. 〈표 IV -1-2〉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2) 영유아 가구의 특성별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가) 맞벌이 여부별 생활비 지출 총액

2018-2022년에 걸쳐 맞벌이 여부에 따라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총액의 변화 추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생활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 비해 2022년에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생활비 지출 총액의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에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42만6천원을 더 생활비로 지출하였고 이는 외벌이 가구 생활비 지출의 14.4%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51만4천원(외벌이 가구 생활비 지출 총액의약 16.4%)을 더 지출해 차이가 더 확대되었다. 한편,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간의 생활비 지출 격차는 2차년도인 2019년에 감소하였다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Ⅳ-1-2]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맞벌이 여부별(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주: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13. 〈표 IV -1-2〉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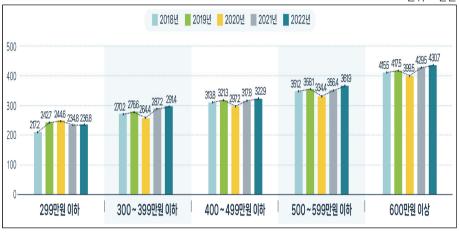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나) 가구소득 수준별 생활비 지출 총액

다음으로 2018-2022년 간 영유아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생활비 지출 총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구소득 수준별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총액은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생활비 지출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1-5차년도 (2018-2022년)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113). 각 소득수준별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은 2018-2019년에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생활비 지출 총액이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모두 생활비지출 총액이 다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2020년까지 월 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이후에 감소하여 차이를 보였다(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113).

[그림 Ⅳ-1-3]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가구소득 수준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주: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13. 〈표 IV -1-2〉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3) 주요 지수를 통한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특성

가구생활비 중 특정 지출 비목의 비중을 살펴볼 수 있는 생활비 관련 지수를 통해 2018~2022년에 걸친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구 생활비 중 식비의 비중을 의미하는 '엥겔지수'는 2018년~2019년 26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이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시점인 2020년에 30.0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후 2021년부터 다소 감소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엥겔지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021년 28.4, 2022년 28.0으로 코로나19 팬데 및 이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Ⅳ-1-4] 영유아 가구의 식비 지출 특성: 엥겔지수

주: 엥겔지수: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15. 〈표 IV -1-4〉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가구 생활비 중 주거비 비중을 의미하는 '슈바베지수'는 2018년~2022년 중 4 차년도에 8.1로 가장 낮고, 1차년도에 8.7로 가장 높아 영유아 가구의 주거비 지출 은 5년간 변동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다.



[그림 Ⅳ-1-5] 영유아 가구의 주거비 지출 특성: 슈바베지수

주: 슈바베지수: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15. 〈표 IV -1-4〉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

생활비 관련 지수 중 마지막으로 생활비 지출 총액 중 양육비의 비중을 보여주는 '엔젤지수'를 살펴보았다. 엔젤지수는 2018년~2019년에는 비교 지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엥겔지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26.5~27.2 사이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 Ⅳ-1-6]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특성: 엔젤지수

주: 엔젤지수: 각 가구별로 (양육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15. 〈표 IV -1-4〉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

나. 2018~2022년 간 영유아 가구당 양육비용 지출 특성

1)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에 걸친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 지출은 2018년 116 만6천원에서 2022년 127만3천원까지 증가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3차년도(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던 것으로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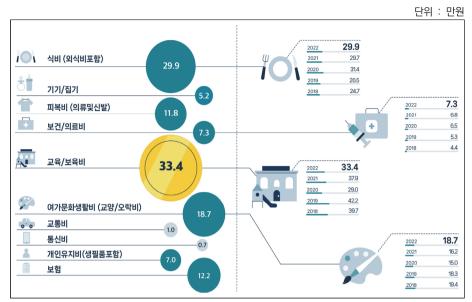
[그림 IV-1-7] 2018~2022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 주: 1) 총 양육비용은 가구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17. 〈표 IV -2-1〉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

2) 영유아 가구의 비목별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영유아 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을 지출 비목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그림 IV-1-8]에 제시하였다. 2022년 기준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중 가장 지출액이 큰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월 평균 33만4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116). 이 외 '식비(29만9천원)', '여가문화생활비(18만7천원)'가 지출액이 큰 비목으로 나타났다(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116). 주요 비목별 지출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보육비'는 지출액 수준은 가장 높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출액이 다소 감소한 경향을보이며, '식비'와 '보건/의료비' 지출은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지출액이 뚜렷이 증가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가문화생활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위축되었으나 이후 일상회복이 서서히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여행, 체험학습 등의 활동이 증가하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림 Ⅳ-1-8] 2022년 비목별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및 주요 비목 지출액의 변화

- 주: 1) 총 양육비용은 가구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활용해 실질비용으로 환산된 값임.
-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17. 〈표 IV -2-1〉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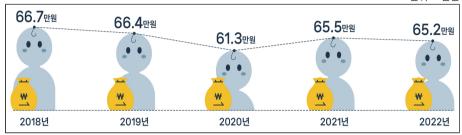
다. 2018~2022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가구 내 모든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용이 아닌 영유아 1인당(아동당) 양육비용을 산출한 결과는 [그림 IV-1-9]와 같다. 2018~2022년 간에 걸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20년을 제외하면 65~66만원 수준으로 유사하게 지속되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 시점으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그림 IV-1-9참조). 한편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을 연령별·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영아보다는 유아의 1인당 양육비용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도별로는 주로 유아 이상의 연령에서 2020년도를 기점으로 1인당 양육비용이 2020년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2021년부터 다시 이전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IV-1-10 참조). 이는 2세 이상부터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며 교육보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크게 위축되었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Ⅳ-1-9] 2018-2022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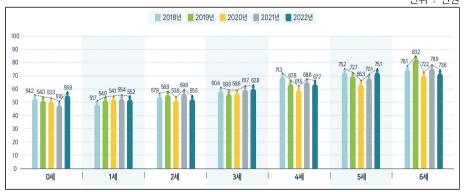
단위 : 만원



- 주: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26. 〈표 IV -2-9〉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그림 Ⅳ-1-10]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단위: 만원



- 주: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26. 〈표 IV -2-9〉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

라. 2018~2022년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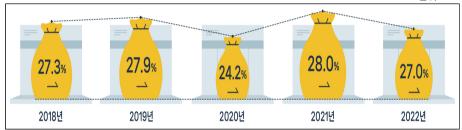
1)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의 비중 변화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의 비중은 2018~2022년에 걸쳐

약 27.0~28.0%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단 2020년에는 24.2%로 일시적으로 하락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영유아 가구는 가구소득 중 27.0~28.0% 정도를 자녀 양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의 30.0%에 육박하는 추가 지출의 요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Ⅳ-1-11] 2018-2022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단위 : %



주: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19. 〈표 IV -2-3〉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2) 영유아 가구 특성별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가) 맞벌이 여부별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맞벌이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맞벌이 가구는 가구소득 대비 25.6%, 외벌이 가구는 28.1%의 가구당 양육비용을 지출하여, 맞벌이 가구 보다 외벌이 가구가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8~2022년에 걸쳐 지속되는 양상이었다. 한편 맞벌이 가구는 2018년에 가구소득 대비 24.4%의 가구당 양육비용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에 22.5% 지출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2020년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2018~2022년에 걸쳐 맞벌이 가구보다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의 부담이 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119).



[그림 IV-1-12]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맞벌이 가구 여부별

주: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30

20

10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19. 〈표 IV -2-3〉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20

30

40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

나) 가구소득 수준별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가구소득 수준별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의 비중은 2018~2022년에 걸쳐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119). 다만,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의 비중이 유독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 2019년~2021년까지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은 유의해야 할결과로 보인다. 정부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에서는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의 부담이 경감되지 못했던 것은 식비 등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육아필수재의 물가 상승이 유독 저소득가구에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간의 양육비용 경감 정책들이 대상효율성이 낮은 보편적 지원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림 Ⅳ-1-13]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 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 주: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19. 〈표 IV-2-3〉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

다) 총 자녀수별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의 비중은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2018~2022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 다만 총 자녀수별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의 비중은 1자녀인 경우 2018년-2022년에 걸쳐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2자녀, 3자녀 이상인 경우는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비중이 감소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비중을 유지하는 등 자녀수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림 Ⅳ-1-14]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 총 자녀수별

단위:%



- 주: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19. 〈표 IV-2-3〉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마. 2018~2022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변화

1) 영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기타기관 포함) '반일제 이상 기관'의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여 2022년 기준 49.2%, 즉 영유아의 50% 전후가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23.3~28.8%정도 이용하며,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은 1.0~3.2% 사이에 이용하여 이용률이 높지않았다(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163). 모든 기관 유형에 걸쳐 코로나19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의 이용률이 감소하였고(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163), 이에 따라 2020년의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률이 27.6%로 급증한바 있다. 단, 2021년 이후 반일제이상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의 회복에힘입어 전체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은 2020년 이전보다는 다소 높지만 다시 축소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Ⅳ-1-15] 2018-2022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률 변화

단위:% 년도 년도 2018 2019 2019 어린이집 유치원 2020 2020 2021 2022 2022 2018 32 2018 A 반일제이상 학원 등 2019 2019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2020 10 2020 2021 13 2021 195 2022 11 22.6 2022

- 주: 1)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 2) 아동용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63. 〈표 V-1-1〉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2) 기관 유형별 주당 평균 이용시간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별 영유아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2022년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이 각각 34.9시간, 34.8시간, 반일제 이상 학원 등도 35.1시간으로 큰차이 없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8~2022년 간의 이용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는 이용자 기준 거의 변화 없는 수준이며, 어린이집은 2020년에 이용시간이 다소 긴 37.5시간으로 증가한 적이 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2020년 이전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은 2020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이용시간이 현저히 짧았으나, 2020년에 이용 사례 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용자의 이용시간은 증가하였고, 2022년에도 다소 긴 35.1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용 경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위: 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50 50 349 35.4 37.5 35.0 40 34.9 344 345 34.8 34.5 40 344 29.7 30 30 28.3 30 20 20 20 10 10 -10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그림 Ⅳ-1-16]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시간

- 주: 1)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 2) 아동용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70. 〈표 V-1-9〉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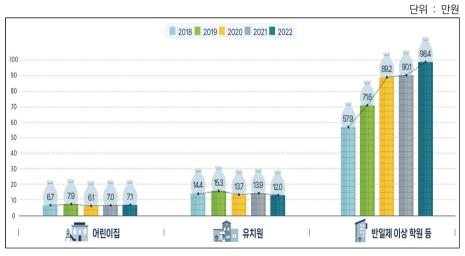
3) 기관 유형별 월 평균 이용비용

영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의 월 평균 이용비용을 살펴보았다. 2022년 기준으로 월 평균 이용비용은 어린이집 이용시 가장 낮은 7만1천원이 소요되고, 유치원

12만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을 이용시 98만4천원이 소요되어(이정원·이재희·김자 연 외. 2022: 174)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2018~2019년 사이에 비교적 큰 폭의 비용 증가가 있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용 감소로 이용비용이 크게 감소하였고,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용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8년~2019년 사이에는 어린이집 이용비용과 유사하게 비교적 큰 폭의 비용 증가가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일제이상 학원 등의 경우는 2018~2022년 간 매년 이용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용 사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2020-2021년에만 미미한 증가가 있었을 뿐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어린이집, 유치원과의 이용비용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174).

[그림 Ⅳ-1-17]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 평균 이용비용



- 주: 1)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74. 〈표 V-1-12〉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2. 영유아 가구의 정부지원금 수급 패턴 분석

이 절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2019~2022'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가 구의 주요 정부 지원금 수급 패턴을 분석해보았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 아 가구의 보육료 및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수급 현황을 전년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월별 로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월별 수급 현황을 조사하는 이유는 당해연도 조사가 완 료되 이후 정부 지원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최대한 실제에 가까운 수급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문 방식으로 인해 정부 지 원금 수급 현황은 당해연도 4월까지 조사되는데 반해. 소비실태는 조사 시점 기준 지난 3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수급 시점과 소비시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 가 발생하고, 자료를 패널 자료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추적 조사에 실패한 표본의 경우 자료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5년에 걸쳐 꾸준히 축적됨에 따라 이와 같은 월별 자료를 활용할 경우 상당히 많은 시점 에 대한 장기 시계열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설문의 구조가 해마다 조금씩 변동하기도 하여, 일반 연구자가 정부 지원금 수급 자료의 구조를 이해하기 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정부 지원금 월별 수급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에 걸친 종단면 분석이 가능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 를 통해 월별 수급 자료가 가진 장점과 한계를 점검하고,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숙고해 보았다.

한편, 영유아의 정부 지원금 수급 패턴은 상당부분 육아서비스 이용 패턴과 맞물려 있는데, 현재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2'를 활용하여 종단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보육료 및 누리과정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이기 때문이다. 2022년 영아 수당이 도입되어 조사되기는 했으나, 영아 수당 수급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기준 1월부터 4월까지만 수급 현황이 조사되어 있어,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52).

^{52)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영아 수당 수급 현황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에서 조사했으며, 2023년 조사에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부모급여 수급 현황도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영아 수당(부모급여 포함)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차년도(2024년) 연구에서 가능함.

가.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절의 정부지원금 종류별 수급패턴 분석은 'KICCE 소비실태조사' I 기(2018 ~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2015년생부터 2021년생의 총 7개년도 출생아동들이 0세부터 6세의 영유아시기 동안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의 월별 기록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년의 5년간 0~6세의 영유아 가구를 추적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2012~2022년생 아동들의 정부지원금 수급정보를 담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 중 월별로 기록된 정보가 있고 영유아시기 2~3개년도 이상의 안정적인 자료가 확보된 2차(2019년)~5차(2022년)의 2015~2021년생 아동의 영유아시기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자료를 분석하였다53).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특성은 아래의 〈표 IV-2-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의 좌측 열은 1~5차 각 년도의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생활연령을 기재한 것으로 셀 안에서 사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분석에서 제외된 자료이다. 가운데 열은 분석에 포함된 자료들의 월별 정부지원금 수급 조사문항의 기준연월을 제시한 것이며, 오른쪽 열은 연도별 조사에 참여한 아동수로서 아동조사 전체에 참여한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는 각각의 월별 정부지원금 수급조사에 응답한 사례수와는 다를 수있으며, 월별 분석에 포함된 유효 사례 수는 〈표 IV-2-2〉~〈표 IV-2-7〉 분포 표에시점별로 제시되어 있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2' 조사 자료는 정부지원금 수급 현황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5월부터 조사 당해년도 4월까지 월별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2~5차년도 조사) 동안 2015년생은 2~4차년도(아동연령은 4~6세)에만 조사 대상에 해당하며, 이 기간 중 2015년생의 정부지원금 수급 현황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아동연령을 기준으로는 3~6세)의 수급 현황이 파악 가능하다.

^{53) 1}차년도에는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여부를 월별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조사시점 지난 1개월간의 수급현황을 조사하였으며, 2012년생~2014년생, 2022년생의 자료는 영유아시기(0~6세)에 해당되는 자료가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제외함.

2) 분석 방법 및 변수 설명

이 절에서 적용한 분석 방법은 장기간에 일어난 상태, 사건, 활동 등의 순서를 분석하는 배열 분석(sequence analysis) 방법이다(Cornwell, 2015: 21~22). 배열 분석은 각 시점에서 구분해 살펴보는 분석 방법들과 달리 장기간에 일어난 상태, 사건, 현상 등의 계열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발생순서들을 고려하면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효미·김길숙·이동하 외, 2016: 66~67). 구체적으로는 아동별 조사 참여기간 동안의 일련의 배열을 쌓아놓은 index plot과 시점별 '가정양육수당(또는 영아수당)',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의 비중을 보여주는 분포 plot 및 분포 표를 출생연도별로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이때 배열의 요인으로 투입되는 양육관련 정부지원금은 '영아대상의 보육료지원', '유아대상의 누리과정지원', '가정양육수당 또는 영아수당'의 3가지 종류로 설정하였다. 누리과정지원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기관이용을 하는 경우 취학연령 전 3년간 공통의 커리큘럼에 대한 지원금으로 아동연령이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지급되는 한편,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가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2022년부터 0~1세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영아수당 역시 보육료지원과 동시에받을 수 없으며, 가정 양육하는 아동중 만2세부터는 영아수당이 아닌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정양육수당(또는 영아수당), 보육료지원금, 누리과정지원금은 같은 달 중복수급이 불가능하여 배타적으로만 수급가능하다.

(표 Ⅳ-2-1) 정부지원금 수급 패턴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특성: 아동연령, 정부지원금 수급조사 기준시기, 조사참여 아동수

													唜	. %, 强
响	해당차시 조시	SV년의		아동연령(생활연령	기준)	해당차시	사 정부자원급	수급조사 기준시기	준시기		해당차시	조사참여	양수	
1		ī	i c	Ī	i i	2차	꺓	4차	5차	į	ij	<u> </u>	1-1	ij
₹		₹	3.	1 √4	<u> </u>	2019년조사	2020년조사	2021년조사	2022년조사	<u>₹</u>	*	<u>.</u> ₹	₹	<u> </u>
					*									156
				NAI	1세			21년1월~ 21년4월	21년5월~ 22년4월				160	321
			아세	14	2세		20년1월~ 20년4월	20년5월~ 21년4월	21년5뤟~ 22년4월			158	316	335
		l¥0	1세	2세	3세	19년1월~ 19년4월	19년5월~ 20년4월	20년5월~ 21년4월	21년5월~ 22년4월		158	321	353	396
₹		1세	2세	3세	4AI	18년5월~ 19년4월	19년5월~ 20년4월	20년5월~ 21년4월	21년5월~ 22년4월	XXI	297	331	367	379
7		2세	3세	4세	5세	18년5월~ ~6년4형	19년5월~ 20년4월	20년5월~ 21년4월	21년5월~ 22년4월	297	296	333	363	392
₹		3세	4세	5AII	6AII	18년5월~ 19년4월	19년5월~ 20년4월	20년5월~ 21년4월	21년5월~ 22년4월	236	336	379	404	416
₹			5세	 		18년5월~ 19년4월	19년5월~ 20년4월	20년5월~ 21년4월		326	410	424	438	
₹	/	₹	₹,0	7州(秦1)						370	406	7455	431	
★		/. ₹	7渊(季1)							Z#03	421			
₹	<u>'</u>	7洲(季1)	8M(<u>\$</u> 2)							459	452	7469		
										2,277	2,776	3,278	2,832	2,395

주: 1) 대각선(서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분석에서 제외된 자료임. 조사참여 아동수는 연도별 아동조사 전체에 참여한 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 분석에서 활용된 월별 정부지원금 수급여부 조사에 대한 응답시례수와는 다를 수 있음. 월별 분석에 포함된 실제 사례 수는 〈표 N-2-2〉~(표 N-2-7)에 시점별 응답 사례 수로 제시하였음. 자료: 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p.103. 〈표 II-3-14)에 일부 자료 추가하고 수정한 것임.

^{2) &#}x27;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나. 분석 결과

이하에서는 2015~2017년생과 2018~2021년생의 두 개 코호트로 구분하여 영유아 가구의 정부지원금 수급패턴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 I기 조사는 5년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사가 수행되었기에 한 아동의 0~6세영유아기 전체기간의 수급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아기 중심의 자료와 영아기 중심의 자료로 구분해 제시하기로 했다. 즉, 2015~2017년생의 분석 결과를 통해 유아기와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전환되는 시기의 정부지원금 수급 패턴을 서술하였으며, 2018~2021년생의 분석 결과를 통해 영아기와 초기유아기의 수급 패턴을 제시하였다.

1) 2015~2017년생

먼저, 2015년생에서 2017년생의 수급기록으로 유아기와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전환되는 시기의 정부지원금 수급 패턴을 분석하였다. 우선 2015년생의 경우 배열을 쌓아놓은 그림인 index plot을 보면 기록이 시작되는 3세가 넘은 시점부터 대부분 시설이용을 통해 보육료지원금(연두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4세 이후부터는 유아대상의 누리과정지원금(파랑색)을 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 -2-2〉~〈표 IV-2-4〉의 분포 표와 분포 plot을 통해 정부지원금별 수급 비중을 살펴보면,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도까지는 3% 초반대의비중을 보이다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3% 후반대로 근소하게 증가하지만 대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6년생의 index plot을 보면 2015년생과 마찬가지로 3세1월⁵⁴⁾ 기록이 시작된 시점부터 보육료 지원금(연두색)을 받다가 4세 이후부터 누리과정지원금(파랑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 plot과〈표 IV-2-2〉~〈표 IV-2-4〉의 정부지원금의 수급 비중을 보면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2019년 2월(3세2월)까지 6.1~8.9%로 나타나다가 2016년생 아동이 3세가 초과되는 2019년 봄부터 3%대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되는 2020년 4세2

⁵⁴⁾ 아동의 생활연령(세)+조사 당해연도 해당월(월)을 의미하며, 이하 ○세□월의 표기는 모두 이와 같은 표기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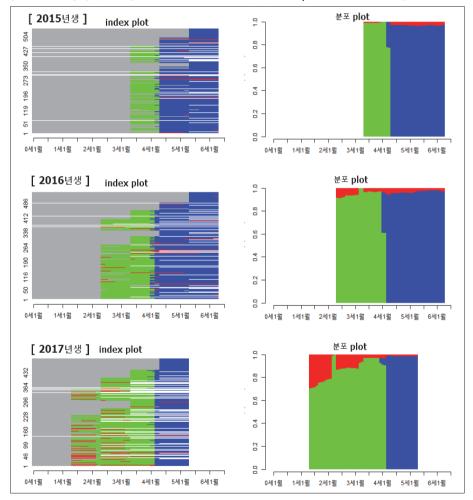
월경부터 가정양육수당의 수급 비중은 높아져서 4%대를 상회해 6%까지 증가하다가 아동연령이 5세 이상이 되는 2021년 4월부터는 3%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나타났다.

2017년생의 index plot을 보면 2015년생, 2016년생과 마찬가지로 보육료지원금(연두색)을 받다가 아동이 4세가 넘어가는 때부터 누리과정지원금(파랑색)을 받는 것이 나타난다. 2017년생의 경우 아동연령이 1세5월인 때부터의 기록이 포함되므로 이 시기의 index plot을 보면, 2세 봄 전까지는 가정양육수당(붉은색)수급 배열이 꽤 비중 있게 관찰된다. 분포 plot과 분포 표를 보면 2018년 5월 아동이 1세5월이 되는 시점 가정양육수당의 수급비중은 29.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2세로 넘어가기 전까지 20%대를 유지하다가 아동이 2세로 넘어가는 2019년도 봄 이후부터는 11~13%대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아동이 3세가 초과 되는 때인 2020년도 봄 이후부터는 3%대로 낮아졌으며 아동이 4세가 넘어가는 2021년 3월부터는 1%대로 확연히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생, 2016년생 아동들은 2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조사되었기에 이 시기부터의 자료를 보면 약 90%가 보육료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전 시기부터의 자료로 분석한 2017년생을 보아도 2세 시기부터 보육료지원금 수급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는 바,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2세가 되면 90% 이상의 아동들이 기관에 입소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세가 넘으면 그 비율이 증가해 약 95%에 이르며 4세 이후부터는 누리과정지원금으로 전환되어 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에서 보육료지원금으로 전환되어 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되는 시기는 기관의 시작시기에 맞춰 각 년도 2~5월인 것도 확인된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수급에서 보육료지원금이나 누리과정지원금으로 전환된 배열이 다시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단 기관이용이 시작되면 다시 가정양육으로 전환되는 일이 드물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특히 4세 이후 가정양육수당의 수급 비중을 출생년도별로 비교해보면, 2015년 생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의 비중이 줄곧 3%대로 나타난 반면, 2016년생은 4세 때 (2020년) 비중이 4%로 2015년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다가 5세 들어(2021년) 2% 대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7년생은 4세 이후(2021년) 가정양육수당의 비

중이 1%대로 2015년생, 2016년생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2016년생의 경우 2020년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비중이 2015년생들의 동일연령대의 비중보다 높은데, 이것은 이 시기 코로나19 확산이 커져 가정보육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림 IV-2-1]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배열의 누적 및 분포 plot : 2015~2017년생

- 주: 1) 붉은색: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연두색: 보육료지원금(영아대상), 파랑색: 누리과정지원금(유아대상), 회색: 미싱값
 - 2) 흰색은 미싱값의 다른 표시로 그 전 시점에서 응답하였으나 이후 응답하지 않은 상태를 표시함. 모든 시점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흰색으로 표기됨.
 - 3) 가로축의 연령은 아동의 생활연령+조사당해연월의 월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표 IV-2-2〉시점별 정부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 2015~2017년생 (1)

8,	2세 12월		17.12	/	/				18.12	93.5	0.0	6.5	310		19.12	88.0	0.0	12.0	325	
	2세 11월 '		17.11				/		18.11	93.5	0.0	6.5	310		19.11	88.0	0.0	12.0	325	
	2세 10월		17.10				7		18.10	93.2	0.0	8.9	310		19.10	88.3	0.0	11.7	325	
	2세 9월		17.9						18.9	93.2	0.0	8.9	308		19.9	0.88	0.0	12.0	325	
	2세 8월		17.8						18.8	92.1	0.0	7.9	304		19.8	87.7	0.0	12.3	325	-
	2세 7월		17.7			_			18.7	91.4	0.0	8.6	303		19.7	87.4	0.0	12.6	325	
	2세 6월		17.6	<u>/</u>	<u>/</u>	_	<u>/</u>		18.6	91.1	0.0	8.9	303		19.6	86.8	0.0	13.2	325	
	2세 5월		17.5	<u>/</u>	<u>/</u>	_	<u>/</u>		18.5	91.2	0.0	89.	296		19.5	86.5	0.0	13.5	325	
	2세 4월		17.4	<u>/</u>	<u>/</u>	<u>/</u>	<u>/</u>		18.4	<u>/</u>	<u>/</u>	L,	<u>/</u>		19.4	93.6	0.0	0.4	230	
	2세 3월		17.3	<u>/</u>	<u>/</u>	<u>/</u>	<u>/</u>		18.3	<u>/</u>	<u>/</u>	L,	<u>/</u>		19.3	98.7	0.0	1.3	229	
	2세 2월		17.2	<u>/</u>	<u>/</u>	_	L,		18.2	<u>L</u>	L,	L,	L,		19.2	78.5	0.0	21.5	219	
	2세 1월		17.1	<u>/</u>	<u>/</u>	_	L,		18.1	L,	L,	L,	L,		19.1	78.1	0.0	21.9	219	
	1세 12월		16.12		<u>/</u>	<u>/</u>	<u>/</u>		17.12	<u>/</u>	<u>/</u>	V,	Z,		18.12	77.6	0.0	22.4	219	(
	1세 11월		16.11		<u>/</u>	_	<u>/</u>		17.11	<u>/</u>	<u>/</u>	V,	Z,		18.11	76.3	0.0	23.7	219	(
	1세 10월		16.10	<u>/</u>	<u>/</u>	_	<u>/</u>		17.10	<u>/</u>	<u>/</u>	L,	L,		18.10	75.8	0.0	24.2	219	
	1세 9월		16.9	<u>/</u>	<u>/</u>	<u>/</u>	<u>/</u>		17.9	<u>L</u> ,	<u>L</u> ,	L,	L,		18.9	75.3	0.0	24.7	219	
	1세 8월		16.8	<u>/</u>	<u>/</u>	_	<u>/</u>		17.8	<u>L</u> ,	<u>L</u> ,	L,	L,		18.8	72.6	0.0	27.4	212	
	1세 7월		16.7	<u>/</u>	<u>/</u>	_	L,		17.7	<u>L</u> ,	<u>L</u> ,	L,	L,		18.7	71.4	0.0	28.6	210	
	1세 6월		16.6	<u>/</u>	<u>/</u>	_	L,		17.6	<u>L</u> ,	L,	L,	L,		18.6	70.8	0.0	29.2	209	
	1세 5월		16.5			\angle			17.5						18.5	70.4	0.0	29.6	206	
	아동연령	[2015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7정양육수당	시점별 응답사례수	[2016년생]	<u> 조</u> 사년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7정양육수당	시점별 응답사례수	[2017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7정양육수당	를 응답사례수	(
	/ 뿐	[2	1	1	양반] :	시잼	[2		1	양반		시잼	[2		i	상		시점별	

주: 아동연령은 아동의 생활연령+조시당해연월의 월을 의미하며, 조시년월은 연월을 간단히 표기한 것임. 즉, 조사연월의 16.5는 2016년 5월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표 IV-2-3〉시점별 정부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 2015~2017년생 (2)

단위 : %, 명	3M 4M 4M<		18.12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99.3 99.7 99.7 77.8 77.1 0.0 0.0 0.0 0.0	0.0 0.0 0.0 21.9 22.2 96.8 96.8 96.8 96.8	0.7 0.3 0.3 0.3 0.7 3.2 3.2 3.2 3.2	297 299 297 297 297 409 409 409 408		19.12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97.0 61.1 60.7 0.0 0.0 0.0 0.0 0.0 0.0	0.0 35.4 35.2 94.5 94.0 95.3 95.3 95.3 95.3	3.0 3.5 4.1 5.5 6.0 4.7 4.7 4.7 4.7	370 370 369 364 365 402 402 402 402		20.12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92.5 90.9 90.6 0.0 0.0 0.0 0.0 0.0 0.0	4.1 5.2 5.8 98.9 98.9 98.5 98.5 98.5 98.5 98.5	3.3 3.9 3.6 1.1 1.1 1.5 1.5 1.5 1.8	
	3세 3세 10월 11월		3.10 18.11	0.66 0.66	0.0 0.0	1.0 1.0	297 296		9.10 19.11	96.5 97.0	0.0 0.0	3.5 3.0	370 370		20.10 20.11	97.0 96.7	0.0 0.0	3.0 3.3	
	3세 3		18.9 18.	0.66	0.0	1.0 1	297 2		19.9 19.	96.5	0.0	3.5	369		20.9 20	96.7	0.0	3.3	
	짫		18.8	0.66	0.0	1.0	293		19.8	96.7	0.0	3.3	369		20.8	2.96	0.0	3.3	
	쩅		18.7	99.0	0.0	1.0	292		19.7	96.8	0.0	3.2	370		20.7	96.7	0.0	3.3	
	3세 6월		18.6	99.0	0.0	1.0	291		19.6	96.5	0.0	3.5	370		20.6	96.7	0.0	3.3	
	3세 5월		18.5	99.0	0.0	1.0	288		19.5	96.5	0.0	3.5	370		20.5	96.7	0.0	3.3	
	8월		18.4	/,	<u>/</u> ,	<u>/</u> ,	<u>/</u>		19.4	100.0	0.0	0.0	312		20.4	93.2	0.0	6.8	
	쨺		18.3	<u>/</u> ,			<u>/</u> ,		19.3	99.7	0.0	0.3	312		20.3	92.5	0.0	7.5	
	3세 2월		18.2	/,		<u>/</u> ,	<u>/</u>		19.2	93.9	0.0	6.1	310		20.2	87.6	0.0	12.4	
	3세 명		18.1						19.1	93.9	0.0	6.1	310		20.1	87.9	0.0	12.1	
	양원육	. 2015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가정양육수당	별 응답사례수	2016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가정양육수당	시점별 응답사례수	2017년생]	<u> 조</u> 사년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가정양육수당	
	/ 階	[]]	생		시점별	[]		i		[] []	시잼	[7	- *1	i	V 함 함		

주: 아동연령은 아동의 생활연령+조시당해연월의 월을 의미하며, 조시년월은 연월을 간단히 표기한 것임. 즉, 조사연월의 16.5는 2016년 5월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표 IV-2-4〉시점별 정부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 2015~2017년생 (3)

6세 4월		21.4	0.0	97.0	3.0	437		22.4	0.0	9.96.6	3.4	412		/		/	/	1
6세 3월		21.3	0.0	96.8	3.2	437		22.3	0.0	9.96	3.4	412		Ľ,	L,	L,	L,	/
6세 2월		21.2	0.0	96.6	3.4	436		22.2	0.0	97.8	2.2	413						/
쀙		21.1	0.0	9.96	3.4	436		22.1	0.0	97.8	2.2	413						
5세 12월		20.12	0.0	9.96	3.4	436		21.12	0.0	97.8	2.2	413						
5세 11월		20.11	0.0	9.96	3.4	438		21.11	0.0	97.8	2.2	413						/
10월		20.10	0.0	9.96	3.4	438		21.10	0.0	97.8	2.2	413						/
5세 9월		20.9	0.0	9.96	3.4	438		21.9	0.0	97.8	2.2	413						/
5세 8월		20.8	0.0	96.3	3.7	437		21.8	0.0	97.3	2.7	413		/				/
<u></u> 종		20.7	0.0	96.3	3.7	437		21.7	0.0	97.3	2.7	413		/			/	/
5세		20.6	0.0	96.3	3.7	436		21.6	0.0	97.3	2.7	413						/
5세 5월		20.5	0.0	96.1	3.9	435		21.5	0.0	97.3	2.7	413						/
8월		20.4	0.0	0.96	4.0	397		21.4	0.0	8.96	3.3	400		22.4	0.0	98.5	1.5	3
3월 등		20.3	0.0	96.2	3.8	398		21.3	0.0	96.5	3.5	400		22.3	0.0	98.5	1.5	200
5세 2월		20.2	0.0	96.3	3.7	407		21.2	0.0	95.3	4.7	401		22.2	0.0	98.2	1.8	
18 명		20.1	0.0	96.3	3.7	408		21.1	0.0	95.5	4.5	401		22.1	0.0	98.5	1.5	
4세 12월		9.12	0.0	9.96	3.4	408		20.12	0.0	95.8	4.2	401		21.12	0.0	98.5	1.5	
4세		19.11	0.0	8.96	3.2	408		20.11	0.0	95.8	4.2	401		21.11	0.0	98.5	1.5	
10월		19.10	0.0	96.8	3.2	408		20.10	0.0	95.8	4.2	402		21.10	0.0	98.5	1.5	000
88		19.9	0.0	8.96	3.2	408		20.9	0.0	0.96	4.0	402		21.9	0.0	98.5	1.5	000
아동연령	[2015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7정양육수당	시점별 응답사례수	[2016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가정양육수당	시점별 응답사례수	[2017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가정양육수당	7
#	[20.	 		망합		시점별	[20.	 ki		생 발 교		시점별	[20.	 		사 교 교		1

주: 아동연령은 아동의 생활연령+조시당해연월의 월을 의미하며, 조시년월은 연월을 간단히 표기한 것임. 즉, 조사연월의 16.5는 2016년 5월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2) 2018~2022년생

다음으로 2018년생에서 2022년생의 수급기록을 통해 영아기와 초기 유아기의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패턴을 분석하였다. 2018년생의 경우 index plot을 보면 아동이 1세였던 때에는 가정양육수당(붉은색)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다가 아동이 2세 이상이 되면서 점차 보육료지원금(연두색) 수급으로 전환되는 것이 관찰된다. 2018년생의 경우 분포 plot을 보면 0세 시기 보육료지원금(연두색)수급 비중이 20% 이상으로 나타나긴 하나,이 경우 분석에 투입된 유효 사례 수가 36~52개로 소수이기 때문에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0세 시기지만 유효사례수가 143~306개에 이르는 2019년생의 수급 배열을 보면 0세 시기에는 가정양육수당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2019년생의 경우 1세 3,4월이 되면서 0세경 90%를 상회하던 가정양육수당의 수급비중이 80%대로 낮아지고 1세 중반부터는 50%대로 낮아지다가 2세 봄부터는 20%대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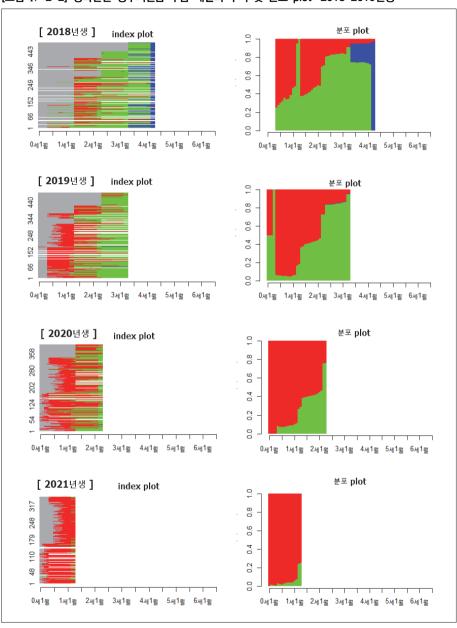
2020년생의 index plot을 보면 0세 시기에는 대부분이 가정양육수당(붉은색)을 수급 받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1세가 넘어가면서 보육료지원금(연두색)의 수급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 plot과 분포 표를 보면 2020년생의 0세 시기 가정양육수당 수급 비중은 90%를 상회하기는 하나 2019년생의 0세 중반 수급 비중이 94~95%가량이었던 것에 비해 2~3% 낮은 91~93%로 나타났다. 2020년생의 1세 시기 가정양육수당 비중은 70%대로 2019년생의 1세 시기 수급비중인 80%대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즉,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때에는 가정양육수당의 수급 비중이 커지는 것이 포착된다.

한편, 2020년생들은 1세 중반부터 가정양육수당의 수급비중이 60%대가 되며, 1세 후반에는 50%까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2019년생과 비슷하다. 이시기는 2019년생과 2020년생 모두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시점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동일하게 적용되었기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20년생이 2세가 되는 시점에도 2019년생과 동일하게 보육료지원 비중이 75%이상으로 크게 상승하고 가정양육수당 수급 비중은 20%대로 낮아지는 것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2021년생의 경우도 index plot을 보면 아동의 0세 시기에는 소수의 배열만 제

외하고는 가정양육수당(붉은색)을 수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세 봄 이후부터는 보육료지원금(연두색) 수급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확인된다. 분포 plot과 분포표를 보면 이 시기 가정양육수당(붉은색)의 수혜 비중은 75% 정도로 낮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종합해보면 2019년~2021년생의 배열로 확인된 바, 아동연령이 0세인 때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주로 받으며(90%이상)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아동연령이 1세가되면서 20~30%가 보육료지원금을 받으며 시설보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지원금 수급 비중은 아동의 1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 아동의 1세 겨울 즈음부터는 절반가량이 받게 되다가 2세 봄부터는 70% 이상의 아동들이 받고, 2세 중반 이후부터는 80% 이상의 아동들이 보육료지원금을 받으며 시설보육을 제공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19년생의 1세 시기, 2020년생의 0세 시기였던 2020년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때로 이 시기에는 가정양육수당의 수급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그림 IV-2-2]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배열의 누적 및 분포 plot: 2018~2019년생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

주: 1) 붉은색: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연두색: 보육료지원금(영아대상), 파랑색: 누리과정지원금(유아대상), 회색: 미싱값

²⁾ 흰색은 미싱값의 다른 표시로 그 전 시점에서 응답하였으나 이후 응답하지 않은 상태를 표시함. 모든 시점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흰색으로 표기됨.

³⁾ 가로축의 연령은 아동의 생활연령+조사당해연월의 월을 의미함.

〈표 IV-2-5〉 시점별 정부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 2018~2021년생 (1)

아동연령	아메	종	종	평 6	l¥0	왕	애	ly0	아	애	에	~	1 전	1세	1세	17	1세
[2018년생]	N -	27	D D	N t	N D	N O	N .		O D	N 2	N -	271	N -	27	N O	N t	N C
조사년월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18.11	18.12	19.1	19.2	19.3	19.4	19.5
_ 보육료지원					25.0	27.5	30.2	32.6	35.6	34.0	34.7	38.5	46.4	48.2	95.2	100.0	37.5
성무 누리과정지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가정양육수당					75.0	72.5	8.69	67.4	64.4	0.99	65.3	61.5	53.6	51.8	4.8	0.0	62.5
시점별 응답사례수					36	40	43	43	45	47	49	52	56	99	63	64	315
2019년생]																	
조사년월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19.10	19.11	19.12	20.1	20.2	20.3	20.4	20.5
보육료지원	50.0	50.0	50.0	100.0	6.3	5.9	5.6	5.3	5.3	5.1	4.9	4.9	5.8	6.1	16.7	18.6	36.8
생무 누리과정지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정양육수당	50.0	50.0	50.0	0.0	93.7	94.1	94.4	94.7	94.7	94.9	95.1	95.1	94.2	93.9	83.3	81.4	63.2
시점별 응답사례수	2	2	2	2	143	153	180	206	225	256	285	306	312	311	312	312	348
2020년생]																	
조사년월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0.10	20.11	20.12	21.1	21.2	21.3	21.4	21.5
보육료지원	0.0	0.0	0.0	0.0	8.3	7.3	6.9	7.1	7.7	8.1	8.9	9.2	6.6	11.2	26.4	28.7	38.7
상부 TISI그 누리과정지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가정양육수당	100.0	100.0	100.0	100.0	2.19	92.7	93.1	6.26	92.3	91.9	91.1	8.06	90.1	88.8	73.6	71.3	61.3
시점별 응답사례수	28	22	82	110	144	165	188	211	235	259	281	306	313	312	314	314	336
2021년생]																	
조사년월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1.10	21.11	21.12	22.1	22.2	22.3	22.4	
보육료지원	0.0	1.9	1.0	0.7	2.7	2.5	2.1	2.8	3.7	4.0	4.0	3.8	5.9	7.8	24.3	25.2	
상부 누리과정지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가정양육수당	100.0	98.1	0.66	69.3	8.76	97.5	6.76	97.2	96.3	0.96	0.96	96.2	94.1	92.2	75.7	74.8	
그전표 이다.되스	20	7	8	105	077	5	70,	0.50	0,40	0,10	2	7	200	200	200	200	

주: 아동연령은 아동의 생활연령+조시당해연월의 월을 의미하며, 조시년월은 연월을 간단히 표기한 것임. 즉, 조사연월의 16.5는 2016년 5월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원자료.

〈표 IV-2-6〉 시점별 정부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 2018~2021년생 (2)

: %, 명	2세 10월		20.10	83.6	0.0	16.4	365		21.10	84.6	0.5	14.9	395					/							
퍕	2세 8월		20.9	83.3	0.0	16.7	365		21.9	83.8	0.5	15.7	395		//	//	//	/	//		//	/		/	7
	2세 8월		20.8	83.0	0.0	17.0	365		21.8	83.5	0.5	15.9	395		//		//	//	/		/			//	7
	2세 7월		20.7	82.7	0.0	17.3	365		21.7	83.3	0.5	16.2	395					/							/
	2세 6월		20.6	81.4	0.0	18.6	365		21.6	83.5	0.5	15.9	395					/							$\sqrt{}$
	2세 5월		20.5	80.8	0.0	19.2	364		21.5	83.3	0.5	16.2	395		//	//	//	/	//		//			//	7
	2세		20.4	71.0	0.0	29.0	310		21.4	72.4	0.0	27.6	348		22.4	76.4	0.3	23.3	332		//			/	7
	2세 3월		20.3	69.7	0.0	30.3	310		21.3	72.7	0.0	27.3	348		22.3	75.5	0.3	24.2	332		//			/	7
	2세 2월		20.2	49.1	0.0	6.03	316		21.2	46.4	0.0	53.6	349		22.2	46.7	0.0	53.3	336						7
	2세		20.1	49.7	0.0	50.3	318		21.1	44.7	0.0	55.3	349		22.1	44.6	0.0	55.4	336		//	/		/	7
	17월		19.12	47.9	0.0	52.1	317		20.12	43.7	0.0	56.3	348		21.12	42.9	0.0	57.1	336		//			/	7
	지 기 등		19.11	46.3	0.0	53.7	315		20.11	43.1	0.0	6.99	348		21.11	42.3	0.0	27.7	336					/	7
	1절 1절		19.10	44.4	0.0	9.53	315		20.10	42.2	0.0	8.73	348		21.10	41.7	0.0	58.3	336						$\sqrt{}$
	8월 제		19.9	42.2	0.0	8'.29	315		20.9	41.4	0.0	9.85	348		21.9	41.1	0.0	58.9	336						$\sqrt{}$
	88 포		19.8	40.0	0.0	0.09	315		20.8	40.5	0.0	26.5	348		21.8	40.2	0.0	29.8	336		//	/		/	7
	7째		19.7	39.0	0.0	61.0	315		20.7	39.9	0.0	60.1	348		21.7	39.9	0.0	60.1	336		//			/	7
	1세		19.6	38.1	0.0	61.9	315		20.6	37.6	0.0	62.4	348		21.6	39.3	0.0	60.7	336						$\sqrt{}$
	아동연령	[2018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구 누리과정지원	- 가정양육수당	시점별 응답사례수	[2019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두 누리과정지원	- 가정양육수당	시점별 응답사례수	[2020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구 누리과정지원	- 가정양육수당	시점별 응답사례수	[2021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그 누리과정지원	- 가정양육수당	시점별 응답사례수
	/ 빭			1	사람	<u>.</u>	사			ļ	방한	<u>.</u>	사			다. T	방양	<u> </u>	사				방일	<u> </u>	۲

주: 아동연령은 아동의 생활연령+조시당해연월의 월을 의미하며, 조시년월은 연월을 간단히 표기한 것임. 즉, 조사연월의 16.5는 2016년 5월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원자료.

〈표 IV-2-7〉시점별 정부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 2018~2021년생 (3)

단위: %, 명	4M 4M 4M 29 39 49		22.2 22.3 22.4	72.2 0.0 0.0	23.3 96.6 97.1	4.5 3.4 2.9	378 378 378		<u>/</u> /				/		/	<u>/</u>			<u>/</u> /						
	4 配		22.1	73.5	21.4	5.0	378		/	/	/	/	/		/	7	/	/	/		/	/	/	/	<u>/</u>
	3세 12월		21.12	74.1	20.9	5.0	378		/																
	3세 11월		21.11	74.6	20.6	4.8	378		_	\angle			Z,		V,	V,			Z,						
	3세 10월		21.10	74.3	20.6	2.0	378		<u>/</u>	<u>/</u>	V,	V,	Ľ,		V,	V,	V,	V,	<u>/</u>		V,	V,	V,	V,	1
	3세		21.9	74.3	20.6	2.0	378		<u>/</u>	<u>/</u>	<u>/</u>	Ľ,	<u>/</u>		<u>/</u>	Ľ,	Ľ,	Ľ,	<u>/</u>		V,	Ľ,	Ľ,	Ľ,	1
	쩅		21.8	74.1	20.6	5.3	378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1
	3세 7월		21.7	74.3	20.6	5.0	378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1
	3세 6월		21.6	74.3	20.6	5.0	378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u>/</u>	1
	3세 5월		21.5	74.3	20.6	5.0	378		_	_	\angle	\angle	\angle		<u>/</u>	<u>/</u>	<u>/</u>	<u>/</u>	<u>/</u>		<u>/</u>	<u>/</u>	<u>/</u>	<u>/</u>	/
	3세 4월		21.4	91.0	0.0	9.0	365		22.4	94.9	0.5	4.6	395		<u>/</u>	<u>/</u>	<u>/</u>	Ľ,	<u>/</u>		<u>/</u>	<u>/</u>	<u>/</u>	Ľ,	1
	쩅		21.3	91.0	0.0	9.0	365		22.3	94.7	0.5	4.8	395		<u>/</u>	<u>/</u>	<u>/</u>	<u>/</u>	<u>/</u>		<u>/</u>	<u>/</u>	<u>/</u>	<u>/</u>	1
	3세 2월		21.2	83.9	0.0	16.1	396		22.2	86.1	0.5	13.4	395		<u>/</u>	<u>/</u>	<u>/</u>	<u>/</u>	<u>/</u>		<u>/</u>	<u>/</u>	<u>/</u>	<u>/</u>	1
	3세		2 21.1	84.2	0.0	15.8	396		2 22.1	85.8	0.5	13.7	395		<u>/</u>	<u>/</u>	<u>/</u>	<u>/</u>	<u>/</u>		<u>/</u>	<u>/</u>	<u>/</u>	<u>/</u>	1
	2세 12월		1 20.12	84.1	0.0	15.9	365		1 21.12	85.1	0.5	14.4	395		<u>/</u>	<u>/</u>	<u>/</u>	<u>/</u>	<u>/</u>		<u>/</u>	<u>/</u>	<u>/</u>	<u>/</u>	1
	경 1월 1월		20.11	83.8	0.0	16.2	365		21.11	84.8	0.5	14.7	395		\angle	\angle	\angle	<u>/</u>	\angle		\mathbb{L}	\angle	\angle	<u>/</u>	/
	양원육	2018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가정양육수당	시점별 응답사례수	[2019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가정양육수당	시점별 응답사례수	[2020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가정양육수당	시점별 응답사례수	[2021년생]	조사년월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가정양육수당	大西にもの
	/ 빭			I	함	<u> </u>	시점 I			F	방양	되 되 미	짤	_		Į	하다	디	무무			1	하다	<u> </u>	표전

주: 아동연령은 아동의 생활연령+조시당해연월의 월을 의미하며, 조사년월은 연월을 간단히 표기한 것임. 즉, 조사연월의 16.5는 2016년 5월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3.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 특성

이 절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I 기 자료(2018~2022)의 주요 통계 수치가 국내 다른 조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데이터의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조사 표본이 영유아가구에 국한되므로, 비교군으로 제시된 국내 다른 통계 자료와 기본적으로 응답 대상의 특성이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절의 내용은 'KICCE 소비실태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본 영유아 가구의 특성이 일반 가구(혹은 각 조사별 응답 대상)와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KICCE 소비실태조사'자료의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절차일 뿐, 어느 한쪽의 조사 결과가 다른조사 결과에 비해 우수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 응답 표본

1) 연령별 영유아 수

각 (연령)세별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영유아 수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생활연령 기준 0~6세인 영유아 수는 2018년 290만4,953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220만4,950명까지 감소하였다. 연령별 영유아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0세가 10.9%, 1세가 12.4%로 약간낮은데 반해 2세 14.2%, 3세 이상이 각 연령별로 15%이상의 비중을 보이는데, 2022년에는 6세가 18.7%로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많고, 0세 11.1%, 1세 12.0% 등의 비중을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영유아의 수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지만, 해마다 영유아 중 0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으며, 2022년에는 심지어 약간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2022년에 신생아가 전년에 비해 줄긴 했으나, 그 감소폭이 전년에 비해서는 작아졌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Ⅳ-3-1〉 연령별 영유아 수 및 비중 : 주민등록인구

단위 : 명, %

МE				주민·	등록인구			
연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체
 2018년	317,685	361,625	411,225	443,586	440,123	441,105	489,604	2,904,953
2010년	(10.9)	(12.4)	(14.2)	(15.3)	(15.2)	(15.2)	(16.9)	(100.0)
2019년	295,132	330,970	362,900	412,018	444,102	440,483	441,362	2,726,967
2019년	(10.8)	(12.1)	(13.3)	(15.1)	(16.3)	(16.2)	(16.2)	(100.0)
2020년	265,087	304,651	331,606	363,250	412,429	444,367	440,710	2,562,100
2020년	(10.3)	(11.9)	(12.9)	(14.2)	(16.1)	(17.3)	(17.2)	(100.0)
2021년	253,946	274,633	306,120	332,157	363,613	412,739	444,555	2,387,763
2021년	(10.6)	(11.5)	(12.8)	(13.9)	(15.2)	(17.3)	(18.6)	(100.0)
2022년	244,250	264,788	277,529	307,975	333,048	364,198	413,162	2,204,950
	(11.1)	(12.0)	(12.6)	(14.0)	(15.1)	(16.5)	(18.7)	(100.0)

주: 전체는 0세~6세 영유아 수를 합산한 값이며, 연령별 비중은 각 연령별 아동수/ 전체 아동수*100으로 산출.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12 (인출일: 2023. 6. 9.).

반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경우 영유아 수(표본)는 2018년 2,277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2,401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 약간 감소하여 2,395명이었다. 연령별로도 0세의 비중이 2018년 5.6%였으나, 2019년 6.8%로 증가한 이후 2022년 6.5%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1세의 경우 2018년에는 전체 응답 영유아 중 11.7%였으나, 2022년에는 13.4%로 증가하였다.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구축 방식에 기인한 결과로, 앞서 주민등록인구 수 등에서 나타난 인구 동향이 'KICCE 소비실태조사'에는 잘 반영되지 않음을 암시한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018년 1차년도 최초 표본 구축 당시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관측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도록 할당을 주어 표본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추적 조사와 대체 표본 구축을 통해 각 연령별 관측치가 일정 수를 유지하는 구조로 조사가 설계되어 있다. 또, 신생아 표본의 경우에도 특정 연령의 관측치가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해 250가구(당해년도 상반기 신생아 및 전년도 하반기 신생아 각 125가구) 내외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어, 해가 지나더라도 연령별 관측치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표본 구축의 원칙은 막내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손위 자녀가 있는 가구들로 인해 영유아 연령이 많을수록 관측치가 다소 많아지는 특징을 갖는다. 또, 0세의 경우당해연도 새롭게 구축되는 표본은 127가구이지만, 전년도 응답 가구 중 신생아를 출산하여 막내 자녀가 바뀐 가구가 매해 30가구 내외 존재하여, 1차년도(2018년)

에 비해 2차년도(2019년) 이후 0세 표본의 수가 증가하였다.

〈표 IV-3-2〉 연령별 영유아 수 및 비중 : KICCE 소비실태조사 (가중치 미적용)

단위 : 명. %

								L 11 0, 7°
연도				KICCE :	소비실태조시	4		
간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체
2018년	127	267	295	356	370	403	459	2,277
2010년	(5.6)	(11.7)	(13.0)	(15.6)	(16.2)	(17.7)	(20.2)	(100.0)
2019년	158	297	296	336	410	406	421	2,324
2019년	(6.8)	(12.8)	(12.7)	(14.5)	(17.6)	(17.5)	(18.1)	(100.0)
2020년	158	321	331	333	379	424	422	2,368
2020년	(6.7)	(13.6)	(14.0)	(14.1)	(16.0)	(17.9)	(17.8)	(100.0)
2021년	160	316	353	367	363	404	438	2,401
2021년	(6.7)	(13.2)	(14.7)	(15.3)	(15.1)	(16.8)	(18.2)	(100.0)
2022년	156	320	335	396	379	392	415	2,393
	(6.5)	(13.4)	(14.0)	(16.6)	(15.8)	(16.4)	(17.3)	(100.0)

주: 전체는 0세~6세 영유아 수를 합산한 값이며, 연령별 비중은 각 연령별 아동수/ 전체 아동수*100으로 산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아동용 데이터의 경우 지역규모 및 연령을 고려한 가중 치가 산출되어 수록되어 있다. I 기 보고서의 아동용 설문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기본적으로 아동용 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이다. 앞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동 조사 표본은 0세(신생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적었다. 아동용 가중치를 적용한 이후 0세 응답자의 비중은 10.6%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만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표본이 보정됨을 알 수 있다(표 IV-3-3 참조). 다른 연령의 아동 비중도 주민등록인구에서의 연령별 비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을 보였다.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아동용 데이터를 횡단면혹은 시계열 대표성이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동용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면 됨을 시사한다.

〈표 Ⅳ-3-3〉 연령별 영유아 비중 비교: 2022년 기준

단위: 명, %

7	분			K	ICCE 소	비실태조	나		
Т	正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체
주민등	록인구	11.1	12.0	12.6	14.0	15.1	16.5	18.7	100.0
KICCE	가중치 미적용	6.5	13.4	14.0	16.6	15.8	16.4	17.3	100.0
소비실태조사	가중치 적용	10.6	11.5	12.8	13.9	15.3	17.3	18.6	100.0

주: 전체는 0세-6세 영유아 수를 합산한 값이며, 연령별 비중은 각 연령별 아동수/ 전체 아동수*100으로 산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2) 다자녀 가구 비중

다자녀 가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최효미·박은정·엄지원, 2020: 31~33). 정책적으로는 만18세 이하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정의해오다, 최근에는 2자녀 이상인 경우까지를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12. 7: 78). 그러나, 여전히 다자녀 가구의 정의 혹은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국가 차원의 다자녀 가구 비중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도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인구동향조사'를 통해 출생순위별 출생아 현황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비중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총 출생아 32만4,670명 중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가 54.5%였으며, 둘째아는 36.9%, 셋째아 이상인 경우가 8.7%였다. 매해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첫째아의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둘째아 이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2021년 기준 전체 출생아 26만473명 중 첫째아의 비중은 56.8%로, 2018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이 영유아 가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의 비중을 산출할 수 없으나, 가구 내 전체 자녀수를 통해 영유아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 중 다자녀 가구 여부(초등이상 자녀 포함)를 확인할 수 있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영유아 가구 표본 중총 자녀수가 1명인 가구의 비중은 2018년 38.7%였으며, 이 비중은 2019년 33.6%로 감소한 이후 32~34% 사이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자녀가 2명인가구의 비중은 2018년 49.6%였으며, 2019년 이후로는 52~54%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도 2022년 기준 14.3%에 달했다. 즉,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인구동향조사'에 비하면,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게 관측되는 특징을 보인다 하겠다.

이는 앞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전년도 자료에 대한 추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후속 출산에 따라 자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통상 다자녀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나 가

계소비지출이 높다고 가정할 때,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전체 응답자 중 다자 녀 가구의 비중이 다소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및 가계소비지출, 양육비용 등이 실제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표 Ⅳ-3-4〉 다자녀 가구 비중

단위 : 명, 가구, %

		인구동	향조사			KICCE 소	비실태조사	
연도	전체 출생아수	1아	2아	30이상	전체 가구 수	1명	2명	3명이상
2018년	324,760	54.5	36.9	8.7	1,648	38.7	49.6	11.7
2019년	302,522	55.7	35.8	8.5	1,665	33.6	52.7	13.7
2020년	272,216	56.6	35.1	8.3	1,679	32.3	53.0	14.7
2021년	260,473	56.8	35.0	8.2	1,709	32.2	53.2	14.5
2022년	_	_	_		1,730	33.7	52.0	14.3

- 주: 1)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 표본 기준, 해당 가구 내 전체 자녀수를 기준으로 산출.
 - 2) 인구동향조사는 당해연도 출생아 중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의 비중이며, 출산순위를 모르는 경우는 전체에서 제외함.
- 자료: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101&tblld=DT_1B80A01&conn_path=13 (인출일: 2023. 6. 9.).
 - 2) 최효미·이정원·김자연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N), p.101. 〈표Ⅲ -3-3〉.
 - 3)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89. 〈표 Ⅲ -3-3〉.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특성, 즉 추적조사 표본 여부별 다자녀 가구 비중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온 기존 표본의경우에는 총 자녀수가 3명인 가구의 비중이 16.3%로 매우 높은데 반해, 기존 표본가구를 대체한 대체 표본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비중이 5.3%에 그쳤다. 기존 표본은 총 자녀수가 2명 이상인 비중 또한 54.8%에 달해 대체 표본이나 신생아표본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전년도하반기와 당해연도 상반기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규 구축된 신생아 가구 표본의 경우 총 자녀수가 3명 이상인 비중이 9.1%였다.

〈표 IV-3-5〉 추적조사 표본여부별 다자녀 가구 비중(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단위: 가구, (%)

_	78				총 자	녀 수			
٦	분	전체 2	가구 수	1	명	2	여	3명	이상
	기존 가구	1,325	(100.0)	383	(28.9)	726	(54.8)	216	(16.3)
표본 가구 구분	대체 가구	151	(100.0)	75	(49.7)	68	(45.0)	8	(5.3)
1 🗠	신생아 가구	254	(100.0)	125	(49.2)	106	(41.7)	23	(9.1)
	<u>년</u> 체	1,730	(100.0)	583	(33.7)	900	(52.0)	23	(9.3)

주: 영유아 가구 표본 기준, 해당 가구 내 전체 자녀수를 기준으로 산출. 전체 표본 수는 1,730가구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2' 원자료.

한편,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외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총 자녀수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 비중(15.1%)이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가 자녀는 상대적으로 총 자녀수가 2명인 가구의 비중(54.6%)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3-6〉 맞벌이여부별 다자녀 가구 비중 (KICCE 소비실태조사 2022)

단위 : 가구, (%)

구분			총 자녀 수								
		전체 가구 수		1명		2명		3명이상			
 맞벌이	맞벌이가구	767	(100.0)	246	(32.1)	419	(54.6)	102	(13.3)		
여부	외벌이가구	963	(100.0)	337	(35.0)	481	(50.0)	145	(15.1)		
	<u>전체</u>	1,730	(100.0)	583	(33.7)	900	(52.0)	23	(9.3)		

주: 영유아 가구 표본 기준, 해당 가구 내 전체 자녀수를 기준으로 산출. 전체 표본 수는 1,730가구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원자료.

3) 맞벌이 가구 비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기혼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2018년 기준 46.3%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45.4%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46%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15~29세인 기혼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2.9%로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가구주 연령이 30~39세인 경우에도 2018년 49.9%이던 맞벌이 가구 비중이 2021년에는

53.3%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인 경우에는 2018년 54.2% 이던 맞벌이 가구 비중이 2020년 53.1%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55.1%로 다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주 연령이 50~64세인 경우에도 연도별 증감 폭이 다소 적긴 하나, 40~49세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2020년 전체 맞벌이 가구 비중의 감소는 가구주가 40~64세인 연령 구간에서의 맞벌이 가구 비중 감소에 기인함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역별고용조사'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으로, 해당 가구가 기혼 유배우 가구인 것은 알 수 있으나, 해당 가구 내 자녀의 유무 및 자녀 연령에 따른 맞벌이 가구 비중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통상 자녀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가구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유아 가구의 아버지 연령은 30~49세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며, 30대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포착되는데 반해, 40 대는 맞벌이 가구 비중이 2020년 약간 감소했다가 2021년 반등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18년 46.2%였으며, 그 비중이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며 2022년에는 4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지역별고용조사'에 비하면, 2021년 기준 약 4.2%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통상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모의 경제활동참여가 제약되는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여진다. 다만, '지역별고용조사'의 경우 해가 거듭되더라도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데 반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경우 맞벌이 가구비중이 매해 조금씩 감소하는 특징이 발견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다. 이는 앞서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속 출산 등으로자녀가 많아지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의 비중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Ⅳ-3-7〉 맞벌이 가구 비중

단위 : %

	지역별고용조사							
연도	전체	15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64세	65세 이상	소비실태 조사	
		20/1	0041	TOVI	וויידט	410	1	
2018년	46.3	38.6	49.9	54.2	50.5	25.4	46.2	

			지역별고	고용조사			KICCE
연도	전체	15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64세	65세 이상	소비실태 조사
2019년	46.0	40.1	50.2	54.2	50.1	25.5	44.3
2020년	45.4	38.3	51.3	53.1	49.3	25.9	43.8
2021년	46.3	42.9	53.3	55.1	50.8	25.0	42.1
2022년	-	-	-	-	-	-	42.2

- 주: 1)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 표본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2018년 1,648가구, 2019년 1,665가구, 2020년 1,679가구, 2021년 1,709가구, 2022년 1,730가구를 기준으로 산출된 비중임.
 - 2) 지역별고용조사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이며, 2018년 12,245천 가구, 2019년 12,305천 가구, 2020년 12,332천 가구, 2021년 12,587천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된 비중임. 연령은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
- 자료: 1)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맞벌이 가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 ld=101&tblld=DT_1ES4F03S&conn_path=13 (인출일: 2023. 6. 9.).
 - 2) 최효미·이정원·김자연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p.100. 〈표 Ⅲ -3-2〉.
 - 3)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89. 〈표 Ⅲ -3-3〉.

'지역별고용조사'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이산출되며, 해당 가구 내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반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주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 〈표 IV-3-8〉은 가구주 연령별 맞벌이가구 비중이다. 단, 이때,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구주 여부가 아닌 영유아 자녀의 부(아버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부 연령은 30대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40대인 경우도 634가구로 전체 표본의 37.4%에 달했다. 각 연령대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부가 30대인 경우 42.5%, 40대인 경우43.7%로, '지역별고용조사'에 비해서는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Ⅳ-3-8〉 가구주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2021년 기준)

단위: %, (천가구), [가구]

			가구주 연령							
구분		전체	15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64세	65세 이상			
지역별	맞벌이비중	46.3	42.9	53.3	55.1	50.8	25.0			
고용조사	전체 가구 수	(12,587)	(187)	(1,733)	(2,895)	(4,970)	(2,803)			

			가구주 연령							
구분		전체	15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64세	65세 이상			
KICCE	맞벌이비중	42.5	20.9	42.5	43.7	44.4	100.0			
소비실태조사	전체 가구 수	(1,693)	(43)	(987)	(634)	(27)	(2)			

- 주: 1) 지역별고용조사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으로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가구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으므로 영유아 자녀 기준 부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음.
 -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의 부의 출생년도는 1954년생(67세)부터 1998년생(23세)까지이며, 부 연령이 결측인 경우(부재 등)인 경우가 15가구임.
- 자료: 1)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기구주의 연령계층별 맞벌이 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 ld=101&tblld=DT_1ES4F03S&conn_path=13 (인출일: 2023. 6. 9.).
 -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1' 원자료.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와 표본 특성을 유사하게 구성하여 맞벌이 가구 비중을 비교해보기 위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구 패널조사인 '노동패널조사' 자료와 가구소득 및 가계소비지출 비교 자료로 활용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의 맞벌이 가구 비중을 산출해보았다. 가계동향조사나 노동패널조사의 영유아 가구의 부의 연령은 'KICCE 소비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30~40대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적정 표본 수가 확보되는 30~40대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30대인 경우 가계동향조사의 맞벌이가구 비중은 45.2% 'KICCE 소비실태조사'에 비해 약간 높고, 노동패널조사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36.5%로 'KICCE 소비실태조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KICCE 소비실태조사'가 두 조사의 중간정도 수준의 맞벌이 가구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표 Ⅳ-3-9〉 가구주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2021년 기준)

단위: %, (가구)

			부 연령 기준							
구분		전체	15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64세	65세 이상			
가계동향조사	맞벌이비중	42.7	33.3	45.2	39.3	44.4	_			
_영유아가구	전체 가구 수	(424)	(15)	(250)	(150)	(9)	_			
노동패널조사	맞벌이비중	35.1	34.5	36.5	34.2	23.1	0.0			
_영유아 가구	전체 가구 수	(1,004)	(29)	(518)	(430)	(26)	(1)			

구분		부 연령 기준							
		전체	15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64세	65세 이상		
KICCE	KICCE 맞벌이비중		20.9	42.5	43.7	44.4	100.0		
소비실태조사	전체 가구 수	(1,693)	(43)	(987)	(634)	(27)	(2)		

- 주: 1) 가계동향조사(2021년 분기자료 전체가구 1인이상) 2분기 자료 중 배우자가 동거 중인 영유아 자녀가 있는 424 가구에서 부의 출생년도는 1965년생(56세)부터 1996년생(25세)까지이며, 부 연령이 결측인 경우는 없음.
 - 2) 노동패널조사(2021년 기준)에서 영유아 가구의 부의 출생년도는 1941년생(80세)부터 1996년생(25세)까지 이며, 부 연령이 결측인 경우가 10가구임.
 -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의 부의 출생년도는 1954년생(67세)부터 1998년생(23세)까지이며, 부 연령이 결측인 경우(부재 등)인 경우가 15가구임.
- 자료: 1) 가계동향조사 2021 분기자료(전체가구 1인 이상)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2) 한국노동패널 22~25차년도 학술대회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3) 'KICCE 소비실태조사 2021' 원자료.

나. 가구 소득

가구소득의 경우 조사마다 산출 방식이 조금씩 상이하여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가구소득 산출 기준에 맞추어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일부 조정하여 산출하였다. 자료 산출의 방식과 합산 범위는 표주를 참조하기 바란다.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영유아 가구 뿐 아니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먼저 전체 표본 대상으로 가구소득을 산출하여 영유아 가구의가구소득과 비교해보았다.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은 통상 전체 표본 가구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가계동향조사' 기준 전체 표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25만9천원인데 반해,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67만1천원으로, 영유아 가구가 전체 표본 가구 평균에 비해 41만2천원이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노동패널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표본 가구와 영유아 가구 사이의 소득 편차가 더욱 커서, 전체 표본은 408만8천원인데 반해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61만7천원으로, 무려 152만9천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체 표본 가구의 경우 청년 1인 가구나 은퇴하여 소득이 적은 고령층이 섞여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21년 기준 494만2천원으로, '노동패널조사'에 비해서는 67만5천원이 낮고, '가계동향조사'에 비해서는 72만9 천원이 낮은 수준이었다.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8년도에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461만5천원으로, '가구동향조사'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467만5천원이나 '노동패널조사'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473만7천원에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조사'의 영유아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이 이후 횟수를 더해갈수록 큰 증가폭을 보이는데 반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증가하긴 하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아, 조사 간 가구소득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표본 수가 적은 상황이고,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원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가구패널조사의 특성상 해마다 영유아 가구 표본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에 반해 'KICCE 소비실태조사' 전년도 조사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지만, 추적에 실패한 경우 대체표본을 해마다 구축하고 있으며, 신생아 표본 또한 매해 새롭게 추가하여 영유아기 전 연령에 대한 적정 표본을 유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변화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다.

〈표 Ⅳ-3-10〉 연도별 가구소득 비교(명목비용)

단위: 만원. (가구)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표본	월평균 가구소득	472.5	507.9	538.1	525.9	595.2
가계동향조사	선세표근	(N)	(3,719)	(2,485)	(3,592)	(3,605)	(3,749)
	영유아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467.5	523.1	586.4	567.1	643.4
		(N)	(520)	(345)	(484)	(424)	(437)
	전체표본	월평균가구소득	363.7	376.7	386.6	408.8	-
ᆫᆕᆒᅜᆽᄔ	건세표근	(N)	(11,533)	(11,511)	(11,558)	(11,585)	_
노동패널조사	G1001 717	월평균가구소득	473.7	505.0	544.7	561.7	-
영유아 가구		(N)	(1,210)	(1,134)	(1,009)	(926)	_
NICCE YHYIMZII		월평균가구소득	461.5	486.9	458.7	494.2	512.2
NICCE 21	KICCE 소비실태조사		(1,648)	(1,665)	(1,679)	(1,707)	(1,730)

- 주: 1) 가구동향조사의 소득 자료는 각년도 2분기(4~6월)자료로, 한부모가구나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는 가구는 제 외하고 산출함.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이며, 모든 변수는 가중치를 적용 하여 산출함.
 - 2) 노동패널조사는 조사시점에 작년한해 가구소득을 질문하여, 12로 나누어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함. 노동패 널 가구소득은 가구원별 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코로나19 지원금 제외)을 합산한 값임.
 -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는 가구소득 결측치 1개 있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이 1억2,250만원이라고 응답한 1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가구소득은 가구원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임.
- 자료: 1) 가계동향조사 2018~2022 분기자료(전체가구 1인 이상)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2) 한국노동패널 22~25차년도 학술대회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3)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

소득 구간별로는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600만원 이상 가구의비중이 각 33.5%, 33.2%로 가장 많은데 반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경우 400~499만원 이하가 2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0만원 이상이 23.4%였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400~499만원이 21.2%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소득 구간이었으며, '노동패널조사'의 경우에는 300~399만원이하 가구가 20.1%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Ⅳ-3-11〉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구간별 비중 (명목비용, 2021년 기준)

단위: %.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가계동향조시	l_영유아가구	노동패널조시	l_영유아가구	KICCE 소비실태조사		
글이쁜 기기소기	비중	(N)	비중	(N)	비중	(N)	
299만원이하	10.9	(46)	9.9	(92)	7.9	(135)	
300~399만원이하	16.3	(69)	20.1	(186)	24.0	(410)	
400~499만원이하	21.2	(90)	19.6	(181)	25.8	(440)	
500~599만원이하	18.2	(77)	17.3	(160)	18.9	(322)	
600만원이상	33.5	(142)	33.2	(307)	23.4	(400)	

- 주: 1) 가구동향조사의 소득 자료는 각년도 2분기(4~6월)자료로, 한부모가구나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는 가구는 제 외하고 산출함.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이며, 모든 변수는 가중치를 적용 하여 산출함.
 - 2) 노동패널조사는 조사시점에 작년한해 가구소득을 질문하여, 12로 나누어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함. 노동패 널 가구소득은 가구원별 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코로나19 지원금 제외)을 합산한 값임.
 -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는 가구소득 결측치 1개 있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이 1억2,250만원이라고 응답한 1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가구소득은 가구원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임.

자료: 1) 가계동향조사 2021 분기자료(전체가구 1인 이상)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2) 한국노동패널 22~25차년도 학술대회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3) 'KICCE 소비실태조사 2021' 원자료.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매우 큰 편차를 보였으며(721만 9천원: 450만9천원), '노동패널조사'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이 평균 171만8천원 차이를 보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80만6천원, 외벌이 가구는 431만3천원으로 149만3천원의 차이를 보이지만, 다른 두 조사에 비해서는 편차가 큰 편은 아니었다.

한편, 총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2명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지만, 총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계동향조사'는 총 자녀 수가 2명인 가구에 비해 약간 높은데 반해, '노동패널조사'와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이는 총 자녀수가 3명 이상경우 모의 취업활동이 제한을 받아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3-12〉 영유아 가구의 맞벌이 여부 및 총 자녀수별 월평균 가구소득 (명목비용, 2021년 기준)
단위: 만원 (기구)

			L L, (· 11/						
		가계동	향조사	노동패	널조사	KICCE 소	KICCE 소비실태조사		
구분		월평균 가구소득	(N)	월평균 가구소득	(N)	월평균 가구소득	(N)		
맞벌이	맞벌이	721.9	(181)	669.5	(345)	580.6	(719)		
여부	외벌이	450.9	(243)	497.7	(581)	431.3	(988)		
	1명	517.8	(179)	532.2	(397)	466.6	(550)		
총 자녀수	2명	599.7	(191)	586.8	(413)	509.2	(909)		
	3명이상	601.0	(54)	573.0	(116)	500.5	(248)		
전	전 체		(424)	561.7	(926)	494.2	(1,707)		

- 주: 1) 가구동향조사의 소득 자료는 각년도 2분기(4~6월)자료로, 한부모가구나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는 가구는 제 외하고 산출함.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이며, 모든 변수는 가중치를 적용 하여 산출함.
 - 2) 노동패널조사는 조사시점에 작년한해 가구소득을 질문하여, 12로 나누어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함. 노동패 널 가구소득은 가구원별 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코로나19 지원금 제외)을 합산한 값임.
 -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는 가구소득 결측치 1개 있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이 1억2,250만원이라고 응답한 1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가구소득은 가구원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임.
- 자료: 1) 가계동향조사 2021 분기자료(전체가구 1인 이상)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2) 한국노동패널 22~25차년도 학술대회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3) 'KICCE 소비실태조사 2021' 원자료.

다. 가계 소비 지출

가계 생활비 지출액 또한 가구소득과 유사하게 전체 표본 가구에 비해 영유아 가구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규모가 커지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특기할만한 점은 가구소득의 경우 'KICCE 소비실태조사'에 비해 '가계동향조사'나 '노동패널조사'가 더 높았던데 반해,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의 경우 'KICCE 소비실태조사'가 '노동패널조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KICCE 소비실태조사'에 비해 약간 높거나비슷한 수준을 보이는데 반해,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약 30만원가량 낮은 수준의

소비지출액을 보였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디에 기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의 소비지출을 회고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Ⅳ-3-13〉 연도별 가구 생활비 지출액 비교(명목비용)

단위: 만원. (가구)

							, , ,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표본	월평균 생활비 지출	330.2	325.7	315.0	327.4	351.1
가계동향		(N)	(6,908)	(5,466)	(6,811)	(6,870)	(7,114)
조사		월평균 생활비 지출	342.6	340.4	334.2	363.1	378.3
		(N)	(1,051)	(757)	(881)	(809)	(834)
	저테ㅠㅂ	월평균 생활비 지출	228.5	226.1	230.6	240.9	
노동패널	전체표본	(N)	(11,720)	(11,669)	(11,638)	(11,670)	
조사	영유아	월평균 생활비 지출	295.5	292.1	305.6	329.1	
	가구	(N)	(1,219)	(1,140)	(1,014)	(929)	
нол	.ICU T I L	월평균 생활비 지출	402.1	-	-	327.6	_
보육실태조사		(N)	(2,533)	-	-	(2,500)	_
KIOOF AUGUSTU		월평균 생활비 지출	323.7	328.0	334.9	356.8	376.4
NICCE 4	비실태조사	(N)	(1,648)	(1,665)	(1,679)	(1,708)	(1,730)

- 주: 1) 가구동향조사의 소비지출 비목은 식비=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음식·숙박 항목의 식사비, 기기/집기 = 가정 용품 및 가사서비스 증 가사소모품 포함(가사서비스 제외), 여가문화생활비=오락·문화 + 음식·숙박 항목의 숙 박비, 교통비=교통 항목에서 자동차구입과 기타운송기구구입 제외, 통신= 통신장비 제외, 개인유지비=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의 복지시설,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제외함. 보험=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의 보 험을 기준으로 산출, 이전지출= 비소비지출 항목에서 가구 간 이전지출+비영리단체로 이전, 기타상품서비스 =주류 및 담배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의 복지시설과 기타서비스.
 - 2) 노동패널 조사의 월평균 생활비는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 비, 교양오락비, 내구재, 통신비,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용돈, 그 외 가구원 용돈, 피복비, 헌금 및 각종 기부금, 보장성보험55, 대중교통비, 생필품 구입비, 기타의 합산 수치임.
 - 3)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생활비 지출에는 식비, 주거비(관리비및수도/광열비, 월세만 포함),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보험(저축 및 원리금 상환은 제외),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합산 수치임.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는 가구 생활비 지출 결측치 1개 있음.
- 자료: 1) 가계동향조사 2018 연간자료(지출), 2019~2022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 이상)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2) 한국노동패널 22~25차년도 학술대회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3) 김은설·최윤경·권미경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16. 〈표 Ⅲ-2-27〉.
 - 4)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 14. 〈표 Ⅲ-2-27〉.
 - 5)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⁵⁵⁾ 노동패널조사에서 보장성보험은 소비문항에서 질문하지 않고, 저축 문항에서 질문함. 다른 조사의 소비항 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소비항목에는 없지만, 보장성 보험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함.

'KICCE 소비실태조사' 기준 비목별로는 식비가 95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험 44만1천원, 교육보육비 39만8천원 순이었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에는 영유아 가구 기준 식비가 96만8천원, 주거비 31만6천원, 이전지출 30만8천원 순이었으며, '노동패널조사'의 경우에는 영유아 가구 기준 식비 85만3천원, 개인유지비 46만2천원, 교육보육비 40만5천원 순이었다. 3개 조사 모두에서 식비가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나머지 비목의 경우에는 조사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교육보육비는 'KICCE 소비실태조사'와 '노동패널조사'가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비의 경우에는 '가계동향조사'는 27만원, 'KICCE 소비실태조사' 12만6천원, '노동패널조사' 5만8천원으로, 조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비목이었다. 개인유지비는 '노동패널조사'가 46만2천원으로 매우 높은데 반해 'KICCE 소비실태조사' 15만1천원과 '가계동향조사' 13만6천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표 Ⅳ-3-14〉 영유아 가구의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명목비용, 2021년 기준)

단위 : 만원, (가구)

шп	가계동	향조사	노동패	널조사	KICCE
비목	전체표본	영유아가구	전체표본	영유아가구	소비실태조사
식비	88.7	96.8	63.7	85.3	95.0
주거비	32.0	31.6	21.6	24.8	26.2
기기/집기	14.9	20.0	2.7	4.7	13.1
피복비	15.7	21.3	7.9	11.0	20.3
보건의료비	27.9	27.0	7.9	5.8	12.6
교육보육비	27.2	27.2	21.4	40.5	39.8
여가문화생활비	19.2	27.4	8.3	11.1	26.0
교통비	23.4	26.0	24.9	35.5	26.5
통신비	12.1	12.5	11.9	14.7	18.1
개인유지비	9.9	13.6	42.0	46.2	15.1
보험	12.1	12.4	19.7	31.8	44.1
이전지출	34.4	30.8	8.0	9.1	13.3
기타상품서비스	10.0	16.4	0.8	1.7	6.9
전체	327.4 (6,870)	363.1 (809)	240.9 (11,670)	322.4 (929)	356.8 (1,708)

주: 1) 가구동향조사의 소비지출 비목은 식비=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음식·숙박 항목의 식사비, 기기/집기 = 가정 용품 및 가사서비스 증 가사소모품 포함(가사서비스 제외), 여가문화생활비=오락·문화 + 음식·숙박 항목의 숙박비, 교통비=교통'목에서 자동차구입과 기타운송기구구입 제외, 통신= 통신장비 제외, 개인유지비=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의 복지시설,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제외함. 보험=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의 보험을 기준으로 산출, 이전지출= 비소비지출 항목에서 가구 간 이전지출+비영리단체로 이전, 기타상품서비스=주류 및 담배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의 복지시설과 기타서비스.

- 2) 노동패널 조사의 월평균 생활비는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 비, 교양오락비, 내구재, 통신비,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용돈, 그 외 가구원 용돈, 피복비, 헌금 및 각종 기부금, 보장성보험, 대중교통비, 생필품 구입비, 기타의 합산 수치임.
- 3)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생활비 지출에는 식비, 주거비(관리비및수도/광열비, 월세만 포함),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보험(저축 및 원리금 상환은 제외),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합산 수치임.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는 가구 생활비 지출 결측치 1개 있음.
- 자료: 1) 가계동향조사 2021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 이상)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2) 한국노동패널 22~25차년도 학술대회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영유아 가구 기준 식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계동향조사' 28.0%, '노동패널조사' 27.3%, 'KICCE 소비실태조사' 27.5%로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교육보육비의 경우 '노동패널조사'는 11.5%, 'KICCE 소비실태조사' 10.2%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여가문화생활비, 교통비 등 다수 비목에서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결과가 '가계동향조사'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보험의 경우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경우 전체 생활비에서 1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인데 반해 '가계동향조사'의 경우에는 3.7%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각 조사별로 비목의 구분 기준이 상이한 것에 기인한 차이로 판단된다. 본고는 'KICCE 소비실태조사' 분류 기준에 맞추어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재분류하였으나, 세목의 경우 애초 조사 당시 다른 비목으로 해당 비용이 측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응답자가 비목 구분에서 혼동이 크지 않은 비목, 예를 들어 식비, 주거비, 피복비 등의 경우에는 조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유사한 양태를 보인다는 점을 통해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표 Ⅳ-3-15〉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비목별 지출 비중(명목비용, 2021년 기준)

단위: %, (가구)

비목	가계동	향조사	노동패	KICCE	
미국	전체표본	영유아가구	전체표본	영유아가구	소비실태조사
식비	29.6	28.0	29.9	27.3	27.5
주거비	10.4	9.4	11.4	8.1	7.8
기기/집기	4.1	5.2	1.0	1.4	2.9
피복비	4.4	5.6	3.3	3.5	5.7
보건의료비	9.1	7.3	4.6	1.9	3.5
교육보육비	6.3	6.8	5.3	11.5	10.2
여가문화생활비	5.2	7.2	3.4	3.4	6.9

비목	가계동	향조사	노동패	KICCE	
미숙	전체표본	영유아가구	전체표본	영유아가구	소비실태조사
교통비	7.3	7.2	9.7	11.3	7.8
통신비	4.1	3.9	5.0	4.7	5.4
개인유지비	2.9	3.5	16.6	14.4	4.4
보험	3.9	3.7	6.4	9.3	12.6
이전지출	9.8	8.0	3.2	2.7	3.5
기타상품서비스	2.8	4.2	0.3	0.4	1.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세	(6,870)	(809)	(11,670)	(929)	(1,708)

- 주: 1) 가구동향조사의 소비지출 비목은 식비=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음식·숙박 항목의 식사비, 기기/집기 = 가정 용품 및 가사서비스 증 가사소모품 포함(가사서비스 제외), 여가문화생활비=오락·문화 + 음식·숙박 항목의 숙 박비, 교통비=교통'목에서 자동차구입과 기타운송기구구입 제외, 통신= 통신장비 제외, 개인유지비=기타 상 품 및 서비스 항목의 복지시설,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제외함. 보험=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의 보험 을 기준으로 산출, 이전지출= 비소비지출 항목에서 가구 간 이전지출+비영리단체로 이전, 기타상품서비스= 주류 및 담배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의 복지시설과 기타서비스.
 - 2) 노동패널 조사의 월평균 생활비는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 비, 교양오락비, 내구재, 통신비,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용돈, 그 외 가구원 용돈, 피복비, 헌금 및 각종 기부금, 보장성보험, 대중교통비, 생필품 구입비, 기타의 합산 수치임.
 - 3)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생활비 지출에는 식비, 주거비(관리비및수도/광열비, 월세만 포함),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보험(저축 및 원리금 상환은 제외),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합산 수치임.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는 가구 생활비 지출 결측치 1개 있음.

자료: 1) 가계동향조사 2021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 이상)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2) 한국노동패널 22~25차년도 학술대회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2' 원자료.

라. 양육비용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있는 최근의 자료는 많지 않으며, 특히 비목별로 구분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가 거의 유일하다. 총액 측면에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있는 자료로 '가족과 출산조사'6이'와 '보육실태조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가족과 출산조사'는 영유아 가구에 한정되지 않고보다 넓은 연령대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있으나, 가구당 양육비용은알기 어렵고 자녀 1인당 월 지출비용 형태로만 산출된다(박종서·임지영·김은정외, 2021: 265-269). 반면,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조사하지않고, 영유아 가구 기준 가구당 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있다(김은설·최윤경·권미경외, 2021: 119-122). '가족과 출산조사'와 '보육실태조사'는 모두 매3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승인통계로서, 가장 최근 조사는 2021년도에 실시되었다.

^{56) 2021}년 이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조사임.

2021년 실시된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1,261명 기준)에 대한 지출 금액, 즉 양육비용은 월평균 60만6천원이었다(박종서·임지영·김은정 외, 2021: 269)⁵⁷⁾. 한편,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수준은 2021년 평균 97만6천원으로(김은설·최윤경·권미경 외, 2021: 120) 코로 나19 이전인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인 86만9천원(이정원·이정림·도남희외, 2018: 117)에 비해 약 10만7천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초등 이상 자녀 양육비용 포함, 명목비용 기준)은 115만9천원이었으며, 2021년에는 128만6천원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18년 기준 66만4천원이었으며, 2021년에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여 65만8천원에 그쳤다. 2021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가족과 출산조사'에 비교하여 거의 유사하나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하여 31만원이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집계된 결과 수치만으로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기 어려우나,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경우 양육비용을 자녀별, 비목별로 매우 세분하여 조사하는데 반해 '보육실태조사'는 양육비용은 응답자에게 총액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는 설문 구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Ⅳ-3-16〉 영유아 월평균 양육비용(명목비용, 2021년 기준)

단위 : 만원, (가구, 명)

	가족과 출산조사		보육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구분	영유아 1인당	(N)	영유아 가구	(N)	영유아 가구	(N)	영유아 1인당	(N)
2018년	-	_	86.9	(2,533)	115.9	(1,648)	66.4	(2,298)
2021년	60.6	(1,261)	97.6	(2,500)	128.6	(1,708)	65.8	(2,405)

- 주: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는 양육비용 결측치 1개 있음.
 - 2)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에는 자녀가 소비한 식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통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보험(저축 및 원리금 상환은 제외)을 합산한 수치임.
- 자료: 1) 박종서·임지영·김은정 외(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p.269. 〈표 7-23〉.
 -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 17. 〈표 Ⅲ-2-30〉.
 - 3) 김은설·최윤경·권미경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20. 〈표 Ⅲ-2-30〉.
 - 4) 'KICCE 소비실태조사 2021' 원자료.

^{57)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가구내 자녀수별 양육비용만을 보고하고, 영유아의 양육비용을 보고하지 않음(이소영·김은정·박종서 외, 2018).

마.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률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아동용 설문은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관 이용 실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매해 조사하고 있다. 반일제 이상 기관은 크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어린이집 이용 비중은 2018년 51.1%였으며, 매해 조금씩 등락을 거듭하다 2022년 49.2%였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2018년 27.7%였으며, 2022년에는 27.1%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반일제 이상 기관의 이용률이 크게 감소하여,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자의 비중이 27.6%까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보육통계' 및 '교육통계연보'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어린이집 이용률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18년에 각 48.7%와 23.3%였으며, 2022년 49.7%와 25.1%로 2018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는 교육/보육 기관 이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020 년의 경우 '보육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9년이나 2021년 에 비해서는 약간 낮긴 하나 2%포인트 이내의 변동에 그쳤으며,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산출한 유치원 이용률의 경우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매 3년마다 조사하는 '보육실태조사'의 경우 2018년 어린이집 이용률은 46.4%, 유치원 이용률은 26.6%였으며, 2021년에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42.2%로 크게 감소한 반면, 유치원 이용률은 30.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또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2018년 1.8%였으나, 2021년에는 2.5%로 증가하였다. '보육실태조사'의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자 비중은 2018년 25.1%, 2021년 25.4%로 큰 비중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보육실태조사'는 전반적으로 행정 통계 수치에 비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률은 낮게, 유치원 이용률은 높게 산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매해 이용률이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행정통계에 비해 2021년 '보육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크게 하락하고, 유치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보육기관 이용률이 크게 감소한 2020년의 경우 행정 통계의 수치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률을 보였으며, 2018년과 2019년은 어린이집 이용률과 유치원 이용률

모두 행정통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1년과 2022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률은 행정통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유치원 이용률은 행정통계에 비해 여전히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교육/보육기관 이용자가 약간 과표집 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는 교육/보육 기관 이용률이 낮은 연령인 0세와 1세 표본의 수가 다른 연령에 비해 적기 때문58)에 발생한 현상일 수 있으므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Ⅳ-3-17〉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단위 : %

	행정	통계	보육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연도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미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미이용
2018년	48.7	23.3	46.4	26.6	1.8	25.1	51.1	27.7	3.2	18.0
2019년	50.1	23.2	-	_	-	_	53.0	26.5	1.6	19.0
2020년	48.6	23.9	-	_	_	_	48.1	23.3	1.0	27.6
2021년	49.6	24.4	42.2	30.0	2.5	25.4	50.4	28.8	1.3	19.5
2022년	49.7	25.1	_	_	_	_	49.2	27.1	1.1	22.6

- 주: 1) 행정통계_어린이집 이용률은 각년도(2018~2022) 보육통계의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원(12월 31일 기준)를 각년도(2018~2022) 주민등록인구 0-6세(12월 기준)로 나누어 산출한 후 100을 곱하여 산출.
 - 2) 행정통계_유치원 이용률은 각년도(2018~2022) 교육통계연보의 민3세-만5세 유치원 원아 수(4월 1일 기준)를 각년도(2018~2022) 주민등록인구 0-6세(12월 기준)로 나누어 산출한 후 100을 곱하여 산출. 유치원 원아 중 만6세 이상(생활연령 기준 만7세 이상)은 제외함. 유치원 이용 연령은 만4세 이상이지만,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전체 영유아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함.
 - 3)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기존(2022년 12월 기준)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 자료: 1) 보건복지부, 각년도(2018~2022). 보육통계.
 -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2018~2022). 교육통계연보.
 -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 Html.do?orqld=101&tblld=DT 1B04006&conn path=12 (인출일: 2023, 6, 9.).
 - 4)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기구조사 보고. p.270 〈표 Ⅵ-1-1〉, p.406 〈표 Ⅵ-1-1〉, p.485 〈표 Ⅶ-1-1〉을 참조하여 재산출.
 - 5) 김은설·최윤경·권미경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p.246 〈표 VI-1-1〉, pp.367-3 68 〈표 VII-1-1〉, p.429 〈표 VIII-1-1〉을 참조하여 재산출.
 - 6)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63. 〈표 V-1-1〉.

⁵⁸⁾ 행정통계의 경우 당해연도 출생아 전원이 분모에 포함된데 반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분모에 포함된 0세의 수가 다른 연령의 절반 수준인 150명 내외이기 때문으로 사료됨.

4. 소결

IV장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I 기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 주요 통계 현황과 정부 지원금 수급 패턴, 'KICCE 소비실태조사'자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IV장의 주요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생활비 지출액이 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액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둘째,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은 실질비용 기준 2018년 116만6천원이었으며, 2019년 124만5천원이었으나, 코로나19확산 초기였던 2020년에 전년 대비 감소하여 118만원이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27만6천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127만3천원에 그쳤다.

셋째, 영유아 가구의 정부 지원금 수급 패턴을 배열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서는 보육료 수급은 영유아의 70%가 2세 정도부터 시작하였으며, 한번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을 수급(기관 이용)하게 되면 이후로 기관 이용이 지속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넷째, 기관 이용 시작월은 아동의 월령과 무관하게 대부분 새학기 시작 시기인 3월과 4월에 몰려 있는 양상을 보였다. 다섯째,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에는 보육료 수급 시작 시기가 늦춰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코로나19가장기화된 2021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상당부분 완화되고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수급 패턴을 보였다.

여섯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0세는 상반기 출생아들만 조사하기 때문에 표본이 다른 연령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가구 단위 조사의 특성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측치가 많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영유아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 인구 분포를 복원할 수 있으나, 기존에 산출된 가중치(2022년 12월 기준)의경우 조사차수별로 산출 기준이 달라,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곱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 다자녀 가구 비중이 높은 편이며, 반대로 맞벌이 가구 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들어 다른 조사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비용 등의 비용 산출 시에 이러한 표본특성을 감안하여 해석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덟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가계동향조사'나 '노동패널조사'의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에 비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60만원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비중과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다른 조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조사에 비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가구소득의 편차가 크지 않은 가구들로 표본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2018년에는 다른 조사와 비교하여 가구소득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다른 조사의 경우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이 지속적인 증가세가 포착된 반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증가폭이 작아, 2022년에는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의 가구소득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적절한 소득 분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표본 조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홉째, 가구소득의 경우 'KICCE 소비실태조사'가 '가계동향조사'나 '노동패널 조사'에 비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KICCE 소비실태조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비용의 경우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가구당 양육비용이 '보육실태조사'에 비해 약 30만원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 설문이 비목별로 매우 세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녀 모두를 조사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진다.

V

아동수당과 양육비용 부담 경감

- 01 아동수당 정책 변화와 연구 필요성
- 02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 03 아동수당의 양육비용 경감 효과
- 04 소결

V. 아동수당과 양육비용 부담 경감

이 장에서는 아동수당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아동수당 정책 변화와 연구 필요성

「아동수당법」597제1조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수당 지원은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95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대표적인 비용 지원 정책으로, 2018년 9월 제도 도입 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되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월령 기준 71개월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편 지원으로 변경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11. 19.)60). 2018년 제도 도입 당시 아동수당의지원 대상 선별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이때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수와 다자녀 여부,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었다(보건복지부, 2018b: 64~111).

그러나, 지원 대상이 소득인정액 하위 90%로 매우 폭넓을 뿐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정 등을 위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선별의 효과성이 낮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 도입 4개월 만에 아동수당은 보편 지원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결과적으로 2019년 1월부터는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71개월 이하인 모든 영유아에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었으며, 2019년 9월부터는 지원 대상의 월령이 83개월 이하(취학 여부 무관)의 모든 아동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9a). 이후 2022년 4월부터 지원 대상은 월령이 95개월 이하인 아동으

⁵⁹⁾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⁶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11. 19.). 아동수당.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94 (인출일: 2023. 7. 19).

로 더욱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 2022a). 단, 아동수당의 지원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아동당 월 10만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d).

〈표 V-1-1〉 2018~2023년 아동수당 제도 변화

기준년도	2018년 9월 (제도도입) ~ 2018년 12월	2019년 1월 ~ 2019년 8월	2019년 9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2023년 현재	
지원 대상	선별 지원 (소득인정액 90%이하)	보편 지원 (0~71개월이하 모든 아동)	보편 지원 (0~83개월이하 모든 아동)	보편 지원 (0~95개월이하 모든 아동)	
지원 단가	균등 지원 (아동당 월 10만원)				

자료: 1) 보건복지부(2018~2021). 각년도 아동수당 사업안내.

- 2) 보건복지부(2022a). 2022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 3) 보건복지부(2023d). 2023 아동수당 사업안내.

아동수당은 법령 제정의 목적 자체에 경제적 부담 경감이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동수당의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결정이 전적으로 육아가구의 선택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전형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로, 육아 가구의 소득(공적 이전소득에 해당함)을 상승시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를 가진 지원 정책이다. 즉, 아동수당은 직접적으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 아닌 아동에게 필요한 소비를 하기 위한 지원금(소득)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부담 비용을 경감해주는 형태의 지원 제도라 볼 수 있다이). 아동수당 도입 이전부터 무상보육·교육 지원으로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이 있었으며, 이에 대응한 형태로 현금성 지원인 가정양육수당이 있긴 했으나, 가정양육수당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으로 보편적 현금 지원의 형태를 지닌 아동수당과는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해 아동수당과 같은 생애 초기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지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영아

⁶¹⁾ 이에 반해 (부모)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부모가 카드 결제를 진행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유아 가구가 기관 이용비용 자체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지원임. 즉,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의 경우 비용 지원과 서비스 지원의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 이에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부모들이 자신의 소득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라 는 점에서 양육비용(교육·보육비)에서 이를 제외하고 조사하고 있음.

수당을 거쳐 2023년에는 부모급여가 도입되며 영아기 아동에 대한 집중 투자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3c), 2022년부터는 첫만남 이용권⁶²⁾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2021년 기준 4,254억원에서 2022년 6,05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86).

이와 같이 영유아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지 5년여에 불과하여 이의 효과성을 측정할만큼의 충분한 시간과 자료축적이 이뤄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편적 지원 체계를 가진 아동수당의 경우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지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집단의 구성이 어려워정책의 효과를 분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제도 도입 전후로 다른 나라의 제도를 소개하거나 제도도입의 당위성 등에 집중된 연구가 대다수이며, 실제 아동수당의 정책 효과성(경제적 부담 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지영·전용·안서연(2020)은 2018년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수당 도입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아동수당이 교육비 지출을 통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되었으며,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격차/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이래혁·남재현(2020)도 2017년과 2019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서 아동수당은 교육관련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 현금 지원의 정책적 효과성을 검증한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강지영·전용·안서연(2020)이 제도 도입 이후 자료로 활용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소득과 지출 기준 시점은 2018년도로, 아동수당은 2018년 9월에 제도가 도입되었을 뿐 아니라 이때는 선별지원이 이뤄진 시기로 분석 자료가 아동수당의 효과를 포함하기에는 너무 단기라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⁶²⁾ 첫만남 이용권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지원이지만, 지원금 사용처가 소비자 선택에 따르며 실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바우처라는 점에서 현금성 지원으로 볼 수 있음.

이들 연구는 정책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정책 도입 이후 처치집단으로 영유아 자녀(0~6세)가 있는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초등학령기 자녀(7~12세)가 있는 가구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영유아 자녀와 초등학령기 자녀의 소비패턴과 양육비용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정책 효과를 교란했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셋째, 이들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종속변수로 가구의 가계소비지출 현황을 활용하고 있는데, 가구(성인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가계소비지출은 양육비용을 포함하긴 하지만 가구의 가계소비지출이 양육비용과 반드시 동일한 패턴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의 비중은 식비의 경우 평균 24.6%인데 반해, 교육/보육비는 79.1%를 차지한다(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125). 즉, 가구의 소비지출액 증가가 반드시 양육비용의 증가를 나타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비목별 지출액의 증가가 아동수당의 효과 때문인지, 단순히 가구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내기 어려우므로, 분석 결과가 양육비용의 부담 완화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선별 지원 제도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좀 더 장기에 걸친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이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실질적으로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국의 영유아 관련 비용 지원 정책은 도입 이전에 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며, 도입된 이후에는 그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비용 지원 정책이 확대될 때,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가. 분석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가계소비 뿐 아니라, 가구 내 모든 자녀 별(초등학령기 이상 자녀 포함) 양육비용을 비목별로 세세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총 5개년 간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 아동수당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하지만,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 가구는 조사 차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⁶³), 영유아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 전체가 아동수당 수급 가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단,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영유아 가구라 함은 막내자녀의 연령이 영유아(미취학)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모든 영유아 가구가 아동수당 수급 가구이긴 하지만, 아동수당 수급자수(혹은 수급액)는 가구별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을 최대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한정하기 위해 영유아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되, 아동수당의 효과는 아동수당 수급 여부가 아니라 아동수당 수급자 수(혹은 수급액)에 따른 영향으로 설정하였다. 즉,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 수급액이 많은 가구들이 양육비용 지출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예컨대, 총 자녀수가 2명으로 같다할지라도 아동수당 수급자가 1명인 가구와 2명인 가구는 양육비용 지출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수당의 효과를 추출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부터 5차년도 (2022년)까지 총 4개 차수이다. 단,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특성상 4개연도를 모두 패널로 연결할 경우 교체 표본의 수가 너무 많아 미관측 이질성의 통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분석은 인접한 2개 차수씩 모아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시말해, 분석은 2~3차년도(2019~2020년), 3~4차년도(2020~2021년), 4~5차년도(2021~2022년) 자료를 각각 패널 자료로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매해 한 개 연령의 표본이초등학령기에 진입하면서 표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한편, 2차년도(2019년)부터 분석 자료로 활용한 이유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시점이 조사년도 5월부터 8월까지로, 1차년도(2018년) 자료의 경우 아동수당이도입되기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이다.64

⁶³⁾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2차년도(2019년) 표본은 초등1학년 이하인 경우, 3차년도(2020년)은 초등2학 년 이하인 경우, 4차년도(2021년)은 초등1학년인 자녀를 조사 대상 표본으로 하였음.

^{64) &#}x27;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도입 전후 차이를 검증하기는 어려움. 즉, 2018년도는 모든 응답자가 아동수당 수급자가 0인데 반해, 2019년은 모든 가구가

나. 주요 변수의 구성 및 정의

1) 종속변수 : 양육비용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양육비용으로, 크게 아동당 양육비용과 가구당 양육비용으로 구분된다. 또, 각각의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과 비목별 가구당 양육비용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가구 내 모든 자녀(초등이상 자녀 포함)에 대해 각각의 양육비용(아동당 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아동당 양육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당 양육비용을 산출한다. 양육비용의 실제 지출 시점은 조사일 기준 지난 3개월간의 소비를 월평균한 값이다.

양육비용은 식비(외식비 포함),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가족여행 등, 관람 체험학습, 완구, 도서구매 포함),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 (자녀)보험으로 구성된다. 가구 생활비 지출 비목에는 이 외에 주거/관리비(관리비및수도/광열비, 월세), 금융상품(저축및보험납입금 등), 이전지출, 기타상품및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포함되나, 이러한 비목의 지출은 양육비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고 아동의 소비액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육비용에서 제외하였다.

2) 아동수당 수급자 수

이 연구는 아동수당의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동수당 수급자 수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모든 표본이 아동수당 수급 가구에 해당하여 수급 여부는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수급자 수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시작 시점(5월)과 아동의 월령을 고려하여, 조사 당해연도 5월을 기준으로 아동별로 아동수당 수급 여부 변수를 생성하여, 수급자 수를 합산한 값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보육료,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영아수당 포함) 등은 조사 전년도 5월부터 조사 당해 4월까지의 수급 여부를 월별로 조사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의 경우 수급 경험 여부만을 한번 질문하고

아동수당 수급 가구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조군이 구성되지 않으며, 시차 변수와 공선성이 발생함.

있다. 이는 모든 가구가 아동수당 수급 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응답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아동별로 실질적인 수급 여부가 설문을 통해서는 파악이 어려우므로, 이 연구에서는 조사 시작 시점인 5월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 급 월령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수급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앞서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해를 거듭하며 점차 확대 되었으므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출생연월 또한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었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시작 시점이면서 양육비용 지출 시점에 맞춰 아동수당 수급 여부를 산출하기 위해, 조사 당해연도 5월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원 월령에 해당하는 출생연월을 정리해보면, 〈표 V-2-1〉과 같다. 즉, 이 연구에서 2 차년도(2019년) 아동수당 수급자는 2013년 4월 이후에 출생한 아동들이며, 아동수당 지원 월령이 확대된 3차년도(2020년)의 경우에도 아동수당 수급자는 2013년 4월 이후에 출생한 아동이다.

〈표	V-2-1>	2018~2023년	아동수당 제도	변화
----	--------	------------	---------	----

조사차수	조사년도	연도별 아동수당 지원 월령		KICCE 소비실태조사 아동수당 수급자 출생연월
2차년도	2019년	2019.1~2019. 8	71개월 이하	2013 4~2019 6
2시킨포	2019년	2019.9~2019.12	83개월 이하	2013.4~2019.0
3차년도	2020년	2020.1~2020.12	83개월 이하	2013.4~2020.6
4차년도	2021년	2021.1~2021.12	83개월 이하	2014.4~2021.6
5차년도	2022년	2022.1~2022.3	83개월 이하	2014 4~2022 6
5시인도	2022년	2022.4~2022.12	95개월 이하	2014.4~2022.0

주: 1) 'KICCE 소비실태조사' 아동수당 수급자 출생연월은 해당기간에 속한 아동을 아동수당 수급자로 간주함을 의미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신생아 표본은 조사 당해연도 상반기 출생아에 국한되므로, 조사 당해연도 7월 이후 출생아는 당해연도 조사 표본에 존재하지 않으며, 차년도 표본에 포함됨.

3) 가구 및 아동 특성

양육비용은 단순히 정부 지원금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가구 특성 및 아동 특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추정치의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구 및 아동 특성 변인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 포함된 설명변수(가구 및 아동 특성)는 맞벌이 가구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총 자녀 수, 총 가구원 수,

부모의 연령과 학력(base: 고졸이하), 지역규모(base: 대도시), 아동의 연령과 성별(남아=1) 등이다. 또한, 시차효과의 통제를 위해 조사 차수(후년도=1) 변수를 포함하였다. 한편, 이러한 가시적인 설명변수 이 외에도 본 연구는 패널 분석 모형을 활용하였으므로, 응답 가구의 미관측 이질성도 일정 부분 통제되어, 아동수당의 효과가 추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설명변수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나, 가구 소득은 양육비용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면서, 여러 개항목의 합산 값이므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소득을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코로나19 지원금, 사적이전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가구 소득은 이러한 소득 중에서 코로나19 지원금과 기타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아동수당 지원금을 뺀 금액이다. 코로나19 지원금과 기타소득을 가구소득에서 제외한 이유는 해당 소득이 매우 일시적이면서 큰 금액이며, 대상 가구가 적어, 이를 포함할 경우 가구소득의 효과가 교란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수당 지원금을 가구소득에서 뺀 이유는 이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아동수당 수급으로 인한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수당 수급액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분석 방법

패널 분석 모형은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하여 OLS 추정치에 비해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민인식·최필선, 2009: 2~3). 이 연구에서는 패널 분석 모형 중에서 임의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표본에서 한 개 연령씩이 더 이상조사되지 않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접하는 두 개 차끼리묶어서 각각에 대해 패널 분석을 적용하였다.

아동수당이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패널 모형을 적용할 때, 임의효과 모형 이외에도 고정효과 모형의 적용이 가능한데, 이 연구에서 고정효과 모형이 아닌 임의효과 모형을 적용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거의 없거나 일정한 변인(예: 아동의 성별, 아동 연령, 부모의 연령 및 학력 등)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전체 표본에 대한 효과 추정을 넘어, 분석 대상을 세분하거나 양육비용을 비목별로 구분하여 아동수당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몇몇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할 경우 수렴 확률이 매우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패널 개체 특성을 고려한 선형 회귀 모형을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라고 할때, 고정효과 모형은 u_i 를 추정해야 할 모수로 보는데 반해, 임의효과 모형은 이를확률 변수로 가정한다(민인식·최필선, 2009: $162 \sim 164$). 이 연구의 경우 아동당(총)양육비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기본 모형의 추정 결과를 기준으로 Hausman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에서 귀무가설이 1% 유의수준에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치가 임의효과 모형의 추정치에 비해서는 일치추정량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정치가 도출되지 않는 고정효과 모형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 모형의 전반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괄 임의효과 모형을적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임의효과 모형의 Breusch-Pagan LM (Lagrangian Multiplier) 검정 결과에서 p값은 모두 0.01보다 작아, 합동(pooled) OLS에 비해서는 임의효과 모형 추정치가 일치추정량을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아동수당의 양육비용 경감 효과

이 절에서는 양육비용 결정 요인과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의 양육비용 경감 효과는 크게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과 가구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분석 대상(표본)을 동일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예컨대, 총 자녀수가 2명인 가구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종속변수를 아동당 양육비용 총액이 아닌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으로 구분하여, 아동수당이 어떠한 비목에 보다 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아동당 및 가구당 양육비용 총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경우에는 모형에 투입된 설명변수 전체의 추정치를 제시하였으나, 분석 대상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추

정한 모형과 종속변수가 비목별 양육비용인 모형의 경우에는 가독성 제고를 위해 다른 설명변수의 추정결과를 생략하고 아동수당 수급자 수의 추정치만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모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분석 모형이 달라져도 다른 설명변수들의 효과는 크게 변동되지 않았으며 일관된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혀든다.

가. 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영유아 가구의 아동(자녀)당 양육비용에는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아동의 연령, 맞벌이 가구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총 자녀수, 부모의 학력수준, 지역규모 등 대부분의 가구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본고의 주요 관심 변수인 아동수당 수급자 수 또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자료의 조사 차수에 따라 유의도가 조금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경향성은 모든 차수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아동(자녀)당 양육비용이 증가하였으며,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보다 많은 양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아동당 양육비용도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양육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구 내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동당 양육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 내 한정된 자원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분배하여 양육해야 하는 다자녀 가구의 고충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한편 시차 효과의 경우 연결된 두 차수 중 후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1인데, 2~3차년도에는 음수, 3~4차년도와 4~5차년도 분석에서는 양수로 추정되었다. 즉, 2차년도(2019년)에 비해 3차년도(2020년)에는 아동당 양육비용이 감소하였으며, 4차년도(2021년)와 5차년도(2022년)에는 아동당 양육비용이 전년에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0년도가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최효미, 2023b).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많을수록 아동(자녀)당 양육비용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최근 차수로 올수록 계수 값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차(2019~2020년)의 경우 추정치가 3.878이었는데, 4~5차(2021~2022년)의 추정치는

7.082로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수당 수급자가 1명 많아질수록 아동당 양육비용은 4~5차(2021~2022년) 기준 7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수당 지원금은 아동의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 1인당 10만원이므로, 이상의 결과는 가구 내 정부지원금(아동수당)이 10만원 증가하면 아동당 양육비용이 7만원가량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영유아 가구들이 아동수당을 지원받아 아동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증가하였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지원금 전액을 전부 지출하지는 않았음을 내포하는 결과로, 아동수당 지원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3-1〉 영유아 가구의 아동(자녀)당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패널 임의효과 모형)

설명	· 변수	2-3차 (2019-2020)	3-4차 (2020-2021)	4-5차 (2021-2022)
아동 연령		3.217 ***	3.552 ***	4.274 ***
아동 성별		-0.298	0.670	-0.271
맞벌이 가구여부	부 (맞벌이=1)	4.112 ***	3.584 ***	1.970 *
월평균 가구소득	ŧ	0.039 ***	0.046 ***	0.051 ***
총 자녀 수		-17.037 ***	-21.862 ***	-21.104 ***
총 가구원 수		-1.327	3.546	2.213
모 연령		-0.135	-0.002	-0.001
부 연령		0.033	-0.000	0.000
모 학력	대졸	4.774 ***	3.186 ***	1.029
	대학원 이상	8.698 ***	9.183 ***	12.839 ***
부 학력	대졸	2.803 *	3.780 ***	3.114 *
	대학원이상	6.951 ***	6.953 ***	8.099 ***
지역규모	중소도시	-4.852 ***	−2.165 *	-2.592 **
	읍면지역	-0.358	0.414	-2.216
아동수당 수급자	다 수	3.878 ***	6.145 ***	7.082 ***
시차 (최근차수	=1)	-3.547 ***	5.502 ***	2.154 ***
상수		64.579 ***	45.846 ***	50.000 ***
N		6,082	6,215	5,893
ρ		0.400	0.486	0.486

주: 초등 이상 자녀의 양육비용까지를 포함하는 분석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19~2022' 원자료.

이하에서는 분석 집단을 다양한 조건으로 한정하여 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을 패널 임의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결과는 가독성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수급자 수의 계수 값과 유의

^{*} ρ < .1, ** ρ < .05, *** ρ < .01.

수준만을 발췌한 것이다65).

아동의 연령이 영아(0~3세66)인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아동수당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차수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아동의 연령이 유아(4~6세)인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모든 차수에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3~4차년도(2020~2021년) 자료 분석 결과에서 추정치는 10.247이었으며, 4~5차년도(2021~2022년) 자료 분석 결과 추정치는 10.006으로,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1단위(10만원) 증가하면, 유아 자녀의 양육비용이 거의 지원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을 초등1~2학년으로 한 경우 추정치는 2~3차년도(2019~2020년)에는 6.370, 3~4차년도(2020~2021년) 6.143으로 아동수당이 해당 연령의 아동당 양육비용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데 반해, 4~5차년도(2021~2022년)에는 유의미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2022년 4월부터 지원 대상이 83개월 이하 아동에서 95개월 이하 아동으로 확대되었는데, 5차년도(2022년)의 초등1~2학년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시기에 해당하는 연령 구간이다. 마지막으로 초등3학년 이상 자녀로 분석 대상으로 한정한 경우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초등3학년 이상은 분석 기간 전체에서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가 아닌 상황으로,가구 내 아동수당 수급액이 많아져도 이 비용이 초등3학년 이상 자녀의 양육비용으로 전용되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정리하자면, 영유아기 자녀들은 모두 아동수당 수급자인데, 가구 내 아동수당 수급액(수급자 수가 많은 경우)이 더 많다하더라도 영아 자녀의 아동당 양육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반해, 유아 자녀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수급액만큼 양육비용이증가하는 효과가 발견되었다. 한편, 초등1~2학년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액이 많은 경우에 양육비용이 다소 높은 경향이 발견되지만, 정작 초등1~2학년이 되어서도 아동수당 수급액을 받게 된 이후로 이러한 차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라 초등1~2학년의 경우 양육비용 투입에서의 격차가 감소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⁶⁵⁾ 기본적으로 각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분석 집단 구분에 따라 설명변수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가 일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아동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형의 경우(표 V-3-2에 해당하는 모형)는 아동의 연령이 설명변수에 포함되지 않음.

⁶⁶⁾ 이 장에서 사용하는 연령은 생활연령 기준임.

집단 특성 (아동 연령)	2-3차 (2019-2020)	3-4차 (2020-2021)	4-5차 (2021-2022)	
영아	1.579	1.229	2.054	
유아	5.714 ***	10.247 ***	10.006 ***	
초등1~2학년	6.370 **	6.143 **	4.673	
초등3학년이상	4.691	4.221	6.233	

〈표 V-3-2〉 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아동 연령 집단별

주: 월평균 가구소득, 총 자녀수, 총 가구원수, 부모 연령 및 학력, 지역규모, 시차더미 등을 함께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아동수당 수급자 수 변인만 발췌하여 제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2' 원자료.

분석 대상을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해 본 결과, 맞벌이 가구 뿐 아니라 외벌이 가구에서도 아동수당은 아동당 양육비용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육비용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2~3차년도(2019~2020년)을 제외하면, 외벌이 가구의 추정치계수 크기가 맞벌이 가구의 추정치계수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즉, 외벌이 가구의경우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많을수록 아동당 양육비용에 대한 지출이 보다 크게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외벌이 가구들이 아동수당 지원으로 소득이 증가함에따라 자녀를 위해 추가적으로 소비를 증가시켰음을 내포하는 결과로, 외벌이 가구아동의 양육비용이 맞벌이 가구 아동의 양육비용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과 비교할 때, 아동수당이 두 집단 간 양육비용 격차를 완화했음을 방증한다.

〈표 V-3-3〉 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맞벌이 여부별

집단 특성 (맞벌이 여부)	2-3차 (2019-2020)	3-4차 (2020-2021)	4-5차 (2021-2022)
맞벌이 가구	5.395 ***	5.465 ***	4.699 **
외벌이 가구	2.515 **	6.233 ***	8.418 ***

주: 월평균 가구소득, 총 자녀수, 총 가구원수, 부모 연령 및 학력, 지역규모, 시차더미 등을 함께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아동수당 수급자 수 변인만 발췌하여 제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2' 원자료.

양육비용에 매우 유의미하고도 강한 영향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진 가구소득 수 준별로 분석 대상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V-3-4〉와 같다. 아동수당은 가

^{**} ρ < .05, *** ρ < .01.

^{**} ρ < .05, *** ρ < .01.

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가구에서는 3~4차년도(2020~2021년)에만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을 뿐, 대체로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대로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경우에는 2~3차년도(2019~2020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4~5차년도(2021~2022년)에 아동당 양육비용 증가 효과가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서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아동수당이 가구소득이 적은 집단에서 그 효과성이 훨씬 크게 나타남을 시사하는결과로,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와 같은 현금성 지원의 확대가 아동에 대한 부족한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표 V-3-4〉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가구소득별

집단 특성 (기구소득)	2-3차 (2019-2020)	3-4차 (2020-2021)	4-5차 (2021-2022)
299만원 이하	1.115	5.948 *	12.187 **
300~399만원 이하	3.506 **	6.632 ***	6.488 ***
400~499만원 이하	5.514 ***	3.148 **	5.160 ***
500~599만원 이하	4.066 *	9.969 ***	9.540 ***
600만원 이상	3.928	4.367 *	5.072

주: 맞벌이여부, 총 자녀수, 총 가구원수, 부모 연령 및 학력, 지역규모, 시차더미 등을 함께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서 아동수당 수급자 수 변인만 발췌하여 제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2' 원자료.

가구내 총 자녀수67)에 따라서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2~3차년도(2019~2020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으나, 이후 차수에서는 약 7만원 가량의 증가 효과가 포착되었다. 총 자녀수가 2명인 집단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첫째 자녀가 아동수당 수급자인지 아닌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변수이다. 이는 첫째 자녀의 연령이 어려서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가구의 아동당 양육비용이 첫째자녀의 연령이 아동수당 수급 연령보다 많은 경우의 아동당 양육비용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통상 자녀의 연령의 높을수록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생각해볼 때, 첫째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 양육비

^{*} ρ < .1, ** ρ < .05, *** ρ < .01.

^{67) &#}x27;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아동수당 수급액은 모두 10만원으로 동일하므로, 자녀가 1명인 가구들만을 대상으로는 추정치가 도출되지 않음.

용이 더 높다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총 자녀수가 3명인 경우에는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1명 많아질 때마다 아동당 양육비용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총 자녀수가 2명일 때에 비해서는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5〉 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총 자녀수별

집단 특성 (총 자녀수)	2-3차 (2019-2020)	3-4차 (2020-2021)	4-5차 (2021-2022)
2명	1.951	7.225 ***	7.144 ***
3명 이상	3.443 ***	4.321 ***	6.121 ***

주: 1) 맞벌이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총 가구원수, 부모 연령 및 학력, 지역규모, 시차더미 등을 함께 적용하여 추정 한 결과에서 아동수당 수급자 수 변인만 발췌하여 제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2' 원자료.

*** p < .01.

한편, 종속변수를 아동당 양육비용(총액)이 아닌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비목에서 양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만, 보건/의료비와 교통비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보건/의료비와 교통비는 아동수당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영유아 가구에서 기본적인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비목으로 사료된다. 반면, 아동수당 수급자 수에 따라 아동당 양육비용이 가장큰 차이를 보인 비목은 교육/보육비로서, 영유아 가구들은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되면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여가/문화생활비와 기기/집기에 대한 투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비용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비의 경우에는 계수 값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4~5차년도(2021~2022년)에는 유의미한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보건/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식비의 경우에도 영유아 가구들이 필수재로 인지하여, 아동수당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정도의 식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내포한다.

²⁾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모두 1로 동일하므로 분석에서 제외. 단, 2-3차년도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자가 0인 경우(자녀가 2013년 1월~3월생인 경우) 65개 있음.

〈표 V-3-6〉 아동수당이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전체 자녀

비목 (종속변수)	2-3차 (2019-2020)	3-4차 (2020-2021)	4-5차 (2021-2022)
식비	0.567 **	1.021 ***	0.499
기기/집기	0.397 *	0.764 **	1.638 ***
피복비	0.362 ***	0.831 ***	0.839 ***
보건의료비	0.111	-0.068	0.020
교육보육비	1.367 **	3.252 ***	4.188 ***
여가문화생활비	0.830 **	1.218 ***	1.459 ***
교통비	0.047	0.051	0.088
통신비	-0.074 **	-0.213 ***	-0.248 ***
개인유지비	-0.134	-0.327 **	-0.615 ***
보험	0.487 ***	0.673 ***	0.460 **

주: 맞벌이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총 가구원수, 부모 연령 및 학력, 지역규모, 시차더미 등을 함께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아동수당 수급자 수 변인만 발췌하여 제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2' 원자료.

아동수당이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을 유아기 아동에 국한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4~5차년도(2021~2022년) 기준 교육/보육비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여가/문화생활비, 피복비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 대상으로 유아기 아동에 국한한 경우에 아동수당의 효과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아래 비목별로 아동수당의 효과를 접목하여 살펴보면 결국 유아기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을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 등에 보다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V-3-7〉 아동수당이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유아기 자녀

비목 (종속변수)	2-3차 (2019-2020)	3-4차 (2020-2021)	4-5차 (2021-2022)
식비	0.639	1.249 **	0.811
기기/집기	1.065 ***	0.954 *	0.816 *
피복비	0.557 ***	1.406 ***	1.172 ***
보건의료비	0.514 ***	0.571 **	0.310
교육보육비	1.211	4.188 ***	4.261 ***
여가문화생활비	0.717	1.743 ***	1.847 ***

^{*} ρ < .1, ** ρ < .05, *** ρ < .0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2' 원자료.

한편, 분석 집단을 초등 1~2학년 아동으로 국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초등 1~2학년까지 확대된 2022년 전후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비목이 오히려 더줄어든 현상이 발견되었다. 4~5차년도(2021~2022년)에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된 비목은 기기/집기가 유일하였다.

 $\langle \pm \ V-3-8 \rangle$ 아동수당이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초등 $1\sim2$ 학년 자녀

비목 (종속변수)	2-3차 (2019-2020)	3-4차 (2020-2021)	4-5차 (2021-2022)
식비	1.462 *	1.557 *	0.673
기기/집기	1.601 *	3.181 **	3.293 *
피복비	1.006 ***	0.490	0.306
보건의료비	0.642 **	-0.046	-0.336
교육보육비	-0.540	0.738	1.609
여가문화생활비	0.942	0.141	0.001
교통비	0.130	0.013	-0.014
통신비	0.120	0.241 *	0.092
개인유지비	0.486 ***	0.074 *	-0.116
보험	0.543	0.191	-0.576

주: 맞벌이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총 가구원수, 부모 연령 및 학력, 지역규모, 시차더미 등을 함께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아동수당 수급자 수 변인만 발췌하여 제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19~2022' 원자료.

주: 맞벌이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총 가구원수, 부모 연령 및 학력, 지역규모, 시차더미 등을 함께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아동수당 수급자 수 변인만 발췌하여 제시함.

^{*} ρ < .1, ** ρ < .05, *** ρ < .01.

^{*} p < .1, ** p < .05, *** p < .01.

나. 아동수당이 가구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이 절에서는 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이 아닌 가구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은 아동당 지원금이지만 실질적으로 가구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가구당 수급자 수이다. 따라서, 아동수당 수급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의 양육비용이 직접적으로 변동될 수도 있지만, 가구내 재분배를 통해 아동수당 수급자가 아닌 다른 아동의 양육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종속변수를 가구당 양육비용으로 하여, 아동수당이 가구당 양육비용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당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아동당 양육비용과 마찬 가지로,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가구당 양육비용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양육비용도 더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학력은 4~5차년도(2021~2021년) 기준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경우에 유의미하게 가구당 양육비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자녀수는 많을수록총 양육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아동당 양육비용의 경우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생각해볼 때, 다자녀 가구들은 아동당 투입 비용이 적지만 가구당 양육비용은 훨씬 크기 때문에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아동수당 수급자 수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한 명 늘어날수록 가구당 양육비용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결국 자녀의 연령 구성과 맞물린 변수68)라는 점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총 자녀수가 같더라도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다른 경우(예: 영유아 자녀가 2명인 가구와 초등 3학년이상 자녀한 명과 유아 자녀가 1명인 가구)에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많은 가구가 더 어린 연령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비용은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많을수록 가구당 양육비용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애초 좀 더 어린 연령의 자녀들이 있는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이 적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적다는 것은 연령이

⁶⁸⁾ 가구당 양육비용의 경우 가구 내 여러 명의 자녀가 있고,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아동의 연령과 상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설명변수로 아동 연령을 통제하지 않음.

높은 자녀가 가구 내 많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아동수당 수급 대상이 아닌 고연령의 자녀가 가구 내 존재하는 경우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구당 양육비용의 부담을 고려할 때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원이 좀 더 고연령의 자녀에게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엿볼수 있었다.

〈표 V-3-9〉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패널 임의효과 모형)

설명변수		2-3차 (2019-2020)	3-4차 (2020-2021)	4-5차 (2021-2022)
맞벌이 가구 여부(맞벌이 =1)		7.660 ***	7.895 ***	4.289 *
월평균 가구소득		0.076 ***	0.090 ***	0.102 ***
총 자녀 수		53.076 ***	51.268 ***	65.851 ***
총 가구원 수		-0.465	6.881	3.683
모 연령		0.212	-0.002	-0.003
부 연령		0.696 *	-0.001	0.000
모 학력	대졸	5.480 *	4.428 *	3.629
	대학원 이상	14.343 ***	14.685 ***	21.161 ***
부 학력	대졸	5.732 *	6.869 ***	3.585
	대학원이상	7.610	11.634 ***	11.567 *
지역규모	중소도시	-7.813 ***	-3.133	-4.834 *
	읍면지역	-0.251	0.493	-3.447
아동수당 수급자 수		-9.700 ***	-8.215 ***	-12.525 ***
시차 (최근차수=1)		-2.200	11.111 ***	8.915 ***
상수		-38.192 ***	-29.341 ***	-34.209 ***
N		3,311	3,368	3,437
ho		0.369	0.472	0.40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19~2022' 원자료.

한편, 종속변수를 비목별 가구당 양육비용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V -3-10〉과 같다. 비목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자 수(수급액)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교육/보육비와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은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피복비와 의료비, 개인유지비, 보험 등은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가구당 양육비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교육/보육비와 식비인데, 이 비목이 모두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적을수록 더 많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p < .1, ** p < .05, *** p < .01.

(m) 0 10/ 98 109 112 /110 84 189 112 88					
비목 (종속변수)	2-3차 3-4차 (2019-2020) (2020-2021)		4-5차 (2021-2022)		
식비	-1.638 **	-1.730 **	-1.982 ***		
기기/집기	1.059 **	0.917	0.716		
피복비	0.280	1.332 ***	0.800 **		
의료비	0.990 ***	1.037 **	1.407 *		
교육보육비	-11.833 ***	-12.681 ***	-16.120 ***		
여가문화생활비	0.114	1.158 *	1.154		
교통비	-0.405 ***	-0.381 ***	-0.352 ***		
통신비	-1.178 ***	-1.574 ***	-1.670 ***		
개인유지비	1.964 ***	2.292 ***	2.052 ***		
보험	0.987 **	1.239 ***	0.935 **		

〈표 V-3-10〉 아동수당이 비목별 가구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2' 원자료.

4. 소결

V장에서는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구의 아동(자녀)당 양육비용은 아동의 연령, 맞벌이 가구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총자녀수, 부모의 학력수준, 지역규모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아동수당 수급자 수(수급액)가 많을수록 아동당 양육비용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포착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의 지원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분석 대상을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 유아, 초등 1~2학년, 초등3학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아동수당은 유아기 아동의 아동당 양육비용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영아기 아동이나 초등 3학년 이상 아동의 아동당 양육비용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아동수당은 맞벌이 가구 여부 뿐 아니라 외벌이 가구의 아동당 양육비용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맞벌이 가구에 비해 외벌이 가구에서 그 효과

주: 맞벌이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총 가구원수, 부모 연령 및 학력, 지역규모, 시차더미 등을 함께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아동수당 수급자 수 변인만 발췌하여 제시함.

^{*} ρ < .1, ** ρ < .05, *** ρ < .01.

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벌이 가구들이 아동수당 지원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소비를 더 많이 증가시켰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아동수당 지원이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양육비용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가구소득 구간별로 분석 대상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경우 아동수당의 효과가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경우 2~3차년도(2019~2020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4~5차년도(2021~2022년)에는 아동당 양육비용 증가 효과가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서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 가구들은 아동수당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아동수당 지원이 없을 경우 저소득 가구들은 자녀를 위해 원하는 수준의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큼을 내포한다.

여섯째, 자녀가 2명인 경우 2~3차년도(2019~2020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으나, 이후 차수의 분석 결과에서는 아동수당이 아동당 양육비용을 약 7만원가량이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아동수당 지원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아동수당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일곱째, 종속변수가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인 모형의 추정 결과, 대부분의 비목에서 양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만 보건/의료비와 교통비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아동수당 수급자 수에 따라 아동당 양육비용이 가장큰 차이를 보인 비목은 교육/보육비로서, 영유아 가구들은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되면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여덟째, 가구당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도 아동당 양육비용과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아동당 양육비용과 달리 총 자녀수는 많을수록 가구당 양육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한 명 늘어날수록 가구당 양육비용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꾸로 아동수당 수급

대상이 아닌 고연령의 자녀가 가구 내 존재하는 경우(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적을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원이 좀 더 고연령의 자녀에게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엿볼 수있었다.

VI

코로나 확산기에 자녀 돌봄 서비스의 가용성이 영유아 양육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 01 연구 필요성
- 02 코로나 확산 시기에 보육정책
- 03 모형과 자료
- 04 추정 결과
- 05 소결

Ⅵ. 코로나 확산기에 자녀 돌봄 서비스의 가용성이 영유아 양육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1. 연구 필요성

이전의 경제 위기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고용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었다(Albanesi, S., 2019; Perry, M. J., 2010). 하지만, 전기택·배진경(2020)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2월 대비 4월의 여성 고용률 및 취업자 수 감소 폭이 남성의 1.5배에 달하였다. 기존 경제 위기 때와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동안 고용 충격은 남성보다 여성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던 이유 중 하나로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자녀 돌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하나의 원인으로 제기되었다(전기택·배진경, 2020; 김지연, 2021; Alon, T., Doepke, M., Olmstead-Rumsey, J. et al., 2020a; Albanesi & Kim 2021; 백지선· 박우람, 2022; 김현희·김병권·우석진, 2023).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자녀 돌봄을 위한 양육시설의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양육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었다. 가구 내의 자녀 돌봄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모의 노동 공급을 감소시켰을 수 있을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김지연, 2021; Alon, T., Doepke, M., Olmstead-Rumsey, J. et al., 2020b; Albanesi & Kim, 2021).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기의 자녀 돌봄 서비스가 영유아 양육모의 노동공급에 직접 영향을 준 경로를 다룬 연구는 없어 보인다. 이전의 연구들은 양육모의 노동공급이 감소한 메카니즘으로서 자녀 돌봄을 지적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 예컨대, Zamarro & Prados(2021)에 따르면, 미국 CPS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3월과 7월까지의 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 확률과 비고용 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성별, 학

력, 학교 진학 자녀 유무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추정하였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3월만을 보았을 때 유자녀 대졸 여성의 노동시간이 17.4% 감소하였다. 전 기간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도 양육모가 주 양육자가 될확률이 17% 더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시간 감소와 고용상태변화는 어머니 자녀 양육 부담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론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기인 2020년에 지역별 어린이집에 대한 자녀 돌봄 서비스의 가용 정도의 차이로 인해 영유아 부모의 노동공급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2019년, 2020년 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소비실태조사의 패널구조를 이용하여 양육모의 미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함으로써 기존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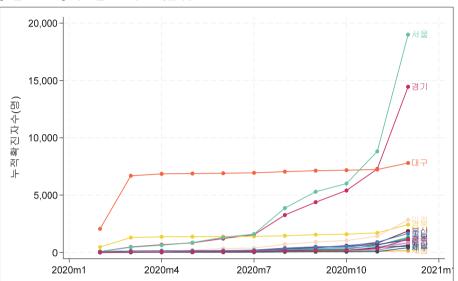
이중차분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라는 경제 및 감염 병 확산 위기의 순간에는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비국공립 어립이집69이 많을수록 코로나19가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2. 코로나 확산 시기에 보육정책

가. 코로나의 확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한 것은 2020년 1월 20일로 기록되고 있다(김아름·박은영, 2020: 22). 2월에 접어들면서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확산의 문제를 넘어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2월말부터 감염병 확산 위험을 우려하여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이에, 경제주체들의 거리두기가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이 빠르게 수축하기 시작했다. [그림 VI-2-1]은 시도별로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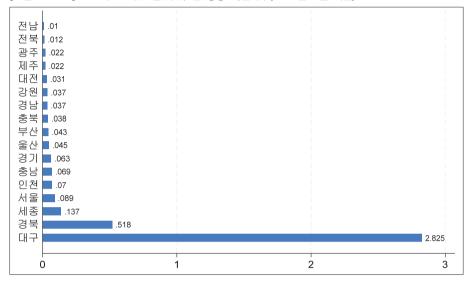
⁶⁹⁾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현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원. 비국공립에는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포함됨.



[그림 VI-2-1] 시·도별 코로나19 확진자수

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I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하여 분석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하지만 [그림 VI-2-1]은 지역별 절대 확진자수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당연히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 규모로 정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점은 2020년도 5월을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발생률을 [그림 VI-2-2]에 제시하였다. [그림 VI-2-2]에 따르면, 대구 2.83명, 경북 0.52명, 세종 0.14명, 서울 0.09명 등이었다. 초기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빨랐던 대구, 경북이 높았던 반면, 전라도와 제주 지역은 인구 천 명당 발생률이 비교적 적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영유아 양육모의 노동공급 결정과 코로나19 확산은 비교적 외생적이며, 지역별 변이가 크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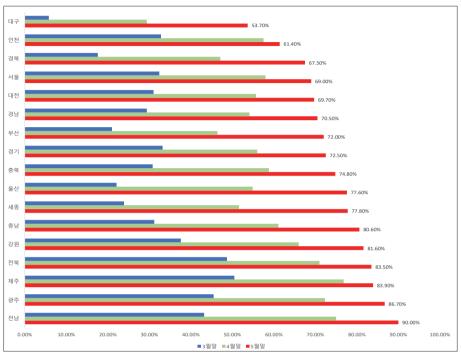


[그림 VI-2-2] 코로나19 시·도별 누적 천 명당 확진자수(2020년 5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I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하여 분석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조치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따라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020년 2월 23일 '심각'단계로 격상하였다(김아름·박은영, 2020: 22). 이에 따른 조치로 2월 27일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 조치를 취하였다(김아름·박은영, 2020: 41). 보조적인 조치로 정부는 보육 수요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였다(김아름·박은영, 2020: 41). 긴급보육은 어린이집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VI-2-3] 긴급보육 이용률(2020년 5월 기준)

자료: 김아름·박은영(2020).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 백서. 육아정책연구소. p.57, 〈표 IV-1-2〉의 내용을 활용 하여 그림으로 나타냄.

긴급보육의 사용 양태는 지역별로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던 3월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주는 50.5%, 전북 48.7%인데 반해, 코로나 확산의 중심지였던 대구는 5.8%, 경북은 17.6%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5월말이 되면서 대구는 53.7%로 올라왔고, 경북도 67.5%까지 올라왔고, 전남은 90.0%, 광주는 86.7%까지 올라왔다(김아름·박은영, 2020: 57).

자녀 돌봄 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는 지속적으로 학습지원과 건강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왔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방안을 제공하였다. 2020년 5월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8월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다시 격상되었다(김아름·박은영, 2020: 39-45). 어린이집에서는 가급적 가정돌봄 하는 것과 필요시에만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였다(김아름·박은영, 2020: 42).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고 그에 따른 감염병 예방 지침이 제공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기별로 변동을 거듭해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I-2-1〉에 제시되어 있다.

〈표 VI-2-1〉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보육정책

날짜	요약	내용		
2020.2.3.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 1판 배포,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안내	01.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마련, 어린이집 운영 지원 조치		
2020.2.2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긴급보육실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질병에 취약한 영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02.27 부터 03.08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 를 위해 긴급보육 실시		
2020.3.5, ~2020.3.31.	전국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	당초 예고된 휴원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 재개 원 시기 추후 결정		
2020.6.1.	전국 어린이집 휴원 해제	전국 단위 휴원 해제, 지자체별 휴원 결정 방식으로 전환		
2020.8.2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국 2단계로 격상, 어린이집 이용 자제 안내 가정통신문 공문	어린이집 휴원 시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 이집 이용자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날과 필요한 시간으로 제한 등		
2020.8.30.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강화된 2단계(2.5단계) 격상	좌동		
2020.9.7.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 격상	좌동		
2020.10.12.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1단계로 복귀	사회적 거리두기 격하에 따라 휴원 권고 조치에 서 정상등원으로 변경		
2020.11.11, ~2020.12.2.	코로나19 대응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시행(11.07) 「코로나19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발표(11.27)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 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2020.12.1.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격상	좌동		
2020.12.8.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	좌동		
2020.12.15.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격하	좌동		

자료: 1) 김아름·박은영(2020).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 백서. 육아정책연구소. pp.39-45, 〈표 Ⅲ-2-1〉, 〈표 Ⅲ-2-2〉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2) 보건복지부(2020. 10.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I판.
- 3) 보건복지부(2020. 11.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시1판.
- 4) 보건복지부(2021. 4.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판.
- 5)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연혁(2022), https://www.data.go.kr/data/15106451/fileData.do (인출일: 2023. 10. 15.)
- 6) 김현희·김병권·우석진(2023). 코로나19 확산이 영유아가구 부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패널 자료로부터의 증거. p.7. 〈표 2〉에서 재인용.

2020년 2월 27일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였다(김아름·박은영, 2020: 41). 동년 6월 1일부터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이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지자체별 휴원 결정 방식으로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자제를 권고하였다(김아름·박은영, 2020: 42). 10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지침이 휴원 권고에서 정상 등원으로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10. 13.).

중앙정부는 자녀 돌봄 서비스 정책의 변화 외에 돌봄 관련 재정지원도 하였다. 2020 년 3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5차례에 걸쳐 지원됐는데, 그 중 휴원·휴교로 가중된 양육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돌봄과 유연근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였다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21. 4. 1.)70). 구체적인 내용은 〈표 VI-2-2〉와 같다.

〈표 VI-2-2〉 코로나19 대응 재정 돌봄부담가구 지원 현황

ī	분	2020년도 1차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4차 추경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1년도 추경 (맞춤형 피해대책포함)
		(2020.3.17.)	(2020.4.30.)	(2020.7.3.)	(2020.9.22.)	(2020.12.29.)	(2021.3.25.)
4	램 무 나	특별돌봄 쿠폰 1.1조원, 263만명 양육부담 경감 0.05조원, 15만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14.3조원 (국비12.2 조원), 2,274만 가구		아동특별돌봄 (1인당20만원) 1.1조원, 532만명 비대면학습지 원,돌봄휴가 등 0.3조원, 138만명	가족친화제도, 아이돌봄 등 0.2조원, 51만명	가족돌봄휴가, 아이돌봄 등 0.15조원, 19만명 장애인원격수업 , 긴급돌봄 0.02조원, 2만명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1. 4. 1.).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p. 8. 별첨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양육모의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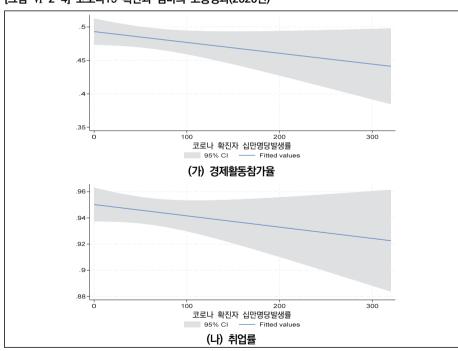
양육모의 노동시장 성과는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다. 여기서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영유아 양육모 중에서 취업을 하였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던 양육모의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또 하나의 노동시장 성과지표는 취업

⁷⁰⁾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1. 4. 1.).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p. 8. 별첨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률, 즉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양육모 중에서 취업을 하고 있거나 휴직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급이든 무급이든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함이다.

-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 혹은 구직활동 중 양육모/전체 양육모
- 취업률 = 취업 혹은 휴직 양육모/경제활동참가 양육모

[그림 VI-2-4]의 (가)는 코로나19의 확진 정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를, (나)는 취업률을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영유아 양육모의 노동시장 성과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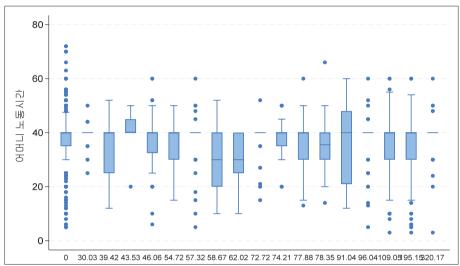


[그림 VI-2-4] 코로나19 확산과 엄마의 고용성과(2020년)

자료: 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 /rest/Covid19/getCovid19SidoI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하여 분석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0' 원자료.

위의 노동시장 성과지표들이 외적 한계(extensive margin)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노동시간은 내적 한계(intensive margin)에서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VI-2-5]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의 노동시간 간의 관계를 박스-플롯을 이용해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아서는 코로나19 확산과 노동시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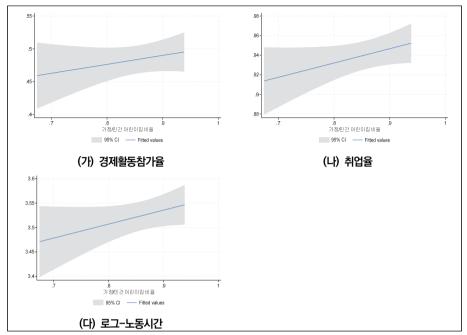


[그림 VI-2-5] 코로나19 확산과 엄마의 노동시간(2020년)

자료: 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 /rest/Covid19/getCovid19SidoI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하여 분석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0' 원자료.

이번에는 총어린이집 현원 대비 비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비율(이하 비국공립 현원 비율)과 영유아 양육모의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관계를 선형확률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비국공립 현원 비율은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중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어린이의 비율을 나타낸다. 비국공립 현원 비율과 양육모의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는 아래 [그림 VI-2-6]에 제시되어 있다. 비국공립 현원 비율이 높을수록 양육모의 노동시장 성과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비국공립 현원 비율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양육모의 경우 경제활동참가, 취업률, 노동시간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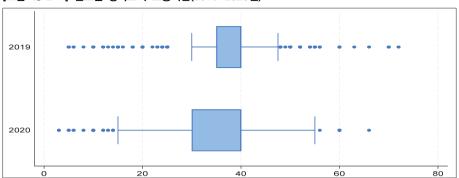
[그림 VI-2-6] 비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비율과 모의 고용성과(2020년)

자료: 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 /rest/Covid19/getCovid19SidoI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하여 분석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0' 원자료.

앞에서 살펴 본 관계들은 2020년의 횡단면 관계들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지역별 보육서비스 가용성은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시장 성과가 좋은 도시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동시에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져 우연히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노동시장 성과와 음의 상관관계가 관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도시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다는 비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아, 비국공립 현원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교락 효과를 적절히통제하면서 코로나19 확산과 자녀 돌봄의 가용성 여부가 양육모의 노동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횡단면 자료가 아니라 패널 자료가 필요하다.

[그림 VI-2-7]은 연도별 노동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과 확산 이후인 2020년의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노동시간이 줄 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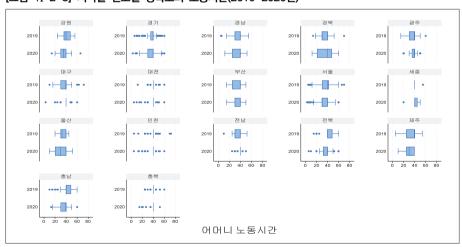


[그림 VI-2-7] 연도별 양육모의 노동시간(2019-2020년)

자료: 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 /rest/Covid19/getCovid19SidoI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하여 분석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0' 원자료.

[그림 VI-2-8]은 지역별 연도별 양육모의 노동시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양육모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 단계에서 과연 이 지역별 편차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 VI-2-8] 지역별 연도별 양육모의 노동시간(2019-2020년)

자료: 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 /rest/Covid19/getCovid19SidoI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하여 분석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0' 원자료.

3. 모형과 자료

가. 코로나 확산과 노동시장

반복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section data)만 있을 때에는 개별 양육모의 미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회귀모형 내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구축한 소비실태조사는 패널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양육모의 고정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모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모의 노동공급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횡단면 자료에서는 유사한 양육모와의 비교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의 효과가 식별된다. 이 경우 관측된 변수를 이용 가능한 수준에 최대한 많이 통제한다고 해도 미관측 이질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근본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 반면, 패널 자료에서는 동일한 양육모를 반복적으로 관측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동일 양육모의 노동공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코로나19 확산기에 자녀 돌봄의 가용 정도가 양육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중차분추정모형(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을 설정하였다. i는 개별 양육모, j는 지역, t는 시점을 의미한다.

$$y_{i,j,t} = \alpha + \beta Covid_{j,t} + \delta Covid_{j,t} \times Care_{j,t} + \gamma' Z_{i,j,t} + \lambda_i + \lambda_t + \epsilon_{i,j,t} \quad (1)$$

- $y_{i,i,t}$: 노동시장 성과
- $Covid_{j,t}$: j지역의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Care_{j,t}$: j지역의 t시점의 돌봄 서비스의 가용성
- $Z_{i,j,t}$: 엄마 및 가구의 특성
 - λ_i : 여성 고정효과
- λ_t : 시점 고정효과
- $\epsilon_{i,i,t}$: 미관측 이질성

위 모형 중에서 처리변수(treatment variable)인 지역별 연도별 코로나19 확산의 강도는 양육모의 노동공급과는 외생적인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 양육모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구별 미관측 이질성이 코로나19의 확산에 집계변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관측 이질성과 어떤 지역에 사는지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λ_i 와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존재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의 강도는 실제 추정에서는 연말에 측정한 1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수를 이용하였다.

이중차분추정을 위한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구별 고정효과 λ_i 외에 시점별 고정효과 λ_t 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기본 모형 외에 가구별 특성을 통제하는 모형에서는 총 자녀수, 가구소득, 엄마의 취업 여부 등을 통제하였다.

나.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기에 아이 돌봄이 영유아가구 양육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KICCE) 소비실태조사 2~3차 조사를 사용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센터'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별 발생 현황을, 어린이집 실태는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보건복지부, 2020b, 보육통계).

육아정책연구소 소비실태조사는 2018년부터 매년 5월에 시행되고 있는 패널조사이다. 이 조사에는 영유아 가구의 가구 소득, 응답자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자녀의 수, 연령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조사에서 정의한 영유아는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의 아동으로, 초등 학령기 아동이 분석 대상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표 VI-3-1〉요약통계량

78	조사연도				
· 구분 	2019	2020	계		
N	1,902 (46.9%)	2,156 (53.1%)	4,058 (100.0%)		
경제활동 참가 (취업, 휴직, 구직중이면 1 아니면 0)	0.483 (0.500)	0.484 (0.500)	0.484 (0.500)		

78	조사연도				
· 구분	2019 2020		계		
취업/휴직 (경제활동 참가중이면서 취업/휴직중이면 1, 구직중이면 0)	0.951 (0.216)	0.940 (0.237)	0.945 (0.227)		
로그-양육모 노동시간	3.587 (0.445)	3.524 (0.421)	3.557 (0.434)		
양육모 연령	36.668 (4.416)	37.205 (4.512)	36.954 (4.475)		
고졸 이하=1	0.213 (0.409)	0.215 (0.411)	0.214 (0.410)		
로그-배우자 근로소득	5.876 (0.351)	5.835 (0.364)	5.854 (0.35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0' 원자료.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구성과 가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시설에 있어서의 비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정원에 있어서의 비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사용하였다. 현황은 〈표 VI-3-2〉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Ⅵ-3-2〉 비국공립 어린이집 사용 현황

지역	비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비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비율	비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비율
강원	0.882	0.835	0.828
경기	0.908	0.85	0.838
경남	0.911	0.865	0.855
경북	0.906	0.892	0.884
광주	0.936	0.921	0.912
대구	0.875	0.872	0.853
대전	0.948	0.915	0.908
부산	0.868	0.812	0.8
서울	0.69	0.604	0.583
세종	0.821	0.807	0.799
울산	0.9	0.884	0.872
인천	0.888	0.852	0.843
전남	0.857	0.849	0.839
전북	0.925	0.901	0.893
제주	0.92	0.917	0.913
충남	0.923	0.909	0.903
충북	0.914	0.89	0.884

자료: 보건복지부(2020b). 보육통계.

4. 추정 결과

모형(1)에 대한 기준모형으로서, OLS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VI-4-1〉에 제시되어 있다. 기준모형 OLS에서는 양육모 고정효과, 지역 고정효과 등을 제외하였다. 〈표 VI-4-1〉의 OLS 추정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는 경제활동, 취업률, 노동시간을 모두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형(2) 취업률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은 경제활동참가 여부나 노동시간을 유의하게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하던 여성의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비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대체로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코로나19로 영유아 양육모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기는 하지만 비국공립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는 그정도를 상쇄하고 있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역시 취업율의 경우였다.

〈표 Ⅵ-4-1〉 OLS 기준모형 추정결과

		종속변수	
항목	(1)	(2)	(3)
	경제활동	취업률	노동시간
코로나19 십만명명당 발생률	-0.000599	-0.00180**	-0.00130
고도네요 비단이어의 되었다	(0.00118)	(0.000747)	(0.00147)
크리 나바새로 > 비구고리어리이지 비유	0.000397	0.00209**	0.00150
코로나 발생률×비국공립어린이집 비율	(0.00149)	(0.000941)	(0.00184)
양육모 연령	0.0539	0.0131	0.00230
8폭포 한영	(0.0476)	(0.0284)	(0.0538)
양육모 연령 제곱	-0.000650	-0.000188	-2.76e-05
양퓩모 인당 세급	(0.000591)	(0.000352)	(0.000669)
이렇게 고도 이렇다	-2.81e-05	0.000447	0.0139
양육모 고졸 이하	(0.0364)	(0.0222)	(0.0412)
로그-양육부 소득	-0.236***	-9.08e-05	-0.0130
도그-8폭구 꼬득	(0.0394)	(0.0244)	(0.0454)
人とIJT 素	-0.0156	-0.00105	-0.0120
총자녀수	(0.0221)	(0.0135)	(0.0253)
사스	0.863	0.735	3.602***
상수 	(0.975)	(0.584)	(1.102)
관측치	1,161	621	560
R-squared	0.034	0.013	0.002
Adj-R2	0.0281	0.00128	-0.0103

주: 괄호안에 표준오차가 제시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19~2020' 원자료.

^{*} $p \langle .1, ** p \langle .05, *** p \langle .01.$

〈표 VI-4-1〉의 기준모형 OLS의 경우는 횡단면적 변이(variation)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인과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룹내 변이 (within-group variation)을 이용한 패널모형 추정 중, 돌봄 서비스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기준 패널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는 〈표 VI-4-2〉에 제시되어 있다. 2 개년 패널 모형의 경우, 횡단면 모형보다 변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효과의 방향은 유사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표 Ⅵ-4-2〉 기준 패널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종속변수	
항목	(1)	(2)	(3)
	경제활동	취업률	노동시간
코로나19 십만명명당 발생률	-0.000391	-3.54e-05	-0.000407
고도니!》 다단하여 보증할	(0.000249)	(0.000273)	(0.000367)
아이 여러	0.258	-0.201	0.444*
8폭포 한명	양육모 연령 (0.195) -0.00254 (0.00242)	(0.214)	(0.264)
아이지 여러 제고	-0.00254	0.00195	-0.00527
양육모 연령 제곱 (0.00242)	(0.00266)	(0.00329)	
야이 그족 이렇	-0.299	-0.0609	0.0169
양육모 고졸 이하	(0.208)	(0.176)	(0.210)
27 0tOH AE	-0.113**	-0.0297	-0.0481
로그-양육부 소득 (0.055	(0.0555)	(0.0581)	(0.0731)
えいイ人	-0.00673	-0.202	-0.00331
총자녀수	(0.161)	(0.125)	(0.210)
상수	-4.888	6.353	-5.142
őт	(4.025)	(4.352)	(5.390)
관측치	1,161	621	560
R-squared	0.029	0.062	0.082
양육모 수	765	441	408
지역 고정효과	Yes	Yes	Yes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주: 괄호안에 표준오차가 제시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0' 원자료.

비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한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는 〈표 VI -4-3〉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 결과는 질적으로는 OLS 모형 추정 결과인 〈표 VI -4-1〉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OLS 모형 추정결과 보다 컸다. 즉, 코로나19의 확산은 경제활동참가와 노동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 $\rho \langle .1, ** \rho \langle .05, *** \rho \langle .01.$

주지는 않았지만, 취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비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히 완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실업으로 갈 가능성을 낮추고, 일을계속하거나 휴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에 비국공립어린이집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4-3〉 패널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종속변수	
항목	(1)	(2)	(3)
	경제활동	취업률	노동시간
크리 네이 시마면면다바새로	-0.000959	-0.00261**	-0.00128
코로나19 십만명명당발생률	(0.00121)	(0.00129)	(0.00176)
크리 나 바새로 사비그고리어리이지 비오	0.000744	0.00338**	0.00114
코로나 발생률×비국공립어린이집 비율	(0.00154)	(0.00165)	(0.00225)
아이지 어려	0.246	-0.226	0.435
양육모 연령	(0.197)	(0.212)	(0.265)
양육모 연령 제곱	-0.00246	0.00194	-0.00527
3퓩 <u>포 한</u> 경 세급	(0.00243)	(0.00263)	(0.00330)
양육모 고졸 이하	-0.296	-0.0378	0.0244
임료도 고들 이야	(0.208)	(0.175)	(0.211)
27 0tOH AE	-0.111**	-0.0312	-0.0492
로그-양육부 소득	(0.0557)	(0.0576)	(0.0733)
총자녀수	-0.00737	-0.185	-0.00384
증시니ㅜ	(0.162)	(0.124)	(0.210)
상수	-4.549	7.374*	-4.784
ÖT	(4.090)	(4.341)	(5.450)
관측치	1,161	621	560
R-squared	0.029	0.084	0.084
양육모수	765	441	408
지역 고정효과	Yes	Yes	Yes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주: 괄호안에 표준오차가 제시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0' 원자료.

비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측정하는 다양한 측도를 사용하여 추정 결과를 강건 성을 점검하였다. 비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비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비율, 비국공 립 어린이집 정원 비율, 어린이집 정원 비율 등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VI

^{*} $\rho \langle .1, ** \rho \langle .05, *** \rho \langle .01.$

-4-4〉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1)-(3)의 결과는 질적이나 양적으로 유사하였고, 어린이집 정원은 오히려 반대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Ⅵ-4-4〉 패널 모형 강건성 검정

	종속변수: 취업률					
	(1)	(2)	(3)	(4)		
항목	비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비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비율	비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비율	어린이집 정원 비율		
코로나19 십만명명당발생률	-0.00261**	-0.00170*	-0.00178*	0.000240		
TT-110 BC000505	(0.00129)	(0.000882)	(0.000935)	(0.00338)		
코로나19×비국공립 비율	0.00338**					
71-110W-170B-12	(0.00165)					
코로나19×비국공립 현원 비율		0.00236**				
		(0.00119)				
코로나19×비국공립 정원 비율			0.00239*			
			(0.00122)			
코로나19×어린이집 정원 비율				-0.000571		
				(0.00697)		
관측치	621	621	621	621		
R-squared	0.084	0.083	0.082	0.062		
양육모수	441	441	441	441		
통제변수	Yes	Yes	Yes	Yes		
지역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주: 괄호안에 표준오차가 제시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0' 원자료.

5. 소결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모가 코로나19 확산기의 노동공급 결정을 할 때 자녀 돌봄 서비스의 가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추정하였다. 인과적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 육아정책연구소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019년 (2차년도)~2020년(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이중차분추정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라 비국공립 어린이집의 가용성이 높을수록 코로나19 확산이 양육모의 취업률을 악화시키는 부(-)의 효과를 낮추

^{*} p \langle .1, ** p \langle .05, *** p \langle .01.

는 경향이 있었다.

위기의 순간에 비국공립 어린이집이 양육모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통상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보인다. 보통은 위기의 순간에는 민간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 결과가 나온 것은 다소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위기시에는 경직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국공립보다는 영유아 양육모에게 접근성이 좋은 비국공립어린이집이 돌봄 제공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돌봄도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양육모의 노동공급 결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분석 대상이 만 0~7세로 일부 초등학령기 아동 표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유치원 현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어린이집 현원만으로 보육서비스 가용성을 측정했다는 점 등은 추후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을 하여 자녀 돌봄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가용 여부를 연말에서 측정한지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시작한 2020년 3~5월 사이에 어린이집의 가용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를 구축하여 사용한다면 좀 더 정확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artIV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

- 01 'KICCE 소비실태조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
- 02 심층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언

Ⅷ.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기초연구 과제로서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의 구축이 가장 주된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함께 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해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등을 통해 자료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VII장은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으로, 논의의 편의상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품질 제고와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과 심층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KICCE 소비실태조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

향후 'KICCE 소비실태조사' 실사 및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을 추진 일 정에 따라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표 Ⅶ-1-1〉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및 추진 일정(안)

구분	2023년 (6차년도)	2024년 (7차년도)	2025년 (8차년도)
데이터 관리	영유아 가중치추가 산출가중치 산출방식 개선		
실사 관련		- 조사 방식 다양화 (web 조사 도입) 검토	- 조사방식 변경 실험 설계 및 시범 조사 실시
표본 관리		- 맞벌이 가구 할당 비율 조정 검토 - 표본 관련 심층 분석 실시	- 부스터 표본 변경 (비정규직부모→ 저소득가구) 검토

주: 1) 2023년(6차년도) 개선 과제는 2012년 12월말 기준 완료 과제로, 실적에 해당하는 개선 과제임.

²⁾ 추진 일정(안)은 연구 예산 및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가. 영유아 가중치 추가 산출 및 가중치 산출 방식 개선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아동용 설문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므로, 해마다 조사되는 아동의 수가 조금씩 상이하다. 아동의 연령별로는 0세(당해년도 신생아)의 비중이 해마다 5~7%로 가장 적고, 6세 유아의 비중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 구축 원칙이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 조사이다보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손위 자녀가 있는 자녀로 인한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출 결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매해 각 연령별 아동(인구) 수를 고려하여, 아동용 데이터에 가중치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구축 방식이 가구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가구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구 가중치의 기준이 되는 모집단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각 연령별 아동(인구) 수는 모집단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여 조사 결과를 산출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5차년도)' 영유아 데이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령별 영유아 비중을 산출해보면, 0세가 10.6%, 1세가 11.5% 등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현황의 비중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자료가보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아동용 데이터에 수록된 가중치의 경우 당해연도 조사 표본 전체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몇몇 차수의 자료는 영유아 표본만을 추출하여 분석할 경우 모수(전체 표본 수)가 달라지는 등 미묘하게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KICCE 소비실태조사' 2019년(2차년도)~2021년(4차년도) 조사의 경우 본조사의 아동용설문 조사 표본이 영유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초등학령기 아동을 포함하고 있었다. 2019년(2차년도)에는 초등1학년까지 아동용설문71)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20년(3차년도)에는 초등2학년 아동까지, 2021년(4차년도)에는 초등1학년 아동까지를 아동용설문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들 차수의 'KICCE 소비실태조사' 아동용 데이터 가중치는 조사 대상 표본 전체(초등 아동 표본 포함)를 기준으로 아

⁷¹⁾ 초등학령기 아동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해에는 아동용 설문의 종류가 2종으로, 영유아용 설문과 초등 아동용 설문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동 가중치를 산출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영유아 표본을 추출하면 전체 표본 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올해 연구에서는 영유아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유아 가중치를 추가적으로 산출하여 데이터에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2021년 이전까지 데이터에서 0세(출생당해)의 표본이 상반기에만 국한된 문제를 가중치가 보정하지 못하는 한계도 함께 보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1년(1차년도~4차년도) 아동 데이터의 가중치를 연령별(0세 포함) 영유아 수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재산출하여 보정하였으며, 2019~2021년(2차년도~4차년도) 데이터의 가중치는 전체 아동 기준 가중치에 더하여 영유아 가중치를 추가 산출하여 생성하였다. 72) 이를 통해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의 정합성 및 표본 대표성(신뢰도)이 좀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산출된 영유아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 수 및 연령별 영유아비중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Ⅶ-1-2〉 연령별 영유아 비중 : 신구 가중치 적용 시 변화

단위: %, (명)

구분		KICCE 소비실태조사							
		6세	5세	4세	3세	2세	1세	0세	전체
 2018년	기존 가중치 적용	17.9	16.1	16.0	16.2	15.0	12.6	6.3	(2,277)
(1차년도)	신규 가중치 적용	16.8	15.2	15.1	15.2	14.1	11.8	11.8	(2,277)
2019년	기존 가중치 적용	17.2	17.1	17.2	16.0	14.0	12.3	6.2	(2,333)
(2차년도)	신규 가중치 적용	16.2	16.1	16.2	15.1	13.3	11.7	11.6	(2,324)
2020년	기존 가중치 적용	18.0	18.3	17.0	14.9	13.6	12.2	6.0	(2,369)
(3차년도)	신규 가중치 적용	17.1	17.2	16.0	14.1	12.8	11.4	11.4	(2,368)
 2021년	기존 가중치 적용	19.7	18.3	16.1	14.7	13.5	11.7	5.9	(2,371)
(4차년도)	신규 가중치 적용	18.6	17.3	15.2	13.9	12.7	11.1	11.1	(2,401)
2022년	기존 가중치 적용	18.6	17.3	15.3	13.9	12.8	11.5	10.6	(2,393)
(5차년도)	신규 가중치 적용	18.8	16.6	15.1	14.0	12.5	11.6	11.5	(2,393)

주: 전체는 0세-6세 영유아 수를 합산한 값이며, 연령별 비중은 각 연령별 아동수/ 전체 아동수*100으로 산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2'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72) 2018}년(1차년도)와 2022년(5차년도)는 조사 대상이 영유아에 국한되어 있어, 전체 표본 가중치와 영유아 가중치가 완전히 동일한 변수임. 단, 다른 차수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변수는 2개가 모두 제공됨.

나. 자료 공개를 위한 데이터 재정비 필요성

현재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데이터는 당해연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구 데이터와 아동 데이터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다. 아동용 데이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9년(2차년도)~2020년(4차년도) 데이터의 경우 영유아 데이터와 초등학령기73) 데이터 2종으로 구분된다. 한편, 올해 조사인 2023년(6차년도) 데이터의 경우 본조사와 별도로 실시된 부스터 표본 조사(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 데이터 2종이 추가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가구 데이터는 가구 현황 및 정부 지원금 수급현황, 가계 소비지출 및 양육비용 지출 현황,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등 가구용 설문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 데이 터는 각종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이용 여부, 이용 시간, 이용 비용, 만족도 등)와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동용 설문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 표	VII-1-3)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	구성

데이터 종류			조사연도(차수)						
			2018년 (1차)	2019년 (2차)	2020년 (3차)	2021년 (4차)	2022년 (5차)	2023년 (6차)	
본조사	가구 데이터		0	0	0	0	0	0	
	아동 데이터	영유아	0	0	0	0	0	0	
		초등	×	0	0	0	×	×	
부스터 표본	임산부 가구		×	×	×	×	×	0	
	무자녀 가구		×	×	×	×	×	0	

주: 초등학령기 데이터의 표본은 2019년(2차년도) 초등1학년, 2020년(3차년도) 초등1~2학년, 2021년(4차년도) 초 등1학년 아동임.

문제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설문은 가계소비지출과 양육비용, 육아서비스 등 매해 반복 조사를 실시하는 문항과 함께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해마다 변동되는 문항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또, 매해 시의성을 반영하여 집중 탐구가 필요한 설문 문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설문 문항의 변동이 상당히

⁷³⁾ 단, 각 차수별 조사 대상 연령에 국한함.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반복 조사를 실시하는 문항의 경우에도 응답자 편의를 고려하여 설문의 구조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장기간에 걸친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면, 육아 지워 정책 현황과 관련된 문항으로 주거 지원에 대한 설문 문항 은 2018년(1차년도)와 2023년(6차년도)에만 조사를 실시한 문항이다. 또, 앞서 IV 장 2절에서 집중 검토한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 등 양육관련 공적이전소득(정부 지원금) 수급 현황은 2018년(1차년도)에는 지난 1개월 이내 수 급 현황을 조사한 반면, 2019년(2차년도)에는 정부 지원금 종류에 따라 지난 1년 간(조사 전년도 5월1일~ 조사 당해 4월 30일)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수혜 기간 을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형태로 질문하였다. 2020년(3차년도)에 는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의 수급 현황을 묻긴 하나, 설문의 형태가 각 월별로 수급한 정부 지원금의 종류를 응답한 다음 매달 수급액이 얼마인지를 질문 하는 형태로 질문이 이뤄졌다. 이후 2021년(4차년도) 조사 이후로는 설문에 정부 지원금 종류를 명시한 상태에서 각 월별로 수급한 정부 지원금 종류에 체크하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보편 지원 정책의 경우 수급액을 별도로 질의하지 않 았다. 한편, 2021년(4차년도) 이후 정부 지원금 관련 설문의 구조는 크게 변동되지 않았으나. 정부 지원금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정책 대상이 변동됨(예: 영아수당. 부 모급여 등)에 따라 설문 문항이 계속적으로 변경, 수정되었다. 이와 같은 설문의 변경은 해당 문항이 조사 대상 기간이 매우 길고 회고가 필요한 문항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해마다 설문의 구조가 변동하는 문항이 'KICCE 소비실태조사'에는 상당수 존재한다.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된 문항이 아닌 동일한 변수에 대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설문 구조상의 큰 변화가 있었던 대표적인 설문은 앞서 언급한 정부 지원금과 개별돌봄서비스, 육아서비스 이용 시간 등으로, 개별돌봄서비스는 2018년(1차년도)에는 아동용 설문에 포함되었으나 2019년(2차년도) 이후 가구용설문으로 설문의 종류 자체가 변동되었으며, 육아서비스 이용 시간은 2020년(3차년도)에는 시간표 조사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되어 다른 차수74)와는 완전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다.

^{74) 2020}년(3차년도)를 제외한 다른 차수의 경우 이용하는 육아서비스별로 이용 시간을 질문함.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 연도에만 조사를 실시한 경우(예: 주거 지원, 세제 지원 등)와 조사 대상이 초등학령기를 포함하고 있어 문항 추가가 필요했던 경우(예: 초등 돌봄 등), 새로운 지원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따라 설문이 변경된 경우(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항목의 추가가 필요했던 경우(예: 기기/집기 세목으로 PC/노트북/태블릿PC 비용 조사 등) 등 설문의변경에 따라 데이터도 해마다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현재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는 해당 조사 차수의 설문 문항을 설문 순서에 따라 그대로 코딩해 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수명은 설문의 문항 번호를 참조하여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횡단면 분석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료를 종단면으로 구성하고자 할 경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 변수를 동일한 기준과 항목으로 정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문항 식별을 위한 별도의 추가자료(예: 코드북 등) 또한 부재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일일이 모든 차수의 설문을찾아보고 데이터와 비교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의 변경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분석의 결과에 심각한 편의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데이터를 일반 공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데이터 구조와부가 자료 등에 대한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인력과 연구 예산으로는 데이터 공개를 위한 추가 작업을 단기간에 마무리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데이터 공개를 위한 작업은 최소 3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데이터 공개를 위한 작업은 연구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사항이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데이터 공개 작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데이터 공개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업무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일반 연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변수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변수명을 일관되게 부여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데이터 정비 1년차에는 기조사가 완료된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변수 지도를 작성하고, 공개용 데이터에 포함될 변수를 선정한 후, 공개용 데이터(변수 통합 데이터)의 구조와 체계를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데이터 정비 2년차에는 새로운 변수명 부여 체계를 정하고, 이에 맞추어 변수명을 변경하는 한편, 실질적인 변수 통합 작업을 실시한다. 데이터 정비 3년차에는 정비 2년차에 새롭게 작성한 변수 통합 데이터(version.1)을 활용하여 보

고서 작업 등을 실시함으로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테스트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데이터 정비 3년차에는 일반 공개를 목표로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어야하는 부가 자료, 예를 들면 통합 코드북과 통합 변수명을 포함하는 각 차수별 설문지, 유저가이드 등을 작성하여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VII-1-1] 'KICCE 소비실태조사' 공개용 데이터 작업 추진 계획(안)

데이터 정비 1년차		데이터 정비 2년차	데이터 정비 3년차
- 변수 지도 작성 (mapping)		- 새로운 변수명 부여 체계 확정	- 변수 통합 데이터(ver.1) 테스트 및 수정
- 공개용 데이터 포함 변수 선정	\Rightarrow	- 변수명 변경 및 변수 통합 작업 실시	- 부가 자료(통합 코드북 및 가이드 등) 작성
- 공개용 데이터(변수 통합 데이터) 구조 확정		- 변수 통합 데이터(ver.1) 자료 생성	- 자료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자료 공개

주: 데이터 공개 작업은 연구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다. 다양한 모드(조사 방식)를 활용한 조사 방법 개선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조사방식 또한 해마다 상황에 맞추어 변경되어 왔다. 2018년(1차년도)~2019년(2차년도)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 (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단, 2019년(2차년도)의 경우 가구의 상세한 소득 및 지출 정보가 태블릿PC에 입력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조사가 중단된 경우에 종이 설문을 활용한 대면 면접 조사(PAPI: 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2020년(3차년도)~2022년(5차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접 조사가 극히 어려웠던 시기로, 이 시기에는 조사 도구를 전면 태블릿PC가 아닌 종이 설문으로 변경하고, 대면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설문의 유치 혹은 전화 조사 등의 다양한 조사 방식을 채택한 혼합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전년도 표본에 대한 추적 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특성상 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모드 효과보다 추적 조사 실패에 따른 표본 편의가 데이터의 신뢰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23년(6차년도) 조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긴 했으나, 매해 반복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 사이에 조사 방식에

대한 학습 효과가 발생하여, 대면 면접조사보다 다른 조사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2023년(6차년도) 조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종이 설문을 활용한 대면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혼합 조사 방식을 요청하는 기존 가구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6차년도)에서 방문 면접조사로 조사가 완료된 비중은 69.0%이었다. 이러한 혼합 조사 방식의 채택은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을 제고하여 표본 추적률등의 응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조사 방식(mode)에 따라 응답 내용에 체계적차이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의 신뢰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에 이와 같은 모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반드시 요구된다.

최효미(2023a)는 코로나19 확산을 전후한 시기(2019년과 2020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모드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최효미(2023a)에 따르면, 대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2019년(2차년도) 조사에 비해 혼합 조사 방식이 도입된 2020년(3차년도) 조사가 조사 진행 속도가 빨랐으며, 조사 완료까지 걸린 시간 또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합 조사 방식 도입 이후 표본 추적률 또한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조사 방식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특별한 모드 효과는 발견되지 않으나, 총 자녀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장시간 면접조사의 부담으로 인해 방문조사 대비 방문+유치 조사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미 전년도 조사에서 설문에 익숙해진 응답자의 경우 조사 방식에 따라 데이터 품질에서의 큰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최효미, 2023a). 즉,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조사 방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조사된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는 모드 효과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고, 데이터 품질에 있어서도 심각한 수준의 체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6차년도) 본조사 가구 표본의 경우 외벌이 가구들은 대면 면접 조사 비중이 높은데 반해, 맞벌이 가구들은 방문+유치 조사 비중이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조사 방식에 따라 월평균 가구소득이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조사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응답자들이 잘못된 응답 값을 입력한 것(모드 효과)인지, 단순히 표본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

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2023년(6차년도) 자료에 대한 모드 효과 분석을 진행하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차이는 응답 오류라기보다는 조사 방식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 차이로 인한 표본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추후 2024년(7차년도) 조사 시작 전에 2023년(6차년도) 자료에 대한 모드 효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부정적인 모드 효과가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조사 방식의 다양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맞벌이 가구나다자녀 가구와 같이 대면 면접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합 조사 방식을 통한 조사가 조사 과정상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6차년도) 조사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기존에 조사에 참여한적이 있는 추적 조사 대상 표본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조사(웹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봄 직하다.

다만, 웹조사를 병행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이 설문과 별도로 웹조사를 위한 설문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웹조사 표본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조사 방식 다양화의 실익은 크지 않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다. 또, 신생아 표본과 같이 표본의 선정과 대면 면접이 매우 어려운 집단이지만, 기존에 한 번도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웹조사 방식의도입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요구된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경우다양한 비용과 정책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어, 비목의 구분이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응답이 요구된다. 설문 문항의 범주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자가 응답이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한 응답 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전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부스터 표본의 경우 본조사와 달리 표본 전체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는데, 부스터 표본과 본조사 표본 사이에 맞벌이 가구 비중이나 가구소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조사 방식에 따른 오류라기보다는 조사 대상자 특성 차이일 가능성이 크긴 하다. 그러나, 조사 방식에 따른 체계적 차이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올해 부스터 표본에 적용된 온라인 조사 방식에 대한 점검은향후 웹조사 도입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표본 할당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이 연구 IV장 3절에 제시된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 특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응답 표본은 다자녀 가구 비중이 높고, 맞벌이 가구 비중이 약간 낮은 특징을 보였다. 맞벌이 가구는 2018년(1차년도) 조사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와 거의 유사한 비중을 보였으나, 이후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42.2%에 그쳤다.

또, '가계동향조사'나 '노동패널조사'의 영유아 가구 표본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비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60만원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때 가구소득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가계동향조사'나 '노동패널조사'에 비해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 가구의 비중이 적을 뿐 아니라 600만원이상인 가구의 비중도 적었다. 즉,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가구소득의 편차가 다른 조사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으로, 표본의 다수가 중간소득 구간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영유아 가구의 소비지출 및 양육비용에는 가구소득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표본의 소득 분포가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추정 결과의 편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23년 본조사 표본 중 299만원이하 가구 표본의 수는 61가구(3.4%)에 불과한 상황으로, 저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표본이 매우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실질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으나, 표본 편의에 따른 결과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취해질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문제는 영유아 가구 대상 조사의 경우 대표성을 갖는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구 단위의 가중치 산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료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모집단 정보의 부재는 신생아 표본 및 대체 가구 표본과 같이 신규 표본을 구축해야하는 상황에서 표본 특성이 달라질 위험을 상시 포함하고 있다. 영유아 가구 표집을 위한 모집단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영유아 가구 대상 조사는 표본을 집단특성별로 세분했을 때에도 적정 수준의 표본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표본을 할당하여 관리하거나, 표본유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전년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

(종단 자료 검증)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 안이라 하겠다. 현재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이와 같은 표본 관리 방식을 두가지 모두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나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표본 이탈 및 신규 표본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데이터 점검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기존 데이터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대체 표본과 신생아 표본을 해마다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이들 신규 표본의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는 맞벌이 여부나 다자녀 가구 여부, 저소득가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특히,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신규 표본은 면접원들이 조사구 내에서 조사 대상을 발굴하여 표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운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소 할당 기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적정 표본 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다른 조사에 비해 표본의 수가 오히려 많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표본 할당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다른 조사에 비해 비중이 낮고, 저소득 가구는 적정 표본 수 확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표본 할당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이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소 할당 표본 수(소프트쿼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전체 표본 규모를 생각할 때 가중 표집 등의 방식으로 표본을 확보할 경우 오히려 데이터 전체에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 표본에 대한 조치는 좀더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수의 표본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저소득 가구 표본은 본조사 표본에서의 할당이나 가중 표집이 아닌 본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되 조사 대상자를 분리해서 관리가가능한 형태인 부스터 표본으로 조사하는 것을 검토해봅 직하다. 2024년 조사 시작 이전까지 표본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2024년 표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한 이후,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8차년도)75) 연구의부스터 표본을 저소득 가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⁷⁵⁾ 연구계획상 2025년(8차년도) 부스터 표본의 대상은 '비정규직 부모'임.

2. 심층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언

이 절에서는 이 보고서의 V장과 VI장의 심층 분석 연구 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가. 아동수당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1) 주요 연구 결과

아동수당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효과를 분석한 V장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 가구의 아동당 양육비용은 맞벌이 가구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총 자녀 수, 부모의 학력수준, 지역 규모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아동수당 수급자 수(수급액)이 많을수록 아동당 양육비용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석 대상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아동수당은 유아기 아동의 아동당 양육비용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영아기아동이나 초등 3학년 이상 아동의 아동당 양육비용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않았다. 한편, 아동수당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외벌이 가구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으며,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비목별로는 대부분의 비목에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발견되지만, 특히 교육/보육비에서의 현저한 증가가 관측되었다. 즉, 영유아 가구들은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되면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구당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또한 아동당 양육비용에서와 별반 큰 차이는 없었으나, 가구당 양육비용의 경우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당 양육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때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한명 늘어날수록 가구당 양육비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수 당 수급 대상이 아닌 고연령의 자녀가 가구 내 존재하는 경우(아동수당 수급자 수 가 적을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2) 제도 개선 방안 1 :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지원 연령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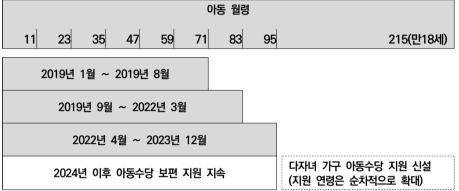
앞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아동수당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유아기 자녀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3학년 이상의 자녀가 포함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효과가 크지 않아서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이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이 2018년 9월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95개월 이하 아동까지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동수당은 지원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와같이 가구 내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가구당 양육비용의 부담 증가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는 약간은 다른 성격을 갖는 부분도 있으나,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뤄지는 급여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아동수당과 매우 유사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부모급여는 지원 대상의 연령이 23개월 이하의 영아로,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이다. 부모 급여는 출산 이후 단기적으로 급증하는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후속 출산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영아기 집중 투자 정책의 하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훨씬 가중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가 후속 출산으로의 이행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저출산 심화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였을 때, 보편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양육비용 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과 같은 형태의 현금성 지원이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의 상향 조정은 이전에도 여러 연구에서 제안된 바 있다(최효미·이정원·김자연 외, 2021;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국회입법조사처, 2023 등). 국회입법조사처(2023: 157~159)는 OECD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원 연령의 상한이 16~18세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너무 어린 연

령의 자녀에게만 아동수당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보편 지원의 성격을 갖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 연령을 단기에 크게 확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책 지원이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정책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에 대한추가지원을 통한 지원 확대가 보다 합리적 대안이라 판단된다.

[그림 VII-2-1]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안)



주: 1) 음영과 실선으로 구분된 부분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원 시기별 지원 대상 연령을 표기한 것이며, 점선 부분은 향후 지원 확대에 관한 제안 내용임.

3) 제도 개선 방안 2 : 저소득 영유아 가구 현금 지원 제도 강화

한편, 다자녀 가구 이 외에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도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집단으로, 현금 지원의 효과가 크게 발현되는 집단이다. 그러나, 아동수당의 경우 2018년 9월 제도 도입 당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한 선별 지원이 실시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 비용의 상승과 선별 지원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보편 지원으로 제도가 변경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반추해볼 때, 기존의 보편 지원에 더한 추가 지원이라 할지라도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다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아동수당이 아닌 별도의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에서 포괄하여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²⁾ 월령은 구간별 마지막 월령을 의미함.

나.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육아 지원 정책

1) 주요 연구 결과

VI장은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여성(모)의 노동공급과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여기서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은 자녀 돌봄서비스의 가용성을 대리하는 변수로, 총 어린이집 현원 대비 비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비율을 활용하였다. 또, 코로나19 확산의 강도는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이용하였다. 노동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는 모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 노동시간으로 총 3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였다.

이중차이분석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은 경제활동참가와 노동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취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때, 비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히 완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비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영유아 가구의 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낮고, 일을 계속하거나 휴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확산기에 휴교 조치 등으로 학령기 아동의 등교가 어려웠던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이 영유아 가구의 모의 경제활동참가나 노동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으나 계수의 방향이 음수라는 점과 취업률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음수였다는 점 또한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이는 사회적 충격이 가해지는 긴급 상황에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이 가장먼저 타격받아 경력단절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자녀 돌봄의 책임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몫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 높은 가구에 대한 휴직 등 육아 시간 지원 정책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을 시사한다.

2) 제도 개선 방안 :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추가 사용 허용 WI장의 연구 결과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자녀 돌봄 필요가 높은 여성(모)의 노 동시장참여가 더욱 제약을 받게 되지만, 원활한 육아 지원이 여성(모)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코로나19는 종식되었으나 향후 새로운 감염병 확산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연 재해(풍수해, 지진, 산불 등) 등으로 인한 지역적인 긴급 상황의 발생은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동(고용) 정책이 시행 중에 있으나, 이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육아지원(자녀 돌봄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제언을 유추해 보았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이미 상당부분 법령 개정이 이뤄졌거나 제도 개선이 진행된 상황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안)을 소개하고,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은 부득이한 조치일 수 있으나, 급작스러운 돌봄서비스의 중단은 영유아 가구의 모의 경력단절을 촉진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가구소득의 저하로 가계 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긴급 상황일수록 영유아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게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영유아는 학령기 아동과는 달리 어른의 대면 보호와 돌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원활한 돌봄서비스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모의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의 경우 다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다른 집단에비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는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적인 휴원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b; 김동훈·김은영, 2020; 김아름·박은영 2020). 그러나, 감 염병 확산 상황에서 다수의 부모들이 타인에 의한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에 비해서 는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최효미·이정원·김자연 외, 2021: 244~245).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모)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면서도 부모들의 자녀 직접 돌봄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연근무와 같은 육아시간 지원 정책의 강화와 실효성 제고</u>가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시간 지원 정책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전체적으로 제도가 많이 보강되었으며, 지원 대상과 내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육아휴직 제도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내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될 예정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10. 6.)76). 또,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2019년을 전후하여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도는 코로나19 확산기에는 활성화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된 2022년에는 다시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343). 즉, 현재 육아 시간 지원의 경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나, 최근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정책 보강과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343)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부모들은 육아시간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부모들이 육아 시간 지원 정책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사항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었으며, '제도 이용의 일부자동화, 강제화'였다는 점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육아 시간 지원 정책의 경우 제도의 세부 내용의 보완이나 지원 확대 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최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제도 이용자 확대를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제도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확장적 운영과 활용도 제고 방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가족돌봄휴가 지원 제도 가 코로나19 확산기에는 한시적으로나마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를 시행((고용노동부, 2023: 240)하고,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

⁷⁶⁾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 10. 6.).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085 (인출일: 2023. 11. 1.).

위 내에서 휴가 사용일수를 연장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보다 훨씬 확장된 형태의 지원을 해당 기간에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사전에 정비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예컨대, 자녀의 생애 초기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부득이한 사회적 위기 상황의 발생(풍수해 등)으로 긴급 돌봄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정비를 고려해 봄 직하다.

•• •• 참고문헌

- 강유진(2020). 무자녀와 한자녀 여성의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 가치관과 부부평등성 요인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4(3). pp.3~26.
- 강지영·전융·안서연(2020). 아동수당 도입은 가구의 소비지출을 변화시켰는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7. pp.5~31.
- 계봉오·김두섭(2015). 무자녀 가정의 추이와 특성. 한국의 사회동향 2015. 통계 청 통계개발원.
- 계봉오·유삼현·최슬기(2022). 유배우 출산율 변화, 2005~2020: 혼인지속 기간 접근. 한국인구학, 45(4). pp.71~92.
- 고용노동부(2019a).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 고용노동부(2019b).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 고용노동부(2020).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성공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길잡이.
- 고용노동부(2022),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2023),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 관계부처 합동(2020, 12, 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a),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b). 초등학교 긴급돌봄 프로그램 안내.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통계연보.
- 국회입법조사처(2023).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X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 원회.
- 권미경·이정원·이재희·엄지원·윤소정·이소영·황선영(202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 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동훈·김은영(2020).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비한 유치원 수업일수 개

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아름·박은영(2020). 코로나 19 관련 보육정책 대응 백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가구조사 보고, 육아정책연구소·보건복지부.
- 김지연(2021). 코로나 19 고용충격의 특이성: 여성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1-10.
- 김현희·김병권·우석진(2023). 코로나19 확산이 영유아가구 부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패널 자료로부터의 증거.
- 민인식·최필선(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 박시내·박라나·박혜균(2020). 결혼기간별 무자녀 가구 특성. 통계청 통계개발원.
- 박종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선영·이혜정·송지은(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은정·이정원·윤지연·김난주(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백지선·박우람(2022). COVID-19, Childcare and Women's Labor Supply.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2), 323-345.

보건복지부(2018a),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8b). 아동수당 사업 안내 2018.

보건복지부(2019a).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9b).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0a). 2020 아동수당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0b),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0. 10.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I판.
- 보건복지부(2020. 11.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II판.
- 보건복지부(2021a). 2021 아동수당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1b).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1. 4.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III판.

보건복지부(2022a). 2022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2b),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3a). 2023 모자보건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3b),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3c). 2023년 부모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3d). 2023 아동수당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0.7).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안내.

육아정책연구소 내부자료(2023a).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면접원 교육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내부자료(2023b).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연구계획서.

- 이래혁·남재현(2020).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9(3). pp.27~56.
- 이소영·김은정·박종서·변수정·오미애·이상림·이지혜(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진화영·오신휘(2022). 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현(2012).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2(3). pp.43~88.
-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육아정책연구소·보건복지부.
- 이철희(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35(3). pp.117~144.
- 이철희(2019).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한국경제의분석, 25(1).

pp37~7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2022.12.28.).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 전기택·배진경(2020).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KWDI Brief, 58, 1-9.
- 조성호·이지나·김근태(2021).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최인희·김은지·이상림·정다은(2015). 무자녀 부부가족의 증가와 가족정책적 함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효미(2023a). 코로나19 전후 조사방식의 변화와 모드효과 : KICCE 소비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24(2). pp.41~68.
- 최효미(2023b). 코로나19 확산 전후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육아정책연구, 17(1). pp.3~26.
- 최효미·강은진·조미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박은정·엄지원(2020).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김자연·이재희·김태우(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 Albanesi, S.(2019). Changing Business Cycles: The Role of Women's Employment(No. w2565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lbanesi, S., & Kim, J.(2021). Effects of the COVID-19 recession on the US labor market: Occupation, family, and gend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5(3), 3-24.
- Alon, T., Doepke, M., Olmstead-Rumsey, J., & Tertilt, M.(2020a). The i mpact of COVID-19 on gender equality (No. w2694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lon, T., Doepke, M., Olmstead-Rumsey, J., & Tertilt, M.(2020b). This time it's different: the role of women's employment in a pandemic recession (No. w2766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ornwell, B.(2015). Social Sequenc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ry, M. J.(2010). The great mancession of 2008-2009. Statement before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subcommittee on income security and family support, AEI, 1-9.
- Zamarro, G., & Prados, M. J.(2021). Gender differences in couples' division of childcare, work and mental health during COVID-19.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9(1), 11-40.

【보도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1. 4. 1.).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11. 19.). 아동수당,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94 (인출일: 2023. 7. 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 10. 6.).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 View.do?newsId=148921085 (인출일: 2023. 11. 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1. 3.).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4436 (인출일: 2023. 5. 11.).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3. 5. 4.). 부모급여, 4월 25일 약 27만 명에게 지급,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6123 (인출일: 2023. 5. 11.).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3. 3. 28.).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91&listLen=20&searchKeyword=&position=M(인출일: 2023. 6. 8.).

【인터넷 자료】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근로자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time.asp (인출일: 2023. 7. 3.).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 여성, 모성보호 육아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인출일: 2023. 6. 8.).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 가족돌봄휴가 지원 안내, http 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0030049 4 (인출일: 2020. 3. 25.).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경기남부] 23년 1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 blancId=13121 (인출일: 2023. 3. 31.).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경기남부] 23년 1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13102 (인출일: 2023. 3. 31.).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경남 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주택 재임대 모집 공고, https://www.myhome.g 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1 2835 (인출일: 2023. 3. 31.).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서울 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https://www.myhome.go. 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128 42 (인출일: 2023. 3. 31.).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공공분양, 공공분양주 택 소개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Lt totView.do#guide=LT301 (인출일: 2023. 3. 31.).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공공분양, 일반 및 특별공급,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Lt totView.do#guide=LT304 (인출일: 2023. 3. 31.).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신혼희망타운,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neyMoonView.do#guide=HM401 (인출일: 2023. 3. 31.).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 View.do#guide=RH106 (인출일: 2023. 3. 31.).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국민임대주 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 View.do#guide=RH104 (인출일: 2023. 3. 31.).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 View.do#guid e=RH103 (인출일: 2023. 3. 31.).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장기전세, ht 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 do#guide=RH105 (인출일: 2023. 3. 31.).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 View.do#guide=RH107 (인출일: 2023. 3. 31.).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통합공공임 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 ntalView.do#guide=RH112 (인출일: 2023. 3. 31.).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임대주택, 행복주택, ht 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 do#guide=RH108 (인출일: 2023. 3. 31.).
-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인출일: 2023. 3. 31.).
-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인출일: 2023. 3. 31.).
-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주택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인출일: 2023. 3. 31.).
-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연혁(2022), https://www.data.go.kr/data/1

- 5106451/fileData.do (인출일: 2023. 10. 1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임신, 임산부 건강 챙기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본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https://easylaw.go.kr/CSP/CnpCls MainBtr.laf?popMenu=ov&csmSeq=735&ccfNo=2&cciNo=1&cnpC lsNo=2&menuType=cnpcls (인출일: 2023. 7. 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임신, 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본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35&ccf No=2&cciNo=2&cnpClsNo=1 (인출일: 2023. 7. 3.).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맞벌이 가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F03S&conn_path=13 (인출일: 2023. 6. 9.).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0001&conn_path=I3 (인 출일: 2023. 3. 7.).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 I3 (인출일: 2023. 6. 9.).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vw_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인출일: 2023. 10. 16.).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시도/성/모의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vw_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인출일: 2023. 10. 16).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 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3 (인출일: 2023. 6. 2.).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kosis.kr

- /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heckFlag=N (인출일: 2023. 3. 2.).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https://kosis.kr/st 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 h=13 (인출일: 2023. 6. 2.).
- 통계청,「인구총조사」, 연령별/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15세이상)-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F2001&conn_path=I3 (인출일: 2023. 5. 3.).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추계인구(총인구, 인구구조, 성비 등)/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 401&conn_path=I3 (인출일: 2023. 6. 2.).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장래 합계출산율/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 Html.do?orgId=101&tblId=DT_1BPA101&conn_path=I3 (인출일: 20 23. 6. 2.).
- 통계청, 합계출산율(OECD회원국) UN 「https://population.un.org/wpp,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2KAA207_OECD&conn_path=I3 (인출일: 2023. 6. 2.).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인출일: 2023. 6. 9.).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신 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https://www.lh.or.kr:443/contents/cont.do?s Code=user&mPid=231&mId=235&menuYear= (인출일: 2023. 3. 31.).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I, https://www.lh.or.kr:443/contents/cont.do?s Code=user&mPid=231&mId=602&menuYear=(인출일: 2023. 3. 31.).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https://www.lh.or.kr:443/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238&menuYear=(인출일: 2023. 3. 31.).

- OECD(2023),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http 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인출일: 2023. 6. 3.)
-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indicators, SF.2.5 Childlessness, https://www.oecd.org/els/family/SF_2-5-Childlessness.pdf (인출일: 202 3. 3. 2.).

【통계 원자료】

가계동향조사 2018 분기자료(전체가구 1인 이상)

가계동향조사 2019 분기자료(전체가구 1인 이상)

가계동향조사 2020 분기자료(전체가구 1인 이상)

가계동향조사 2021 분기자료(전체가구 1인 이상)

가계동향조사 2022 분기자료(전체가구 1인 이상)

가계동향조사 2018 연간자료(지출)

가계동향조사 2019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 이상)

가계동향조사 2020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 이상)

가계동향조사 2021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 이상)

가계동향조사 2022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 이상)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 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InfStateJs on (인출일: 2022. 5. 29.)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연혁(2022), https://www.data.go.kr/data/1 5106451/fileData.do (인출일: 2023, 10, 15.)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 학술대회 원자료.

한국노동패널 23차년도 학술대회 원자료.

한국노동패널 24차년도 학술대회 원자료.

한국노동패널 25차년도 학술대회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1차년도)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19(2차년도)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0(3차년도)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1(4차년도)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5차년도)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 78호, 2021. 5. 18.,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 [법률 제 16558호, 2019. 8. 27,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A Study of Childrearing Costs and Demand for Chilcare Services (KICCE Spending Survey II)

Hyo Mi Choi, Jeong Won Lee, Mi Ra Cho, Seok Jin Woo, Tae Woo Kim

'KICCE Spending Survey' is a statistical survey conducted with the primary aim of collect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economic situation and spending practices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as well as gauging their current usage of childcare services. Phase I of the study, which was conducted over the 5 years from 2018 to 2022, has been concluded. Phase II - 'KICCE Spending Survey II' is set to be conducted over 5 consecutive years from 2023 to 2027. Research efforts for 2023 will be focused mainly on conducting the 1st wave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II (KICCE Spending Survey_2023).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3 study consists largely of the main survey and additional surveys administered to booster samples, the latter comprising childless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pregnant women. In doing so,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data quality, usability,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herefrom, we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the Phase I 'KICCE Spending Survey (2018~2022)'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data. As the results in entirety is very expansive, for reader convenience we summarized our findings into the following broad sections: 1) Overview of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3 and 2) Key Statistics and Comparison of Data Characteristics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2018 ~2022), followed by two in-depth analyses 3) Child Allowance's Role in Alleviating Childrearing Cost Burden and 4) How Access to Childcare

Services Impacted the Labor Supply of Moth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1. Overview of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3
-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3' and the Phase I study is the addition of booster samples.
 - While the main survey is conducted with steady commitment to continuity regarding the Phase I study, booster samples have been introduced for conducting additional surveys for control groups of the main survey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as well as to supplement sample subjects that were lacking in the main survey.
 - As control groups regardi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the booster samples introduced in 2023 include childless households (817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pregnant women (504 households).
- The total sample of the 2023 main survey included 1,773 households. Out of the 1,518 households designated for tracking, 1,258 (82.8%) were successfully contacted.
 - A total of 2,422 infants responded to the Children's Survey in 2023.
- 2. Key Statistics and Comparison of Data Characteristics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2018~2022)
- Average monthly childcare costs (real terms) per household in 2022 stood at 1,273,000 KRW, in continuation of yearly fluctuations.
 - During the years 2018~2022, childcare costs (real terms) per child stayed within the 650,000~660,000 KRW range with the exception of year 2020.
- As of 2022, 49.2% of young children made use of childcare centers, followed by 27.1% in kindergartens and 1.1% in facilitie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22.6% of the children were found to have made no use of facilitie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 Employing data on monthly government assistance, we performed

longitudinal analysis over a long period. By doing so, we examin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monthly assistance data and identify ways to further improve data quality.

- By the time they reach age 2, more than 90% of young children make use of some facility.
- Regardless of the child's age, transitions from home care allowance to childcare assistance and transitions from childcare assistance to the Nuri curriculum assistance occurred around February~May each year, in time with the commencement of recruitment among facilities.
- The year 2020, when children born in 2019 were aged 1 and those born in 2020 were aged 0, falls within the period of the COVID19 pandemic. take-up rates for home care allowance was somewhat heightened during this period.
- While the number of young children has followed a steady downward trend over time, the sample size of young children studied by the KICCE Spending Survey has actually grown, from 2,277 in 2018 to 2,401 in 2021, before falling somewhat to 2,395 in 2022.
 - Compared to the Population Trend Survey, the KICCE Spending Survey has a higher incidence of households with multiple children.
 - As of 2021,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as collected by the KICCE Spending Survey stood at 4,942,000 KRW, which is 675,000 KRW lower than comparable figures in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and 729,000 KRW lower than that found in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 Average monthly living expenditures as collected by the KICCE Spending Survey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 As of the 2021 survey results, average monthly childcare costs per young child as collected by the KICCE Spending Survey were slightly higher than in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while per-household childcare costs were 310,000 KRW higher than in the National Childcare Survey.

- In 2018 and 2019, take-up rates for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s collected by the KICCE Spending Survey were higher than found in administrative data. In 2021 and 2022, while take-up rates for childcare centers were largely similar between the two data sources, take-up rates for kindergartens remained higher in the KICCE Spending Survey.
- 3. Child Allowance's Role in Alleviating Childrearing Cost Burden
- Despite the steady growth of in-cash type support programs directed at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regarding the efficacy of such programs. Thus, we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to ascertain the actual role of child allowances in the childrearing process, as well as to see whether allowances actually helped alleviate the cost burden associated with childrearing.
 - Using 4 waves of data from the 2nd (2019) to 5th (2022) wave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the main dependent variables of interest were per-child and per-household childcare costs.
 - Model employed: panel random effects model
- Impact of child allowance on per-child childcare costs
 - For waves 4~5 (2021~2022), a unit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 allowance recipients led to a 70,000 KRW increase in childcare costs per child.
 - Analysis conducted after grouping children into the following age groups: infants, young children, grades 1 and 2 in elementary school, grades 3 or higher in elementary school, child allowance had a very significant effect on per-child childcare costs.
 - While child allowance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hild childcare costs in both dual and single earner households, the effect was more pronounced among the latter group.
- Impact of child allowance on per-household childcare costs
 - Per-household findings were largely similar to those of the per-child analysis.
 - That said, unlike per-child childcare costs, per-household

childcare costs were found to grow much faster depending on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This readily indicates that households with multiple children face more serious burdens from childcare costs.

- 4. How Access to Childcare Services Impacted the Labor Supply of Moth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We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to see how disparate levels of access to the services provided by local childcare centers impacted the labor supply of mothers during the year 2020, amid the COVID19 pandemic.
 - Data employed: KICCE Spending Survey data covering years 2019 and 2020.
 - Model employed: DID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 In year 2020, amid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the labor market outcomes among women raising children saw a significant decline.
- OLS estimates suggest that the pandemic's spread led to decreases in economic activity, job retention, and hours worked, with the effect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job retention.
 - The 2-period panel data model has less variability compared to cross-sectional data. Thus, while the directionality of the pandemic's effect were largely simila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were found.
- A fixed effects model that controlled for the share of private childcare centers yielded qualitatively similar results to OLS estimates.
 - That said, the effects were markedly more pronounced compared to the OLS estimates.
 - While the pandemic's spread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activity and hours work, it did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the likelihood of job retention.
 - The share of private childcare centers was found to noticeably

alleviate the negative impacts of the pandemic's spread.

Based on the findings presented above, we derived the following policy-related improvements.

- Proposals for improving the data quality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 Introducing new weighs for young children / improving weighting methods
 - · Restructuring the data for public access
 - Improvements in survey methodology, utilizing various modes (data collection methods)
 - Follow-up measures for sample allotment: adjusting samples of dual-earner households and low-income households
-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findings from in-depth analyses
 - Raising the child allowance eligibility age ceiling in the case of households
 - Strengthening in-cash support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 Allowing the use of additional paternal leave during national crisis situations
 - Improving the actual effectiveness of childcare time-related support policies, such as flexible work arrangements

Keyword: KICCE Spending Survey, childcare costs for young children, usage of childcare services, efficacy of child allowance scheme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초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 부록 -

최효미·이정원·조미라·우석진·김태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Ⅱ)

- 부록 -

저 자 최효미, 이정원, 조미라, 우석진, 김태우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기타 기여자 연구협력진 **이 지 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 목차

부록	- 285
1. 2023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A형	285
2. 2023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B형 ·····	349
3. 2023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C형	383



부록 1. 2023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A형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 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일반과제인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일환으로,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과 육아서비스 이용, 정부 지원금 수급 현황, 육아정책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1기 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새롭게 11기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 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도	<u> </u>)구·군	()동·	읍면	
세부 주소								
모취업 여부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구직 중	⑤ 미	취업	⑥ 모 없	음
조사원 이름		조사원 ID		조사표 직	l성일	2023	년 월	일
조사 방법	① ①	② 전화	③ 유치	④ 방문+전화	화 ⑤ 5	J문+유치	6 7	타

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질문

- 문0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 2. 여자
- 문02. 귀댁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명

문03. 귀댁 자녀의 출생연월과 성별은 각각 어떠합니까?

※ 가구 내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 자녀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 번호	구분		ㅁე_1 초새	M의	문3-2	성별
번호	TE		문3-1. 출생	건별	1. 남	2. 여
1	첫째 자녀	()년 ()월 생		
2	둘째 자녀	()년 ()월 생		
3	셋째 자녀	()년 ()월 생		
4	넷째 자녀	()년 ()월 생		
5	다섯째 자녀	()년 ()월 생		
6	여섯째 자녀	()년 ()월 생		

문04. 현재 귀댁의 가족 구성원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떨어져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으로 응답. (예: 주말 부부, 외국에 나가 있는 초등학생 자녀 등 포함. 단, 떨어져 산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가족의 가계 지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는 응답 대상에서 제외)
- ※ 떨어져 살면서 생계가 분리된 경우는 제외. (예: 매달 생활비를 보내더라도 따로 사는 조부모 등)
- ※ 함께 살고 있더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는 제외. (예: 입주 돌보미 등)
 - 1. 본인
 - 2. 본인의 배우자
 - 3. 배우자의 형제자매
 - 4. 본인의 형제자매
 - 5. 배우자의 부
 - 6. 배우자의 모
 - 7. 본인의 부
 - 8. 본인의 모
 - 9. 그 외 친인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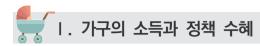
문04-1. 영	병유아 자녀와 응답	t자 본인과의 R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	니까?	
	1. 자녀의 부						
:	2. 자녀의 모						
;	3. 자녀 부의 형저	자매					
4	4. 자녀 모의 형제	자매					
!	5. 자녀의 조부						
(6. 자녀의 조모						
-	7. 자녀의 외조부						
;	8. 자녀의 외조모						
!	9. 그 외 친인척)				
문05. 귀댁	I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입니	까?				
※생계급	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	도 해당되	시면 '예'	로 응답해	주십시오
,	1. 예	2. 아니오					
문06. 영유	아 자녀의 부모님	은 언제 결혼했	냈습니 <i>까</i>	ŀ ?			
(()년	도					

문07~08. 귀 댁의 영유아 부모님의 연령 등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07. 모(어머니)	문08. 부(아버지)
 ① 출생연도	()년생	()년생
② 최종학력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③ 취업여부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 문8.부(아버지)로 4. 구직 중 → 문8.부(아버지)로 5. 미취업 → 문8.부(아버지)로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 문9로 4. 구직 중 → 문9로 5. 미취업 → 문9로
④ 직업군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⑤ 근로 형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⑥ 노동시간*	주당 평균 () 시간 → 36시간 미만인 경우 ⑥-1로	주당 평균 () 시간 → 36시간 미만인 경우 ⑥-1로
⑥-1. 단시간근로이 유 *주당근로시 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만 응답	1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 2. 건강 3. 육아 4. 가사 5. 통학 6. 본인이 원해서 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8. 기타()	1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 2. 건강 3. 육아 4. 가사 5. 통학 6. 본인이 원해서 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8. 기타()
⑦ 비정규여부 (⑤ 근로형태 중 1. 임금근로자만 응답)	1. 정규직 2. 비정규직	1. 정규직 2. 비정규직

[※] 무급가족종사자는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노동시간에는 가사 노동 등에 소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일자리에서의 노동시간만을 응답하며, 이근, 휴일 노동 등 초과 노동시간도 합산하여 응답합니다.



문09. 귀댁의 자녀는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각 아동별로 아동수당 수혜 여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신청 후 누구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 수혜경험 있음					
2. 수혜경험 없음					

- 문10.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2.5.1.~2023.4.30.) 받으신 양육관련 공적 이전소득지원 확인을 위해 이용하신 기관과 지원 금액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 ※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용하신 기관 유형에 ✔ 표시해 주세요.
 - ※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아이가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나 (이간)24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연령별 보육료 지원이 아닌 해당 보육료 지원에 ✔ 표시해주세요.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한군데만 표시해주세요.)
 - ※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는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최대 월 24만원까지), 장애 아동은 시간당 5,000원(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받으신 경우 시 간당 단기에 맞춘 지원 금액을 적어주세요.
 - ※ 유치원 지원 금액은 아동의 방과후수업 신청 과목 수에 따라 방과후 과정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적 어주시고, 저소득층 대상 기타 실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금액을 합산하여 적어주세요.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원받으신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 ※ 금액은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23년 부모 급여 지원 금액('22년 이후 출생아)

		부모급여 종류		
연령	시설 미이용	시설 이용		
시절 비이용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만0세	(현금) 70만원	(바우처) 51만4천원+(현금) 18만6천원	(바우처) 전액	
만1세	(현금) 35만원	(바우처) 51만4천원	(바우처) 전액	

'22년 영아수당 지원 금액('22년 출생아)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21년생 이전 출생아만 적용)

연령		영아수당 종류
건당	현금	바우처
24 개월 미만	30 만원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전액)

※ 영아수당은 2022년만 적용되고,이후 부모급여로 통합됨.

연령	일반기정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만원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17만 7천원	20만원
36개월 미만		15만 6천원	
48개월 미만	10만원	12만 9천원	100101
48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 2022}년 이후 출생이는 2022년에는 영이수당,2023년에는 부모급여를 수급함.

'23년 어린이집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바우처)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누리과정)
적용시기	('23.1.1~)	('23.1.1~)	('23.1.1~)	('23.1.1~)
보육료(일반, 다문화, 야간보육)	514,000	452,000	375,000	280,000
장애아보육료		ĺ	559,000	
24시간 보육료	771,000	678,000	562,500	420,000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지원 금액

유치원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 지원 금액(바우처)

야간 연장	지원 단가	지원한도액
일반	1시간당	월 24만원
아동	4천원	(60시간)
장애	1시간당	월 30만원
아동	5천원	(60시간)

구분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 지원 금액	저소득층 유아학비
국·공립 유치원	10만원	최대 5만원	없음
사립 유치원	28만원	최대 7만원	15만원

-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기정양육수당 ④영이수당(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⑤부모급여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에 받으신 지원금을 택1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 표시해 주세요.
 - <u>2021년 이전 출생한 영유이</u>는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중복 수혜 불가하며 영아수당,** 부모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 영이수당과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이만 해당하며, 2022년에는 영이수당만, 2023년에는 부모 급여만 지원됩니다. (2022년생 이후 출생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수당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 부모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 **자녀가 0세이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현금+바우처**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3년 23															
	-	구분														
		만0~2기	네반	0		0	0		0		0			0	0)
	① 어 린	민3~5/ (누리고			0	0		0	0		0	0		0	0	,택1
	이 집	장애(보육 <u>:</u>		0	0	0	0	0	0	0	0	0	0	0	0	체크
	('21년	24시 보	육료	0		0			0		0			0		
	출생)	(이용/ 야간연장 7	-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2	न्स	립	0	0	0	0	0	0	0	0	0	0	0	0	[택1
	유치	사립		0		0		0	0		0	0	0	0	0	체크
÷1	원 ('21년 이전	방과학 추가지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첫 째	출생)	저소득층 유	14학0위	0	0	0			0		0	0	0	0		
자 녀		기정양육수	_	0	0	0	0	0	0	0	0	0	0	0	0	
		21년생 이전 집/유치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2021년	이전 출생	쌍는 (D어린아	집 지원,	②유치(의 지원,	③가정(डिन्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		
	④영이수 ('22년		금	0	0	0	0	0	0		0					 택1
	출생아		2처			0		0								체크
		만에	현금만									0	0	0		, 택1
	⑤부모급 ('22년		현금+ 바우처									0	0	0	0	체크
	이후 출생아)	만1세 ('22년	현금										0	0	0] 택1
		I , _	바우처									0	0	0	0	∫ ¾⊒
		202	22년 이	후 출생이	는 202	2년에는	④영아=	수당만, 2	2023년0	#E (5)\$	모급여단	반 선택 [†]	여 응답			

-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기정양육수당 ④영이수당(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⑤부모급여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에 받으신 지원금을 택1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 표시해 주세요.
 - <u>2021년 이전 출생한 영유이</u>는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중복 수혜 불가하며 영아수당, 부모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 영이수당과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이만 해당하며, 2022년에는 영이수당만, 2023년에는 부모 급여만 지원됩니다. (2022년생 이후 출생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수당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 부모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 **자녀가 0세이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현금+바우처**에 ✔ 표시해 주십시오.

	=	구분		22년 5월	22년 6월	22년 7월	22년 8월	22년 9월	22년 10월	22년 11월	22년 12월	23년 1월	23년 2월	23년 3월	23년 4월	
		만0~2	네반	0	0	0	0	0	0	0	0	0	0	0	0	ì
	① 어 린	만3~5/ (누리고				0	0	0	0	0	0	0		0	0	트
	이 집	장애(보육:		0	0	0	0	0	0	0	0	0	0	0	0	체크
	('21년 이전	24시 노	육료	0			0		0		0			0	0	
	출생)	(이용. 야간연장 기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2	끃	립	0	0	0	0	0	0	0	0	0	0	0	0	_ 토택1
	유치	사립	1	0	0	0	0	0	0	0	0	0	0	0	0.	체크
	원 ('21년 이전	방과 ^호 추가지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둘째	출생)	저소득층 유	바취야	0	0	0	0	0	0	0	0	0	0	0	0	
자 녀		기정양육수	_	0	0	0	0	0	0		0		0	0		
		11년생 이전 일/유치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2021년	이전 출	생는 ()어린아	집 지원,	②유치 ¹	원 지원,	③가정(양육수당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		
	④영이수! ('22년	당 현	금	0	0	0	0	0	0	0	0] 택1
	출생아)	바	유처				0									체크
		만에 (1991)	현금만									0	0	0	0	, 택1
	⑤부모급(('22년	여 ('23년 출생아)	현금+ 바우처									0	0	0	0.	체크
	이후 출생아)	만1세 ('22년	현금													, 택1
		(22년 출생아)	바우처									0	0	0	0	∫ 旭
		202	22년 이	후 출생이	는 202	2년에는	④영아	수당만,	2023년0	에는 ⑤ <u>누</u>	모급여단	<u></u> 선택하	여 응답			

-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기정양육수당 ④영이수당(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⑤부모급여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에 받으신 지원금을 택1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 표시해 주세요.
 - <u>2021년 이전 출생한 영유이</u>는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중복 수혜 불가하며 영아수당,** 부모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 영이수당과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이만 해당하며, 2022년에는 영이수당만, 2023년에는 부모 급여만 지원됩니다. (2022년생 이후 출생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수당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 부모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 **자녀가 0세이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현금+바우처**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3년 23															
	-	구분														
		만0~2기	네반	0			0		0		0			0	0)
	① 어 린	민3~5/ (누리고			0	0	0	0	0		0	0		0	0	,택1
	이 집	장애(보육 <u>:</u>		0		0	0	0	0		0	0	0	0	0	체크
	('21년	24시 보	육료	0			0		0		0			0		
	출생)	(이용/ 야간연장 7	-	() 천원												
	2	국공	립	0	0	0	0	0	0	0	0	0	0	0	0	택1
	유 치 원	섀			0	0	0		0		0	0		0	0	체크
141	년 ('21년 이전	방과학 추가지원		() 천원												
셋째	출생)	저소득층 유	1바회0위	0			0	0	0		0		0	0	0	
자 녀		기정양육수	_	0	0	0	0	0	0	0	0	0	0	0	0	
		21년생 이전 집/유치원 [() 천원												
		2021년	이전 출생	쌍는 ([]어린아	집 지원,	②유치H	원 지원,	③가정(양육수당	중에서	하나만 .	선택하여	응답		
	④영이수 ('22년		금	0	0	0	0	0	0	0	0					택1
	출생아)		2처	0		0	0		0		0					체크
		만에	현금만									0	0	0] 택1
	⑤부모급 ('22년		현금+ 바우처									0		0	0	체크
	이후 출생아)	만1세 ('22년	현금									0	0	0	0	택1
		I , _	바우처									0	0	0	0	∫ ¾⊒
		202	22년 이	후 출생이	는 202	2년에는	④영아	수당만, 2	2023년0	#E (5)\$	모급여단	반 선택ö	여 응답			

-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기정양육수당 ④영이수당(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⑤부모급여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에 받으신 지원금을 택1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 표시해 주세요.
 - <u>2021년 이전 출생한 영유이</u>는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중복 수혜 불가하며 영아수당, 부모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 영이수당과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이만 해당하며, 2022년에는 영이수당만, 2023년에는 부모 급여만 지원됩니다. (2022년생 이후 출생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수당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 부모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 **자녀가 0세이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현금+바우처**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3년 23년															
	-	구분														
		만0~2/	네반	0		0	0		0		0			0	0)
	① 어 린	민3~5/ (누리고			0	0		0	0		0	0		0	0	,택1
	이 집	장애(보육 <u>:</u>		0		0	0	0	0		0	0	0	0	0	체크
	('21년	24시 보	육료	0		0			0		0			0		
	출생)	(이용/ 야간연장 7	-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2	국공	립	0	0	0	0	0	0	0	0	0	0	0	0	택1
	유 치 원	섀			0	0	0		0		0	0		0	0	체크
141	면 ('21년 이전	방과학 추가지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넷 째	출생)	저소득층 유	1바회0위	0		0			0							
자 녀		기정양육수	_	0	0	0	0	0	0	0	0	0	0	0	0	
		21년생 이전 일/유치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2021년	이전 출	쌩는 (D어린이	집 지원,	2유차	원 지원,	③가정	양육수당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		
	④영이수 ('22년	당 현	금	0	0	0	0	0	0		0					 택1
	출생아)	배	2처			0										체크
		만에	현금만									0	0	0	0	, 택1
	⑤부모급 ('22년	여 ('23년 출생아)	현금+ 바우처									0	0	0	0	체크
	이후 출생아)	만1세 ('22년	현금										0	0	0] 택1
		I , _	바우처									0	0	0	0	∫ ¾⊒
		202	22년 이	후 출생이	는 202	2년에는	④영아=	수당만, 2	2023년0	#E (5)\$	모급여단	반 선택 [†]	여 응답			

-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기정양육수당 ④영이수당(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⑤부모급여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에 받으신 지원금을 택1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 표시해 주세요.
 - <u>2021년 이전 출생한 영유이</u>는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중복 수혜 불가하며 영아수당,** 부모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 영이수당과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이만 해당하며, 2022년에는 영이수당만, 2023년에는 부모 급여만 지원됩니다. (2022년생 이후 출생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수당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 부모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 **자녀가 0세이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현금+바우처**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2년 23년 23년													0013	0013	
		구분		22년 5월	22년 6월	22년 7월	22년 8월	22년 9월	10월	22년 11월	22년 12월	23년 1월	23년 2월	23년	23년 4월	
	a	만0~2	세반	0	0		0	0	0	0	0	0		0	Ó	
	① 어 린	만3~5 (누리:		0	0		0		0	0				0		택1
	이 집	장아 보유		0	0	0	0	0	0	0	0	0	0	0	0	체크
	('21년	24시 년	보육료	0	0	0	0	0	0	0	0	0	0	0		
	출생)	(이동 이간연장	-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2	뀩	립	0	0	0	0	0	0	0		0		0	Ó	[택1
	유 치 원	사	립	0	0		0		0	0		0		0	0	체크
다	연 ('21년 이전	방과 추가지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섯 째	출생)	저소득층	유이학비	0	0	0	0	0	0	0	0	0	0	0	0	
 자 녀		가정양육수	_	0		0	0		0					0	0	
		21년생 이 집/유치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2021년	이전 출	생아는 (1	D어린이	집 지원,	②유치H	원 지원,	③가정(양육수당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		
	④영이수 ('22년	<u> </u>	铝	0	0	0	0	0	0		0					, 택1
	출생아		우처													체크
		만0세														, 택1
	⑤부모급 ('22년	' 기운센()										0		0	0	체크
	이후 출생아	만1세 ('22년										0				, 택1
		1, -) 바우처									0	0	0	0	∫ 체크
		20)22년 이	후 출생이	는 202	2년에는	4명아	수당만,	2023년0	ll는 (5)두	모급여만	t 선택하	여 응답			

-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기정양육수당 ④영이수당(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⑤부모급여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에 받으신 지원금을 택1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 표시해 주세요.
 - <u>2021년 이전 출생한 영유이</u>는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중복 수혜 불가하며 영아수당,** 부모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 영이수당과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이만 해당하며, 2022년에는 영이수당만, 2023년에는 부모 급여만 지원됩니다. (2022년생 이후 출생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수당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 부모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 **자녀가 0세이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현금+바우처**에 ✔ 표시해 주십시오.

	F	갼		22년 5월	22년 6월	22년 7월	22년 8월	22년 9월	22년 10월	22년 11월	22년 12월	23년 1월	23년 2월	23년 3월	23년 4월	
		만0~2/	네반	0		0	0	0	0	0	0	0		0	Ó	ĺ
	① 어 린	만3~5/ (누리고		0	0	0	0	0	0	0	0	0		0	0	노택1
	이 집	장애(보육 <u>:</u>		0	0	0	0	0	0	0	0	0	0	0	0	체크
	('21년 이전	24시 보	육료	0		0	0	0	0		0	0		0	Ó	
	출생)	(이용/ 이간연장 7	-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2	국공	립	0	0	0	0	0	0	0	0	0	0	0	0	[택1
	유치	섀	!	0	0	0	0	0	0	0	0	0		0	0	체크
여	원 ('21년 이전	방과학 추가지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섯 째	출생)	저소득층 유	1바회0위	0	0	0	0	0	0		0		0		0	
자 녀		기정양육수!	_		0	0	0	0	0			0		0		
		1년생 이전 김/유치원 대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2021년	이전 출생	쌍는 ①	어린아	집 지원,	②유차	원 지원,	3가정	양육수당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		
	④영이수! ('22년	당 현	금	0		0	0	0	0	0	0					, 택1
	출생아)	바	2처				0	0								체크
		만0세	현금만									0	0	0	0	, 택1
	⑤부모급(('22년	여 ('23년 출생아)	현금+ 바우처									0	0	0		체크
	이후 출생아)	만1세 ('22년	현금													택1
		(22년 출생아)	바우처									0	0	0	0	∫ 旭
		202	22년 이	후 출생0	는 202	2년에는	④ 영 아	수당만, :	2023년0	에는 (5) 누	모급여만	반 선택ö	여 응답			

- 문11.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2.5.1.~2023.4.30.)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신 경우, 자녀별로 육아휴직급여 총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 ※ 육아휴직 수급 가능 기간은 자녀별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입니다.
 -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겹치지 않는 기간으로 합산하고, 수급액도 부모 모두의 급여액을 합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지급(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하여 지급. 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 육이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이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이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 한부모 근로자 육이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급.

구분	문11 육아휴직급여 수혜 경험	문11-1. 육아휴직급여특례 수혜 경험 ※1,2번 중복응답 가능	문11-2. 총 수급액	문11-3. 총 수급기간
첫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3+3 부모육아 휴직제(생후 12개월 내) 2. 육아휴직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4. 해당 없음	()만원	총()개월
둘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3+3 부모육아 휴직제(생후 12개월 내) 2. 육아휴직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4. 해당 없음	()만원	총()개월
셋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3+3 부모육아 휴직제(생후 12개월 내) 2. 육아휴직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4. 해당 없음	()만원	총()개월
넷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3+3 부모육아 휴직제(생후 12개월 내) 2. 육아휴직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4. 해당 없음	()만원	총()개월
다섯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3+3 부모육아 휴직제(생후 12개월 내) 2. 육아휴직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4. 해당 없음	()만원	총()개월
여섯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3+3 부모육아 휴직제(생후 12개월 내) 2. 육아휴직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4. 해당 없음	()만원	총()개월

문12.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2.5.1.~2023.4.30.)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신 경우, 자녀별로 출산장려금 총 수급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수혜 경험	1. 있음	1. 있음				
	2. 없음	2. 없음				
총 수급액	()	()	()	()	()	()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문13. [2022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만 응답] 귀하께서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기간 중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지급 받으신 경우는 해당 번호에 응답해주십시오)

※ 첫만남 이용권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시작)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 1. 지급 받았음
- 2. 지급 받지 않음
- 문14. 귀댁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세후소득)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지난 3개월 내 일시금으로 받으신 금액은 1/3하여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가구	전체 소득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	
1. 본인 근로 및 사업 소득	() 만원	일을 하여 번 돈	
2. 배우자 근로 및 사업 소득	() 만원	(자영업자 및 고용주, 프리랜서 등도 매출에서 제반 비용 제하고 순수하게 본인의 소득으로 남은 돈을 기입)	
3. 기타 가구원 근로 및 사업 소득	() 만원		
4.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 만원	월세 등으로 받은 돈, 땅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생긴 소득, 주식거래 차익, 은행 이자 등 (본인이 납입·투자한 원금은 제외, 전세보증금 받은 금액 등도 제외)	
5.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 만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보육료 제외),임신출산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함,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생계급여) 장애수당, 농어업 정부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 각종 연금(기초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 생계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의미함	

구분	가구 전체 소득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는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6. 사적이전소득	() 만원	부모 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
7. 기타소득	() 만원	보험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증여·상속, 축의금, 돌잔치 등으로 생긴 돈

^{※ 2022}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는 문17번으로 가십시오.

문15. [2022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부모급여 지급 대상)만 응답] 귀하는 지원받은 부모급여를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하셨습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여 특정 비목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귀하가 생각하기에 추가 소득으로 소비가 가장 증가한 품목 등을 고려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식비 (외식비 표	<u> </u> 함)	6.	개인유지비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2. 피복비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3.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7.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	<u> </u>
4. 교육/보육비 (교	1재교구비 포함)	8.	기기/집기	
5. 여가 및 문화생	활비 (교양/오락비,	9.	기타 ()
도서구입비)				

- 문16. [2022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만 응답] 귀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출산비용·자녀양육비용 중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 출산비용, 자녀양육비용을 포함한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여 특정 비목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귀하가 생각하기에 첫만남 이용권으로 인한 추가 소득으로 출산비용자녀양육소비가 가장 증가할 품목 등을 고려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이미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아 사용하신 경우, 사용 금액 이 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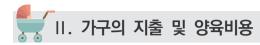
- 1. 식비 (출생 자녀 분유, 이유식비, 식재료구입비 등)
- 2. 피복비 (출생 자녀용 의류, 이불, 싸개 등 포함)
- 3. 보건/의료비 (출생자녀의 치료 등 의료비, 영양제, 산모용 약제비(한약) 등 포함)
- 4. 교육/보육비 (기관 이용, 육아도우미 비용, 교재교구비 등 포함)
- 5. 여가 및 문화생활비 (자녀용 도서구입비 등)
- 6. 개인유지비 (출생자녀용-산모용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기저귀, 영유아용 로션, 물티슈, 화장지 등)

- 7. 산후조리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이용)
- 8. 출생 자녀를 위한 기기/집기 (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대 등)
- 9. 기타 ()
- 문17. 귀하는 지원받은 현금성 지원금[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이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18. 귀하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 중 어떤 것이 가장 육아에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0-2세)
 - 2.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3-5세) 지원(누리과정 지원)
 - 3. 가정양육수당
 - 4. 아동수당
 - 5. 부모급여(영아수당)
 - 6. 첫만남 이용권
 - 7. 출산지원금
 - 8. 기타 (
- 문19. 2023년도에 받으신 연말정산(2022.1~2022.12에 대한 소득)에서,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원 금액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원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 ※ 여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지원된 경우 자녀를 모두 응답해 주세요

	구분	수혜 여부	지원 금액 인지 여부	지원 대상자 (모두 선택)
1. 자녀	1-1. 기본 공제 대상 자녀	1.지원받음 2.지원받지 않음	 지원 금액 알고 있음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세액 공제	1-2.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1.지원받음 2.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2. 자녀장려금	1.지원받음 2.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3. 자	크 교육비 소득공제	1.지원받음 2.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문20~21. 귀댁의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비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작성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하며, 반 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자녀별 지출 비용은 미취학 자녀 뿐만 아니라 가구 내 전체 자녀에 대해 응답하며, 자녀별 지출 비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림하여 응답하되, 실질적인 비용 지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0원을 기 입해 주십시오.
- ※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자녀별 금액이 나누어지지 않은 금액(예: 가족 외식비 등)도 자녀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20.	문	21. 가구	소비액 충	중 재녀 !	별로 지출	액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 식비 (외식비 포함)	기족 전체가 함께한 외식비 등은 포함하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불한 급간식비 등은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 외식비	부모가 직장에서 사먹는 점심값 포함, 커피값은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주거/관리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월세 등을 합산	만원						
2-1. 관리비 및 수도· 광열비 등	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 포함. 단, 집 전체의 수리, 건축비 등은 제외. 수도, 전기, 기스요금 등 포함	만원						
2-2. 월세	주거를 위해 월마다 고정적으로 지출해이하는 비용 (장사를 위한 임대료는 제외)	만원						
3. 기기/집기	기구, 기전 등의 구매 (아동 침대, 책상 등 포함)	만원	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3-1. PC/ 노트북/태블릿 PC		만원						
4. 피복비	의류 및 신발, 가방 등 구매비(자녀의 내의류 등 모두 포함), 침구류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 보건/의료비	병원, 약 구매비, 비타민이나 영양제, 건강보조제(홍삼, 한약 등 포함), 마스크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문20.	문	21. 가구	소비액	중 재녀	별로 지출	액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6. 교육/보육비	부모님의 교육비 포함,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사교육 이용비용 등 교재교구 포함), 자녀 셔틀버스 비용, 육아도우미 비용, 자녀 돌봄의 대가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등 포함 ※정부 지원금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완구(장난감, 모빌 등), 여기용 도서 구입비, 기족여행 등 포함 단, 교재교구는 교육비로 포함	만원						
7-1. 기 족 여행 등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경우, 사용한 비용 전액	만원						
7-2. 관람, 체험학습	영화, 스포츠, 공연, 박물관 관람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3. 완구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4. 도서구매	교재 교구는 제외. 아동 전집류 등은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8. 교통비	자동차 유지/유류비, 대중교통비 포함. 자동차 구입비 제외. 자녀의 셔틀버스 비용은 교통비가 아닌 교육비에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 통신비	핸드폰 이용료,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IPTV 및 케이블 TV 수신료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1. 휴대 전화비	휴대폰 구입비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0. 개인유지비 (생필품 포함)	목욕용품, 바디로션, 기저귀, 물티슈, 세탁용품, 주방용품, 화장지, 화장품, 키친타올, 이미용 서비스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 금융상품 (저축 및 보험 납입금)	이자, 저축, 보험 등(자녀 명의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1. 저축	예금, 적금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2. 보험	저축성 및 상해 등 각종 보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3. 원금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원금 상환액	만원						
11-4. 이자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이자 납입금	만원						

		문20. 가구 전체	문	21. 가구	소비액	중 재녀	별로 지출	<u>:</u> 액
구분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1-5. 주식, 암호화폐	주식, 암호화폐(코인) 투자금	만원						
12. 이전 지출	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자녀 돌봄의 대가로 드리는 용돈은 보육비로 분류하고 제외, 가족 내 이전지출은 제외)	만원						
13.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반려동물 입양비용은 제외함	만원						
14.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주류 및 기호식품, 가사도우미 등 ※육아도우마는 교육/보육비에 포함	만원						

문22. 현재 가구에서 영유아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용은 충분한 수준(필요한 만큼)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3. 현재 영유아 자녀 양육과정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1. 식비 (외식비 포함)
- 8. 교통/통신비
- 2. 주거/관리비 (월세, 수도/광열비 등) 9. 개인유지비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 3. 기기/집기 (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4. 피복비

- 10.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 5.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 6. 교육/보육비 (육아도우미 비용 포함) 12. 부모님 용돈 등 이전지출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 13. 기타 (
- 14. 부담되는 항목 없음

문24. 가구소득이 줄어들거나 양육 관련 용품 가격이 증가하여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 할 때, 어떤 비목에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이십니까? 우선적으로 줄일 비목을 2개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식비 (외식비 포함)
 8. 교통/통신비

 2. 주거/관리비
 9. 개인유지비

 3. 기기/집기
 10. 금융상품

 4. 피복비
 11. 이전지출 (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5. 보건/의료비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6. 교육/보육비
 13.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99. 모름/ 무응답
- 문25. 우리 사회에서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 다음의 시기별로 양육비용이 한 달에 얼마 나 들것이라 예상하십니까?

내용	예상되는 경제적 비용
초등학생(1~6학년)	기간 내 월 평균 () 만원
 중·고등학생	기간 내 월 평균 () 만원

문26. 자녀 양육을 위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 2.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함
- 3.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를 부모가 부담해야 함
- 4. 국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 5. 기타()
- 6. 잘 모름

문27.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어느 시기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미성년시기까지 지원한다(고교졸업까지)
- 2. 대학 졸업까지 지원한다
- 3. 취업이 될 때까지는 지원한다
- 4. 결혼할 때까지 지원한다
- 5. 손자녀 양육까지 지원한다
- 6. 기타(



문28.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	니까?
1. 단독주택	4. 상가주택
2. 아파트	5. 기타()
3. 연립주택 혹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문29.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거주 형태 및 가격은	· 어떻게 되십니까?
1. 자가 ()백만원	
2. 전세 ()백만원	
3. 월세 보증금 ()백만원, 1	월 ()만원
4. 기타(사택, 친인척(조부모 포함) 주택 두	'상 거주 등)
문29-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주거비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십니까?
※ 주거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은 자가의 경우 주택구입 다	H출의 원리금 비용 및 재산세 및 종부세. 전
세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월세는 보증금에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2 3	4 5
문30.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거주 시작 시기는 언	· 제인니까?
()년도	
문3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방의 개수는 몇 개입	II 17112
※ 방의 수는 거실(대청마루), 부엌, 식당(부엌에 딸린 식당	T 보함)을 세외한 방의 수를 응납해 수십시오.
()7	
문32.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다도즈태이 겨오 마다오 제이하고 거
물의 연면적을 기입해 주십시오.	근국구국의 승구 마음을 제되어고 한
	(4)
※ 평수와 m²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경우는 마당, 주차장 등을 제외한 건물의 연면적 기원 ()평 혹은 ()m ²	드스노 합에구입시소)

문33.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

- 1. 매우 동의한다
- 2. 동의한다
- 3.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34.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살게 된 계기가 자녀의 출산 혹은 양육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 1. 그렇다 → 문34-1로
- 2. 아니다 → 문35로

문34-1. 그렇다면, 이 지역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 1.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 2. 엄마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 3.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 4.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 5.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 6.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 7.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 8. 기타()

문35. 귀하는 향후 5년 이내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이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그렇다 → 문35-1로 2. 아니다 → 문36로

문35-1. 그렇다면, 이사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1.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 2. 엄마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 3.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 4.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 5.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 6.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 7.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 8. 기타()

- 문36.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
 - 2.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접근성이 좋은 곳
 - 3.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
 - 4.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
 - 5. 주거 밀집지역
 - 6. 기타()
- 문37. 정부는 **신혼부부 혹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기 중 귀하께서 알고 계신 **주거 지원 정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신혼희망타운
 - 2. 통합공공임대주택
 - 3. 국민임대주택
 - 4. 공공분양주택
 -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6.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1

- 7. 행복주택
- 8. 영구임대주택
- 9. 공공임대주택
- 10. 장기전세주택
- 10. 0. 12.11
- 11. 전세임대주택
- 12. 알고 있는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이 없음
- ※ 참고자료 :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자),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모) 등 소득기준 있음. 	-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통합공공임대 주택		- 전용면적 기준 85m²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주거 지원	국민임대주택	- 신호부부(7년 이내),	- 전용면적 기준 60m²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공공분양주택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0)파트)	인무모(6세 이야 사녀), 소득 및 자사기주 있음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10년) -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 혼부부 매입임대주택 ㅣ,॥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년, 재계약 2회 가능(최대 6년) 재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기연장 가능(최장 10년)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 (매입임대 I)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매입임대 II)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70%, 80% 초과시 80%)
	행복주택	- (우선공급):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 전용면적 기준 60m²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무자녀 6년, 1자녀 이상 1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영구임대주택	기혼자(6세 이하 자녀), 가구소득 기준 있음.	- 전용면적 기준 40㎡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5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기혼자 및 한부모(6세 이하 자녀), 소득 기준 있음.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소득 기준 있음.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5년/1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기혼자(6세 이하 자녀), 한부모(6세 이하 자녀) (우선공급): 다자녀기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포함)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5년/1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전세임대주택	- 혼인기간 7년 이내, 소득 기준 있음.	- 단독·다기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도움말 규모 [전용면적 85㎡(1인기구의 경우 60㎡)]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문37-1. [문37에 인지하고 있는 정책만 응답] 해당 주거 지원 정책에 지원 신청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분	정책명	문37-1. 지원 신청 경험
	신혼희망타운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통합공공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국민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공공분양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주거지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행복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영구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공공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장기전세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전세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 문38. 정부는 신혼부부 혹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기 중 귀하께서 알고 계신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2.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
 - 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4. 알고 있는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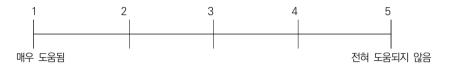
※ 참고자료: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외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10년, 15년, 20년, 30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세부내용 참고)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60% 이내 - LTV: 80% 이내 - 가구소특과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 -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금융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	- 소득과 자산 기준. -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 완화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 호당 대출 한도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있음.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암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문38-1. [문38에 인지하고 있는 정책만 응답] 해당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에 지원 신청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분	정책명	문38-1. 지원 신청 경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금융지원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문39. 귀하는 정부의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가 출산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9-1. [문39에서 3 이상에 응답한 경우]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1. 실제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주택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
- 2. 지원 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자격 조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
- 3. 지원되는 비용이 주택 구매 혹은 전세 자금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
- 4. 실제 온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평수이기 때문
- 5. 정부 지원 주택(예: 임대주택)에 산다고 아이가 차별을 받을까봐서
- 6.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원 대상 당첨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
- 7. 원하는 주택 유형이 아니기 때문(단독주택 거주를 희망 등)
- 8. 자산으로서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
- 9. 정보접근성이 떨어져서
- 10. 기타 (



Ⅳ. 영유아 가구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

[개별 돌봄 서비스]

문40. 귀댁 자녀를 위해 최근 3개월 내 다음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 → 문40-1로
- 2 아니오
- → 문41(25페이지)로

〈개별돌봄서비스 종류〉

- ①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및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 ② 민간 육아도우미 (학습시터, 놀이시터 등도 포함)

③ 주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

- ④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아동의 삼촌, 이모, 고모 등)
- 문40-1. 이용하고 계신 개별돌봄서비스 각각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번호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 이용하고 계신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해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자녀의 외할머니가 오전에, 친할머니가 오후에 자녀를 돌보아주시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각각 '③조부모' 돌봄으로 적어 주십시오.
 - ※ 학습(혹은 놀이)과 돌봄서비스를 결합하여 시간제로 아이를 돌보아주는 서비스(자란*, **악어, 핀덴 ** 등)를 이용하는 경우는 민간 육아도우미로 응답해주십시오. 다른 경로로 여러 명의 도우미를 활용하는 경우 각각을 모두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40-2.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돌보고 있는 자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문40-3.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 비용은 월 평균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만 응답해 주십시오. 별도로 비용 지불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는 'O'을 적어주십시오.
- 문40-4. 해당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주당 몇 시간**입니까?
 - ※ 자녀를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고 가사임을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40-1 보기]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 ①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및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② 민간 육아도우미
- ③ 조부모 의 치인척 돌봄

문40-1. 개별돌봄 서비스제공자	문40-2. 동시 돌봄 자녀 (모두 선택)	문40-3. 이용 비용	문40-4. 돌봄서비스제공의 노동시간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 문40-1에서 하나라도 ② 민간 육아도우미 선택 시 문40-5 응답			

문40-5. [문40-1에 ②를 응답한 경우] 민간육아도우미는 어떤 경로로 구하셨습니까?

- 1. 사설인력전문소개업소
- 2. 지인소개
- 3. 구직광고(지역신문 등)
- 4. 인터넷 기반 돌봄서비스플랫폼 (*씨터, *터넷, 자란*, **악어, 핀덴** 등)
- 5. 여성인력 교육·훈련기관
- 6. 기타



V.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 지원 서비스

[가정 내 양육 지원_부모 직접 돌봄]

- 문41. 최근 한 달 동안(만약 방학 기간이라면 방학 전 한 달) 귀댁의 전체 자녀들의 가장 평균적인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부모가 직접 돌보지 않더라도 **아이가 가정 내 머**물렀던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자녀의 이간 수면 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자녀	문41-1. 가정내 양육시간		문41-2. 가정내 잉	육시간
첫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둘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셋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넷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다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여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문42. 귀댁의 자녀가 가정 내 머무르는 동안 <u>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함께 계셨던 시간</u>은 얼마나 됩니까?

※ 최근 한 달 동안 귀댁의 전체 자녀들의 가장 평균적인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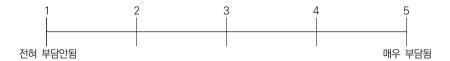
해당 자녀	문42-1. 부모직접돌봄시간		문42-2. 부모직접	돌봄시간
첫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둘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셋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넷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다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여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문43. 귀댁의 자녀가 가정 내 머물렀던 시간 중에서 전자 기기(TV, PC, 전자기기 등)를 이용한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됩니까?

% 최근 한 달 동안 귀댁의 전체 자녀들의 가장 평균적인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자녀	문43-1. 미디어 이용시간		문43-2. 미디어 0	용시간
첫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둘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셋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넷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다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여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문44. 귀하는 가정 내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어느 정도 양육 부담을 느끼십니까?



- 문44-1. 귀댁에서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용도로 자녀의 전자 기기(TV, PC, 전자기기 등)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 문44-2. [문44에서 3이상에 응답한 경우] 가정 내 양육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이유 를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0
		_

- 1. 양육 과정(아이가 울거나 떼를 씀)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 2.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 3.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
- 4. 육아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성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
- 5.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 6.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 7. 기타()
- 문45. 귀하는 최근 3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육아 관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육아서비스 종류〉

- 1. 장난감 대여
- 2. 도서 대여
- 문45-1.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문45-2.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기관에 대해 모두 골라 주십시오.
- 문45-3.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이용하는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경우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45-4.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육아 서비스 종류	문45. 이용여부	문45-1. 이용 빈도	문45-2. 제공기관 (중복 선택 기능)	문45-3. 이용비용	_
장난감 대여	1.이용함 → 2.이용안함	1. 매일 2. 주 3~4회 3. 주 1~2회 4. 격주 1회 5. 월 1회 정도 6. 분기별 1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이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 지역아동센터 6.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월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도서 대여	1.이용함 → 2.이용안함	1. 매일 2. 주 3~4회 3. 주 1~2회 4. 격주 1회 5. 월 1회 정도 6. 분기별 1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 지역아동센터 6.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월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문46. 귀하는 최근 3개월 동안 가정에서 육아 물품 제공 서비스(혹은 활동)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육아서비스 종류〉

1.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장난감, 도서, 놀이키트, 만들기 키트, 문구류 등)

문46-1.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문46-2.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기관에 대해 모두 골라 주십시오.

문46-3.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이용하는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경우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46-4.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육아 서비스 종류	문46. 이용여부	문46-1. 총 이용 횟수		문46-3. 이용비용	_
교재/ 교구 물품 꾸러미	1.이용함 → 2.이용안함	최근 3개월간 총 ()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이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6.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월 만 (만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문47. 귀하는 장난감이나 도서 대여, 육아 꾸러미 제공 등과 같은 육아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 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 (배송 서비스 포함)
- 2.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
- 3.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이 되는 형태로 제공해 줬으면 (온라인 수업 포함)
- 4.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 5. 물품/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 6. 소독 및 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 7.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 8. 기타 ()

[가정 내 양육 지원_부모 지원 서비스(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등)]

- 문48. 귀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부모 지원 서비스(부모교육, 부모 상담, 육 아멘토 등)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문48-1.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하신 부모 지원 서비스는 총 몇 회입니까?
- 문48-2.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 여러 번인 경우에는 가 장 자주 이용한 곳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문48-3.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는 어떠한 방식(대면/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까?
- 문48-4.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육 시간이 많은 순서대로 2개 분야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문48-5.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였습니까?

문48-6.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48-2 보기] 제공기관	[문48-4 보기] 서비스 내용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①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양육 방법(대화법, 놀이방법 포함)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③ 보호자의 역할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④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⑤ 지역아동센터	⑤ 가 족 윤리 및 예절
⑥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⑥ 가족의 건강·영양·안전교육
⑦ 기타 ()	⑦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⑧ 부모 정서 상담 및 지원
	⑨ 기타 (

ē	목	부모교육	부모 상담	육아 멘토(예: 보육반장 등)	
문48. 이용여부		1.이용함 2.이용안함 ▼	1.이용함 2.이용안함 ▼	1.이용함 2.이용안함 ▼	
문48-1. 이용	횟수	총()회	총 () 회	총 () 회	
문48-2. 제공기관 (보기 참조)					
문48-3. 비대면 서비스 여부		1.대면 2.비대면 3.대면+비대면	1.대면 2.비대면 3.대면+비대면	1.대면 2.비대면 3.대면+비대면	
문48-4.	1순위				
서비스 내용 (보기 참조)	2순위	0	0	0	
문48-5. 유료서비스 여부 1.유료 2.무료		1.유료 2.무료	1.유료 2.무료		
문48-6. 만족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문49. 귀하는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과 같은 부모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0
1. 일대일 서비스 확	대(맞춤서비스)	7. 서	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2. 쌍방향 서비스 확대		8. 원	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대
3. 프로그램 확대		확	대 혹은 변경	
4.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 개선	9. 서	비스 이용 비용 지원	
5. 온라인을 통한 서너	네스 지원 강화	10. 7	'I타 ()
6.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1. 7	내선 필요 사항 없음	



VI.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의견

- ※ 문50~53은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2022.5.1.~2023.4.30.)까지 임금 근로자로 일자리가 있었던 본인/배우자의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자영업자 및 고용주, 프리랜서는 제외)
- ※ 일자리가 없었던 경우, 자영업자 및 고용주 프리랜서는 문54로 이동해 주십시오.

문07~08. 부모 근로형태 확인

구분	문07. 모(어머니)	문08. 부(아버지)
(5)	1. 임금근로자	1. 임금근로자
근로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형태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문50-1~50-2.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2022.5.1.~2023.4.30.)까지 귀댁 영유아의 부모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용한 제도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	50-1. 모(어머니)	문5	50-2. 부(아버지)
1. 출산휴가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육아휴직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0017177717171 FF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주당 ()시간으로 단축	→ 주당 ()시간으로 단축

문50-3~50-4.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제도를 활용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문50	-3. 모(어	I머니)		문50-4. 부(아버지)				
구분	매우 도움됨		塔		전혀 도움되지 않음	매우 도 움 됨		塘		전혀 도움되지 않음
	1	2	3	4	5	1	2	3	4	5
1. 출산휴가										
2. 육아휴직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50-5~50-6.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응답] 귀댁 영유아의 부모님은 출산휴가, 육 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보기 :

- 1.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 5.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승진 등)
- 2.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 3.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7.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4.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8. 기타

구분	문50-5. 모(어머니)	문50-6. 부(아버지)
1. 출산휴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⑧ 기타 선택한	↓	ļ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기타 (
2. 육아휴직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⑧ 기타 선택한	ţ	↓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기타 (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⑧ 기타 선택한	↓	ļ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기타 (

문51-1~51-2.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2022.5.1.~2023.4.30.)까지 귀댁의 영유아 부 모님은 영유아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용하셨다면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휴직만 응답해 주십시오.)

- 1.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연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 2. 가족돌봄휴가제도: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연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
-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주당 15~30시간만 일하는 경우. 단축기간은 1년이며,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

구분	문51-1. 모(어머니)	문51-2. 부(아버지)
1. 가족돌봄휴직	1. 있음 → 총()일 2. 없음	1. 있음 → 총()일 2. 없음
2. 가족돌봄휴가	1. 있음 → 총()일	1. 있음 → 종()일
(자녀돌봄휴가 포함)	2. 없음	2. 없음
3. 가족돌봄 등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 단축 제도	2. 없음	2. 없음

문51-3~51-4.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육아에 얼마 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51·	-3. 모(어	I머니)		문51-4. 부(아버지)				
구분	매우 도 움 됨		塔		전혀 도움되지 않음	매우 도움됨		圪통		전혀 도움되지 않음
	1	2	3	4	5	1	2	3	4	5
1. 가 족돌봄 휴직										
2.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포함)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문51-5~51-6.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응답] 귀댁 영유아의 부모님은 가족돌봄휴직 이나 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보기 :

- 1.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5.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승진 등)
- 2.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 3.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7.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4.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8. 기타

구분	문51-5. 모(어머니)	문51-6. 부(아버지)
1. 출산휴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⑧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 기타 ()	↓ 기타()
2. 육아휴직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⑧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 기타 ()	↓ 기타 ()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⑧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 기타 ()	기타()_

문52-1~52-4. 자녀 돌봄을 위해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육아 시간 지원 제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귀하는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 (2022.5.1.~2023.4.30.)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어머니)]

구분	문52-1. 제도 유무(어머니)	문52-2. 이용 경험 유무(어머니)
1.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있음 → 문50-2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법적 보장 기간 이상)	2. 없음	2. 없음
2. 육아 휴직	1. 있음 → 문50-2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법적 보장 기간 이상)	2. 없음	2. 없음
3. 자녀돌봄 휴가 (선생님 면담,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휴가)	1. 있음 → 문50-2 2. 없음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2. 없음

[부(아버지)]

구분	문52-3. 제도 유무(아버지)	문52-4. 이용 경험 유무(아버지)
1.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적 보장 기간 이상)	1. 있음 → 문50-2 2. 없음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없음
2. 육아 휴직 (법적 보장 기간 이상)	1. 있음 → 문50-2 2. 없음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2. 없음
3. 자녀돌봄 휴가 (선생님 면담,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휴가)	1. 있음 → 문50-2 2. 없음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2. 없음

문52-5~52-6.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52-5. 모(어머니)					문52-6. 부(아버지)			
구분	매우 도움됨		堪		전혀 도움되지 않음	매우 도움됨		堪		전혀 도움되지 않음
	1	2	3	4	5	1	2	3	4	5
1.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적 보장 기간 이상)										
2. 육아 휴직 (법적 보장 기간 이상)										
3. 자녀돌봄 휴가 (선생님 면담,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휴가)										

문53-1~53-2.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2022.5.1.~2023.4.30.)까지 귀댁의 영유아 부모님은 아래에 제시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용한 제도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유연근무제도 유형〉

- 1. 재택근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회사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된 기기를 통해 업무
- 2. 시차출퇴근: 하루 중 출퇴근 시간 조절하여 업무
- 3. 선택적 근무시간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
- 4.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컴퓨터나 기기를 활용해 근무
-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
- 6. 탄력근무제: 일이 많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줄여 소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근무
- 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 * 재량근무 : 소정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구분	문53-1. 년	모(어머니)	문53-2.	부(아버지)
1. 재택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시차출퇴근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3. 선택적 근무시간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4. 원격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6. 탄력적 근무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문53-3~53-4.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53	-3. 모(어	l머니)			문53·	-4. 부(이	버지)	
구분	매우 도움됨		塔		전혀 도움되지 않음	매우 도움됨		圪통		전혀 도움되지 않음
	1	2	3	4	5	1	2	3	4	5
1. 재택근무										
2. 시치출퇴근										
3. 선택적 근무시간제										
4. 원격근무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6. 탄력적 근무제										
7. 기타 유형 (재량근무 등)										

문53-5~53-6. **[이용 경험이 <u>없는</u>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는 무엇입니까?

사유 보기 :

- 1.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 5.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승진 등)
- 2.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 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 3.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 7.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4.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 8. 기타

구분	문53-5. 모(어머니)	문53-6. 부(아버지)
1. 재택근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2. 시차출퇴근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⑧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 기타 ()
3. 선택적 근무시간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4. 원격근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 기타 ()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6. 탄력적 근무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 기타 ()
7. 기타 유형 (재량근무 등)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54. 현행 부모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육아 시간 지원 정책 중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 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정책		2순위 정책	
1. 가 족돌봄 휴직/휴기	+	4. 출산휴가	
2. 육아휴직		5. 유연근무	

문54-1. 문54에서 선택하신 제도가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각 정책별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개선 사항부터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개선사항1	개선사항2
1순위 정책		
2순위 정책		

- 1.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 2. 비용 지원의 확대 (급여 대체율 등)
- 3. 신청 절차의 간소화
- 4.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 5. 자격해당자의 확대 (예: 프리랜서도 적용)
- 6.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예: 만8세 →만12세까지 신청 가능)
- 7.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 8. 기타 ()



Ⅶ.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영유아)

- ※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문55. 귀댁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 아지원 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 유치원) 서비스 → 문55-1로
- 2. 개별 돌봄 서비스 → 문55-2로
- 3.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 문55-3으로
- 4.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 문55-4로
- 5.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 문55-5로
- 6.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 양육 물품 지원 → 문55-6으로

무55-1	「기관부윤ㆍ	교육서비스	를 선택한 경	우] 구	기하는	기과보유	·교육서비스	·에 정5	본 지
			= C TC 0 답하셨습니[–				
	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	고한 부분은 <u>-</u>	무엇여	기라고	생각하십니	- 까?		
1 으치워.	어리이지 선	했다이 지여 기	· 겨차 해소	6	이려 지	1원으로 교사	나 대 아도 H	네요 가추	<u> </u>

1. 유치원·어린이집 설치의 지역 간 격차 해소	6.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7. 아동학대 등 근절
3.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8.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4.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9. 기타()
5. 보육·교육과정(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개선	10. 개선할 부분 없음
	→ 문56로

- 문55-2. [개별 돌봄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개별 돌봄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개별 돌봄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공공 개별 돌봄 인력(ex.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 2. 공공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 3. 공공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 4. 공공 개별 돌봄 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 5. 공공 개별 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
 - 6.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이용 필요 시 즉각적 연계 강화)
 - 7. 기타()
 - 8. 개선할 부분 없음

→ 문56로

- 문55-3.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시간제 이용, 기타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 2.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ex.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비용 지원 대상 확대)
 - 3. 서비스 수준 제고
 - 4.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 5. 기타(
 - 6. 개선할 부분 없음

→ 문56로

- 문55-4.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 2.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 사용), 승급 등 인사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 3.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 4.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ex. 자동육아휴직, 아빠의 달 이용 강제화)
 - 5.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대체인력 풀 구축 및 연계, 대체인력 비용 지원 수준 제고 등)
 - 6. 이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 상향
 - 7. 서비스 다양성 강화(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 휴가 휴직 형태 도입)
 - 8. 기타()
 - 9. 개선할 부분 없음

→ 문56로

- 문55-5.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양육수당, 이동수당, 출산장려금 등)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현금 지원 수준 제고
 - 2. 자격 충족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 구축
 - 3.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지원 대상 연령 확대 등)
 - 4.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
 - 5. 기타()
 - 6. 개선할 부분 없음

→ 문56로

- 문55-6. [양육물품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물품 지원(도서 대여, 완구, 장난감, 기저 귀, 분유 등)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양육 물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 2.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제고
 - 3. 서비스 홍보 강화(자격 충족시 대상자 통보, 이용 의향 접수)

- 4. 물품 당 지원 기간 연장(최대 필요 기간까지 확대)
- 5. 지원 자격기준 확대(소득 기준 상향 등)
- 6.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물품 대여 기관의 확충 등)
- 7. 기타()
- 8. 개선할 부분 없음

→ 문56로

문56. 귀하는 자녀의 임신·출산부터 영아, 유아에 이르는 시기 중 정부의 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해당 시기에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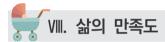
- ※ 비용 지원: 자녀 출산·양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금 혹은 바우처 형태의 현금성 지원 예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 서비스 지원: 부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의 직접 공급 또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예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아이돌보미 등 개별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등
- ※ 물품지원: 자녀출산양육에 필요한 직접적 물품제공 형태의 지원 예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장난감도서 대여 등
- ※ 시간 지원: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휴가휴직, 유연근무 형태의 시간 지원 예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육아시간 제공 등

	문56-2. 개선이 필요한 지원 범주				
56-1 육아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	문56-2-1. 임신출산 시기의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문56-2-2. 영아기의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문56-2-3. 유아기의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1. 임신·출산 시기 → 문54-2-1으로 2. 영아기(출생~36개월 이하) → 문54-2-2로 3. 유아기(36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 문54-2-3으로	1. 비용지원 2. 서비스 지원 3. 물품지원 4. 시간지원	1. 비용지원 2. 서비스 지원 3. 물품지원 4. 시간지원	1. 비용지원 2. 서비스 지원 3. 물품지원 4. 시간지원		

문57. 7세 미만 취학전 아동에 대한 비용지원은 크게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지원/양육수당(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22년 출생아부터 지급), 첫만남이용권('22년 출생아부터 지급)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귀댁에서 받는 해당 비용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비	용 지원 정책	문57-1. 수급 여부		문57-2. 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21년 이전	1. 유치원 비용 지원	1.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2. 이용한 적 없음	→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ㅡ 초새아	2. 어린이집 비용 지원	1.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2. 이용한 적 없음	→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Н	용 지원 정책	문57-1. 수급 0	문57-1. 수급 여부			1원 정책 만족도
	3. 양육수당	1. 받아본 적 있음 2. 받아본 적 없음	→	받아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2년 이후	4. 부모급여 (영아수당) *영아수당이 23년에 부모급여로 통합	1. 받아본 적 있음 2. 받아본 적 없음	→	받아본지원에대해서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출생아	5. 첫만남 이용권	1. 받아본 적 있음 2. 받아본 적 없음	→	대해서만응답해주십시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6. 아동수	당	1. 받아본 적 있음 2. 받아본 적 없음	→	주 십 시 오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58.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 사회적 친분관계는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가구의 경제적 수준	1	2	3	4	5
2) 여가생활	1	2	3	4	5
3) 주거환경	1	2	3	4	5
4) 가 족 관계	1	2	3	4	5
5) 자녀돌봄(양육)	1	2	3	4	5
6) 사회적 친분관계	1	2	3	4	5
7) 자아성취	1	2	3	4	5
8)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1	2	3	4	5

문59. 본인 결혼 당시와 현재 사회경제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향후 10년에는 어떤 정도의 사회경제적 위치일거라 예상하십니까?

결혼 당시의 시	결혼 당시의 사회경제적 위치 현재의 사회		경제적 위치	미래의 사회경제적 위치	
	① 상상		① 상상		① 상상
상층	② 상중	상층	② 상중	상층	② 상중
	③ 상하		③ 상하		③ 상하
	④ 중상		④ 중상		④ 중상
중층	⑤ 중중	중층	⑤ 중중	중층	⑤ 중중
	⑥ 중하		⑥ 중하		⑥ 중하
	⑦ 하상		⑦ 하상		⑦ 해상
하층	⑧ 하중	하층	⑧ 하중	하층	⑧ 하중
	9 하하		9 하하		() 하하

※ 영유아 자녀용 설문은 **아동 단위로 응답**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2017~2023년 출생)**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영유아 자녀용	총 자녀 수	자녀 번호	해당 자녀 출생 순위	1. 첫째 2. 둘째 3. 셋째	4. 넷째 5. 다섯째 6. 여섯째	해당 자녀 출생 연월	()년 ()월 생
------------	--------------	----------	----------------------	-------------------------	---------------------------	----------------------	----------------

*가구용 설문 2페이지 참조하여 일치하도록 기입



✓ I. 영유아 자녀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2017~2023년 출생)의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 자녀 수만큼 반복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01. 귀 영유아 자녀는 최근 한 달 내에 다음의 반일제 이상 기관 중 이용한 육아 서비 스가 있습니까? 이용한 반일제 이상 기관을 선택해 주세요. 한 달 이내에 변동 사 항이 있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1. 어린이집 → 문02 응답 후 p.39의 I-1. '어린이집' 설문으로
 - 2. 유치원 → 문02 응답 후 p.41의 I-2. '유치원' 설문으로
 - 3.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 문02 응답 후 p.43의 I-3. '반일제 이상 기관' 설문으로
 - 4. 반일제 이상 기타 기관(유아스포츠단, YMCA 등) → 문02 응답 후 p.43의 1-3. '반일제 이상 기관' 설문으로
 - 5.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한 적 없음 → 문02 응답 후 p.45의 I-4. '문화센터' 설문으로
- 문02. 귀 영유아 자녀는 최근 3개월 이내 다음의 육아서비스 중 이용한 서비스가 있습니 까? 각 서비스에 대해 이용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 축구클럽 등의 수업은 학원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용 여부
① 문화센터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② 예체능학원 (태권도, 수영, 축구교실, 발레, 피아노, 미술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③ 학습관련 학원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④ 기타 교육서비스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I -1. 어린이집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 문0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 모를 경우, 어린이집 이름 기입

1. 국공립

2. 사회복지법인

3. 법인·단체

4. 민간

5. 가정

6. 직장

7. 부모협동 8. 모름(기관명:

)

문04. 평상시에 이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각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각, 기관에서 나오는 시각, 집에 도착하는 시각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집) 출발시각	등원시각	하원시각	(집) 도착시각
()시 ()분			

문04-1. 현재 이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04-2로
-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04-2로
- 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05로
-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04-3으로
-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04-3으로

문04-2. 늘리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늘이고 싶으십니까?

주당 ()시간

- 문04-2-1.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이용 자격 때문에
 - 2. 더 이용하는 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 3. 아이가 혼자 남는 걸 싫어해서
 - 4. 추가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 5.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 6.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 7. 특별활동이 운영되지 않아 아이가 지루해해서
 - 8. 기타()
- 문04-3. 줄이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줄이고 싶으십니까?

주당 ()시간

문05. 다음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23년 기준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문05-1~05-2. 귀댁의 해당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현재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 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귀 자녀는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몇 개 과목에 참 여하고 있습니까? (※ 없으면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특별활동			
항목	문05. 비용		문05-1. 운영여부	문05-2. 과목 수	
1.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보육료	월 ()원			
2. 그 밖의 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입학금 등)	월 ()원			
3.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 (아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월 ()원			
4. 어린이집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원	1. 운영함 → ► 2. 운영하지 않음	월()개	
5.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비용으로 기입해 주세요)	월 ()원			

문06.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l	ПΗ	우		조
	١.	чμ	_	T	=

- 2. 대체로 만족
- 3. 보통

- 4. 대체로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문07.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입니까?

- 1. 예 → p.46 I-4. 문화센터로 2. 아니오 → 문07-1로

문07-1. 그렇다면,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는 다음 중 어 디에 해당합니까?(낮 시간 기준)

- 1. 유치원 이용
- 2.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 3.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 4.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ex. 시간제 보육, 조부 모·육아도우미의 개별 돌봄 시간제로 이용)
- 5.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 6. 기타()

문07-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비용 부담 때문에
- 2. 일을 하고 있어서
- 3.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대기가 길어서 등)
- 4.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또는 부족하여서)
-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조부모 부재 포함)
-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ex.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태 등)
- 8.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소득 기준, 연령기준, 각종 지침 등에 비해당)
- 9. 기타()

※ 어린이집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45페이지(1-4,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 | -2. 유치원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08.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1. 국·공립

2. 사립

문09. 평상시에 이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각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각, 기관에서 나오는 시각, 집에 도착하는 시각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집) 출발시각 등원시각		하원시각	(집) 도착시각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문09-1. 현재 이 자녀의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09-2로
-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09-2로
- 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10으로
-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09-3으로
-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09-3으로

문09-2. 늘리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늘리고 싶으십니까?

주당 ()시간

- 문09-2-1. 유치원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 엇입니까?
 - 1. 이용 자격 때문에
 - 2. 더 이용하는 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 3. 아이가 혼자 남는 걸 싫어해서
 - 4. 추가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 5.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 6.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 7. 특별활동이 운영되지 않아 아이가 지루해해서
 - 8. 기타()

문09-3. 줄이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줄이고 싶으십니까?

주당 ()시간

문10. 다음의 유치원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23년 기준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문10-1~10-2. 귀댁의 해당 자녀가 이용하는 유치원에서는 현재 방과후 과정과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귀 자녀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과목 수는 몇 개입니까? (※ 없으면 0을 기입해 주십시오)

	특별활동			
항목	문10. 비용		문10-1. 운영여부	문10-2. 과목 수
1.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보육료	월 ()원		
2. 그 밖의 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통학차량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원복비, 입학금 등)	월 ()원		
3. 방과후 과정 (아침돌봄, 방과후 과정, 저녁돌봄 ※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제외)	월 ()원	1. 운영함 2. 운영하지 않음	
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원	1. 운영함 → ► 2. 운영하지 않음	월()개
5.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비용으로 기입해 주세요)	월 ()원		

문11.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유치원의 /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	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죡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	족	
문12.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유치원을 이	용하는 것이 귀칭	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입니까?
1. 예 → p.46 l-4. 문화	센터로	2. 아니오 →	문12-1로
문12-1. 그렇다면, 해당 자녀의 연령어	서 귀하가 가정	당 원했던 양육 형	형태는 다음 중 어
디에 해당합니까?(낮시간 기준	<u>=</u>)		
1. 어린이집 이용			
2.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3.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4.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다			시간제보육 이용,
조부모·육아도우미의 개별 등			
5.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더 6. 기타(기 등이 무모 다	1선 호 품)	
0. 기 미 ()	
문12-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	대의 양육을 하	지 않는 주된 이	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일을 하고 있어서			
3.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대기가 길어서 등)
4.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열에서 떨어셔서)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av. 019 715 11
7. 편이는 시비스 무군과 이용을 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		그 구군이 될다지	(ex. 이용 기능 시
8.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하지		· 연령기준, 각종 /	지침 등에 비해당)
9. 기타()	
※ 유치원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45페이지(I-	-4.문화센터)로 0	기동해 주십시오.



I -3.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므12	혀재	이용하고	이느	바이제	이사	기과	으혀으	서태해	즈세ㅇ
π ΙΟ.	언기시	이용이고	7.7.	민들제	VI	ノー	# X =	선택에	구세표.

- 1. 영어학원(키즈칼리지, YBM, ECC, SLP 등)
- 2. 미술학원, 음악학원 등 예능 학원
- 3. 놀이학원 (크라벨, 위버지니어스, 하바 등)
- 4. 체육학원 (YMCA 아기스포츠단, 유아체육단 등)
- 5. 기타(어디:

문14. 평상시에 이 자녀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각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각, 기관에서 나오는 시각, 집에 도착하는 시각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

(집) 출발시각	등원시각	하원시각	(집) 도착시각
()시 ()분			

문14-1. 현재 이 자녀의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14-2로
-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14-2로
- 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15로
-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14-3으로
-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14-3으로

문14-2. 늘리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늘이고 싶으십니까?

주당 ()시간

문14-2-1.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아이가 혼자 남는 걸 싫어해서
- 2. 더 이용하는 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 3. 추가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 4.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 5.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 6.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 아이가 지루해해서
- 7. 기타()

문14-3. 줄이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줄이고 싶으십니까?

주당 ()시간

문15. 다음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23년 기준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문15-1~15-2. 귀댁의 해당 자녀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는 현재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귀 자녀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과목 수는 몇 개입니까? (※ 없으면 0을 입력해 주십시오.)

항목	문15.	비용	문15-1. 운영여부	문15-2. 과목 수
1. 수업료	월 ()원		
 그 밖의 비용 (교재교구비, 재료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방과후 과정, 현장학습비, 행사비, 입학금, 원복비 등 ※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제외) 	월 ()원		
3. 특별활동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원	1. 운영함	월()개
4.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비용으로 기입해 주세요)	월 ()원		

문16. 이용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대체로 만족
- 3. 보통

- 4. 대체로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문17.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대체로 만족
- 3. 보통

- 4. 대체로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45페이지(1-4.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Ⅰ -4. 문화센터에 대한 설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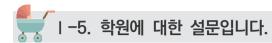
- 문18. <u>지난 3개월 동안</u> 백화점,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문화센터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 → 문18-1로
- 2. 아니오
- → 문19로

♥ 영유아용 설문 문02(38페이지)의 '①문화센터 등'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문18-1~18-2.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셨던 문화센터 기관과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이용 기관과 서비스 종류는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 ※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셨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문18-3~18-5. 해당 문화센터의 주당 이용 횟수와 1회 평균 이용 시간 및 월 이용 비용은 얼마입니까?

[문18-1 보기] 이용기관 [문18-2 보기] 서비스 종류 ①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① 체육 관련(신체놀이) ②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② 음악 관련 ③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③ 미술놀이 ④ 통합놀이(오감놀이, 쿠킹클래스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④ 기타 () ⑤ 언어 관련(동화, 외국어 등) ⑥ 수학 관련(가베 등) ⑦ 과학 관련 ⑧ 기타 (바둑, 체스 등)

문18-1. 이용 기관	문18-2. 서비스 종류	문18-3. 이용횟수	문18-4. 이용시간	문18-5. 이용비용
()	()	주당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	()	주당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	()	주당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	()	주당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	()	주당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	()	주당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	()	주당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문19. 지난 3개월 동안 자녀가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20로

2. 아니오 → **47페이지(I-6.기타 교육서비스)로**

영유아용 설문 문02(38페이지)의 '②예체능학원(태권도·수영·축구교실·발레·피아노·미술 등)' 또 는 '③학습 관련 학원(영어·수학국어·과학 등)'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20. 자녀가 이용하는 학원은 어떤 종류의 학원입니까?

문20-1. 몇 개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20-2~20-4. 해당 학원의 주당 이용 횟수와 이용 시간과 월 이용비용은 얼마입니까?

- ※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 해당 유형별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닐 경우 이용횟수와 이용 시간은 유형별로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 시오.
- ※ 2023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문20.	이용여부	문20-1.	이용개수	문20-2.	이용횟수	-	문20-3.	이용시간		문20-4.	이용비용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1. 0 2. 0	용함 용안함	()개	주 ()회	주당	()시	간 ()분	월 ()만원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1. 0 2. 0	용함 용안함	()개	주 ()회	주당	()시	간 ()분	월 ()만원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1. 0 2. 0	용함 용안함	()개	주 ()회	주당	()시	간 ()분	월 ()만원
영어	1. 0 2. 0	용함 용안함	()개	주()회	주당	()시	간 ()분	월 ()만원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한글, 한자 등)	1. 0 2. 0	용함 용안함	()개	주 ()회	주당	()시	간 ()분	여기)만원
수학 및 과학 관련 (수, 주산, 과학실 험, 로봇 등)	1. 0 2. 0	용함 용안함	()개	주 ()회	주당	()시	간 ()분	월 ()만원
기타 (바둑, 웅변 등)	1. 0 2. 0	용함 용안함	()개	주 ()회	주당	()시	간 ()분	월 ()만원

문21.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학원 비용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대체로 만족
- 3. 보통

- 4. 대체로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문22.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학원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대체로 만족
- 3. 보통

- 4. 대체로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Ⅰ-6. 기타 교육서비스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23. 지난 3개월 동안 귀댁의 해당 자녀는 아래의 기타 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 기타 사교육: 일회성, 단발성 이용(예: 일회성 체험활동 등)이 아닌 경우에 한함
- 1. 방문형 학습지(선생님이 직접 학습지를 들고 방문해서 수업 및 채점 등을 진행)
- 2.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선생님이 직접 장난감이나 퍼즐 등 교구를 들고와서 함께 놀아주거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
- 3.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선생님의 방문 없이 택배나 우편으로 학습지 또는 교구를 받는 경우, 전화/화상 영어 등)
- 4. 그룹활동 및 개인지도(축구, 미술, 피아노, 한글, 영어 등 과외)
-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수업하는 것)
- 6.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 1. 예
- → 문23-1로
- 2. 아니오
- → 49페이지(I-7.시간제보육(일시보육))로

영유아용 설문 문02(38페이지)의 '④기타 교육서비스'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 지 확인해 주세요.

- 문23-1~23-5. 이용하시는 기타 교육서비스의 유형별로 이용 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기타 교육서비스의 종류와 월 평균 총 이용비 용.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 2가지 이상의 방식의 섞여 있는 서비스의 경우 보다 주된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유형을 응답해 주십시오 (예: 방문형 학습자인데,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듣기 파일이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경우 → 방문형 학습자)
 - ※ 이용하시는 기타 교육서비스이 여러 개인 경우 아래 표에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문23-1 보기] 기타 교육서비스 종류

- 1.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 6. 기타 다른 언어(한자, 일본어 등)
- 2.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 7. 수학 및 과학 관련(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 3.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 8. 종합교과

4. 영어

9. 기타 (바둑, 웅변 등)

5. 한글

유형	문23-1. 종류	문23-2. 이용시간	문23-4. 이용비용	문23-5. 서비스 이용 만족도	비고
	()	주 ()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1. 방문형 학습지	()	주 ()분	월 총 ()만원	3.보통	→ 문25로
	()	주 ()분	, , , , , , , , , , ,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주 ()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	주 ()분	월 총 ()만원	3.보통	→ 문25로
20	()	주 ()분	, ,,,,,,,,,,,,,,,,,,,,,,,,,,,,,,,,,,,,,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E201
	()	주 ()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	주 ()분	월 총 ()만원	3.보통	→ 문24로
<u> </u>	()	주 ()분	, ,,,,,,,,,,,,,,,,,,,,,,,,,,,,,,,,,,,,,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주 ()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4. 개인지도 및 그룹활동	()	주 ()분	월 총 ()만원	3.보통	→ 문25로
-620	()	주 ()분	, , , , , , , , , , , ,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주 ()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	주 ()분	월 총 ()만원	3.보통	→ 문24로
	()	주 ()분	, , , , , , , , , , ,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주 ()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6.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	주 ()분	월 총 ()만원	3.보통	→ 문24로
22 00 110	()	주 ()분] , ,,,,,,,,,,,,,,,,,,,,,,,,,,,,,,,,,,,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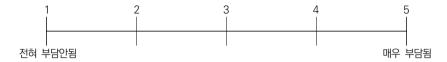
문24. [문23-1에서 3.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혹은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선택했거나, 6.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비대 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1. 전자 기기가 아닌 실물 혹은 종이 등을 통한 서비스가 더 많았으면
- 2. 아이들의 흥미를 장시간 유지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 3. 교육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 4. 교육 내용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 5.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으면(부모용 지도서 등의 포함)
- 6. 아이와 선생님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였으면
- 7. 서비스 이용 후 사후 관리가 더 잘 이뤄졌으면
- 8.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9. 약정이나 의무사용 기간이 없었으면 10. 기타 ()

※ 문25는 학원 및 기타 교육서비스(6.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제외)를 하나라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25. 현재 자녀를 위해 이용하시는 사교육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문25-1. [문25에서 부담된다(4 또는 5)라고 응답한 경우]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움에 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 2.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두려워서
- 3.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 4.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 5.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 6.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 7.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 8. 아이가 원해서
- 9. 기타()



-Ⅰ-7.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에 대한 설문입니다.

- 문26. 지난 3개월 동안 귀댁의 해당 자녀는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 → 문26-1로
- 2. 아니오
- → 50페이지(I-8.기타서비스)로
- 문26-1.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용한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어린이집
 - 2.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
문26-2.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해 이용하였습니까?	당 자녀는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을 월 평균 몇 회
	월 평균 ()회	
문26-3.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	. 이용 시 1회당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하였습니까?
	1회 평균 () 시간
문26-4.	자녀를 위한 시간제 보육(일시	l보육)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 만원 이하 반올림 월 평균 ()만원

문26-5. 자녀를 위해 이용한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보통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1. 이용시간의 선택성					
2. 비용					
3. 이용 장소의 접근성					
4. 인력의 전문성					
5. 긴급 보육의 유용성					



-I-8. 기타서비스(키즈카페, 비정기 체험활동 등)에 대한 설문입니다.

※ 다음은 기타서비스 중 키즈카페 혹은 비정기 체험활동(예: 숲체험, 요리체험, 박물관견학 등)에 대한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키즈카페	비정기 체험활동
문27. 이 자녀를 위해 지난 3개월 이내에 키즈카페를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놀이체험)도 포함해서 이용 경험을 응답해 주십시오.	문29. 이 자녀를 위해 지난 3개월 이내에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 문27-1로 2. 아니오 → 문28로	1. 예 → 문29-1로 2. 아니오 → 문30으로

키즈카페	비정기 체험활동
문27-1. 키즈카페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어떻게	문29-1. 비정기 체험활동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3개월 총 () 회	3개월 총 () 회
문27-2. 키즈카페 1회 이용 시 몇 시간 정도	문29-2. 비정기 체험활동 1회 이용 시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이용하십니까?
1회 ()시간 이용	1회 ()시간 이용
문27-3. 키즈카페의 시간당 이용비용은 얼마	문29-3. 비정기 체험활동의 회당 비용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정도였습니까?
1시간 당 ()원	1회 당 ()원
※ 키즈카페는 영유아 입장료만 응답해 주십시오.	※ 체험활동은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입장료
부모 입장료 및 식음료 비용 제외	등을 모두 포함
문27-4. 키즈카페의 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문29-4. 비정기 체험활동의 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27-5.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2.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주양육자의 휴식을 위해) 3.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4. 아이가 좋아해서 5. 비용이 저렴해서 6.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7. 기타(문29-5.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체험활동 인솔자의 해당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 2.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주양육자의 휴식을 위해) 3. 자녀가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4. 아이가 좋아해서 5. 비용이 저렴해서 6.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7. 기타()
문28. (지난 3개월간)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않은	문30. (지난 3개월간)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	1.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2. 감염병 위험 때문에	2. 감염병 위험 때문에
3.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서	3.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4.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4.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5. 비용이 부담되어서	5. 비용이 부담되어서
6. 기타 ()	6. 기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 여 기 간**: 조사는 2023년 5월~8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1회 조사 참여 를 요청받을 것입니다.
- **장** 소 : 귀댁 또는 귀하가 편하게 조사에 응하실 수 있는 장소를 요청해 주시면 그 장소로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 본 조사에서는 참여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경우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조사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 영유아 수 1명당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할 예정 입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이익: 귀하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가구의 소득과 지출, 자녀 양 육비용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높아질 수 있으며, 국가의 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조사는 설문 응답 시간이 40분 이상으로 다소 길고 상세한 가계소득과 지출액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응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취업 관련 정보, 연락처, 자녀수 등의 정보입니다. 연락처는 사례비 지급, 응답자 관리, 응답 정보 확인 등에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기타 수집된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익명화된 상태에서 사용되며, 개인 정보 및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육아정책연구소와 조사업체의 저장장치에 보관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 조사업체 데이터 담당 연구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진과 조사업체 담당자는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연구자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간주될 것입니다.
- **제3자 정보제공** :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 조사로부터 수집된 원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 책임자의 연구실 내에 2032년까지 보관되며, 이후 폐기됩니다.
- O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으나 조사를 중단할 경우 조사에 대한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사 중단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중단 즉시 폐기됩니다. 만일 귀하가 본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조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 문의** : 연구 참여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 처를 통해 연구진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책임연구자: 최효미 전화번호: <u>02-398-7771, 이메일: hmchoi@kicce.re.kr</u>
 - * 근무시간(09:00~18:00) 외 전화하실 경우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됩니다.
 - 한국리서치 담당자: 김지은 책임, 전화번호: <u>02-3014-1055</u>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 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398-7761 irb@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계획서에 대한 심의 그리고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육 아 정 책 연 구 소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가구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문과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설명은 귀하가 이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예정이며,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참여 동의서 - 영유아 가구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연 구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개 인정보 제외)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 처리 후 익명화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O로 표시하고, 확인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성 명	연구 참여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날짜	확인
				(서명/인)

* 연구대상자가 직접 작성

조사원 또는 책임자 설명 날짜 확인 (서명/인)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가구의 필요에 부합하는 육아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 **대 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전국 대표 표집을 통해 추출된 영유아 자녀가 있는 약 1,770여 가구로, 가계 지출과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등 영유아의 양육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 혹은 부모님을 대신해 주양육자로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분입니다.
- 연구의 참여 절차 : 귀하의 가구는 임의 추출된 조사구에 속한 가구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본연구의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원칙적으로 면접원을 통한 대면면접조사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 조사원과의 상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조사 방법	절차
방문 (대면면접조사)	대면면접조사원이 패널가구와 미리 조사 일정을 조율 후 약속된 일정에 가구(또는 응답자가희망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원이 설문 문항에 대해 설명하며 조사를 실시
전화	패널가구가 가구 방문 면접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을 해당 가구에 남겨둔 상태로,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정해진 약속된 일정에 대면면접조사원이 패널 가구로 전화하고, 조사원과 응답 가구와 설문을 동시에 보면서 전화로 조사.
유치	패널가구 방문 또는 전화 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 가능 기간과 설문지 회수 일정을 정하여 설문지를 배송하고 회수일에 전용 회수용 봉투에 담아 패널 가구의 문앞 또는 우편함에 두면 면접원이 회수일에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식임.
방문 + 전화	대면조사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패널가구의 가용 시간 내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문항에 대해 전화로 조사하는 방식임.
방문 + 유치	대면조사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패널가구의 가용 시간 내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수일을 정하여 설문지를 유치함. 응답자가 설문을 완료한 후 전용 회수용 봉투에 담아 문앞이나 우편함에 두면 면접원이 회수일에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식임.
기타	방문과 유치, 전화조사를 병행하거나, 유치와 전화조사를 병행하는 등 설문완료를 위해 다양한 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실시함.

본 조사는 가구조사와 아동조사의 2종의 설문지로 구성되며, 아동조사는 귀하께서 영유아 자녀별로 설문지에 각각 응답하여야 합니다. 본 조사를 완료하기까지 평균 40분 기량 소요되며(영유아가 1명 인 경우), 가구 내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영유아 수에 따라 60분 기량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록 2. 2023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B형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 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일반과제인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일환으로, 현재 임신 중인 가구의 출산 계획, 향후 자녀 양육 관련 사항, 가계소비지출, (둘째아 이상을 임신한 경우) 손위자녀의 양육비용 등에 대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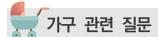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1기 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새롭게 11기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단, 임신 가구에 대한 조사는 2023년에 한 번만 조사가 실시됩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 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도	()テラ	근 ()	동읍면
세부 주소					
모취업 여부	① 취	걸 ② 휴직 경	중 ③ 핵업 중	④ 7직 중	⑤ 미취업



旦∩1	긔하이	서벼으	무엇입니	17712
正UI.	1101-1	CZ	エスロ5	-1//1:

- 1. 남자
- 2. 여자

문01-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문01-2.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기혼(사실혼 포함)
- 2. 미혼
- 3. 기타()

문01-3. 귀하께서는 현재 임신 중이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02. 귀댁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현재 임신한 자녀를 빼고 응답해 주십시오.) ()명 → 자녀가 0명인 경우 문04로 가십시오.

문03. 귀댁 자녀의 출생연월과 성별은 각각 어떠합니까?

※ 가구 내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 자녀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	구분	문03-1. 출생연월		문03-	2. 성별	
번호	TE	군03-1. 물갱인멸			1. 남	2. 여
1	첫째 자녀	()년 ()월 생		
2	둘째 자녀	()년 ()월 생		
3	셋째 자녀	()년 ()월 생		
4	넷째 자녀	()년 ()월 생		
5	다섯째 자녀	()년 ()월 생		
6	여섯째 자녀	()년 ()월 생		

문04. 현재 귀댁의 가족 구성원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떨어져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으로 응답.(예: 주말 부부, 외국에 나가 있는 초등학생 자녀 등) 단, 떨어져 산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기족의 가계 지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는 응답 대상에서 제외)
- ※ 떨어져 살면서 생계가 분리된 경우는 제외. (예: 매달 생활비를 보내더라도 따로 사는 조부모 등)
- ※ 함께 살고 있더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는 제외. (예: 입주 돌보미 등)
 - 1. 본인
 - 2. 본인의 배우자
 - 3. 배우자의 형제자매
 - 4. 본인의 형제자매
 - 5. 배우자의 부
 - 6. 배우자의 모
 - 7. 본인의 부
 - 8. 본인의 모
 - 9. 그 외 친인척 ()

문05. 귀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입니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예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예 2. 아니오

문06. 귀하는 언제 결혼했습니까? (사실혼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년도

문07. 귀하는 현재 임신 몇 주째입니까?

()주째

문08~09. 귀하와 배우자의 연령 등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문09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분	문08. 본인(여성)	문09. 배우자(남성)
	()년생	()년생
② 최 종 학력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③ 취업여부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 문9.배우자(남성)로 4. 구직 중 → 문9.배우자(남성)로 5. 미취업 → 문9.배우자(남성)로	1. 취업 2. 휴직 중 3. 핵업 중 → 문10 4. 구직 중 → 문10 5. 미취업 → 문10
④ 직업군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정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⑤ 근로 형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⑥ 노동시간*	주당 평균 () 시간 → 36시간 미만인 경우 ⑥-1로	주당 평균 () 시간 → 36시간 미만인 경우 ⑥-1로
⑥-1. 단시간근로이	1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1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유 *⑥ 노동시간 36시간미만 인 경우만 응답	1. 건강 2. 육아 3. 가사 4. 통학 5. 본인이 원해서 6.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7. 기타(*)	1. 건강 2. 육아 3. 가사 4. 통학 5. 본인이 원해서 6.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7. 기타())
① 비정규여부 (⑤ 근로형태 중 1. 임금근로자만 응답)	1 . 정규직 2 . 비정규직	1 . 정규직 2 . 비정규직

[※] 무급가족종사자는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노동시간**에는 가사 노동 등에 소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u>일자리에서의 노동시간만을 응답</u>하며, <u>야근.</u> <u>휴일 노동 등 초과 노동시간도 합산</u>하여 응답합니다.

문10-1~10-2. (취업자인 경우) 현재 아이를 출산한 후 <u>3년 안에</u>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 자의 취업상태. 근로시간 및 근로소득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까?

항목	문10-1. 본인(여성)	문10-2. 배우자(남성)
취업상태 (※단순 이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변동 없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변동 없음 2. 그만둠 3. 새로운 일을 함	1. 변동 없음 2. 그만둠 3. 새로운 일을 함
근로시간	1. 늘어남 2. 줄어듦 3. 변함 없음	1. 늘어남 2. 줄어듦 3. 변함 없음
근로소득	1. 늘어남 2. 줄어듦 3. 변함 없음	1. 늘어남 2. 줄어듦 3. 변함 없음

문11. 귀하가 아이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그냥 생겨서
- 2. 배우자 혹은 양가 부모님이 원해서
- 3. 노후에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 4. 대를 잇기 위해서
- 5.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어서
- 6.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때문에
- 7.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 8. 주변의 평판과 사회적인 인정 때문에
- 9. 아이를 좋아해서

10.	기타())

문12. 귀하는 결혼 전부터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었습니까?

- 1. 네 → 문12-1
- 2. 아니오 → 문13
- 3. 생각해본 적 없음 → 문13

문12-1. 그렇다면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계획이었습니까?

총 ()명

문12-1-1. (계획한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를 2명 이상 낳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이를 좋아해서

- 2. 자녀가 혼자이면 외로울 것 같아서
- 3.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사회성이 좋을 것 같아서
- 4. 배우자나 부모님이 원해서
- 5. 내가 노후에 덜 외로울 것 같아서
- 6.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서
- 7. 기타()

문12-2. 귀하가 현재 임신한 아이는 계획한 시기에 가진 아이입니까?

1. 계획한 시기에 가짐

→ 문13 → 문13

- 2. 계획보다 (
-)년 정도 빨리 가짐
- 3. 계획보다 ()년 정도 늦게 가짐 → 문12-2-1
- 4. 시기는 계획하지 않았음

→ 문13

문12-2-1. 계획보다 아이를 늦게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난임 등)
- 2.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낳으려고 (주택마련 등)
- 3. 회사에서 임신/출산하는 경우에 눈치를 주어서
- 4.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게 될까봐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등)
- 5.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 6.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 7.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8. 건강해진 이후에 낳으려고 (질병, 체력저하 등)
- 9. 기타(

문13. 귀하는 임신한 기간 동안 산전 진찰을 주로 어디서 받으십니까?(받으실 계획입니까?)

- 1. 종합병원
- 2. 병·의원(여성전문 병원 포함)
- 3. 조산원
- 4. 보건소, 보건의료원
- 5.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을 계획임

문14. 귀하는 어디에서 분만하실 계획입니까?

- 1. 종합병원
- 2. 병·의원(여성전문 병원 포함)

- 3. 조산원
- 4. 보건소, 보건의료원
- 5. 자택
- 6. 기타()

문14-1. 자연분만으로 낳으실 계획입니까? 제왕절개로 낳으실 계획입니까?

- 1. 자연분만
- 2. 제왕절개

문15. 귀하는 산전 진찰과 분만에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총 () 만원

문16. 귀하는 산후 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산후 조리 기간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는지요? 여러가지 방식을 중복하여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캰	문16-1. 이용여부	문16-2.	이용일수	문16-3.	이용비용
1. 집(자택, 친정, 시가 등)에서 산후 도우미 이용	1. 이용함 2. 이용안함	()일	()만원
2. 잽(자택, 친정, 시가 등)에서 부모님 혹은 친인척 도움	1. 이용함 2. 이용안함	()일	()만원
3. 산후 조리원 등 전문 시설	1. 이용함 2. 이용안함	()일	()만원
4. 7EK)	1. 이용함 2. 이용안함	()일	()만원
5. 별도의 산후조리를 하지 않을 계획임					

문17. 다음 보기 중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연령별로 가장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보기]

-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4시간 이상) 영어학원 ④ 반일제 이상(4시간 이상) 기타 기관
- ⑤ 개별돌봄 서비스(조부모, 육아도우미 등 타인의 개별돌봄) ⑥ 부모 직접 돌봄(예: 육아휴직 등 이용 포함)

0세(~12개월)	1세(13~24개월)	2세	3세	4세	5세	6세



| | I. 가구의 소득과 가계 지출

- 문18. 귀댁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세후소득)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지난 3개월 내 일시금으로 받으신 금액은 1/3하여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가구 전체 소득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
1. 본인 근로 및 사업 소득	() 만원	- 일을 하여 번 돈
2. 배우자 근로 및 사업 소득	() 만원	글글 이어 난 년 - (자영업자 및 고용주, 프리랜서 등도 매출에서 제반 비용을
3.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및 시업소득	() 만원	제하고 순수하게 본인의 소득으로 남은 돈을 기입)
4.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 만원	월세 등으로 받은 돈, 땅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생긴 소득, 주식거래 차익, 은행 이자 등 (본인이 납입·투자한 원금은 제외, 전세보증금 받은 금액 등도 제외)
5.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 만원	이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보육료 제외),임신출산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함,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생계급여) 장애수당, 농어업 정부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 각종 연금(기초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시학연금, 공무원 연금,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 실업급여, 생계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의미함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이학비는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6. 사적이전소득	() 만원	부모 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
7. 기타소득	() 만원	보험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증여·상속, 축의금, 돌잔치 등으로 생긴 돈



| II. 가구의 지출 및 양육비용 예상

- 문19~20. 귀댁의 생활비 지출 및 **임신중인 자녀 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용에 관 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비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작성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하며, 반 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임신중인 자녀 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별 지출 비용은 미취학 자녀 뿐만 아니라 가구 내 전체 자녀에 대해 응답하며, 자녀별 지출 비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림하여 응답하되. 실질적인 비용 지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0원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임신중인 자녀 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자녀별 금액이 나누어지지 않은 금액(예: 가족 외식비 등)도 자녀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19. 가구		5인 재녀 20. 가구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전체 소비 지출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 식비 (외식비 포함)	가족 전체가 함께한 외식비 등은 포함하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불한 급간식비 등은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 외식비	직장에서 사먹는 점심값 포함, 커피값은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주거/관리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월세 등을 합산	만원						
2-1.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 포함. 단, 집 전체의 수리, 건축비 등은 제외.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포함	만원						
2-2. 월세	주거를 위해 웰마다 고정적으로 지출해/하는 비용 (장사를 위한 임대료는 제외)	만원						
3. 기기/집기	가구, 가전 등의 구매 (이동 침대, 책상 등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3-1. PC/노트북/ 태블릿PC		만원						
4. 피복비	의류 및 신발, 가방 등 구매비(자녀의 내의류 등 모두 포함), 참구류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 보건/의료비	병원, 약구매비, 비타민이나 영양제, 건강보조제(홍삼, 한약 등 포함), 마스크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6. 교육/보육비	부모님의 교육비 포함,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사교육 이용비용 등(교재교구 포함), 자녀 셔틀버스 비용, 육아도우미 비용, 자녀 돌봄의 대가로 부모님께 드라는 용돈 등 포함 (※정부 지원금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완구(장난감, 모빌 등), 여가용 도서 구입비, 가족여행 등 포함 단, 교재교구 제외	만원						
7-1. 가족여행 등	기족이 함께 여행을 간 경우, 사용한 비용 전액	만원						
7-2. 관람, 체험학습	영화, 스포츠, 공연, 박물관 관람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문19. 가구	(임신중인 자녀 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문20. 가구 소비액 중 자녀 별로 지출액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전체 소비 지출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7-3. 완구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4. 도서구매	교재 교구는 제외. 아동 전집류 등은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8. 교통비	자동차 유지/유류비, 대중교통비 포함. 자동차 구입비, 자녀의 셔틀버스 비용은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 통신비	핸드폰 이용료,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IPTV 및 케이블 TV 수신료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1. 휴대전화비	휴대폰 구입비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0. 개인유지비 (생필품 포함)	목욕용품, 바디로션, 기저귀, 물타슈, 세탁용품, 주방용품, 화장지, 화장품, 키친타올, 이미용 서비스 등	만원	만원	만원	민원	만원	만원	만원
11.금융상품 (저축 및 보험 납입금)	이자, 저축, 보험 등(자녀 명의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예금, 적금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2. 보험	저축성 및 상해 등 각종 보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3. 원금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원금 상환액	만원						
11-4. 이자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이자 납입금	만원						
11-5. 주식, 암호화폐	주식, 암호화폐(코인) 투자금	만원						
12. 이전 지출	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자녀 돌봄의 대가로 드리는 용돈, 가족 내 이전자출은 제외)	만원						
13.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반려동물 입앙비용은 제외함)	만원						
14. 기타 상품 및 세비스	주류 및 기호식품, 가사도위미 등 (※육아도위미 비용은 제외)	만원						

[소비 지출 전망]

문21. 우리 사회에서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 다음의 시기별로 양육비용이 한 달에 얼마나 들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내용	예상되는 경제적 비용	
90 (36개월미만)	기간 내 월 평균 (만원)	
유아(36개월이상-취학전)	기간 내 월 평균 (만원)	
· 초등학생(1~6학년)	기간 내 월 평균 (만원)	
중·고등학생	기간 내 월 평균 (만원)	

二 22	지니ㅋ	야유은	의해	느가	채이으	져아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7
でとと.	시니	승프리	ᅱᅦᅦ	一 一 一	THE	7701	건니니고	경독에 티디끼	

- 1.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 2.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함
- 3.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를 부모가 부담해야 함
- 4. 국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 5. 기타()
- 6. 잘 모름

문23.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어느 시기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미성년시기까지 지원한다(고교졸업까지)
- 2. 대학 졸업까지 지원한다
- 3. 취업이 될 때까지는 지원한다
- 4. 결혼할 때까지 지원한다
- 5. 손자녀 양육까지 지원한다
- 6. 기타()

문24. 귀하는 정부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0	2순위	
-----	---	-----	--

-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2.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단축 또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
- 3. 개별돌봄인력(베이비시터)의 인력관리
- 4.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질 제고

- 5. 비용지원(보육료, 유아학비지원, 부모급여 등)
- 6. 공공 보육·교육시설(국공립 어린이집 등) 확충
- 7. 출산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시설(산부인과 및 소아과) 확충
- 8.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9.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충
- 10. 기타()

문25. 자녀 출산 후 양육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 1. 생활비를 줄여서 해결할 계획임
- 2. 은행 기관 등의 대출(보험 담보 대출 포함)
- 3. 기존에 저축해 둔 돈을 씀(보험 해지 포함)
- 4. 부모님 등 친인척으로부터 지원 받음
- 5. 기존 소득으로 충분함
- 6. 기타()

문26. 귀댁에서는 현재 임신 중인 자녀의 출산 계획으로 인해 현재 소비 지출을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그러함
- 2. 그러함
- 3. 그렇지 않음
- 4. 전혀 그렇지 않음

문27. 현재 임신 중인 자녀 출산 후에는 가구의 소비 지출을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300만원의 20%는 60만원입니다.
 - 1. 줄일 필요 없음
 - 2.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미만
 - 3.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이상 40% 미만
 - 4.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40% 이상 60% 미만
 - 5.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60% 이상

문28. 귀하가 느끼기에 자녀 양육과정 중 가장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1. 식비 (외식비 포함)
 8. 교통/통신비

 2. 주거/관리비 (월세, 수도/광열비 등)
 9. 개인유지비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

 3. 기기/집기 (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4. 피복비
 10.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5.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6. 교육/보육비 (육아도우미 비용 포함)
 12. 부모님 용돈 등 이전지출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3. 기타 ()

 14. 부담되는 항목 없음

문29. 양육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일 비목은 무엇입니까?

 1. 식비 (외식비 포함)
 9. 개인유지비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

 2. 주거/관리비 (월세, 수도/광열비 등)
 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3. 기기/집기 (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10.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4. 피복비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5.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12. 부모님 용돈 등 이전지출

 6. 교육/보육비 (육아도우미 비용 포함)
 13.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4. 기타 ()

 8. 교통/통신비
 15. 지출을 줄이지 않음

Ⅲ. 주거관련

문30.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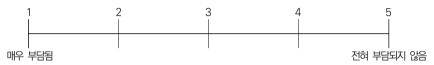
- 1. 단독주택4. 상가주택2. 아파트5. 기타()
- 3. 연립주택 혹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문3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거주 형태 및 가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자가	() 백만원	
2.	전세	() 백만원	
3.	월세	보증금 () 백만원, 월 ()만원
4.	기타(사	택, 친인척(조부도	및 포함) 주택 무상 거주 등)	

문31-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주거비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십니까?

※ 주거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은 자가의 경우 주택구입 대출의 원리금 비용 및 재산세 및 종부세, 전세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월세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및 월세액에 대한 부담 등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문32.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거주 시작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도

- 문33.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 ※ 방의 수는 거실(대청마루), 부엌, 식당(부엌에 딸린 식당 포함)을 제외한 방의 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개
- 문34.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을 제외하고 건물의 연면적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35.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현재 자녀 유무 및 본인의 출산의향과 관계없이 평소의 생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

- 1. 매우 동의한다
- 2. 동의한다
- 3.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36.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살게 된 계기가 자녀의 출산 혹은 양육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1. 그렇다 → 문36-1

2. 아니다 → 문37

문36-1. 그렇다면, 이 지역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 1.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 2. 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 3. 배우자(남편)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 4.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 5.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 6.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 7.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 8. 기타()

문37. 귀하는 향후 5년 이내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이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그렇다 → 문37-1
- 2. 아니다 → 문38

문37-1. 그렇다면, 이사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1.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 2. 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 3. 배우자(남편)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 4.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 5.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 6.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 7.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 8. 기타()

문38.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
- 2.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접근성이 좋은 곳
- 3.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
- 4. 아동·청소년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
- 5. 주거 밀집지역
- 6. 기타()

- 문39. 정부는 신혼부부 혹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기 중 귀하께서 알고 계신 주거 지원 정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신혼희망타운
 - 2. 통합공공임대주택
 - 3. 국민임대주택
 - 4. 공공분양주택
 -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6.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1
 - 7. 행복주택
 - 8. 영구임대주택
 - 9. 공공임대주택
 - 10. 장기전세주택
 - 11. 전세임대주택
 - 12. 알고 있는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이 없음

※ 참고자료 :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자),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모) 등 소득기준 있음.	-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통합공공임대 주택		- 전용면적 기준 85m²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전용면적 기준 60m²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주거	공공분양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지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기혼자(6세 이하 자녀),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10년) -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한부모(6세 이하 자녀), 소득 및 자산기준 있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2년, 재계약 2회 가능(최대 6년)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10년) - (매입임대 I)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매입임대 II)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70%, 80% 초과시 80%)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행복주택	- (우선공급):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 전용면적 기준 60m²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무자녀 6년, 1자녀 이상 1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영구임대주택 기준 있음.	- 전용면적 기준 40㎡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5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기혼자 및 한부모(6세 이하 자녀), 소득 기준 있음.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소득 기준 있음.	하 자녀),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5년/10년) - 보증급+일대로(시중 저세 시세의 90% 수준)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기혼자(6세 이하 자녀), 한부모(6세 이하 자녀) - (우선공급):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포함)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5년/1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전세임대주택	- 혼인기간 7년 이내, 소득 기준 있음.	- 단독·다기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도움말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문39-1. [문39에 인지하고 있는 정책만 제시] 해당 주거 지원 정책에 지원 신청한 경험 이 있으십니까?

구분	정책명	문39-1. 지원 신청 경험
	신혼희망타운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통합공공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국민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공공분양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청년신 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주거지원	신 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 II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행복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영구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공공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장기전세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전세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 문40. 정부는 신혼부부 혹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기 중 귀하께서 알고 계신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2.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
 - 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4. 알고 있는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이 없음

※ 참고자료 :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10년, 15년, 20년, 30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세부내용 참고)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 가구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 -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금융 자원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	- 소득과 자산 기준. -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 완화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사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 호당 대출 한도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있음.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사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문40-1. [문40에 인지하고 있는 정책만 제시] 해당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에 지원 신청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분	정책명	문16-1. 지원 신청 경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금융지원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신혼부부전용 전세지금대출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문41. 귀하는 정부의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신혼부부가 <u>출산</u> 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42. (문41에서 3~5에 응답한 경우)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두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실제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주택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
- 2. 지원 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자격 조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
- 3. 지원되는 비용이 주택 구매 혹은 전세 자금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
- 4. 실제 온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평수이기 때문
- 5. 정부 지원 주택(예: 임대주택)에 산다고 아이가 차별을 받을까봐
- 6.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원 대상 당첨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
- 7. 원하는 주택 유형이 아니기 때문(단독주택 거주를 희망 등)
- 8. 자산으로써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
- 9. 정보접근성이 떨어져서
- 10. 기타 (



Ⅳ.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의견

※ 문43-46은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2022.5.1.~2023.4.30.)까지 일자리가 있었던 본인/배우자의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43. 귀하는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다음의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 현재 임신한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경험		
1.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있음	→ ()개월 동안 총 ()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는 권리	2. 없음	→ 문4	→ 문43-1		
2. 태아검진 시간 보장 제도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1. 있음	→ ()개월 동안 총 ()일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	2. 없음	→ 문4	3–1		
3.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제한 제도	1. 있음				
임신 중인 직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의 야간, 휴일 근로를 금지한 제도	2. 없음	→ 문4	3–1		
4. 난임 휴가	1. 있음	→ ()개월 동안 총 ()일	
4. 건강 유기	2. 없음	→ 문4	3–2		
5. 난임 휴직	1. 있음	→ ()개월		
5. 건설 휴식 	2. 없음	→ 문4	3–2		

문43-1.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 2. 회사에 제도는 있으나 나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 3. 윗사람 눈치가 보여서
- 4. 동료들 눈치가 보여서
- 5.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 6.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승진 등)
- 7. 사용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 8.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9.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몰라서
- 10. 기타()

문43-2. 난임 관련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 2. 회사에 제도는 있으나 나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 3. 윗사람 눈치가 보여서
- 4. 동료들 눈치가 보여서
- 5.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 6.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승진 등)
- 7. 사용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 8.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9.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몰라서
- 10. 기타()

문44-1~44-2. 귀댁에서는 현재 임신한 자녀를 기준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 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제도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 44 -1. 본인(여성)	문44-2. 배우자(남성)		
1. 출산휴가	1. 이용 중임 2. 이용할 계획 있음 3. 이용할 계획 없음	 이용 중임 이용할 계획 있음 이용할 계획 없음 		
2. 육아휴직	1. 이용할 계획 있음 2. 이용할 계획 없음	 이용할 계획 있음 이용할 계획 없음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 이용할 계획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1. 이용할 계획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2. 이용할 계획 없음	2. 이용할 계획 없음		

문44-3~44-4. (이용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향후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도움정도 : 1. 매우 도움될 것이다, 2. 조금 도움될 것이다, 3. 보통, 4.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5.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구분	문44-3. 본인(여성)	문44-4. 배우자(남성)	
1. 출산휴가	1 2 3 4 5	1 2 3 4 5	
2. 육아휴직	1 2 3 4 5	1 2 3 4 5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 2 3 4 5	1 2 3 4 5	

문44-5~44-6. (이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 응답) 귀댁 영유아의 부모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보기 : 1.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 2.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 3.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 4.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 5.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승진 등)
- 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 7.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8. 출산 후에는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서
- 9. 기타()

구분	문44-5. 본인(여성)	문44-6. 배우자(남성)		
1. 출산휴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육아휴직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육아기근로시간				
5. 육이기는포시한 단축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근폭				

문45-1~45-2. 자녀 돌봄을 위해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육아 시간 지원 제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귀하는 해당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본인(여성)]

구분	문45-1. 제도 유무(본인(여성))		문45-2. 이용 계획 유무(본인(여성))	
1.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있음 →문45-2	5.2	1. 이용할 계획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2. 이용할 계획 없음	
2. 육아 휴직 (법적(1년) 보장 기간 이상)	1. 있음 →문45-2	2. 없음	1. 이용할 계획 있음 2. 이용할 계획 없음	
3. 자녀돌봄 휴가 (선생님 면담,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휴가)	1. 있음 →문45-2	2. 없음	1. 이용할 계획 있음 2. 이용할 계획 없음	

[배우자(남성)]

구분	문45-3. 제도 유무	(배우자(남성))	문45-4. 이용 계획 유무(배우자(남성))
1. 근로시간 단축 지원		2. 없음	1. 이용할 계획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2. 이용할 계획 없음
2. 육아 휴직 (법적(1년) 보장 기간 이상)	1. 있음 →문45-4	2. 없음	1. 이용할 계획 있음 2. 이용할 계획 없음
3. 자녀돌봄 휴가 (선생님 면담,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휴가)	1. 있음 →문45-4	2. 없음	1. 이용할 계획 있음 2. 이용할 계획 없음

문45-5~45-6.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육아에 얼마 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도움정도 : 1. 매우 도움될 것이다, 2. 조금 도움될 것이다, 3. 보통, 4.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5.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구분	문45-5. 본인(여성)	문45-6. 배우자(남성)	
1.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적 보장 기간 이상)	1 2 3 4 5	1 2 3 4 5	
2. 육아 휴직 (법적 보장 기간 이상)	1 2 3 4 5	1 2 3 4 5	
3. 자녀돌봄 휴가 (선생님 면담,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휴가)	1 2 3 4 5	1 2 3 4 5	

문46-1~46-2.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2022.5.1.~2023.4.30.)까지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한 제도는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유연근무제도 유형〉

- 1. 재택근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회사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된 기기를 통해 업무
- 2. 시차출퇴근: 하루 중 출퇴근 시간 조절하여 업무
- 3. 선택적 근무시간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
- 4.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컴퓨터나 기기를 활용해 근무
-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
- 6. 탄력근무제: 일이 많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줄여 소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근로일과 근로시간내가 정해지면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근무
- 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 *재량근무 : 소정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구분	문46-1. 본인(여성)		문46-2. 배우자(남성)	
 1. 재택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시치출퇴근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3. 선택적 근무시간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4. 원격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6. 탄력적 근무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문46-3~46-4.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도움정도 : 1. 매우 도움됨, 2. 조금 도움됨, 3. 보통, 4. 별로 도움되지 않음, 5. 전혀 도움되지 않음

구분	문46-3. 본인(여성)	문46-4. 배우자(남성)
1. 재택근무	1 2 3 4 5	1 2 3 4 5
2. 시차출퇴근	1 2 3 4 5	1 2 3 4 5
3. 선택적 근무시간제	1 2 3 4 5	1 2 3 4 5
4. 원격근무	1 2 3 4 5	1 2 3 4 5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 2 3 4 5	1 2 3 4 5
6. 탄력적 근무제	1 2 3 4 5	1 2 3 4 5
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1 2 3 4 5	1 2 3 4 5

문46-5~46-6.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보기 : 1.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 2.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 3.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 4.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 5.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승진 등)
- 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 7.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8. 기타()

구분	문46-5. 본인(여성)	문46−6. 배우자(남성)
1. 재택근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시차출퇴근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선택적 근무시간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4. 원격근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6. 탄력적 근무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7. 기타 유형 (재량근무 등)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문47. 현행 부모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육아 시간 지원 정책 중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 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1 01	
1 1순위	2순위	
	-2	

1.	가족돌봄휴직/휴기	ŀ

- 2. 육아휴직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4. 출산휴가
- 5. 유연근무

문47-1. 문47에서 선택하신 제도가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개선 사항부터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정책 개선사항

- 1.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 2. 비용 지원의 확대 (급여 대체율 등)
- 3. 신청 절차의 간소화
- 4.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 5. 자격해당자의 확대 (예: 프리랜서도 적용)
- 6.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예: 만8세 →만12세까지 신청 가능)
- 7.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 8. 기타 (

문47-2. 문47에서 선택하신 제도가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개선 사항부터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시는 개선 사항부터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1.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 2. 비용 지원의 확대 (급여 대체율 등)
- 3. 신청 절차의 간소화
- 4.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 5. 자격해당자의 확대 (예: 프리랜서도 적용)
- 6.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예: 만8세 →만12세까지 신청 가능)
- 7.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 8. 기타 ()

V. 임산부지원 정책

문48. 귀하는 임신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항목	문48. 인지여부	문48-1. 경험여부	문48-2. 만족도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국민행복카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제공	1. 잘 알고 있음 2. 들어는 봤음 3. 잘 모르겠음	1. 이용해 봤음 ->문48-2 2. 이용한적 없음 ->문48-3	1. 매우민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기진통 등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치상위계층,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게 입원치료비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1. 잘 알고 있음 2. 들어는 봤음 3. 잘 모르겠음	1. 이용해 봤음 ->문48-2 2. 이용한적 없음 ->문48-3	1. 매우민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3.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출산부 및 영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	1. 잘 알고 있음 2. 들어는 봤음 3. 잘 모르겠음	1. 이용해 봤음 ->문48-2 2. 이용한적 없음 ->문48-3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5-25일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1. 잘 알고 있음 2. 들어는 봤음 3. 잘 모르겠음	1. 이용해 봤음 ->문48-2 2. 이용한적 없음 ->문48-3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5.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시업 임신부 또는 출생시실이 확인된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산모수첩 및 아기수첩을 제공하는 제도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이과)를 통해 신청	1. 잘 알고 있음 2. 들어는 봤음 3. 잘 모르겠음	1. 이용해 봤음 ->문48-2 2. 이용한적 없음 ->문48-3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6.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사업 엽산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 임신 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	1. 잘 알고 있음 2. 들어는 봤음 3. 잘 모르겠음	1. 이용해 봤음 ->문48-2 2. 이용한적 없음 ->문48-3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7.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1. 잘 알고 있음 2. 들어는 봤음 3. 잘 모르겠음	1. 이용해 봤음 ->문48-2 2. 이용한적 없음 ->문48-3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쪽 5. 매우 불만족
8.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청구시 연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지급	1. 잘 알고 있음 2. 들어는 봤음 3. 잘 모르겠음	1. 이용해 봤음 ->문48-2 2. 이용한적 없음 ->문48-3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48-3. 귀하는 정부가 진행 중인 임신/출산 지원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48-4.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임산부에 대해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정책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49. 귀하는 자녀의 임신·출산부터 영아, 유아에 이르는 시기 중 정부의 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해당 시기에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 ※ 비용 지원: 자녀 출산·양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금 혹은 바우처 형태의 현금성 지원 예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 서비스 지원: 부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의 직접 공급 또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예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아이돌보미 등 개별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등

- ※ 물품지원: 자녀출산양육에 필요한 직접적 물품제공 형태의 지원 예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장난감도서 대여 등
- ※ 시간 지원: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휴가휴직, 유연근무 형태의 시간 지원 예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육아시간 제공 등

	문49-2. 개선이 필요한 지원 범주			
문49-1. 육아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	문49-2-1. 임신출산 시기의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문49-2-2. 영아기에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문49-2-3. 유아기에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1. 임신·출산 시기 -> 문49-2-1 2. 영아가(출생~36개월 이하) ->문49-2-2 3. 유아가(36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문49-2-3	 비용지원 서비스 지원 물품지원 시간지원 	1. 비용지원 2. 서비스 지원 3. 물품지원 4. 시간지원	1. 비용지원 2. 서비스 지원 3. 물품지원 4. 시간지원	



문50. 귀하는 다음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평소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항목	문50. 인지여부	문50-1. 필요성 인식
	1.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 등을 지원	1. 잘 알고 있음(→ 문50-1로) 2. 들어는 봤음(→ 문50-1로) 3. 잘 모르겠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4.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서 비 스 지 워	2. 시간제보육 가정양육 중인 부모님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기관(어린이집, 육이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보육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간제 보육료 지원 포함)	1. 잘 알고 있음(→ 문50-1로) 2. 들어는 봤음(→ 문5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3.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1. 잘 알고 있음(→ 문50-1로) 2. 들어는 봤음(→ 문50-1로) 3. 잘 모르겠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4.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4.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	1. 잘 알고 있음(→ 문50-1로) 2. 들어는 봤음(→ 문50-1로) 3. 잘 모르겠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4.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비 용 지 원	5. 부모급여 (2022년생 이후 출생아 적용) 부모급여를 받은 부모님이 자녀를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전액 현금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전액 지원(나머지 금액은 현금 지원), 아이돌보미 이용 시 사용 가능	1. 잘 알고 있음(→ 문50-1로) 2. 들어는 봤음(→ 문5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6. 가정양육수당 (2021년 이전 출생아 적용)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86개월 미만 이동에게 지원되는 수당	1. 잘 알고 있음(→ 문50-1로) 2. 들어는 봤음(→ 문5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7. 이동수당 생후~만 8세 미만의 이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현금 지원하는 제도	1. 잘 알고 있음(→ 문50-1로) 2. 들어는 봤음(→ 문50-1로) 3. 잘 모르겠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4.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8. 출산지원금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지역별 상이)	1. 잘 알고 있음(→ 문50-1로) 2. 들어는 봤음(→ 문50-1로) 3. 잘 모르겠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4.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시 간 지 원	9. 출산전후휴기(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임신 중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120일의 휴가. 배우자는 출산 후 10일	1. 잘 알고 있음(→ 문50-1로) 2. 들어는 봤음(→ 문50-1로) 3. 잘 모르겠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4.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구분	항목	문50. 인지여부	문50-1. 필요성 인식
	10.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	1. 잘 알고 있음(→ 문50-1로) 2. 들어는 봤음(→ 문50-1로) 3. 잘 모르겠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4.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잘 알고 있음(→ 문50-1로) 2. 들어는 봤음(→ 문5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12. 가족돌봄휴가/휴직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1. 잘 알고 있음(→ 문50-1로) 2. 들어는 봤음(→ 문5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문51. 귀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진행 중인 육아지원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2.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 사회적 친분관계는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항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가구의 경제적 수준	1	2	3	4	5
2. 여기생활	1	2	3	4	5
3. 주거환경	1	2	3	4	5
4. 기족관계	1	2	3	4	5
5. 자녀돌봄(양육)	1	2	3	4	5
6. 사회적 친분관계	1	2	3	4	5
	1	2	3	4	5
8.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1	2	3	4	5

문53. 본인 결혼 당시와 현재 사회경제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향후 10년에는 어떤 정도의 사회경제적 위치일거라 예상하십니까?

결혼 당시의 사회경제적 위치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치		미래의 사회경제적 위치	
	① 상상		① 상상		① 상상
상층	② 상중	상층	② 상중	상층	② 상 중
	③ 상하		③ 상하		③ 상하
	④ 중상	중층	④ 중상	రెస్ట్	④ 중상
중층	§ 55		⑤ 중중		§ දිද ි
	⑥ 중하		⑥ 중하		⑥ 중하
	⑦ 하상		⑦ 하상		⑦ 하상
하층	8) 하중	하층	8 하중	하층	8 하중
	কিট @		কিট (@		প্ৰতি (<u>@</u>

[연구참여 설명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B형 설문 참여에 대한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는 현재 임신 중인 가구의 출산 계획, 향후 자녀 양육 관련 사항, 가계소비지출 등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께서는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문과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설명은 귀하가 이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예정이며,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현재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가구 경제 상황 및 임신, 출산 서비스 이용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이해 등을 파악하여, 저출산에 대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영유아 가구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 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 **대 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현재 임신 중인 20~44세의 여성으로, 전국 5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합니다.
- 연구의 참여 절차 : 귀하는 조사업체(한국리서치)가 온라인으로 공지한 모집 공고를 통해 조사에 참여하셨습니다. ① 귀하는 별도의 면접원과의 면담 없이 이메일이나 웹을통해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② 다만, 응답이 10일 동안 완료되지 않거나중도에 응답을 포기하셨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희 조사원이 전화(문자) 혹은 이메일 등을통해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질의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적절한 조치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조사를 완료하기까지 평균 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 여 기 간**: 조사는 2023년 6월~8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1회 조사 참여 를 요청받을 것입니다.
- 장 소: 귀댁 또는 귀하가 편하게 조사에 응하실 수 있는 장소에서 이메일이나 웹
 에서 스스로 응답을 하신 후 조사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 본 조사에서는 참여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이익: 귀하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 및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높아질 수 있으며, 국가의 임신, 출산 지원 정책, 주거 지원 정책, 육아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조사는 설문 응답 시간이 30분 이상으로 다소 길고 상세한 가계소득과 지출액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응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취업 관련 정보, 연락처, 자녀수 등의 정보입니다. 연락처는 사례비 지급, 응답자 관리, 응답 정보 확인 등에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기타 수집된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익명화된 상태에서 사용되며, 개인 정보 및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육아정책연구소와 조사업체의 저장장치에 보관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 조사업체 데이터 담당 연구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진과 조사업체 담당자는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연구자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간주될 것입니다.
- O 제3자 정보제공 :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 조사로부터 수집된 원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 책임자의 연구실 내에 2032년까지 보관되며, 이후 폐기됩니다.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으나 조사를 중단할 경 우 조사에 대한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사 중단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수집 된 모든 정보는 중단 즉시 폐기됩니다. 만일 귀하가 본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설문 응답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 **연구 문의** : 연구 참여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 처를 통해 연구진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책임연구자: 최효미 <u>전화번호: 02-398-7771, 이메일: hmchoi@kicce.re.kr</u>
 - * 근무시간(09:00~18:00) 외 전화하실 경우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됩니다.
- 한국리서치 담당자: 김지은 책임, 전화번호: 02-3014-1055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 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398-7761 irb@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계획서에 대한 심의 그리고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참여 동의서]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참여 동의서 - B형 설문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연 구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개 인정보 제외)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 처리 후 익명화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O로 표시하고, 확인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성 명	연구 참여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날짜	확인
				(서명/인)

* 연구대상자가 직접 작성

조사원 또는 책임자 성명	날짜	확인	(서명/인)
------------------	----	----	--------

- ※ 본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이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연구자: 최효미 전화번호: 02-398-7771, 이메일: hmchoi@kicce.re.kr
 - * 근무시간(09:00~18:00) 외 전화하실 경우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됩니다.
- 한국리서치 담당자: 김지은 책임, 전화번호: 02-3014-1055
-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2-398-7761

육 아 정 책 연 구 소

부록 3. 2023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C형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 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일반과제인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일환으로, 현재 기혼상 태이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가구의 소비실태 및 향후 출산 의향,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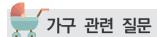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I 기 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새롭게 II 기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단, 기혼 무자녀 가구에 대한 조사는 2023년에 한 번만 조사가 실시됩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 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름		전화번호			0	메일	
주소	()시·도	()구·군	();	동읍면
세부 주소							
모취업 여부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핵업 중	④ 구조	중	⑤ 미취업	⑥ 모 없음



무01	귀하이	선벽으	무엇입니기	71-7
ı' U I .	1191-1	\circ = \equiv	十 人 口 口 ′	' I :

- 1. 남자
- 2. 여자

문01-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문01-2.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기혼(사실혼 포함)
- 2. 미혼
- 3. 기타()

문01-3.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문02. 현재 귀댁의 가족 구성원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떨어져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으로 응답. (예: 주말 부부, 외국에 나가 있는 초등학생 자녀 등) 단, 떨어져 산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가족의 가계 지출 상황을 전혀 알수 없는 경우는 응답 대상에서 제외)
- ※ 떨어져 살면서 생계가 분리된 경우는 제외. (예: 매달 생활비를 보내더라도 따로 사는 부모 등)
- ※ 함께 살고 있더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는 제외. (예: 기사 도우미 등)
 - 1. 본인
 - 2. 본인의 배우자
 - 3. 배우자의 형제자매
 - 4. 본인의 형제자매
 - 5. 배우자의 부
 - 6. 배우자의 모
 - 7. 본인의 부
 - 8. 본인의 모
 - 9. 그 외 친인척 ()

문02. 귀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입니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예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예
 2. 아니오

문03. 귀하는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사실혼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년도

문05~06. 귀 댁의 부부의 연령 등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05. 본인(여성)	문06. 배우자(남성)
① 출생연도	()년생	()년생
② 최 종 학력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③ 취업여부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 문06 배우자(남성)로 4. 구직 중 → 문06 배우자(남성)로 5. 미취업 → 문06 배우자(남성)로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 문07로 4. 구직 중 → 문07로 5. 미취업 → 문07로
④ 직업군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⑤ 근로 형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기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⑥ 노동시간*	주당 평균 () 시간 → 36시간 미만인 경우 ⑥-1로	주당 평균 () 시간 → 36시간 미만인 경우 ⑥-1로
⑥-1. 단시간단로 이유 *⑥ 노동시간 36시간비만인 경우만 응답	1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1. 건강 2. 육아 3. 가사 4. 통학 5. 본인이 원해서 6.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7. 기타(~)	1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1. 건강 2. 육아 3. 가사 4. 통학 5. 본인이 원해서 6.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7. 기타()

구분	문05. 본인(여성)	문06. 배우자(남성)
⑦ 비정규여부(⑤ 근로형태중 1.임금근로자만응답)	1 . 정규직 2 . 비정규직	1 . 정규직 2 . 비정규직

- ※ 무급가족종사자는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 **노동시간**에는 가사 노동 등에 소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u>일자리에서의 노동시간만을 응답</u>하며, <u>야근,</u> 휴일 노동 등 초과 노동시간도 합산하여 응답합니다.

문07. 귀댁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세후소득)**을 기입해주십시오.

※ 지난 3개월 내 일시금으로 받으신 금액은 1/3하여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가구 전체 소득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
1. 본인 근로 및 사업 소득	() 만원	
2. 배우자 근로 및 사업 소득	() 만원	│ 일을 하여 번 돈 」 (자영업자 및 고용주, 프리랜서 등도 매출에서 제반 비용을
3.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만원	제하고 수수하게 본인의 소득으로 남은 돈을 기입)
4.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 만원	월세 등으로 받은 돈, 땅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생긴 소득, 주식거래 차익, 은행 이자 등 (본인이 납입·투자한 원금은 제외, 전세보증금 받은 금액 등도 제외)
5.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 만원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생계급여), 장애수당, 농어업 정부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 각종 연금(기초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 실업급여 등을 의미함
6. 사적이전소득	() 만원	부모 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
7. 기타소득	() 만원	보험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증여·상속, 축의금 등으로 생긴 돈

- 문08. 귀댁의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비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작성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하며,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미난한 경구 0년 <u>으로</u> 중합에 구납시 <u>다.</u> -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문08.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1. 식비 (외식비 포함)	가족 전체가 함께한 외식비 등은 포함	만원
1-1. 외식비	직장에서 사먹는 점심값 포함, 커피값은 제외	 만원
2. 주거/관리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월세 등을 합산	만원
2-1. 관리비 및 수도 · 광열비 등	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 포함. 단, 집 전체의 수리, 건축비 등은 제외. 수도, 전기, 기스요금 등 포함	만원
2-2. 월세	주가를 위해 윌마다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용 (장사를 위한 임대료는 제외)	만원
3. 기기/집기	가구, 가전 등의 구매	만원
3-1. PC/노트북/ 태블릿PC		만원
4. 피복비	의류 및 신발, 기방 등 구매비, 침구류 포함	만원
5. 보건/의료비	병원, 약 구매비, 비타민이나 영양제, 건강보조제(홍삼, 한약 등 포함), 마스크 등	만원
6. 교육비	교육비	만원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여기용 도서 구입비, 기족여행 등 포함	만원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경우, 사용한 비용 전액	 만원
7-2. 관람, 체험학습	영화, 스포츠, 공연, 박물관 관람 등	만원
7-3. 완구		만원
7-4. 도서구매		만원
8. 교통비	자동차 유지/유류비, 대중교통비 포함. 자동차 구입비 제외.	만원
9. 통신비	핸드폰 이용료,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IPTV 및 케이블 TV 수신료 등	만원
9-1. 휴대전화비	휴대폰 구입비 제외	만원
10. 개인유지비 (생필품 포함)	목욕용품, 바디로션, 물티슈, 세탁용품, 주방용품, 화장지, 화장품, 키친타올, 이미용 서비스 등	만원
11. 금융상품 (저축 및 보험납입금)	이자, 저축, 보험	만원
 11-1. 저축	예금, 적금 등	 만원
11-2. 보험	저축성 및 상해 등 각종 보험	만원
11-3. 원금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원금 상환액	만원
11-4. 이자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이자 납입금	만원
11-5. 주식, 암호화폐	주식, 암호화폐(코인) 투자금	만원
12. 이전 지출	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만원
13.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반려동물 입양비용은 제외함)	만원
14.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주류 및 기호식품, 가사도우미 등	만원



문09.	1. 단독주택 2. 아파트	주하는 주택의 : 혹은 다세대(다:	4. 5.	까? 상가주택 기타()	
문10.	1. 자가 2. 전세 3. 월세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1	월 (가?)만원
*	주거와 관련한 경 세는 전세보증금아		경우 주택구입 대 월세는 보증금에 대한	출의 원리금 비용	 까? 및 재산세 및 종부세, 전 실세액에 대한 부담 등 경 5
매독	우 부담됨				전혀 부담되지 않음
문11. 현	현재 살고 있는 (: 주택의 거주 시)년도	시작 시기는 언저	입니까?	
		: 주택의 방의 7 청마루), 부엌, 식당()개			기 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 !	물의 연면적을 ^{명수와 m² 중에서}	기입해 주십시오	2. S답해 주십시오.(아더	파트 등의 경 우는 :	마당을 제외하고 건 공급면적, 단독주택의 2

문14.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

- 1. 매우 동의한다
- 2. 동의한다
- 3.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문15.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산 의향과 관계없이 평소의 생각을 응답해 주세요.)
 - 1.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
 - 2.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접근성이 좋은 곳
 - 3.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
 - 4. 아동·청소년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
 - 5. 주거 밀집지역
 - 6. 기타()
- 문16. 정부는 신혼부부 혹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기 중 귀하께서 알고 계신 주거 지원 정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신혼희망타운
 - 2. 통합공공임대주택
 - 3. 국민임대주택
 - 4. 공공분양주택
 -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6.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1
 - 7. 행복주택
 - 8. 영구임대주택
 - 9. 공공임대주택
 - 10. 장기전세주택
 - 11. 전세임대주택
 - 12. 알고 있는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이 없음

※ 참고자료 :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자), 예비	-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통합공공임대 주택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국민임대주택		-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공공분양주택	- 신혼부부(7년 이내),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에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기혼자(6세 이하 자녀), 한부모(6세 이하 자녀), 소득 및	-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10년) -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ㅣ,॥	자산기준 있음.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2년, 재계약 2회 가능(최대 6년)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10년) - (매입임대 I)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매입임대II)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70%, 80% 초과시 80%)
주거 지원	행복주택	- (우선공급):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무자녀 6년, 1자녀 이상 1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영구임대주택	기혼자(6세 이하 자녀), 가구소득 기준 있음.	전용면적 기준 40㎡이하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50년)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기혼자(6세 이하 자녀), 한부모(6세 이하 자녀), 소득 기준 있음.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소득 기준 있음.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5년/1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장기전세주택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기혼자(6세 이하 자녀), 한부모(6세 이하 자녀) - (우선공급):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포함)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최대 5년/10년) -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전세임대주택	- 혼인기간 7년 이내, 소득 기준 있음.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도움말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문16-1. [문16에 인지하고 있는 정책만 제시] 해당 주거 지원 정책에 지원 신청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분	정책명	문16−1. 지원 신청 경험
	신혼희망타운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통합공공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국민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공공분양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청년신 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주거지원	신 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 II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행복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영구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공공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장기전세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전세임대주택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 문17. 정부는 신혼부부 혹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기 중 귀하께서 알고 계신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2.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
 - 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참고자료 :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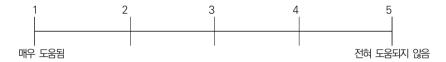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금융지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10년, 15년, 20년, 30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세부내용 참고)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60% 이내 - LTV: 80% 이내 - 가구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 -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	- 소득과 자산 기준. -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2자녀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 완화	3억원 -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 호당 대출 한도: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있음.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문17-1. [문17에 인지하고 있는 정책만 제시] 해당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에 지원 신청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분	정책명	문16-1. 지원 신청 경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금융지원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신혼부부전용 전세지금대출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문18. 귀하는 정부의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신혼부부가 <u>출산</u> **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8-1. (문18에서 3~5에 응답한 경우)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0
-----	--	-----	---

- 1. 실제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주택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
- 2. 지원 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자격 조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

- 3. 지원되는 비용이 주택 구매 혹은 전세 자금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
- 4. 실제 온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평수이기 때문
- 5. 정부 지원 주택(예: 임대주택)에 산다고 아이가 차별을 받을까봐
- 6.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원 대상 당첨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
- 7. 원하는 주택 유형이 아니기 때문(단독주택 거주를 희망 등)
- 8. 자산으로써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
- 9. 정보접근성이 떨어져서
- 10. 기타 (

유연근무 활용 실태 및 의견

문19-1~19-2.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2022.5.1.~2023.4.30.)까지 본인 또는 배우 자가 아래에 제시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용한 제도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갼	문19-1.	본인(여성)	문19-2. 비	바우자(남성)
1. 재택근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회사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된 기기를 통해 업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시치출퇴근 하루 중 출퇴근 시간 조절하여 업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3. 선택적 근무시간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4. 원격근무 시무실이 이닌 외부 장소에서 컴퓨터나 기기를 활용해 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6. 탄력적 근무제 일이 많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줄여 소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소정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문19-3~19-4.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보기	:	1.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	---	----	-----	----	-----	-----

- 2.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님
- 3.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 4.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 5.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승진 등)
- 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 7.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8. 기타(

구분	문19-3. 본인(여성)	문19-4. 배우자(남성)
1. 재택근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시차출퇴근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선택적 근무시간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4. 원격근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6. 탄력적 근무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7. 기타 유형 (재량근무 등)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문19-5~19-6. 해당 제도는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움정도 : 1. 매우 도움됨, 2. 조금 도움됨, 3. 보통, 4. 별로 도움되지 않음, 5. 전혀 도움되지 않음

구분	문19-3. 본인(여성)	문19-4. 배우자(남성)
1. 재택근무	1 2 3 4 5	1 2 3 4 5
2. 시차출퇴근	1 2 3 4 5	1 2 3 4 5
3. 선택적 근무시간제	1 2 3 4 5	1 2 3 4 5
4. 원격근무	1 2 3 4 5	1 2 3 4 5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 2 3 4 5	1 2 3 4 5
6. 탄력적 근무제	1 2 3 4 5	1 2 3 4 5
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1 2 3 4 5	1 2 3 4 5



문20 귀하는 향후에 출산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21

2. 없다 → 문37

출산 의향 있는 가구

- 21	TU크ె	L-I フェレ	되느	ᄌᄗ	ALO 7L	무엇입니까?
τr∠I.	시[니 글	ミエム	\circ r $\overline{}$	구귀	ᄓᅲᄼ	구었습니까!

- 1. 배우자 혹은 양가 부모님이 원해서
- 2. 노후에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 3. 대를 잇기 위해서
- 4.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있어서
- 5.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 6.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 7. 아이를 좋아해서
- 8. 기타()

문22. 계획하고 계시는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명

문22-1. 결혼 전과 비교할 때 계획한 자녀 수가 변동되었습니까?

- 1. 늘었음
- 2. 줄었음
- 3. 변동 없음

문22-2. (계획한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응답) 자녀를 2명 이상 낳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아이를 좋아해서
- 2. 자녀가 혼자이면 외로울 것 같아서
- 3,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사회성이 좋을 것 같아서
- 4. 배우자나 부모님이 원해서
- 5. 내가 노후에 덜 외로울 것 같아서
- 6.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서
- 7. 기타()

문23. 첫째 자녀를 언제쯤 낳을 계획입니까?

- 1. 결혼 후 ()년
- 2. 시기는 정하지 않음(잘 모르겠음) → 문26으로.

(문23 1번 응답자만)

문24. 결혼 전과 비교했을 때 출산 희망시기가 변동되었습니까?

- 1. 결혼 전과 비교했을 때 앞당겨졌다
- 2. 결혼 전과 동일하다
- 3. 결혼 전과 비교했을 때 늦춰졌다

(문23 1번 응답자만)

문25. 출산시기를 계획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_		_
1수위		2수위	
1611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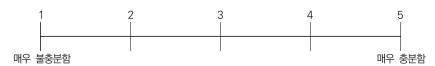
- 1. 소득 등 경제적으로 준비가 될 것 같아서
- 2. 커리어, 직장에서의 일을 고려할 때 적절할 것 같아서
- 3. 주택마련 등 주거환경이 갖춰질 것 같아서
- 4. 가족 혹은 내가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 5. 개인, 부부만의 시간을 가진 후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 6. 건강상의 이유로 (난임 등으로 인한 치료기간을 고려 등)
- 7. 기타()

문26. 귀하는 다음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평소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항목	문26. 인지여부	문26-1. 필요성 인식
서 비 스 지 원	1.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이의 보육료 등을 지원	1. 잘 알고 있음(→ 문26-1로) 2. 들어는 봤음(→ 문26-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2. 시간제보육 가정양육 중인 부모님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보육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간제 보육료 지원 포함)	1. 잘 알고 있음(→ 문26-1로) 2. 들어는 봤음(→ 문26-1로) 3. 잘 모르겠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4.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3.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광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1. 잘 알고 있음(→ 문26-1로) 2. 들어는 봤음(→ 문26-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비 용 지 원	4.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	1. 잘 알고 있음(→ 문26-1로) 2. 들어는 봤음(→ 문26-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구분	항목	문26. 인지여부	문26-1. 필요성 인식
	5. 부모급여 (2022년생 이후 출생아 적용) 부모급여를 받은 부모님이 자녀를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전액 현금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전액 지원(나머지 금액은 현금 지원), 아이돌보미 이용 시 사용 가능	1. 잘 알고 있음(→ 문26-1로) 2. 들어는 봤음(→ 문26-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6. 기정양육수당 (2021년 이전 출생아 적용)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86개월 미만 이동에게 지원되는 수당	1. 잘 알고 있음(→ 문26-1로) 2. 들어는 봤음(→ 문26-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7. 이동수당 생후~만 8세 미만의 이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현금 자원하는 제도	1. 잘 알고 있음(→ 문26-1로) 2. 들어는 봤음(→ 문26-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8. 출산지원금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자역별 상이)	1. 잘 알고 있음(→ 문26-1로) 2. 들어는 봤음(→ 문26-1로) 3. 잘 모르겠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4.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9.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임신 중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120일의 휴가. 배우지는 출산 후 10일	1. 잘 알고 있음(→ 문26-1로) 2. 들어는 봤음(→ 문26-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시 간	10.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1. 잘 알고 있음(→ 문26-1로) 2. 들어는 봤음(→ 문26-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지 원	1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잘 알고 있음(→ 문26-1로) 2. 들어는 봤음(→ 문26-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12. 가족돌봄휴가/휴직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1. 잘 알고 있음(→ 문26-1로) 2. 들어는 봤음(→ 문26-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문27. 귀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진행 중인 육아지원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산 이후의 가구 경제 전망

[소득 전망]

문28.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향후 10년 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크게 증가할 것이다
- 2. 증가할 것이다
- 3, 변동 없을 것이다
- 4. 감소할 것이다
- 5. 크게 감소할 것이다
- 문29. (첫 자녀 출산 기준) 자녀 출산 후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 출산전후휴가로 인한 단기적(3개월)인 감소는 제외
 - 1. 출산 전보다 감소할 것이다 → 문29-1
 - 2. 출산 전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 문30
 - 3. 출산 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 문30
- 문29-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부부 중 한명이 일을 그만 둘 예정이어서
 - 2. 부모 중 한명 이상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을 줄일 예정이어서
 - 3. 휴직 예정이어서
 - 4. 부모 중 한명 이상 소득이 적은 일자리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서
 - 5. 기타()
- 문29-2. (첫 자녀 출산 기준)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자녀 출산으로 인해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출산전후휴가로 인한 단기적(3개월)인 감소는 제외
 - ※ 예) 300만원의 20%는 60만원입니다.
 - 1. 현재 가구소득의 20% 미만이 줄어듦
 - 2. 현재 가구소득의 20% 이상 40% 미만이 줄어듦
 - 3. 현재 가구소득의 40% 이상 60% 미만이 줄어듦
 - 4. 현재 가구소득의 60% 이상 80% 미만이 줄어듦

문30.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 1명을 출산하여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세후)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월 평균 300만원 미만
- 2. 월 평균 300~400만원 미만
- 3. 월 평균 400~500만원 미만
- 4. 월 평균 500~600만원 미만
- 5. 월 평균 600만원 이상
- 6. 소득 정도와는 무관하다

[소비 지출 전망]

문31. 자녀 출산 후 양육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 1. 생활비를 줄여서 해결할 계획임
- 2. 은행 기관 등의 대출(보험 담보 대출 포함)
- 3. 기존에 저축해 둔 돈을 씀(보험 해지 포함)
- 4. 부모님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지원 받음
- 5. 기존 소득으로 충분함
- 6. 기타()
- 문32. 귀댁에서는 현재 출산 계획으로 인해 소비 지출을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그러함
 - 2. 그러함
 - 3. 그렇지 않음
 - 4. 전혀 그렇지 않음
- 문33. 자녀 출산 후에는 가구의 소비 지출을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300만원의 20%는 60만원입니다.
 - 1. 줄일 필요 없음
 - 2.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미만
 - 3.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이상 40% 미만
 - 4.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40% 이상 60% 미만
 - 5.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60% 이상

문34. 귀하가 느끼기에 자녀 양육과정 중 가장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1. 식비 (외식비 포함)
- 8. 교통/통신비
- 2. 주거/관리비(월세. 수도/광열비 등) 9.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
- 3. 기기/집기 (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 10.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4. 피복비

-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 5.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 6. 교육/보육비 (육아도우미 비용 포함) 12. 부모님 용돈 등 이전지출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 13. 기타 (
- 14. 부담되는 항목 없음

문35. 양육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일 비목은 무엇입니까?

- 1. 식비 (외식비 포함)
- 9. 개인유지비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

)

- 2. 주거/관리비 (월세, 수도/광열비 등) 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 3. 기기/집기 (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10.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 4. 피복비

-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 5.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 12. 부모님 용돈 등 이전지출
- 6. 교육/보육비 (육아도우미 비용 포함) 13.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 14. 기타 (

8. 교통/통신비

15. 지출을 줄이지 않음

[주거지 이사]

문36. 귀댁에서는 출산을 고려한 이사 계획이 있습니까?

- 1. 그렇다
- → 문36-1
- 2. 그렇지 않다
- → 문47

문36-1. 출산을 고려해 이사할 경우 다음 중 이사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무 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1.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운 곳
- 2. 엄마 직장과 가까운 곳
- 3.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
- 4.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 5.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
- 6.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 7.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의 집의 매매 혹은 임대 가능성
- 8. 기타()

→ 이후 문47로 이동



문37. 결혼 전과 비교했을 때 출산 의향이 바뀌었습니까?

- 1. 결혼 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 2. 결혼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음

문38. 출산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1. 소득이 적어서
- 2. 일자리가 불안정해서(실업, 비정규직, 이용직 등의 고용불안정)
- 3. 자녀를 키우기 위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 4. 육아 및 자녀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 5.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 6.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 7.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 8.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 9. 건강상의 문제로
- 10. 개인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 11.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 12. 기타()

문39. 위에서 응답한 문제가 없다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습니까?



문40. 귀하는 다음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평소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항목	문40. 인지여부	문40-1. 필요성 인식
	1.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이의 보육료 등을 지원	1. 잘 알고 있음(→ 문40-1로) 2. 들어는 봤음(→ 문4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서 비 스 지 원	2. 시간제보육 가정양육 중인 부모님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기관(어린이집, 육이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보육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간제 보육료 지원 포함)	1. 잘 알고 있음(→ 문40-1로) 2. 들어는 봤음(→ 문4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3.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1. 잘 알고 있음(→ 문40-1로) 2. 들어는 봤음(→ 문4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4.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	1. 잘 알고 있음(→ 문40-1로) 2. 들어는 봤음(→ 문4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5. 부모급여 (2022년생 이후 출생아 적용) 부모급여를 받은 부모님이 자녀를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전액 현금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전액 지원(나머지 금액은 현금 지원), 아이돌보미 이용 시 사용 가능	1. 잘 알고 있음(→ 문40-1로) 2. 들어는 봤음(→ 문4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비 용 지 원	6. 가정양육수당 (2021년 이전 출생아 적용)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	1. 잘 알고 있음(→ 문40-1로) 2. 들어는 봤음(→ 문4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7. 이동수당 생후~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현금 지원하는 제도	1. 잘 알고 있음(→ 문40-1로) 2. 들어는 봤음(→ 문4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8. 출산지원금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자역별 상이)	1. 잘 알고 있음(→ 문40-1로) 2. 들어는 봤음(→ 문4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시 간 지 원	9.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임신 중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120일의 휴가. 배우자는 출산 후 10일	1. 잘 알고 있음(→ 문40-1로) 2. 들어는 봤음(→ 문4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구분	항목	문40. 인지여부	문40-1. 필요성 인식
	10.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	1. 잘 알고 있음(→ 문40-1로) 2. 들어는 봤음(→ 문4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1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잘 알고 있음(→ 문40-1로) 2. 들어는 봤음(→ 문4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12. 기족돌봄휴가/휴직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1. 잘 알고 있음(→ 문40-1로) 2. 들어는 봤음(→ 문40-1로) 3. 잘 모르겠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문41. 귀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진행 중인 육아지원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산 계획 없는 경우 가구 경제 전망 [소득·소비 전망]

문42.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향후 10년 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크게 증가할 것이다
- 2. 증가할 것이다
- 3, 변동 없을 것이다
- 4. 감소할 것이다
- 5. 크게 감소할 것이다

문43.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 1명을 출산하여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세후)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월 평균 300만원 미만
- 2. 월 평균 300~400만원 미만
- 3. 월 평균 400~500만원 미만
- 4. 월 평균 500~600만원 미만

- 5. 월 평균 600만원 이상
- 6. 소득 정도와는 무관하다

문44. 귀댁은 현재 소비 지출을 원하는 만큼 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그러함
- 2. 그러함
- 3. 그렇지 않음
- 4. 전혀 그렇지 않음

문45. 만약 자녀가 생긴다면 가구의 소비 지출을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줄일 필요 없음
- 2.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미만
- 3.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이상 40% 미만
- 4.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40% 이상 60% 미만
- 5.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60% 이상

문46. 만약 귀댁에 자녀가 있다면, 어떤 비목의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줄어드는 순서대로 3가지까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식비(외식비 포함)
- 2. 주거비(관리비, 수도/광열비, 월세 등 포함)
- 3. 가구. 가전 등 기기/ 집기 구매비용
- 4. 피복비(의류, 신발, 가방, 침구류 등)
- 5. 보건/의료비
- 6. 교육비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여가용 도서, 완구 구매(학습 교재, 교구 제외), 관람, 체험활동, 여행 등)
- 8. 교통비
- 9. 통신비
- 10. 개인유지비
- 11. 이전 지출(부모님 용돈, 경조금)
-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가사도우미, 주류 및 기호 식품 등)
- 13.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 14. 없음(자녀출산과 관계없이 소비 지출을 가급적 안하려 함)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생각]

- 문47. 우리 사회에서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 다음의 시기별로 양육비용이 한 달에 얼마나 들것이라 예상하십니까?
 - ※ 국가지원금을 고려하지 말고, 예상되는 총 비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	예상되는 경제적 비용		
영아(36개월미만)	기간 내 월 평균 (만원)		
유아(36개월이상-취학전)	기간 내 월 평균 (만원)		
초등학생(1~6학년)	기간 내 월 평균 (만원)		
중·고등학생	기간 내 월 평균 (만원)		

므40	エリコ	야유은	의해	느가	채이으	져아	하다고	생각하십니	17712
T-40.	시디	건포크	ㅜ!이	一一/「	깩러글	ᄱᅜ	인니끄	340F1	1775

- 1.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 2.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함
- 3.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를 부모가 부담해야 함
- 4. 국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 5. 기타()
- 6. 잘 모름

문49.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어느 시기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미성년시기까지 지원한다(고교졸업까지)
- 2. 대학 졸업까지 지원한다
- 3. 취업이 될 때까지는 지원한다
- 4. 결혼할 때까지 지원한다
- 5. 손자녀 양육까지 지원한다
- 6. 기타()

문50. 귀하는 정부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2.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단축 또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
- 3. 개별돌봄인력(베이비시터)의 인력관리
- 4.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질 제고
- 5. 비용지원(보육료, 유아학비지원, 부모급여 등)
- 6. 공공 보육·교육시설(국공립 어린이집 등) 확충
- 7. 출산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시설(산부인과 및 소아과) 확충
- 8.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9.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충
- 10. 기타()

문51.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 사회적 친분관계는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가구의 경제적 수준	1	2	3	4	5
2. 여기생활	1	2	3	4	5
3. 주거환경	1	2	3	4	5
4. 기 족 관계	1	2	3	4	5
5. 사회적 친분관계	1	2	3	4	5
6. 자아성취	1	2	3	4	5
7.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1	2	3	4	5

문52. 자녀를 출산한다면 다음의 항목에서 귀댁의 생활은 어떻게 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내매짐	조금 내매짐	변함 없음	조금 좋아짐	매우 좋아짐
1. 삶의 경제적 여유					
2.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시간활용의 자유)					
3. 사회적 평판					
4. 이웃과의 어울림					
5. 일에서의 성공 (직장에서의 기회 등)					
6. 마음의 안정감					
7. 삶의 재미					

문53. 귀하는 자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다음 문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목	매우 그러함	그러함	塘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1) 아이를 키우는데는 돈이 많이 든다					
2) 아이가 있는 집은 행복해 보인다					
3) 아이가 있는 집은 바빠 보인다					
4) 아이를 키우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다					
5) 아이들은 다루기 어렵다					
6) 아이를 키우는 시람은 또래보다 성숙하다					
7) 아이를 키우며 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렵다					
8)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9)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해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많다					
10) 아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낳지 않는 것이 좋다					

문54. 본인 결혼 당시와 현재 사회경제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향후 10년에는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위치일거라 예상하십니까?

문54-1. 결혼 당시의 사회경제적 위치		문54-2.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치		문54-3. 미래의 사회경제적 위치	
	① 상상	① 상상 ② 상중 ③ 상하		① 상상	
상층	② 상중		② 상중	상층	② 상중
	③ 상하		③ 상하		③ 상하
	④ 중상	ర ెన్	④ 중상	중층	④ 중상
중층	⑤ 중중		⑤ 중중		⑤ 중중
	⑥ 중하	⑥ 중하		⑥ 중하	
	⑦ 하상		⑦ 하상		⑦ 하상
하층	하층 ® 하증 9 하하	8 하중	하층	⑧ 하중	
		(9) 하하		(9) 하하	

[연구참여 설명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C형 설문 참여에 대한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는 현재 기혼 상태이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가구의 소비실태 및 향후 출산 의향,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여, 저출산 대응 및 육아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문과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중요합니다. 아래의 설명은 귀하가 이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예정이며,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현재 기혼 상태이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가구의 소비실태 및 향후 출산 의향,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여, 저출산에 대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영유아 가구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 **대 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현재 기혼 상태이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20~44 세의 여성으로, 전국 8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합니다.
- 연구의 참여 절차 : 귀하는 조사업체(한국리서치)가 온라인으로 공지한 모집 공고를 통해 조사에 참여하셨습니다. ① 귀하는 별도의 면접원과의 면담 없이 이메일이나 웹을통해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② 다만, 응답이 10일 이상 완료되지 않거나중도에 응답을 포기하셨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희 조사원이 전화(문자) 혹은 이메일 등을통해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질의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적절한 조치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조사를 완료하기까지 평균 25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 여 기 간**: 조사는 2023년 6월~8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1회 조사 참여 를 요청받을 것입니다.
- **장** 소 : 귀댁 또는 귀하가 편하게 조사에 응하실 수 있는 장소에서 이메일이나 웹에서 스스로 응답을 하신 후 조사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 본 조사에서는 참여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이익: 귀하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 및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높아질 수 있으며, 국가의 임신, 출산 지원 정책, 주거 지원 정책, 육아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조사는 설문 응답 시간이 25분 이상으로 다소 길고 상세한 가계소득과 지출액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응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취업 관련 정보, 연락처 등의 정보입니다. 연락처는 사례비 지급, 응답자 관리, 응답 정보 확인 등에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기타수집된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익명화된 상태에서 사용되며, 개인 정보 및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육아정책연구소와 조사업체의 저장장치에 보관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 조사업체 데이터 담당 연구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진과 조사업체 담당자는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연구자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 **제3자 정보제공** :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 조사로부터 수집된 원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 책임자의 연구실 내에 2032년까지 보관되며, 이후 폐기됩니다.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으나 조사를 중단할 경 우 조사에 대한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사 중단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수집 된 모든 정보는 중단 즉시 폐기됩니다. 만일 귀하가 본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설문 응답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 **연구 문의** :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 책임연구자: 최효미 전화번호: <u>02-398-7771, 이메일: hmchoi@kicce.re.kr</u> * 근무시간(09:00~18:00) 외 전화하실 경우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됩니다.
 - 한국리서치 담당자: 김지은 책임, 전화번호: 02-3014-1055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 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398-7761 irb@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계획서에 대한 심의 그리고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참여 동의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참여 동의서 - C형 설문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연 구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개 인정보 제외)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 처리 후 익명화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O로 표시하고, 확인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성 명	연구 참여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날짜	확인
				(서명/인)

* 연구대상자가 직접 작성

조시원 또는 책임자 성명	날짜	확인	(서명/인)
------------------	----	----	--------

- ※ 본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연구자: 최효미 전화번호: 02-398-7771, 이메일: hmchoi@kicce.re.kr
 - * 근무시간(09:00~18:00) 외 전화하실 경우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됩니다.
- 한국리서치 담당자: 김지은 책임, 전화번호: 02-3014-1055
-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2-398-7761

육 아 정 책 연 구 소

영유어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